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12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제12호

차례

그래도 ‘이다’는 기능동사이다	목정수	7
최근 우리 언어학계가 관심하고 있는 언어 연구방향과 이룩한 성과	문영호	2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오류에 관한 연구	하동매	35
The Honorifics System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Lucien Brown	59
On the importance of animacy and agency effects in the Korean diathesis system	Stefan Lorenz Knoob	91
외국문학의 영향과 서정소설	김경선	111
한(조선)반도의 재래설화와 중국조선족 구전설화의 전파관계 연구	김동훈	125
“만주” 이주민 소설의 공간연구 - 조선, 한국, 중국 조선족의 작품 비교를 중심으로	서영빈	151
The Role of Keijō Imperial University in the Formation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The Case of Kuunmong Studies	Yu, Myoung-In	165
韓中日 3국 학계의 『朝鮮策略』 연구현황 및 『朝鮮策略』 여러 異本の 考證과 校勘	權赫秀	199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rt and Architecture in Sokpulsu in Korea and Ajanta in India	Santosh K. Gupta	215

Meaningful Commodities - Mirrors, merchandise and market policies in the Koryŏ period	Charlotte Horlyck	239
함석헌: 군사주의·국가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길	박노자	257
일본 총련계 민족학교의 민족어교육에 대해 - 우리말 교육의 성과와 규범의식을 중심으로	김미선	277
한국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의 특성 -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가치와 태도를 중심으로	최옥채	299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s in South Korea	Hong, Jun-Sung	317
" <i>I am a Kirogi mother</i> " Globalization, Familism, and English education in Korean Immigrant women	Lee, Hak-Yoon	331
북일 무역의 현황과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배광웅	353
Sunshine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and Issue of Korean Identity	Sandip Kumar Mishra	367

그래도 '이다'는 기능동사이다

목 정 수

서울시립대학교

1. 들어가기

현행 통용되는 한국어 문법을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면, 남한에서는 학교문법에서 '이다'의 '이'를 서술격조사로 북한에서는 '이다'의 '이'를 바꿈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사와 어미를 나누어 기술하느냐 양자를 통합적으로 토로 묶어 기술하느냐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문법관이 달라지지만, '이다'를 격조사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겠다.¹ 본고는 이러한 주류 입장과는 달리, '이다'는 용언의 차원에서, 구체적

1 김형규(1968: 190-191)의 다음 구절도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아마도 이들 낱말이 영국인의 언어의식에 반영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말 조사 ‘이, 을, 에게’들이 반영되는 것과 같은 정도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서구 사람들이 우리말 조사를 볼 때, 이를 Postposition이라고 부른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의 체언은 오직 실질적 의미(substantive meaning)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형식적 의미(formative meaning)를 가지지 못했다. 여기에 ‘이, 을, 의, 에게, 이(다)’들의 조사가 붙어야 비로소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또는 서술어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성분을 말할 때는 체언에서 조사를 떼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품사론(morphology)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 꽃’들 체언 그 자체가 하나의 낱말임이 틀림없다. 여기에 이들 낱말 즉 체언과 조사의 문법적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굴절어였던 것이 체언에서 차차 굴절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전치사가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 영어의 경우가 우리에게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으로는 ‘기능동사’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² 더 나아가, 남한에서 ‘이다’를 둘러싸고 갈라져 있는 여러 견해—접사설, 주격조사설, 형용사설 등등—를 ‘기능동사설’로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이다’는 접사도 아니고 주격조사도 아니라는 점과 ‘이다’를 용언(=기능동사)으로 봐야 전체적인 문법 기술이 일관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니다’의 내적 구조에 대한 공시적 분석에서 나온다. 한국어의 부정법(negation) 형성의 기제가 ‘아니다’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아니다’에는 ‘안’ 또는 ‘아니’라는 부정부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 따라서 ‘안’이나 ‘아니’ 뒤에 오는 ‘이다’는 결국 용언(=기능동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른 논거는 정도부사의 수식범위를 통해 ‘Y-이다’ 구성이 통사적 구성임을 밝히는 데서 비롯된다. ‘이다’가 통사적 단위인 것이 밝혀진 이상, 그리고 ‘이다’가 보이는 활용이라는 형태론적 현상을 감안하면 더욱더 ‘이다’는 기능동사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부정문과 ‘아니다’

2.1. ‘아니다’는 ‘안+이다’인가 ‘아니+이다’인가?

임흥빈(2005)과 시정곤(2005)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아니다’는 ‘이다’와 분명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은 직관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³ 그렇다면 문

2 이러한 논거는 목정수(1998)에서 제시된 이래로 목정수(2007)를 통해 보완되어왔다. 본고는 제8차 코리아학 국제학술 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목정수(2007)로 학회지 『어문연구』에 실었기 때문에, 버전을 달리해서 목정수(2007)와 차별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로 인해 논지는 거의 같게 유지되었고, 논의도 다소 중첩되었음을 밝힌다.

3 김정대(2006)과 송창선(2007)은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 양상이 똑같다는 형태론적 논거를

법 차원에서 그들의 상관성이 어디에서 유래하느냐를 정확히 밝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니다’를 단순히 하나의 어휘로 취급할 수 있다 해도, 이론적으로 그것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하튼 ‘이다’와 ‘아니다’의 상관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아니다’의 내적 구조가 드러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 상관성은 긍정문과 부정문 쌍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임홍빈(2005)의 지적이나 시정곤(2005)의 언급을 넘어서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 사항은 그들도 목정수(2003)에 서와 마찬가지로 ‘이다’와 ‘아니다’를 평행한 차원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인이 동의하는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아니다’가 ‘이다’의 부정형(negation form)이라면, ‘아니다’에는 부정의 뜻을 전달/담당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안’ 아니면 ‘아니’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논증된다면, 부정부사 ‘안’이나 ‘아니’ 뒤에 놓이는 ‘이다’는 당연히 용언, 정확히는 기능동사일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우리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펼쳐보자. 먼저 다음과 같은 대립쌍을 통해 긍정문과 부정문의 형성이 단형 부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 (1) 가. 자다 - 안 자다
나. 놀다 - 안 놀다

통해 이들이 동일한 품사—이들의 주장으로는 형용사가 된다—로 묶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상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 4 전통적인 품사 구분에 따라 ‘이다’를 ‘기능형용사’라 한다면, ‘아니다’는 자동적으로 부정의 ‘기능형용사’가 될 것이다(임홍빈 2005 ; 송창선 2007). 여기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고 이를 용언으로 묶는 전통적 품사 분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본고의 입장은 용언이라는 것이 결국 동사적 차원의 어휘요소라는 점이고 이를 동사라는 일반언어학적 용어를 취한다면 기존의 형용사는 ‘주관동사’와 ‘기술동사’로 다시 명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다’를 ‘기능형용사’라 하지 않고 ‘기능동사’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다. 가볍다 - 안 가볍다⁵

라. 덩다 - 안 덩다

이러한 부정문의 형성 기제는 일반적으로 기능동사로 인정받고 있는 ‘하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가. 연구하다 - 연구 안 하다 - 연구 못 하다

나. 계집질하다 - 계집질 안 하다 - 계집질 못 하다

(3) 가. 조용하다 - 조용 안 하다 - 조용 못 하다 cf. 안 조용하다

나. 정숙하다 - 정숙 안 하다 - 정숙 못 하다 cf. 안 정숙하다

그렇다면 ‘아니다’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것이 ‘이다’의 부정문이 확실하다면, 그 내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다 - 안 이다 (→ 아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아니다’의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이다’ 관

5 한국어의 소위 단형 부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기존 전통문법이나 규범문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과 현재 공시적으로 느껴지는 언어현실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안’을 ‘아니’의 준말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공시적으로 볼 때 현대국어에서 ‘안’과 ‘아니’는 단순한 준말의 관계가 아니라 그 문체적 의미 차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는 별개의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기문·임홍빈 감수 『동아 참 국어사전』에서는 단형 부정사 ‘안’이 형용사-본고의 용어로는 기술동사 또는 주관동사-와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 현대국어에서 형용사의 경우도 단형 부정이 일반적이다. 형용사의 단형 부정은 형용사 어간의 음절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장형 부정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단형 부정은 모든 형용사에 다 적용된다.

(1) 애는 정말 안 예뻐!-예쁘지 않아!

(2) 방이 안 밝다.-밝지 않다.

(3) (?)어찌 안 아름답다 할 수 있단 말인가!-아름답지 않다 할 수 있단 말인가!

(4) (?)하나도 안 재미있다.-재미있지 않다.

런 논의에서 그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것이다. ‘아니다’를 ‘이다’의 부정문의 짝으로 보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논의는 곧바로 ‘아니다’에 ‘안’이 관여하는가 아니면 ‘아니’가 관여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와 직면한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안’도 관여할 수 있고 ‘아니’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시적으로 화자가 ‘안’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를 의도한 것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라는 점,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안 이다’와 ‘아니 이다’가 다 가능하고 그 양 구조에서 표면형 ‘아니다’가 의미의 변경 없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사 ‘안’의 의미가 느껴지는 ‘아니다’는 ‘안 이다’에서 도출할 수 있고, 부정부사 ‘아니’의 의미가 느껴지는 ‘아니다’는 ‘아니 이다’에서 ‘이’의 음운 생략/축약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니다’ 구문에서 우리가 언어 직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부정부사 ‘아니’가 아니라 ‘안’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여 지적하고자 한다.⁶ 다음 두 예문에 들어가 있는 ‘안’과 ‘아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5) 가. 먹기도 뭐 하고, 안 먹기도 뭐 하고 해서 그냥 남 쥐버렸어.
나. 아니 먹더니 살이 쩍 빠졌구먼 그려.

‘아니다’를 ‘안+이다’로 분석하든, ‘아니+(이)다’로 분석하든, 부정부사 ‘안’과

6 이선웅(2000)에서는 어휘화된 ‘아니다’를 공시적으로 ‘아니+이다’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황화상(2005)에서는 ‘아니다’ 구문이 부정극어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아니다’는 공시적으로도 ‘아니+이다’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맞서고 있다. 반면에 본고의 입장은 ‘아니다’의 내적 구조를 다시 공시적인 차원에서 ‘안+이다’로 분석해야 ‘아니다’의 통사와 의미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선웅(2002)와 달리 ‘아니+이다’ 구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고는 ‘아니+이다 → 아니다’와 ‘안+이다 → 아니다’는 별개로 파악하여 둘 다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하여, ‘아니다’가 ‘안+이다’로 분석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기능동사로서의 ‘이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함이다. 결국, ‘이다’를 (통사적/어휘적)접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아니’가 ‘이다’에 첨가/부가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다’와 ‘아니다’ 구문은 기본적으로 같은 통사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따라서 ‘아니다’를 공식적인 시각에서 두 가지 중의적인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⁸

(6) 가. 안 + 이다 → 아니다

나. 아니 + 이다 →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6 가)의 ‘아니다’는 ‘이다’와 그에 붙은 부정부사 ‘안’이 연음된 것이고, (6 나)의 ‘아니다’는 부정부사 ‘아니’와 ‘이다’의 결합에서 ‘이’가 모음충돌 환경에서 탈락되어 도출된 결과이다.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6 나)의 경우에 ‘이’가 탈락되어 도출된 결과로 ‘아니다’가 된 것이라면 부정부사 ‘아니’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 (7 가)처럼 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가. 그는 선생이 아니^이올시다. → 아니(이)올시다.

나. 그는 선생이 안^이올시다. → 아니올시다.

문체상 ‘아니다’ 자체에서 ‘아니’의 의고체적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한, ‘아니다’는 ‘안+이다’로 분석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만,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를 자연스럽게 통합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7 송창선(2007)에서도 본고와 세부 사정은 좀 다르지만, ‘이다’와 ‘아니다’의 통사 구조가 같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8 통시적으로 ‘아니’만 존재했던 시기에 비해, 현 시기는 ‘아니’와 ‘안’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아니다’에서 ‘아니’와 ‘안’을 분석해 내는 것은 둘 다 가능하다. 다만, 그 차이가 의미와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2.2. 반론과 변론

‘아니다’의 내적 구조를 ‘안+이다’ 또는 ‘아니+이다’로 분석할 수 있다는 본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반론은 ‘아니+이다’의 결합형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맞닿아 있다. 둘째 반론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아니다’를 ‘안+이다’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형 부정부사 ‘안’이 도입되기 이전에 ‘아니+(이)다’가 ‘아니다’로 어휘화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⁹

이러한 반론에 대해 우리의 변론은 다음과 같이 펼쳐진다.

첫째, 공식적으로 용언의 부정 표현으로는 동사(=행위동사)나 형용사(=기술동사, 주관동사)의 하위분류에 상관없이 단형 부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각주 5)에서 언급한 바 있다.

9 ‘아니(이)다’에서의 ‘아니’를 중세국어에서 ‘아니’가 부사가 아니라 명사였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부사+이다’ 구성이 아니라 ‘부정명사+이다’ 즉 이중/다중 주어 구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안병희, 1959). 이현희(1994)와 『우리말큰사전4옛말과 이두』에서도 중세국어 ‘아니’의 명사적 용법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보이고 있다.

- (1) 모든 사람 아니는 얼굴 잇느니와……想 업스니를 ㄱ르치시니 <능엄경언해 6:22>
- (2) 이 들히 둘 아니를 일후미 空相이라 <심경 38>
- (3) 法의 제 性이 아로미 ㄷ외느너 아로미 아니가 <능엄경언해 3:33>
- (4) 갓 ㄱ로 ㄱ로 諸法 有無와 이 實이며 實 아니와 이 생이며 생 아니를 ㄱ르히느니 <법화 5:30>
- (5) 숲가락 아닌 거스로 숲가락 가줄비듯 ㅎ야 <능엄 2:61>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중세국어의 ‘아니’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주로 언해문에 국한되어 있는 듯하다. 변역 특히 직역의 과정에서 ‘아니’가 표면적으로 명사처럼 쓰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발화문에서 ‘아니’는 대개 부정부사로 사용되었다. 또한 ‘아니’가 명사라는 근거를 ‘아니’에 조사 ‘는, 를’ 등의 조사가 붙었다는 데서 찾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조사 ‘는, 를’은 부사어에도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다음을 고려해 보자.
- (6) 가. 빨리를 달렸더니, 금새 따라잡을 수 있더라구.
나. 도무지가 돼먹지가 않았어.
다. 당신이 너무도 그리워서 미쳐버리겠습니다.

- (8) 동사(=행위동사)
 가.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
 나. 눈물은 아니 흘렀노랴.
- (9) 형용사1(=주관동사)
 가. 이 어찌 아니 슬플쏜가.
 나. 당신을 봐도 아니 기쁘오.
- (10) 형용사2(=기술동사)
 가. 백두산을 보고 아니 높다 하랴.
 나. 그래도 하늘이 태산보다 아니 높을쏜가.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이다’가 그것의 형용사성 때문에 ‘아니’와 결합이 제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와 ‘이다’는 통사적 결합이 구조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둘째, 단형 부정사 ‘안’의 출현이 19세기 말에 와서야 문증이 되고 있고,¹⁰ 중세국어 자료에서 ‘아니’와 ‘이다’의 연쇄형이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아니+이다’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이다’뿐만 아니라 ‘아니+이다’의 구조를 상징하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다’는 기능동사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데는 확실한 몇 가지 근거가 찾아지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아니다’가 ‘아니+이다’가 어휘화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시적으로 ‘아니다’에서 도출되는 부정의 일반적인 의미는 부정사 ‘아니’가 아니고 ‘안’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대국어 자료인 석독구결에 명사 부정문에서 [명사 + 부정사 안디 + ㅁ]의 형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¹¹ 이러한 근거에 힘입어, 우리는 중세

10 이지영(2004, 2005) 참조. 그러나 다음을 보면 부정부사 ‘안’은 18세기 후반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어 부정사 ‘안’의 출현 시기는 조금 앞당겨진다.

(1) 지조 비호고 能히 말 못흐면 錦繡를 안 믿들며 蘭草를 우물에 심으기에서 다름이 업스 나라 (1790 첩해몽어 1:15)

11 박진호(1998: 143-145), 이용(2003: 252-253) 참조.

국어에서도 ‘아니+이다’의 구성이 구조적으로는 허용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아니+이다’의 결합형은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가능한 구조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대국어에서는 부정사 ‘아니’가 19세기 말에 와서 출현한 신형의 부정사 ‘안’과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의고체의 문체적 의미를 획득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인 것이다. 따라서 의고체적 의미로 읽히는 바로서의 ‘아니다’는 ‘안+이다’가 아니라 ‘아니+(이)다’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없이 일반적인 부정의 의미만 읽히는 ‘아니다’는 ‘아니+이다’의 어휘화 결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이다’에서 도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 해보자. ‘아니다’가 ‘아니+이다’ 구조에서 재구조화되어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에 ‘아니’의 의고체적인 문체적 의미가 유지되는 선에서만 가능할 것인데, 공시적으로 ‘아니’의 의고체적 의미가 읽히거나 감지되지 않으면서 부정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아니다’의 부정 의미는 그 속에 부정부사 ‘안’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다’의 어휘에는 부정부사 ‘안’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니+이다’나 ‘안+이다’의 내적 구조가 밝혀진 셈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안+이다’가 ‘아니다’의 당당한 실체인 것이고 부정부사 ‘안’과 직접 결합하고 있는 ‘이다’는 부정문 형성의 기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치에 출현하는 ‘이다’는 결국 그것의 문법적 위상이 동사적 차원의 어휘요소 즉, 기능동사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이다’ 구성과 부사 수식

목정수(2007a)에 따르면, ‘X-하다’ 구성은 통사론적 구성체로 다루어져야 한다. ‘X-하다’를 하나의 어휘단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X’와 ‘하다’의 결합을 통

사론적 구성으로 보아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Y-이다’ 구성도 이에 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Y-이다’ 구성 자체가 하나의 어휘라면 그 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다’를 파생접사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표면적으로 ‘Y-이다’ 구성에서 수식어로 관형사가¹² 오는 것은 ‘Y-이다’를 하나의 어휘, 즉 용언으로 보는 것과 충돌한다. 다음 예문에서 관형사 ‘무슨’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말이다’라는 용언 전체가 될 수 없다. ‘무슨’, ‘어떤’은 각각 ‘말’, ‘사람’하고만 통사적 결합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관형사와 명사의 수식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기본 질서이다.

(11) 가. 무슨 말이야?

나. 저 친구 어떤 사람이기에 이 모양이야?

다른 한편, ‘Y-이다’를 하나의 용언으로 보는 측의 주장은 그 앞에 정도부사가 올 수 있다는 데 기대고 있다. 정도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지 명사와 수식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어, 다음 예의 구조를 [[아주 미인] [이다]]의 구조가 아니라 [아주 [미인이다]]의 구조로 보아야 하고, 그렇기에 ‘Y-이다’는 형태론적 구성이며, 이때의 ‘이다’는 (통사적)파생접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12 목정수(2003)의 품사 체계에 따르면, 관형사 ‘무슨’은 ‘형용사’ 범주로 통합된다. ‘X-적’ 단위를 예로 들어 설명을 빼풀어 보자. ‘X-적’ 단위에 대해 전통적으로 명사와 관형사로 분리하거나 품사 통용으로 기술해 온 것이 사실이나(서태룡(2006)), 본고에서는 그 단위의 형태·통사적 행태를 기준으로 ‘형용사’로 통합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추상적 개념’과 ‘개념이 추상적이다’에서 ‘추상적’이 이질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이러한 환경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형용사’의 지위를 갖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즉, 전자는 형용사 ‘추상적’의 수식적 용법이고, 후자는 형용사 ‘추상적’의 서술적 용법인 것이다. 앞으로 ‘형용사’라고 표기한 것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예쁘다’, ‘춥다’ 등의 형용사는 기술동사나 주관동사로 재분류된다. 이에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 (12) 가. 아주 미인이다.
나. 매우 미인이다.

(11)에서는 ‘무슨’이라는 관형사 수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12)에서는 ‘아주’라는 부사 수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역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Y-이다’ 구성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Y-이다’를 비롯하여 ‘X-하다’ 구성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던 목정수(2007a)에서는 ‘X-하다’와 ‘Y-이다’ 구성은 형태론적 구성이 아니라 통사적 구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형사의 ‘Y’에 대한 수식 가능성이 설명될 수 있고, ‘Y’와 ‘이다’의 통사적 결합에서 ‘Y’의 내적 구조와 의미해석의 정립을 통해서 정도부사 수식의 가능성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일견 모순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논의가 시도된 바 있는데, 황화상(1996, 2005)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그는 통사적 접사 ‘이다’가 어휘부에서 선행어간의 핵 이동(head movement)을 통하여 결합되어 어휘를 구성하게 되고, 이 결합체는 [+N, +V] 자질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1)의 관형사 수식은 명사적 자질 때문에 가능하고, 서술어 기능은 동사적 자질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웅(2000)과 더불어 시정곤(2005)에서는 동사적 자질을 갖고 있다면 부사의 수식도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시한 예가 다음 (13)이다.

- (13) *철수는 훌륭히 학생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부사 수식 가능성을 따질 때 들고 있는 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즉, (13)의 예에서 ‘훌륭히’는 기본적으로 ‘학생이다’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훌륭히’는 동사 ‘먹다’ 등의 행위동사나 ‘예쁘다’ 등의 기술동사(=성상형용사), ‘춥다’ 등의 주관동사(=심리형용사)와도 수식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통사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 (14) 가. *철수는 훌륭히 먹었다.
- 나. *철수는 훌륭히 예쁘다.
- 다. *철수는 훌륭히 추워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다’ 구성에서 부사의 수식은 ‘아주’, ‘굉장히’, ‘짱’, ‘되게’ 등의 정도부사(degree adverb)에 의한 것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도부사는 [+행위성] 자질의 동사와는 결합되기 힘들다. 다음 예를 통해 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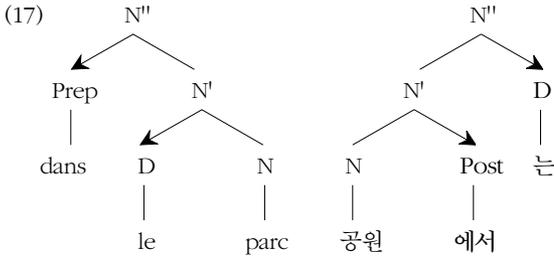
- (15) 가. 철수는 아주 부자이다.
- 나. 철수는 굉장히 천재이다.
- 다. 철수는 되게 명청이다.
- 라. 철수는 완전 백수건달이다.

- (16) 가. ??철수는 아주 *²(많이) 먹는다.
- 나. ??철수는 굉장히 *²(잘) 노래한다.
- 다. ??철수는 완전 *²(못) 논다.

따라서 (13)에서 제시된 것처럼, ‘철수는 훌륭한 학생이다’에 대해 *철수는 훌륭히 학생이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통사적 차원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다’가 용언인데도 ‘훌륭히’라는 부사(어)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통사적 지위에 따른 결합 제약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히’와 ‘학생이다’ 사이의 의미적 충돌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주’가 ‘Y-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구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사 수식 범위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사가 용언(=동사/형용사)을 꾸며주는 것으로 본다면, ‘아주 부지는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아주’는 [[아주] [부자가/는/도 아니다]]에서처럼 [부자가 아니다] 전체를 꾸미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아주’가 꾸미는 대상인 [부자가 아니다]를 어휘부에서든 통사부에서든 어휘화된(lexicalized) 것(=용언)으로 봐야 할 것인데, 우리의 직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부자가 아니다’, ‘부지는 아니다’가 하나의 어휘라는 점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주’라는 정도부사가 ‘부자가 아닌’ 상태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읽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Y-이다’ 구성의 내부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해결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단초는 목정수(1998)에 이미 나와 있다. 그것은 명사구의 확장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의 명사구 확장구조란 한국어 조사 실현 체계를 말한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어 조사는 두 차원에서 질서정연하게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나의 차원은 명사에 바로 이어 실현되는 차원으로서 논항으로서의 명사와 서술어와의 통사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직능과 관련된다. 이를 후치사(postposition)라는 범주로 명명할 수 있다. 여기에 ‘에, 에서, 로, 와’ 등의 조사를 배치할 수 있다. 다른 차원은 논항으로 주어진 명사를 화자가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느냐 하는 양태(modality)와 관련된 문법 의미가 실현되는 차원으로서, 그 위치는 후치사 뒤에 놓이는 제약이 있다. 명사구 확장의 끝 지점에 놓인다. 명실공히 한정사(de-termin-er)가 되는 것이다. ‘가, 를, 도, 는, (의)’의 부류가 바로 그것이다. 인구어와의 비교론적 시각에서 말하자면, 후치관사라 할 만하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명사구 확장구조를 염두에 두고 부사의 수식범위와 피수식어의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주’ 같은 정도부사는 용언으로서의 형용사 즉, ‘동사성 형용사(verb-like adjective)’뿐만 아니라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즉 ‘명사성 형용사(noun-like adjective)’도 꾸며 줄 수 있다. 그런데 ‘Y-이다’ 구성에서 ‘Y’ 자리에 오는 명사는¹³ ‘속성적 의미’,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gradable) 의미’로, 즉 ‘형용사’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아주’는 ‘Y-이다’ 구성에서 ‘Y’를 수식하는 것이지, ‘Y-이다’ 전체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게 된다.¹⁴ 더욱이 ‘Y-가 아니다’에서도 ‘아주’가 ‘Y-이다’에서처럼 평행하게 유지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음 예 (18 나)에서 ‘아니다’에 의해 일어나는 부정의 영역 전체와 ‘아주’가 관계를 맺는 해석—[[아주] [부자는 아니다]]—보다는 ‘아주’가 ‘부자’와 맺는 의미관계에 부정 ‘아니다’의 수식범위가 걸쳐 있는 것—[[아주 부자는] [아니다]]—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13 그 자체가 논항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위의 명사나 명사적 차원의 형용사에 관계없이 모두 ‘Y-이다’ 구성의 ‘Y’ 자리에서는 속성적 의미로만 해석된다.

- (1) 철수는 선생이다.
- (2) 철수가 살아난 것은 참 다행이었다.
- (3) 참 가관이군요.
- (4) 철수는 철학적이다.

14 목정수(1998)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다’ 구성의 내적 구조 $[N_0-\varphi_1-(\varphi_2/가/는/도) N_1-\varphi_1-\varphi_2]$ 이다에서 정도부사는 $[[N_1-\varphi_1](\varphi_2)]$ 의 짧은 표시 부분과 수식관계를 맺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후술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잘 설명되는 것이다.

(18) 가. 영화는 아주 부자이다.¹⁵

나. 영화는 아주 부자는 아니다.

다음 부정문에서도 부정의 수식범위가 전체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 ‘[[아주 귀엽지는] [않다]]’, ‘[[아주 유명한] [안 하다]]’, ‘[[아주 철학적인] [아니다]]’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19) 가. 영화는 아주 귀엽다.

나. 영화는 아주 예쁘지는 않다.

(20) 가. 영화는 피아니스트로 아주 유명(하다)

나. 영화는 피아니스트로 아주 유명은 (안) 하다.

(21) 가. 영화는 아주 철학적이다.

나. 영화는 아주 철학적인 아니다.

이러한 통사 구조를 상정하게 되면, 부사는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부사는 명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고 명사 수식은 관형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통사 원리를 지키면서도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문법에서 채택되고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예외적 존재로서의 부사, 즉 ‘명사 수식 부사’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관규 2002: 169-170).

15 [부자이다]에서 ‘부자’는 ‘이다’ 구성에서 술어(predicate) 자리에 나타나고 그의 의미해석에 따라, 개체 명사인 ‘a rich man’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속성 형용사인 ‘rich’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목정수(1998, 2006b)에서는 ‘이다’ 구성을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22) ‘이다’의 구성의 기본 구조

[N0- φ 1- φ 2/가/는/도 N1- φ 1- φ 2-이다]

이러한 ‘이다’ 구성의 내적 기본 구조를 토대로 부사 수식의 문제를 풀어보자. 위 (22)의 구성에서 정도부사 ‘아주’는 [[N1- φ 1]- φ 2]의 굵은 표시 부분과 수식관계를 맺는다. 그에 비해 관형사나 관형사절은 [[N1- φ 1]- φ 2]의 굵은 표시 부분과 수식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봄으로써 관형사는¹⁶ 명사에 걸리고, 부사는 부사와 非명사—용언(동사와 형용사)—에 걸린다는 통사적 원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22)의 구조를 세밀히 살펴보면, 관형사는 명사 자체—N1—와 수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명사에 붙는 문법 요소들은 바로 이러한 ‘관형사+명사’ 구성 즉, NP 구성 전체에 교착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 격조사 ‘로’는 ‘철수가 좋아하는 책’ 전체에 교착되는 것이고 한정조사(determiner) ‘는’은 다시 그 전체 ‘철수가 좋아하는 책’에 교착되는 것이다.

(23) [철수가 좋아하는 책]—으로—는

그에 비해 [[N1- φ 1]-(φ 2)]에서 굵은 표시가 되어있는 것은 명사가 문장의 성분으로서, 즉 랑그(langue)에서 담화(discours) 층위로 실현된 단계를 나타낸다. 이는 ‘칼로’나 ‘언어학적으로’, ‘마당에서’나 ‘친구와 (함께)’처럼 **부사어 성분과 실현 층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층위에서 실현된

16 관형사란 용어를 본고의 시작에서는 ‘형용사’라고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관형사의 명사 수식은 ‘형용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다.

성분은 의미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관형사가 아닌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형사(절)는 용언과 결합할 수 없고, 부사는 체언과 결합할 수 없다는 한국어의 일반 통사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명사 앞에 선행하는 정도부사와의 관련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4) 관형사절(=형용사절)의 명사 수식

가. 어려운 춤 ↔ *어려운 추다.

나. 힘이 든 놀이 ↔ *힘이 든 놀다.

(25) 관형사(=형용사)의 명사 수식

가. 새 신발 ↔ *새 신다.

나. 온갖 놀이 ↔ *온갖 놀다.

(26) 부사의 형용사성 명사¹⁷ 수식

가. 꽤 유명(하다) ↔ *꽤 책상

나. 아주 부자(이다) ↔ *아주 책상

(27) 부사의 용언 수식

가. 아주 깊다.

나. 아주 아름답다.

다. 아주 기쁘시다.

따라서 목정수(2003)에서 시험적으로 제시했듯이, ‘굉장한 부자이다’와 ‘굉장히 부자이다’의 통사적 구조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¹⁸

17 여기서 형용사성 명사라 함은 본고의 시각에서 ‘형용사’로 새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기존 품사 체계에 따라 명사로 구분했고, 그것의 구분자로 ‘형용사성’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18 ‘굉장히’라는 정도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부자이다’를 용언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부자이다’를 명사 ‘부자’가 파생접사 ‘이’에 의해 용언으로 파생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한 부자이다’의 ‘이다’와 ‘굉장히 부자이다’의 ‘이다’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통사적 구성의 ‘부자이다’와 어휘차원의 ‘부자

(28) 가. [[평장한 부자- φ_1 - φ_2]이다.

나. [[평장히 부자- φ_1 - φ_2]이다.

정도부사가 후행하는 술어 위치에 나타나는 보어라는 성분과 통사적 결합 관계에 놓인다는 것, 즉 보어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 자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N_1 - φ_1 - φ_2]]에서처럼 통사적 기능을 획득한 단계에서의 [N_1 - φ_1] 성분과 결합된다는 것은 보어 성분을 요구하는 ‘되다’ 동사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주지하다시피, 현대국어에서 동사 ‘되다’의 제2보어에 나타나는 논항은 일반적으로 [[N_1 - φ_1 - φ_2]/가/도/는]으로 나타난다.

(29) 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나. 철수는 학자가 될 것이다.

다. 저는 선생 되는 것이 꿈이에요.

한편, 북한이나 연변 지역에서는 동사 ‘되다’의 제2보어가 [[N_1 -로]- φ_2]/가/도/는]으로도 실현되는 것이 허용된다.¹⁹

(30) 가. 철수는 부자로 되었다.

나. 너 같이 해서는 대통령으로는 되기 힘들 거야.

(30 가)의 경우에, 정도부사 ‘아주’ 수식이 가능한데, 이때 ‘아주’는 ‘부자’라는 명사가 아니라 ‘부자로’라는 보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아주’가 동사 ‘되다’를 수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다’로 나누는 것은 끝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그런 논의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19 필자는 문어에서만뿐만 아니라 구어에서도 ‘Y-로 되다’ 구성이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국제고려학회와 SOAS 런던대학이 주최한 제8차 코리아학 국제학술 토론회(2007년 8월 15일-17일, 런던)에서 문영호 교수를 비롯한 북한학자들과 장흥권 교수를 위시한 중국 조선족학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31) 가. 철수는 아주 부자로 되었다.

나. *철수는 부자로 아주 되었다.

결국, ‘아주’에 의해 수식되는 것은 [[아주 [부자- ϕ_1]]가 되대와 [[아주 [부자-로]- ϕ_2] 되대에서 보듯이, 표면 형식은 다르나 그 보어의 실현 층위는 같은 [부자- ϕ_1]와 [부자-로]라는 점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나가기

어떤 이론에 입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언어자료에 대해 느끼는 직관은 꼭 같을 수는 없지만, 그 공통된 직관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다’ 구성과 ‘아니다’ 구성이 유지하는 긍정문과 부정문의 이원대립 체계에 대한 직관도 그 중 하나이다. ‘부자가 아닙니다’에서 느껴지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 했을 때 그 의미를 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형 부정부사 ‘안’이라는 점도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또 다른 공통된 언어직관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아주 부자가 아니다’에서 ‘아주’가 ‘부자가 아니다’ 전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자가] 구조처럼 후행하는 ‘부자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론적 직관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데 ‘굉장한 부자이다’에서는 ‘굉장한 부자’가 직관적으로 한 단위로 묶이는데, ‘부자이다’를 하나의 통사 단위로 보면 기이한 현상이 되고 만다. 이처럼 직관과 기존 통사 현상에 대한 인식들이 모순으로 비취질 때, 이를 일관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인식들을 어떻게 고안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다’ 관련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던 ‘아니다’의 내적 구조에 대해서, ‘아니다’는 공시적으로 ‘아니+(이)다’뿐만 아니라 ‘안+이다’로도 분석 가능함을 밝혔고, ‘이다’ 구성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이 통사적으로 ‘Y-이다’ 구성 전체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Y’ 성분—정확히는 [Y- ϕ_1]

에 걸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이다’는 통사적 단위로서 기능동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력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야, 한국어의 일반적인 부정문 생성 체계를 무리 없이 설명해 낼 수 있고, 한국어 통사 단위에 대한 새롭고 일관된 규정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다’를 (통사적)접사나 주격조사로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학교문법에서 ‘이다’가 여전히 ‘서술격조사’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다’는 기능동사일 수밖에 없다는 본고의 결론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식(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452-466.
- 김의수(2002) 「‘이다’ 재론」, 『형태론』 4-2: 349-356.
- 김정대(2006) 「현대 국어 계사 구성의 특이성과 그 이유: ‘이’의 기원형 ‘일’ 설정과 관련 하여」, 『이병근선생 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509-531.
- 김정아(2001)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309-336.
- 김형규(1968) 「국어 품사 분류의 문제점」, 『이승녕 박사 송수기념 논총』, 심악이승녕박사 송수기념사업위원회, 187-195.
- 남길임(2004) 『현대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남풍현(1976) 「國語 否定法の 發達」, 『문법연구』 3, 55-82.
- 목정수(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 245-290.
- _____(2003)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_____(2006a) “A Continuity of Adjectives in Korea : from a prototypical perspective”, 『언어학』 45, 87-111.
- _____(2006b) 「韓國語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正體性: 기능동사 擁護論」, 『어문연구』 132, 55-81.
- _____(2007a) 「형태론과 통사론 사이에: 통사론적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7, 127-147.
- _____(2007b) 「‘이다’를 用言(=機能動詞)으로 分析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어문연구』 136.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철우(2006)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 『한국어학』 32, 235-263.
- 송창선(2007) 「'이다'와 '아니다'의 관련성」, 『2007년 한글학회 국어학 전국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1-146.
- 서정목(1993) 「계사 구문과 그 부정문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488-506.
- 서태룡(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이병근선생 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359-389.
- 시정근(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143-150.
- _____ (2005)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한국어학』 28, 55-80.
- 안병희(1959) 「중기어의 부정어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72-78.
- 엄정호(2000) 「'-이다'의 '-이'는 조사인가」, 『형태론』 2-2, 333-343.
- 양정석(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국어학회, 337-366.
- 우순조(2005)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61-77.
- 이관규(2002) 『개정관 학교』, 도서출판 월인.
- 이선웅(2000) 「현대국어 '(-)이'의 품사 분류와 자릿수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국어학논집』 4, 도서출판 역락, 71-92.
- 이용(2003) 「석독구결에 나타난 否定詞의 機能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249-273.
- 이지영(2004) 「否定副詞 '안'과 否定敍述語 '않-'의 형성」, 『어문연구』 123, 165-186.
- _____ (2005) 『국어의 용언 부정문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 임흥빈(2005) 「정체 밝힘의 '이다' 문제와 언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 조은주(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구결연구』 7, 135-165.
- _____ (2002) 『前期 中世國語의 否定法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치근(2007) 「남북한 토씨의 비교 연구」, 561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한글학회, 13-32.
- 황화상(1996) 『국어 체언서술어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5) 「'이다'의 문법범주 재검토」, 『형태론』 7-1, 135-153.
- Anward, J. (2001) 'Parts of speech', in Haspelmath, M. et al. (ed.)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Bhat, D. N. S. (1999) *The Adjectival Category.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nd*

- identif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Dixon, R. M. W. and A. Y. Aikhenvald (ed.) (2004)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Pustet, R. (2003)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Oxford University Press.
- Schachter, P. (1985) 'Parts-of-speech systems,' in Shopen, T.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gel, P. and Comrie, B. (eds.) (2000)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Berlin: Mouton de Gruyter.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이기문 · 임홍빈(2002) 『동아 참 국어사전』, 두산동아.
- 한글학회(1998)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어문각.

최근 우리 언어학계가 관심하고 있는 언어 연구 방향과 이룩한 성과

문 영 호

사회과학원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화국의 언어학부문에서는 대표작으로 <조선어학전서> 전63권 (사회과학출판사, 2005년)과 <조선말대사전> 전3권 (사회과학출판사, 2007년), <고장이름 사전> 전10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년)을 연구,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 도서들을 우리가 대표작으로 내세우는 것은 여기에 최근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언어과학연구의 방법론과 연구방향, 목적이 비교적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늘 정통언어학과 함께 <현대언어학>이 보급류포되면서 언어연구의 방법론과 분석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언어과학 분야에서는 수많은 학파와 견해,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언어론 발전의 복잡다단한 조류와 환경 속에서 나라의 언어학을 어떤 방향에 중심을 두고 연구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는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욱이 오늘 <국경 없는 문화> 건설과 <다언어공용론>의 세파 속에서 약소민족과 인민의 말과 글이 쇠퇴말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적환경속에서 이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현 시기 세계 언어이론 발전의 합법칙적과정과 복잡해지고 있는 민족어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는 우리 언어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집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말의 글의 단일성과 고유성을 깊이 연구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해결의 기본과제는 하나의 언어문화를 가진 우리 겨레는 반만년의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이며 우리 민족어의 우수성과 민족적 특성을 고수,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곧 오늘의 세계에서 겨레의 언어와 문화,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과학적 방도라는 것을 론증확인하는 데 있다.

학문상에서 이러한 사회, 언어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은 연구대상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는 데 있다.

특히 인문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의 경우에 이 문제는 매우 중시된다. 그것은 연구대상으로서의 인간언어에 대한 관점이 결국은 언어 연구의 방법론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언어에 대한 관점은 언어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흔히 언어를 인간교제의 도구, 부호(신호)의 구조적체계라고 타당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인 사람의 언어를 사회와 사람의 속성과 결부시킴이 없이 순수 자연 물리적 현상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부족하다. 인간의 기원과 함께 창조되고 민족의 형성과 함께 체계화되며 력사 문화와 함께 발전하는 언어는 옹당 사회력사적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언어를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표정,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활동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리해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 하나는 민족의 형성과 룡성발전, 민족적자주권과 존엄 등 겨레의 운명과 직결시켜 언어를 고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호의 구조적 체계에 대한 연구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민대중이 창조하고 보존, 계승하고 있는 언어생

활, 언어문화, 언어유산의 조사, 정리, 연구에 보다 큰 주목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우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말 발전 역사의 단일성과 유구성, 민족적 특성과 우수성을 해명하는 데 힘을 넣었다. 결과 〈조선어음운론〉, 〈조선어단어론〉, 〈조선어어휘론〉, 〈조선어문장론〉과 같은 구조언어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조선말력사〉 1-7권, 〈조선인민의 글자생활사〉, 〈조선어규범변천사〉, 〈조선어력사어음론〉, 〈조선어말력사의미론〉 등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 서술하였다.

둘째, 사람들의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언어교제, 언어행위, 언어생활, 언어응용을 과학화, 이론화하는 데 힘을 넣은 것이다.

인간언어교제와 사회언어생활은 언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여기에서는 언어가 교제의 도구로 리용될 뿐 그 나머지 즉 언어환경과 문맥,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등은 다 비언어적인 것들이다.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언어과학의 분석대상으로 하면 〈교제의 도구인 기호의 체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없으며 학문의 독자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회화환경속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말과 글을 떠난 순수한 〈언어구조〉, 다시 말하여 비언어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호의 체계만을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일면적이다. 왜냐하면 언어연구의 목적자체가 사람들의 언어생활과 언어교제의 본질적 속성과 내부구조를 정확히 밝혀 그것을 효과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 언어체계 역시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연언어의 본질적 속성과 구조, 그의 다양한 변이형태와 련관 관계는 다 인간의 언어구사의 논리적 과정과 언어의미형성과 전달 과정에 표현된다. 이것은 입말을 통한 언어교제에서나 글말을 통한 정보 전달에서 다같이 제기되는 문제인 것만큼 음운과 형태소, 의미 마당과 의미소를 출발개념으로 하여 구조, 문장구조, 문맥구조, 본문구조의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학적 범주들을

해명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여기에서 특히 현대 언어학의 생성문법과 해석의미론, 담화 문법과 화용론, 언어 정보론과 본문언어학이 이룩한 합리적인 자연 언어분석 수법들과 모형들을 적극 탐구하고 전개하는 문제는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다.

자연언어의 본성과 구조해명에 기초하여 사회의 말과 글 특히 학교 교육, 출판보도, 공문서 등을 표준화, 규범화하기 위한 사업은 오늘의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언어생활과 언어교제의 여러 영역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분석체계화하기 위한 언어학적 연구과정에 〈언어생활론〉, 〈조선어명칭론연구〉, 〈조선지명학〉과 같은 새 분과들이 분화되고 〈현대의미론연구〉, 〈조선어의미구조론〉, 〈조선어어휘의미론〉과 같은 현대의미론이 정립되기도 하였으며 언어의 규범화를 위한 〈조선어어휘정리론〉, 〈조선어규범리론〉등이 연구, 집필되었다.

셋째,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에 의한 자연언어 처리 기술과 수리언어학적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다.

컴퓨터공학과 프로그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과학의 빠른 발전, 시공간적제한을 뛰어넘는 언어정보전달의 다량화, 고속화, 무한대하게 급격히 축적되어가는 서지문헌정보의 방대한 지식기지 등은 그 기저에 놓이는 자연언어를 자동처리 할 것을 요구한다. 음성과 문자로부터 시작하여 개별적인 문문과 문건, 도서에 이르기까지의 분석, 합성, 검색, 추출, 번역기술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불가피하게 언어과학과 정보공학, 수학사이의 경계과학은 분화시키게 된다. 〈조선어음성공학〉, 〈조선어문자공학〉, 〈조선어정보론〉, 〈조선어정보검색학〉, 〈기계번역리론〉, 〈조선어확률론〉 등은 다 이러한 과정에 새로 개척된 학문들이다.

자연언어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새롭게 연구, 개척되는 분과들을 보면 그것을 크게 두 부류로 갈라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연언어구조를 자동분석하거나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한 연

구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방대한 언어자료를 자동검색, 축약, 번역하는 데서 나서는 응용언어학적 연구 분야이다. 첫째 부류에서 현 단계의 주목을 끄는 문제는 말소리의 분석과 합성, 문법적 형태 해석기의 개발완성 등이며 두 번째 부류에서 품을 많이 넣고 있는 것은 종합화된 코퍼스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언어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방언과 같은 방대한 언어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체계화, 학술화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이 사업은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리론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의 범위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현대문명이 전면 보급되고 교통과 통신의 발전과 주민류동, 산업개발의 영향으로 언어문화유산의 류실, 오염, 희석이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인민이 수천 년 동안 창조해 놓은 귀중한 언어유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 컴퓨터와 현대적인 녹음사진 설비들에 의거한 언어자료의 조사, 정리, 축적은 이 사업을 과학화, 정밀화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전국의 주민행정 일군들과 대학교원들이 동원되어 언어학자들의 학술적 지도 밑에 지명조사사업이 전면적으로 조사, 완성되었다. 우리 인민이 이 땅에 터를 잡고 살면서 이름 붙여놓은 산과 강, 고개와 골짜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면 현지 조사하는 사업은 참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 조사, 정리된 근 100만여 개의 자연지명과 행정지명, 개별적인 리, 동, 부락 별로 조사, 작성된 지명조사보고서는 참으로 방대하고도 귀중한 언어 유산의 집성체이다.

방대한 전국의 지명이 전면 조사되고 정리체계화 되는 데 따라 <고장 이름사전>(전10권), <지명유래집>(전3권), <지명편람>(전10권), <조선지명연구> 등의 사전과 학술연구 자료들이 출간되었다. 특히 지명을 통하여 전승되는 고

유한 우리말의 옛 모습과 변화과정에 대한 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방언연구와 조사 역시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방언조사는 언어유산으로서의 방언자료수집과 정리목적이 있고, 다른 한편 방언에 입말로 묻혀있는 좋은 고유조선말들을 발굴 정리하여 문화어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는 데도 주요한 목적이 있다.

최근 년간 우리는 고성능 녹음설비에 의한 전국9개 도에 의한 방언조사를 완료하고 그것을 컴퓨터자료화 및 문자전사하는 어려운 일을 마무리하였다. 방언소유자들의 세대교체와 교육과 사회활동을 통한 문화어의 영향이 커지는데 따라 75살 이상의 토착방언제보자를 찾는 일로부터 자연발화, 어휘, 문법, 음운별에 따르는 녹취사업 그리고 섬세하고도 힘겨운 전사작업이 완료됨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의 방언학연구와 언어지리학 연구의 자료적 토대를 훌륭히 마련할 수 있었다.

언어구조와 언어생활, 언어자료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는 국어사전에 반영되고 고착된다.

새 세기의 언어연구성과와 언어구조변이현상, 특히 인민들이 말과 글을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과 의미현상들을 수집반영하고 묻혀있는 고유한 우리 말 자료들을 최대한 발굴정리하여 하나의 언어규범으로 집대성한 <조선말대사전> 전3권은 지금까지의 말사전 중에 가장 크고 구조적으로 정리체계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이상의 연구 성과들이 우리 겨레말의 통일적 발전에서 밑거름으로 되리라고 기대해 마지않는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오류에 관한 연구

하 동 매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

1. 서론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은 차이가 크다. 특히 중국어에는 활용이 없는데 한국어에는 활용이 있기에 한국어 문법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큰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비슷한 의미의 연결어미도 많고 한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뜻도 여러 가지여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고 오류의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고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¹로 나누어 분석한다. 우선 오류의 양상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오류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류의 자료는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2학년 학생들의 쓰기 숙제에서 추출한 것이다. 원인은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 한국어 자체의 어려움 등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 방안 부분에서는 우선 해당 연결어미의

1 이 분류는 남기심·고영근(1985)의 『표준국어문법론』에 의한 것임.

뜻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오류 문장에서 나타난 혼동하기 쉬운 연결어미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용방안을 제시한다.

2. 오류의 분석

2.1. 대등적 연결어미

이 부분에서는 대등적 연결어미 가운데 ‘-고, -(으)면서, -고도’ 등 대표적인 어미를 분석하려고 한다.

2.1.1. -고

(1) 백화점에 가고 선물을 삽니다. (가서)

나는 학교 대문 앞에서 친구와 만나고 서점에 책을 사러 갔습니다. (만나서)

저는 일어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일어나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고’를 썼음.²

원인: 연결어미 ‘-고’와 ‘-어서’는 모두 동작의 선후를 나타내면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고 선후행문이 선후를 나타내는 관계에 있다고 하여 ‘-고’를 썼으므로 오류가 생겼다.

방안: ‘-고’와 ‘-어서’가 똑같이 동작의 ‘선후’를 나타내지만 큰 차이가 있다. ‘-고’로 연결된 동작은 내재적인 연관이 없고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어서’로 연결된 동작은 내재적인 연관이 있어, 뒤의 동작이 앞의 동작의 목적이 되며 앞의 동작을 먼저 진행해야 뒤의 동작을 완성할 수 있다. 위의 문장들은 모두 내재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동작들이기에 ‘-어서’를 써야 정확하다.

2 이때의 ‘-어서’는 ‘선후’를 나타낸다.

- (2) 아침 늦게 일어나고 거의 지각했어요. (일어나서)
 구이린의 산수가 아름답고 그림과 같았습니다. (아름다워서)
 그 여자의 피부가 아주 좋고 마치 우유처럼 흰다. (좋아서, 희다)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고’를 썼음.³

원인: 위 문장들의 동작이 선후하여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고’를 썼다. 위 문장들에서 선행문과 후행문의 동작이 선후하여 일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장의 주된 의미는 어디까지나 ‘원인’이지 ‘선후’가 아니다. 학습자는 이런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가 나타났다.

방안: ‘원인’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 파악하기 쉽다. 학습자들이 이상의 오류를 범한 것은 어떤 것이 ‘원인’ 관계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문장을 만들 때 문법적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원인이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들의 더욱 성실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3) 이 의자에 앉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앉아서)
 그들은 아이 뒤에 서고 그들을 세심하게 보호합니다. (서서)
 침대에 눕고 잠들었다. (누워)
 의자에 조용하게 앉아 있고 책을 읽습니다. (앉아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고’를 썼음.⁴

원인: ‘-고’와 ‘어서’는 모두 동작의 진행방식을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가 있다. 이때 각각 사용이 가능한 동사가 따로 있으므로 서로 대치하여 사용하면 오류가 생긴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이런 문장들이 중국어에서 모두 ‘……着’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에 모두 ‘-고’로 처리하였다.

3 이때의 ‘어서’는 ‘원인’을 나타낸다.

4 이때의 ‘어서’는 ‘동작의 진행방식’을 나타낸다.

방안: ‘-고’가 행동의 진행방식으로 쓰는 범위는 아주 넓다. ‘택시를 타고, 우산을 들고, 안경을 끼고,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비를 맞고, 술을 마시고, 책을 가지고, 짐을 싣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어서’가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주 제한되어 신체의 동작과 관련된 동사들과만 어울려 쓰인다. 예를 들면 ‘앉아서, 서서, 누워서, 일어나서……’ 등이다. 그러므로 이런 신체의 동작과 관련된 동사들이 ‘방식’을 나타낼 때는 ‘-어서’를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고’를 쓴다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4) 하늘을 보고 내일 비가 안 내릴 것 같아요. (보니)

양상: ‘-니’를 써야 할 자리에 ‘-고’를 썼음.

원인: 위 문장의 동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여 ‘-고’를 썼다. 그런데 ‘-고’가 선후를 나타낼 경우, 선후행문의 주어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 제약을 어겨서 오류가 나타났다.

방안: ‘-고’가 ‘선후’를 나타낼 경우, 선후행문의 주어는 일치해야 하는데 위 문장에서 선행문의 주어는 ‘화자’이고 후행문의 주어는 ‘비’이므로 오류가 생겼다. 그러나 ‘-고’가 ‘나열’을 나타낼 경우 이런 제약이 없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학생이고 동생은 고등학생이다.’와 같은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대부분의 선후행문은 모두 순차적으로 이어지는데 ‘원인’관계를 나타내는 문장들도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고’를 쓴다면 나머지 연결어미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의 의미를 자세하게 따져보고 잘 선택해서 쓰도록 요구해야 한다.

2.1.2. -(으)면서

(5) 그곳에 혼자서 앉으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앉아)

아버지와 외삼촌은 마주 앉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앉아)
그는 꽃밭에 서면서 꽃에 물을 준다. (서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면서’를 썼음.

원인: 위 문장들의 선후행문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여 ‘-면서’를 사용하였다.

방안: 동사 ‘앉다’는 ‘-면서’와 결합하여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와 같은 문장을 이룰 수는 있지만 동사 ‘앉다’의 특수성으로 하여 이때 이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지 않다. ‘-면서’는 지속성을 가진 동사들과 결합하여 써야 한다. 그리고 위의 문장들의 의미로 보아 선후행문의 동작의 ‘동시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문은 후행문의 방식이 된다. 그러므로 ‘-어서’를 써야 정확하다.

(6)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 있다. (있지만)

양상: ‘-지만’을 써야 할 자리에 ‘-면서’를 썼음.

원인: ‘-면서’가 두 가지 동작이나 사실이 서로 맞서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여 위 문장에 썼다.

방안: ‘-면서’는 선후행문이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 선후행문의 주어는 일치하다. 위 문장은 선후행문의 주어가 다르기에 ‘-면서’를 쓸 수 없고 ‘대립’을 나타내는 ‘-지만’을 쓰는 것이 정확하다.

2.1.3. -고도

(7)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도 괜찮아요.

양상: ‘-어도’를 써야 할 자리에 ‘-고도’를 썼음.

원인: ‘-고도’도 양보를 나타내기에 ‘-어도’를 써야 할 자리에 쓴 것으로 보인다.

방안: 우선 ‘-고도’와 ‘-어도’가 서로 대치하여 쓰이는 경우를 본다. 선행문이 ‘양보’를 나타내고 일반적인 사실일 경우 두 연결어미는 대치할 수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모으지 못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도 돈을 모으지 못해요.’는 모두 성립이 된다. 그런데 후행문의 서술어가 결과를 나타낼 경우, ‘-고도’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고도’가 들어간 문장은 ‘선행’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후행문에는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고도 그 사람과 사귀었다.’의 ‘-고도’는 ‘-어도’로 대치할 수 없다. ‘-어도’가 쓰일 수 있지만 ‘-고도’가 쓰일 수 없는 경우는 뒤의 서술어가 ‘괜찮다, 좋다, 되다, 무방하다’ 등인 문장이다.

2.2. 종속적 연결어미

이 부분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주로 의도·목적, 이유·원인, 계기성, 양보, 조건, 중단, 당위, 반의 등 8부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2.1.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 -러/으러

(8) 할아버님께 드리러 산 선물입니다. (드리려고)

친구를 만나러 전화를 겁니다. (만나려고)

양상: ‘-려고’를 써야 할 자리에 ‘-러’를 사용했음.

원인: ‘-러’와 ‘-려고’가 형태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기에 오류가 나타났다.

방안: ‘-러’는 선행동작을 이를 목적으로 후행동작을 함을 나타내고 주로 동

사 '가다, 오다'와 어울려 쓰인다. '-려고'도 선행동작의 행위를 할 의도로 후행 절의 동작을 함을 나타내고 어울리는 동사는 거의 제약이 없다. 그리하여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요.'와 '도서관에 책을 빌리려고 가요.'는 모두 성립이 된다. 그리고 '가다, 오다, 다니다' 등 몇 개 동사를 제외한 서술어의 경우에는 '-려고'를 써야 정확하다. 즉 '-려'가 쓰이는 범위가 훨씬 좁다.

나. -려고/으려고

(9) 나는 명철이와 함께 축구경기를 구경하려고 하기에 경기장으로 갔다. (구경하려고)

양상: '-려고'를 써야 할 자리에 '-려고 하기에'를 썼음.

원인: 원인과 의도를 모두 나타내려고 '-려고 하다'와 '-기에'를 같이 쓴 것으로 보인다.

방안: '-려고 하다'와 '-기에'는 '-려고 하기에'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기에'가 들어간 문장은 선행문의 주어가 주로 2, 3인칭이라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려고 하기에'의 주어도 주로 2, 3인칭이다. 위 문장의 주어는 1인칭 '나'이므로 '-기에'를 쓰는 것은 오류이다.

(10) 삼십살에 저는 결혼하려고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결혼하여)

양상: '-어'를 써야 할 자리에 '-려고 해서'를 썼음.

원인: 선행행문의 의미를 잘 따져 보지 않고 썼기에 오류가 나타났다.

방안: '-려고'가 들어간 문장은 선행문이 '의도'를 나타내므로 후행문의 행위는 언제나 선행문보다 먼저 일어난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에서 '창문을 열다'가 먼저 진행되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다'가 후에 진행된다. 그런데 위 문장은 '가정을 꾸리다'가 먼저이고 '결혼하다'가 다음 순서

이므로 오류이다. 그리고 만약 순서가 바뀌어, ‘저는 가정을 꾸리려고 해서 결혼합니다.’로 되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즉 선행행문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 ‘-려고 + 해서’와의 결합은 제약을 보인다. ‘-려고’ 하나만 쓰면 좋을 것이다. 선행행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해소되기도 한다. ‘내가 그 영화를 보려고 해서 친구가 같이 가줬어요.’나 ‘동생이 먹으려고 해서 햄버거를 사줬어요.’ 등은 성립이 된다.

- (11) 졸업한 후에 좋은 일터를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옷을 바꾸려고 싶은데요. (바꾸려고 하는데요)

양상: ‘-려고 합니다’를 써야 할 자리에 ‘려고 하겠습니다/싶은데요’를 썼음.
원인: ‘-려고’를 의미가 비슷한 어미나 표현과 함께 써서 ‘의도, 의지’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였다.

방안: ‘-려고’와 ‘-겠’, ‘-고 싶다’는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에 함께 사용하면 오류가 된다. 그러므로 각자 별도로 쓰도록 해야 한다.

다. -(으)려면

- (12) 사랑을 받으려면 남에게 관심을 준다. (주어야 한다)

양상: ‘-어야 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쓰지 않았음.
원인: ‘-려면’이 ‘-어야 하다’와 서로 어울려 쓰이는 점에 유의하지 않아서 오류가 나타났다.

방안: ‘-려면’은 선행절의 동작을 할 의도가 있으면 후행절의 동작이 조건임을 나타내기에 후행절에는 필연적인 말이 오게 된다. 즉 ‘-려면’은 ‘-어야 하다’나 ‘-는 것이 좋다, -는 편이 좋다, -는 것이 좋지/나쁘지 않을까요?’와 같은 표현과 맞물려 써야 한다. 그러므로 위 문장도 서술어가 ‘-어야 하다’로 되어야 한다.

2.2.2.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 -어(서)

(13) 음료수가 없어 물을 마시라. (없으니, 마셔라)

이 영화가 재미가 있어서 우리 같이 보러 갑시다. (있으니까)

양상: ‘-니까’를 써야 할 자리에 ‘-어서’를 썼음.

원인: ‘-어서’와 ‘-니까’가 모두 원인을 나타내므로 혼동하여 오류가 생겼다.

방안: ‘-어서’와 ‘-니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니까’의 후행문은 일반적으로 청유문, 명령문이라는 것이다. 위의 문장들은 모두 청유나 명령으로 끝났기에 선행문에 ‘-니까’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

(14) 이 수학문제는 선생님까지 못 풀어서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푸시니까)

그는 자주 피시방에 가서 틀림없이 이 시간에 피시방에서 있어요. (가니까)

내가 너를 믿어서 네가 알아서 해도 좋다. (믿으니까)

네 말을 들어서 나도 가 보고 싶어. (들으니까)

양상: ‘-니까’를 써야 할 자리에 ‘-어서’를 썼음.

원인: ‘-어서’와 ‘-니까’가 모두 원인을 나타내므로 혼동하여 오류가 생겼다.

방안: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 ‘-어서’는 일반적인 사물의 현상이나 변화로 생기는 원인을 나타내며, ‘-니까’는 화자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이유가 된다. 위 문장들은 화자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을 나타내므로 ‘-니까’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

(15) 그는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서 대련으로 갔습니다. (타고)

장난감을 가져 신나게 놀았어요. (가지고)

신을 신어 방에 들어오면 안돼요. (신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아서 말했어요. (않고)

양상: ‘-고’를 써야 할 자리에 ‘-어서’를 썼음.

원인: ‘-어서’와 ‘-고’는 모두 행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중국어에서 모두 ‘……着’로 번역되기에 혼동하여 오류가 생겼다.

방안: 우선 ‘-어서’와 ‘-고’가 행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면, 위에서도 분석했다시피 ‘-어서’는 ‘앉다, 서다, 눕다’ 등 신체의 동작과 관련된 동사와 결합될 때만 행동의 방식을 나타낸다. ‘-고’는 선행동작의 상태나 결과가 유지되면서 후행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범위가 아주 넓다. 그러므로 행동의 방식을 나타낼 경우, 신체의 동작과 관련되지 않으면 모두 ‘-고’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

나. -느라고

(16) 도서관에 사람이 많이 있느라고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있어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느라고’를 썼음.

원인: ‘-느라고’가 ‘이유’를 나타내기에 위 문장에 썼을 것이다.

방안: ‘-느라고’가 ‘이유’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느라고’는 동사와만 어울리며 이 동사는 시간을 요하는 동사여야 한다.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이며 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위 문장은 ‘-어서’를 사용해야 한다.

(17)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장학금을 받았다. (공부해서)

나는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를 좋아하느라고 한국 신문을 자주 봤어요. (좋아해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느라고’를 썼음.⁵

5 이 오류는 첫 번째 오류처럼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느라고’를 썼지만 첫 번째 오류와 다르기에 여기에서 별도로 취급하였다.

원인: ‘원인’을 나타내려고 ‘-느라고’를 사용했을 것이다.

방안: 위 예문의 동사는 시간을 요하는 동사들이지만 오류가 나타났다. 그것은 ‘-느라고’가 쓰인 문장에서 선행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과 노력이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앞의 동사에 소요 되는 시간 때문에 뒤의 행위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영향을 받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다.’와 ‘장학금을 받다.’ 사이에는 시간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위 문장은 오류문이다. 학습자들에게 ‘-느라고’는 시간을 요하는 동사와 쓰이며, 선행절에 쓰인 시간이 뒤에 후행절에 쓰여야 할 시간을 점했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는 드라마를 보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와 같은 경우이다. 그밖에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에 영향을 줌을 나타낼 때 ‘-느라고’가 쓰인다. ‘한국어를 공부하느라고 영어를 공부하지 못했어요.’가 그 예이다.

(18) 나는 자주 운동을 하느라 몸이 튼튼해. (해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느라고’를 썼음.

원인: ‘원인’을 나타내려고 ‘-느라고’를 썼을 것이다.

방안: ‘-느라고’가 쓰인 문장의 선행행문의 주어는 같아야 하고 유정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 선행행문의 주어는 각각 ‘나’와 ‘몸’이다. 그러므로 위 문장은 ‘해서’로 고쳐야 한다.

다. -(으)니까

(19) 그날 눈이 많이 왔으니까 어떻게 갔니? (와서)

해삼은 무척 영양이 있으니까 건강에 대해 좋습니다. (있어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니까’를 썼음.

원인: ‘-니까’가 원인을 나타내기에 위 문장에 썼을 것이다.

방안: 연결어미 ‘-니까’는 화자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나타내는 데 쓰이므로 후행문의 어미는 명령이나 청유형이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고 경험이 있기에 명령이나 청유를 할 수 있다. ‘-어서’는 일반적인 사물의 현상이나 변화로 생기는 것으로 선행절은 후행절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후행문의 서술어는 명령, 청유형이 아니다. 위의 첫 번째 문장은 의문을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장은 평서문이기에 ‘-니까’를 쓸 수 없다.

2.2.3. 계기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 -자

(20) 한국에 도착하자 편지를 쓰세요. (도착하자마자)

양상: ‘-자마자’를 써야 할 자리에 ‘자’를 썼음.

원인: ‘-자’와 ‘-자마자’가 형태와 의미가 비슷하므로 ‘-자마자’를 써야 할 자리에 ‘-자’를 썼음.

방안: ‘-자’와 ‘-자마자’를 비교하여 보면, ‘-자’와 ‘-자마자’는 선행동작에 이어서 후행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점은 동일하지만 후자는 선행동작과 후행동작이 끝나고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순간적인 정도로 가깝다. 그리고 후행문의 서술어가 명령이나 청유일 경우 ‘-자마자’를 쓴다. 위 문장은 후행문이 명령문이므로 선행문에 ‘-자마자’를 써야 한다.

나. -자마자

(21) 이 소식을 들었자마자 눈물이 났다. (듣자마자)

도서관에 도착했자마자 공부를 했다. (도착하자마자)

저녁에는 잠을 잠자마자 친구가 왔어요. (자자마자)

양상: ‘-자마자’를 써야 할 자리에 ‘-었자마자’를 썼음.

원인: ‘-자마자’는 선행절의 동작이 끝나고 곧바로 후행절의 동작이 진행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선행절에 과거시제를 붙여서 선행동작이 끝난 점을 강조하려고 했을 것이다.

방안: 학습자들이 ‘-자마자’는 과거시제와 어울려 쓰이지 않으며 그 원인은 ‘-자마자’가 이미 선행절의 동작이 끝났다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구태여 과거시제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도록 한다.

(22) 틈이 나자마자 음악을 들었습니다. (나면)

양상: ‘-면’을 써야 할 자리에 ‘-자마자’를 썼음.

원인: 위 문장은 선후행문의 동작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자마자’를 썼다.

방안: ‘-자마자’는 선행절의 동작이 끝나고 곧바로 후행절의 동작이 진행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자마자’는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낸 문장에 쓰이지 않고 이미 일어난 사실에 쓰인다. 위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후행문이 의지를 나타내므로 ‘-자마자’를 쓸 수 없고, ‘-면’을 써야 한다.

(23)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는 저를 안지 않자마자 제가 울었습니다. (않으면)

양상: ‘-면’을 써야 할 자리에 ‘-자마자’를 썼음.

원인: 위 문장은 중국어로 “媽媽—不抱我, 我就哭”로 여기에서 ‘……就’는 ‘-자마자’에 대응되는 문형이다. 그래서 ‘-자마자’를 썼을 것이다.

방안: 한국어에서는 ‘-자마자’는 부정의 형식과 어울려 쓰이지 않기에 위 문장에 쓰일 수 없다. ‘-자마자’는 부정의 형식과 어울려 쓰이지 않지만, 선행절이 부정문이면서, 선행절의 동작이 끝나고 후행절의 동작이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면’을 쓰고, 후행문에 ‘금방, 바로, 즉시’ 등 부사

를 넣어 두 동작이 연속 이어짐을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이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즉시 울어 버려요.’ 등과 같은 형식으로 쓰인다.

2.2.4.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 -어도

(24)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양상: ‘아무리’를 써야 할 자리에 ‘얼마나’를 썼음.

원인: ‘아무리’와 ‘얼마나’가 중국어에서 모두 ‘多么’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기
에 이 두 부사를 혼동하여 ‘얼마나’를 ‘어도’와 같이 썼다.

방안: ‘아무리’는 일반적으로 뒤에 양보를 나타내는 ‘어도’가 오거나 특수하
게 ‘대립’을 나타내는 ‘-지만’이 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무리 어린아이라지
만 그렇게 버릇이 없어서 되겠어요?’는 ‘-지만’과 어울려 쓰인 문장이다. ‘얼마
나’는 뒤에 의문문이 오거나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는지’가 온다. 예를
들면, ‘얼마나 깨끗하니?, 얼마나 바쁜지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등의 형식으
로 쓰인다. 그러므로 이 두 부사를 혼동하여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어
도’가 있을 경우, 꼭 ‘아무리’를 쓰도록 제시한다.

2.2.5.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 -거든

(25) 왕단이 오거든 그는 가려고 한다. (오면)

봄이 오거든 꽃이 핍니다. (오면)

양상: ‘면’을 써야 할 자리에 ‘-거든’을 썼음.

원인: ‘-거든’이 조건과 가정을 나타내기에 ‘-면’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여 오

류가 나타났다.

방안: ‘-거든’이 서술문이나 의문문에 쓰일 경우의 제약은 다음과 같음을 제시한다. 후행절의 주어는 주로 1인칭이고, 서술어는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며, 동시에 현재나 과거시제를 쓰지 않는다(예문 26a 참조). 위의 문장들은 이런 제약을 어겼기에 비문이 되었다. 그리고 ‘-거든’의 후행절의 서술어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일 때 이상의 제약이 없이 쓰일 수 있다(예문 26b, c, d 참조). 그밖에 ‘거든’은 주로 구어체이므로, 공식적인 장소,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선생님, 베이징에 오시거든 꼭 연락하세요.”와 같은 표현은 문법적인 의미는 맞지만 깎듯한 표현이 아니다.

- (26) a. 방학을 하거든 저는 곧 집에 갈 거예요. (서술문)
- b. 수미 씨를 만나거든 제 안부를 전해 주세요. (명령문)
- c. 내일 휴식하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명령문)
- d. 내일 시간이 있거든 나하고 같이 가자. (청유형)

나. -(으)면

- (27) 이 책을 빌리면 나한테 전화하면 돼. (빌리려면)
- 돈을 많이 벌으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벌려면)
- 좋은 성적을 거두면 노력해야 해요. (거두려면)
- 정작 훌륭한 사람이 되면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해요. (되려면)

양상: ‘-려면’을 써야 할 자리에 ‘-면’을 썼음.

원인: ‘-면’과 ‘-려면’은 형태와 의미가 비슷하기에 혼동하여 오류가 생겼다.

방안: ‘-면’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인다. ‘-려면’은 ‘어떤 의사를 실현시키려고 한다면’의 뜻으로 쓰인다. 두 어미 모두 ‘가정’을 나타내지만 ‘가정’의 의미에 ‘의도’의 뜻이 덧붙으면 ‘-려면’을 써야 한다. 위 문장들은 모두 ‘가정’과 ‘의도’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기에 ‘-려면’을 쓰는 것이 정확하다.

(28)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여자를 위해 죽으면 괜찮습니다. (죽어도)
 그 남자는 다른 방면에서 얼마나 나으면 우리도 사귄 수 없습니다. (면에서,
 아무리, 나아도)
 계속 기다리면 오지 않을텐데,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자. (기다려도)

양상: ‘어도’를 써야 할 자리에 ‘면’을 썼음.

원인: ‘면’과 ‘어도’가 모두 가정을 나타내는 뜻이 있기에 혼동하여 오류가 생겼다.

방안: ‘면’은 일반적인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위 문장들의 선후 관계는 ‘양보, 가정’을 모두 나타내기에 ‘-으면’만 쓰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후행문의 서술어가 ‘괜찮다, 좋다’ 등일 때 ‘어도 좋다’ 문형을 상기하여 일반적으로 ‘어도’와 어울려 쓰인다는 점에 익숙하도록 한다.

(29) 중한 두 나라의 교류가 발달하면 중국사람들은 한국을 많이 알게 되었다.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쓰이면 많은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컴퓨터가, 쓰이면서)

나와 같이 공부하면 그녀는 많이 도와주었어요. (공부하면서, 나를 많이)

양상: ‘면서’를 써야 할 자리에 ‘면’을 썼음.

원인: ‘면’과 ‘면서’가 형태가 비슷하기에 오류가 생겼다.

방안: 우선 ‘면’과 ‘면서’의 뜻을 구별해 본다면 ‘면’은 가정을 나타내고 ‘면서’는 ‘동시 나열’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어미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아주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문장들에서 후행문의 서술어에 모두 완료를 나타내는 ‘았’이 들어갔는데 ‘면’은 가정을 나타내기에 뒤에 완료를 나타내는 어미가 올 수 없다.

2.2.6. 중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 -다가

(30) 숙제를 했다가 전화가 왔어요. (하는데)

양상: ‘는데’를 써야 할 자리에 ‘었다가, -다가’를 썼음.

원인: ‘다가’가 동작의 전환을 나타냄으로 위 문장에 썼을 것이다.

방안: ‘다가’는 단순히 동작의 전환을 나타내지만 이런 경우에 선행행문의 주어와 같아야 한다. ‘제가 학교에 가다가 수미를 만났어요.’는 성립이 되지만, ‘제가 학교에 가다가 수미가 저를 만났어요.’는 앞의 문장과 같은 내용일지라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위 문장들의 선행행문의 주어는 ‘저’와 ‘전화’이다. 이런 경우에 ‘다가’를 썼으므로 오류가 생겼다. 교사는 비록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주어와 관련되는 문법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에게 주어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도 말하거나 쓰기에서 주어를 생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 물건을 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지요. (샀다가)

양상: ‘었다가’를 써야 할 자리에 ‘다가’를 썼음.

원인: ‘다가’와 ‘었다가’의 의미가 비슷하기에 혼동하여 사용하였다.

방안: 학습자들은 ‘었다가’와 ‘다가’는 비슷한 문법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두 어미의 의미는 아주 다르기에 잘 구별하도록 해야 한다. ‘었다가’는 선행행문의 동사의 의미가 서로 상반될 때 많이 쓰이며 선행 동작이 완료된 후에 동작이 전환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가’는 선행행문의 동사의미에 제약이 없으며 선행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작이 전환된다. 위 문장에서 ‘사다’, ‘안 들다’, ‘바꾸다’ 이 세 서술어가 있는데 ‘사다’는 ‘바꾸다’

와 관련이 된다. ‘사다’와 ‘바꾸다’의 관계는 의미상 서로 상반되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었다가’를 써야 맞다.

(32) 나는 철수와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가 학교로 돌아갔다.

양상: ‘다가’를 써야 할 자리에 ‘-었다가’를 썼음.

원인: ‘-었다가’와 ‘다가’의 의미가 비슷하기에 혼동하여 사용하였다.

방안: ‘-었다가’는 선행행문의 동사가 의미상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 때문에 결합하는 동사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가다/오다, 앉다/일어나다, 쓰다/지우다, 켜다/끄다, 입다/벗다, 주다/받다, 하다/취소하다’ 등 동사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영화를 보다’와 ‘학교로 돌아가다’는 서로 상반되는 동작이 아니다. 영화를 보다가 도서관, 기숙사에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위 문장은 동작의 전환을 나타내므로 ‘다가’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

2.2.7. 당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 -아야/어야/여야

(33) 교실에서 떠들어야 안 되잖아요. (떠들면)

양상: ‘-면’을 써야 할 자리에 ‘-어야’를 썼음.

원인: 위 문장은 중국어로 ‘不要(不應該)在教室吵鬧’인데 문장 가운데 ‘應該’가 있으므로 ‘-어야’를 썼다.

방안: ‘-어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선행행문이 후행행문의 조건이어야 한다. 위 문장의 ‘교실에서 떠들다’와 ‘안 되다’는 조건의 관계가 아니고 ‘금지’를 나타내기에 ‘-면’을 써야 한다. ‘-면……안 되다’는 문형이므로 함께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빨리 공부해야 해라. (공부해라)

양상: ‘어야 한다’를 써야 할 자리에 ‘어야 해라’를 썼음.

원인: ‘명령’과 ‘당위’의 의미를 함께 써서 ‘당위성’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방안: ‘어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어미로 뒤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위 문장에서 화자가 표현하려는 내용이 명령이면 ‘빨리 공부해라.’로 쓰고,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빨리 공부해야 한다.’로 써야 한다.

2.2.8. 반의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 -는데/은데/는데

(35) 우리는 모여서 생일 파티를 개최했는데 로녕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열어)

양상: ‘었는데’를 써야 할 자리에 ‘어’를 썼음.

원인: ‘는데’는 후행문의 내용을 끌어내기 위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될 만한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연결어미이다. 위 문장도 선후행문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설명보다는 두 행위가 선후하여 일어나며 뒤의 행위가 앞의 행위의 목적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어서’를 써야지 ‘는데’를 쓰면 안 된다.

방안: ‘는데’의 문법적 의미를 보면 첫째는 ‘설명’, ‘제시’의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저 친구는 한국어과 학생인데 한국에 몇 번 갔다왔어요.’ 둘째는 후행절의 동작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등이다. ‘대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오류가 적게 나타나지만 ‘는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이므로 뜻을 알도록 한다.

(36)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각종 기술을 배운데 사회에 고헌을 할 수 있다.

(배워야, 공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

양상: ‘어야’를 써야 할 자리에 ‘는데’를 썼음.

원인: ‘는데’는 설명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므로 학생들은 선후행문이 원인이나 대립의 관계인 문장을 제외한 경우에 선후행문의 의미를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방안: 위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한국어의 연결어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확한 위치에 사용하는 것은 고립어 사용자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의미가 비슷한 어미도 많고, 한 어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교사의 자세한 지도와 학생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3. 보조적 연결어미

가. -게⁶

(37) 그는 신바람이 나게 말했다. (나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게’를 썼음.

원인: ‘-게’는 부사형 어미로, 용언을 부사화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는 ‘신바람이 나다’가 부사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게’를 넣어 부사어로 만들었을 것이다.

방안: ‘-게’가 용언을 부사화 할 때 이 용언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에 따라서 부사어의 의미가 달라짐에 주목해야 한다.⁷ 예를 들면 ‘잘 들리게 높은 소

6 보조적 연결어미에는 ‘-어, -게, -지, -고’가 있지만 본고는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게’에 대해서만 논의하려고 한다.

7 잘 이해하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동사)

리로 말하세요.’에서는 ‘들리게’가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글씨를 참 예쁘게 썼군요.’에서 ‘예쁘게’는 뒤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사의 의미로 쓰이자면 ‘-게’ 앞에 형용사가 와야 한다. 그러나 특수하게 형용사가 쓰여서 사동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방이 따뜻하게 에어컨을 켜어요.’와 같은 경우인데, 이런 문장도 사실은 ‘게’ 앞에 동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문장을 풀어쓰면 ‘방이 따뜻하게 되게 에어컨을 켜어요.’가 되어 ‘-게’ 앞에는 동사 ‘되다’가 숨어 있는 것이다.

- (39)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주의력을 집중하게 보는 중에 갑자기 광고가 나는 것을 정말 싫어요. (집중하여, 나오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게 일하겠습니다.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은 배고파게 견디지 못했다. (배고파)
조심하게 하세요. (조심해서)

양상: ‘-어(서)’를 써야 할 자리에 ‘-게’를 썼음.

원인: 중국어에서의 형용사가 한국어에서도 형용사로 쓰인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게’를 넣어 부사어를 만들었기에 오류가 나타났다.

방안: ‘집중하다, 노력하다, 배고프다, 조심하다’에 대응되는 ‘集中, 努力, 餓, 小心’는 중국어에서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地’를 첨가하여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품사들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그러므로 ‘-게’를 넣어 부사어로 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이상의 단어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어는 품사분류가 불분명한데 특히 동사, 형용사, 부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단어가 쓰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품사로 분류되는 수가 있다. 중국어의 형용사가 한국어에서도 꼭 형용사인 것은 아니기에 중국어를

-
- 아이가 잘 자게 큰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동사)
 친구는 항상 밥을 맛있게 먹어요. (형용사)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군요. (형용사)

한국어로 직역하지 말고 문장의 의미를 잘 따져보고 맞는 문장성분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단어들은 동사이기에 연결어미 ‘-어’를 넣어야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다.

(40) 지금 대학에 있을 때 독립하게 생활해야 해요. (독립적으로)

양상: ‘-적으로’를 써야 할 자리에 ‘-게’를 썼음.

원인: 중국어의 영향으로 ‘독립하다’를 형용사로 생각하여 ‘-게’를 넣어 부사화 하였으므로 오류가 생겼다.

방안: (2)에서 분석했다시피 중국어의 품사와 한국어의 품사는 일치하게 대응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역하여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독립하다’는 동사이므로 부사화 할 수 없지만 명사 ‘독립’은 ‘-적으로’를 넣어 부사 ‘독립적으로’를 이룰 수 있다. ‘가급적, 적극적, 문화적, 기술적, 일반적, 보편적……’ 등이 ‘명사 + 적으로’ 형태의 부사어를 이룬 예임을 지적한다.

(41) 나는 기초가 있어야만 테니스를 잘게 배우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양상: ‘잘’을 써야 할 자리에 ‘잘게’를 썼음.

원인: 학습자는 ‘-게’를 중국어의 ‘地’에 해당되는 문법형태로 보고, 중국어의 ‘好好地’를 번역하여 ‘잘게’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게’는 부사 뒤에 사용할 수 없다.

방안: ‘-게’가 용언에만 붙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는 동사, 형용사 뒤에 쓰일 수 있지만 부사 뒤에는 쓰일 수 없다. 왜냐하면 ‘-게’는 부사형어미로 용언을 부사화하는 작용을 하는데 부사는 자체가 부사이므로 부사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용히, 말끔히, 더, 벌써’ 등에 ‘-게’를 넣으면 모두 오류가 나타난다.

(42)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깨끗해)

양상: ‘-어’를 써야 할 자리에 ‘-게’를 썼음.

원인: 위 예문의 ‘깨끗하게 보입니다.’는 ‘형용사 + -게 + 동사’의 구조로 의 미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문형 ‘-어 보이다’가 있기에 문형대로 써야지 임의로 고쳐서 쓰면 오류가 생긴다.

방안: 학습자들은 문장을 만들 때 단어 사이의 연결만을 생각하고 문형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문형은 관용형이라고 말하는 만큼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한국어에서 이미 고정된 문장의 형식이기에 수의적으로 변경하면 문장의 뜻이 변하여 오류문이 된다. 문형 ‘-어 보이다’가 있으므로 위 문장은 ‘깨끗해 보이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깨끗하게 보이다’도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와 ‘글씨가 커 보입니다.’는 모두 성립이 되는데 전자는 단순히 ‘글씨가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후자는 ‘글씨가 원래 크지 않은 데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커졌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보입니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문장이지만 위의 오류문에서는 ‘이렇게 하면’이란 ‘어떤 조치가 있었기에’ 뒤에는 ‘깨끗해 보이다’가 오는 것이 정확하다.

3. 결론

이상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결어미 오류의 양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결어미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이런 점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하려고 한다. 또한 이상의 오류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 관련된 연구가 더욱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특히 언어권별로 모국어와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는 한국어 문법 참고서의 집필사업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승곤(1992)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서광학술자료사.
남기심(1978) 『국어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_____(2001)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박영순(1998) 『한국어 문법 교육론』, 박이정.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 출판부.
서정수(1996) 『국어문법(상,중,하)』,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이주행(2000) 『한국어문법의 이해』, 월인.
임호빈 공저(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연세대 출판부.

The Honorifics System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Lucien Brow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 Overview

The Korean honorifics system has long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complex and important areas of Korean language acquisition. Regarding complexity,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forces speakers into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 interlocutor (as well as sentence referents and bystanders) in every single utterance that they make – an explicit choice that has no direct equivalent in many of the world’s languages. Sohn (1989) quotes honorifics as amongst the main reasons for Korean being classified as a category 4 language (*ie.* most difficult for English native speakers) by 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 (DLI) in the USA. Regarding the importance of learning honorifics, Hwang (1975: 181) notes that “very often foreigners [sic] who speak Korean [and] fail to use speech level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are treated as if they were mentally immature by Koreans.” However, despite the difficulty and

importance of honorifics, previous research into the acquisition, development or usage of honorifics in L2 Korean has been limited. What research there is tends to approach honorifics merely as an organizational or grammatical feature of the language, which can be acquired in the same way as TAM markers, case particles or relative clauses. The problems that learners encounter applying appropriate honorifics are treated the same as grammatical errors, with utterances being judged against rigid and prescriptive social norms.

To address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e current paper attacks the problem of honorific development in second language Korean from an interlanguage pragmatics perspective. Using a corpus of data collected from 20 advanced speakers of Korean, I analyze salient patterns of speech style, referent honorific and address term usage in context-specific data. I conclude by arguing that such patterns of usage result from three factors: (1) transfer of training, (2) socialization conditions and (3) ideology regarding “politeness”. Before entering such discussions, I begin the paper with a thorough introduction to the Korean honorifics system and a review of the methodology used in the research project.

2. The Korean Honorifics System

In my research, I follow a broad definition of honorifics as “the indexing of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interlocutors, the referents and the bystanders either in the lexicon or the morpho-syntax of a language” (definition my own). As such, honorifics are a central part of “social deixis” or “social

indexicality”, defined by Levinson (1983: 89) as “the term for those aspects of language structure that encode the social identities of participants, or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or between one of them and persons or entities referred to”. The Korean honorifics system is composed of three interrelated aspects: hearer honorifics (“speech styles”), referent honorifics and terms of address.

Hearer honorifics are the part of the system that primarily index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addressee and immediate audience. In Korean, hearer honorification is achieved by a system of inflectional endings known as “speech styles” that attach to the predicate (verb, adjective or copula). Contemporary Korean is commonly said to contain six speech styles, which I display below in roughly ascending order of honorification:

(1) ‘It rained’ in six different speech styles

“plain” {T} ¹ style	pi-ka o-ass- <u>ta</u>
“intimate” {E} style	pi-ka o-ass- <u>e</u>
“familiar” {N} style	pi-ka o-ass- <u>ney</u>
“semiformal” {S} style	pi-ka o-ass- <u>so</u>
“polite” {Y} style	pi-ka o-ass- <u>eyo</u>

1 The system of using roman letters (T, E, N, S, Y, P) to represent each style is adopted from Sohn Ho-min (1986). The letters correspond broadly to the initial sounds of the endings in the declarative mode. The use of these letters is – I believe – preferable to the use of names such as “deferential”, “polite”, “familiar” and so forth, which attempt to specify the function of these styles. The problem with such a system is that it cannot capture the relative nature of speech style use. For example, although the “polite” style may represent a polite way to address non-intimates in many informal situations, when used in a formal setting such as a job interview or academic presentation it may be too casual and therefore not “polite” at all.

“deferential” {P} style pi-ka o-ass-supnita
rain-nom come-past-speech style

For convenience, I follow Chang Suk-jin (1996) in referring to the {Y} and {P} levels as “honorific” speech styles and the {T} and {E} as “non-honorific” speech styles. This division reflects present day usage in Seoul Korean and also the Korean common-sense distinction between *contayqmal* (‘respectful speech’, particularly speech in honorific speech styles) and *panmal* (‘informal, intimate speech’ - literally ‘half language’ - speech in non-honorific speech styles). As for the {S} and {N} speech styles, these are almost totally absent from my data and appear to be falling out of usage, at least in the Korean used by young speakers in Seoul.

Referent honorifics are the part of the system that index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sentence referents, or otherwise between one sentence referent and another. These referents may either be the hearer him/herself or a third person. Korean referent honorifics can be split into two groups: (1) subject honorifics and (2) object honorifics. The former is indexed by the inflectional ending *-si-* (which attaches to the predicate before the speech style ending) and also by lexical substitutions. Honorific lexical substitutions can sometimes result in the same propositional content being expressed in totally different ways when talking about a status superior (as in 2a below) rather than a status inferior (2b). In this example, the nominative marker, noun for ‘meal’ and verb for ‘eat’ all display variation.

- (2) a. Halapeci-kkeyse cinci-lul capsusi-ess-eyo.
 grandfather-nom:hon meal:hon-acc eat:hon-past-{}
 ‘Grandfather has eaten his meal.’
- b. Tongsayng-i pap-ul mek-ess-eyo.
 younger brother/sister-nom meal-acc eat-past-{}
 ‘Younger brother/sister has eaten his/her meal.’

Korean terms of address are also highly developed and complex. First of all, Korean contains at least five second-person pronouns (*ne*, *caney*, *tangsin*, *kutay* and *caki* – Park Jeong-woon 2005). However, none of these can be applied as a universal honorific pronoun (such as the French *vous*) ; thus, in many situations a title or other appellation must be maintained. The complexity is increased by the fact that Korean culture maintains a taboo whereby name-calling is avoided (“*ilum pulŭki-lŭl p’iha-nŭn kŭmki* – Kim Hee-sook 2003). Situations in which one may call another by name are greatly restricted and the use of titles or kinship terms (even to non-kin) is often preferred ; in particular, there are few situations in which it is acceptable to call someone older than oneself by name, even if the age difference is only one yea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clusion of hearer honorifics (“speech styles”), referent honorifics and forms of address under the one umbrella of “honorifics” represents a somewhat broader use of the term than that adopted elsewhere in the literature. Lee & Ramsey (2000) and Goddard (2005), for example, limit the term “honorifics” only to referent honorifics. More commonly, especially in Korean linguistics, forms of address are excluded from discussions of honorifics and are treated as a separate

system. When viewed from a socio-pragmatic perspective, however, it soon becomes apparent that hearer honorifics, referent honorifics and forms of address serve a similar function in the language. To be precise, all three are primarily involved in the indexing of the relative positions of interlocutors/referents/bystanders and are influenced by “power” (the hierarchical age-rank relationships between interlocutors), “distance” (the horizontal familiarity or intimacy between interlocutors) and “formality” (the level of structuring of the setting). Since hearer honorifics, referent honorifics and terms of address are similar in terms of function, it appears reasonable to suggest that L2 learners experience similar challenges when it comes to developing socio-pragmatic competence in all three aspects.

Although several previous researchers have considered the difficulties that honorifics pose to the L2 learner, few have directly addressed the problem from a socio-pragmatic perspective. “Anecdotal studies” such as Hwang Juck-ryoon (1975) and Sohn Ho-min (1986) have used passed-down stories and observed incidents as evidence of the problems that honorifics cause to non-native speakers, but have lacked scientific conviction. “Error analysis studies” (Lee Ji-Young 1990, Park Sun-min 1994, Park Kyung-ja 1996 and Kim Jung-hee 1998) have used rich quantitative data to analyze the “mistakes” made by L2 learners, but have typically relied on overtly prescriptive L1 norms as a means of comparison. “Textbook studies” such as Lee On-kyeong (2005), Kim Soo-jong (1999a, 1999b), Yeon Jae-hoon (1996) and Fouser (2005) have provided some useful and insightful criticisms of the ways honorifics are presented in KSL textbooks, but have not looked at honorifics usage per se. In recent years, a new wave of “pragmatic studies”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pragmatic competence in

Korean has begun to appear. Although these studies do not take honorifics as their focus,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onorifics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appropriate application of speech acts (Andrew Byon 2000, Han Sang-mee's 2005).

3. Data Collection

Data for the current study was collected from 20 speakers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and 40 native speakers of Korean during a period of fieldwork in Seoul in 2006. The 20 L2 speakers were all residing in Seoul at the time of the project and had all studied Korean to an advanced level. All had been brought up and schooled in Western countries from at least high-school age. Regarding ethnicity, ten of the speakers were ethnic Koreans (so-called "heritage learners") who had enjoyed some exposure to the language as children, but had had to (re)learn Korean as adults through 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classes. Of the remaining ten speakers, eight were Caucasian and two were Japanese nationals who had been educated in the UK from high school age and attended UK universities. Rather than ethnicity, occupation was found to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honorifics that the speakers used. Ten of the participants were in Korea temporarily as exchange students ("exchange students" group) and another ten were based more long-term and were either graduate students or employed in English language related work ("professionals" group). The ages ranges of the two groups were 19-25 and 25-35 respectively.

Four kinds of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Firstly, both the

L1 and L2 group filled out a DCT (Discourse Completion Test) survey assessing their use of honorifics in 24 different contexts. The survey assessed how speakers would form the sentence “Did you see that movie/news?” depending on power (*ie.* the hierarchical age-rank relationship with the hearer), distance (*ie.* the level of familiarity/intimacy) and formality (*ie.* the level of structuring of the setting). Regarding power, the survey contained four different relationships within a given university setting: addressing a professor in his 50s, addressing a senpay (‘senior’ ; in this case someone 2 years older than yourself), addressing a classmate (same age as yourself) and addressing a hupay (‘junior’, in this case someone 2 years younger than yourself). Distance contained three different levels: stranger, non-intimate acquaintance and intimate. Formality was split simply into two levels: formal and informal. In combination, these four degrees of power, three degrees of distance and two degrees of formality produced the 24 contexts.

The second method of data-collection was the recording of two role-plays. These were performed between the 20 L2 speakers and native-speaker role-play partners. In the first role-play, the L2 speaker played the role of a student and the native speaker took the part of a university professor. In the second situation, both speakers played close friends of identical age. To assess honorifics use not only in relation to these two power-distance relationships but also in problematic “face-threatening” situations, the two role-plays included scenarios that were particularly sensitive. In the first role-play, the student had lost a rare book that the professor had lent to him/her. Along similar lines, in the second role-play, the L2 speaker had broken a digital camera belonging to

his/her native speaker intimate friend.

Finally, data was collected pertaining to the L2 speakers' "real-world" honorifics use through the recording of natural interactions and interview sessions. To record natural interactions, I provided each participant with a digital recording device and instructed them to record their day-to-day interactions in Korean over a one-week period. As a bare minimum, each participant was required to record one interaction with a status superior or non-intimate and one with a status inferior or intimate. As for the interview sessions, these provided me with an opportunity to quiz participants regarding their use of honorifics in the real world. During these sessions, I elicited the attitudes and reasons underlying these speakers' usages of honorifics and collected anecdotal evidence regarding their use of honorifics during everyday life.

4. Hearer Honorifics/Speech Styles

Commencing with the current section, this paper examines data pertaining to the three areas of the Korean honorifics system (hearer honorifics/speech styles, referent honorifics and forms of address). Salient patterns of use emerging in the honorifics systems of L2 speakers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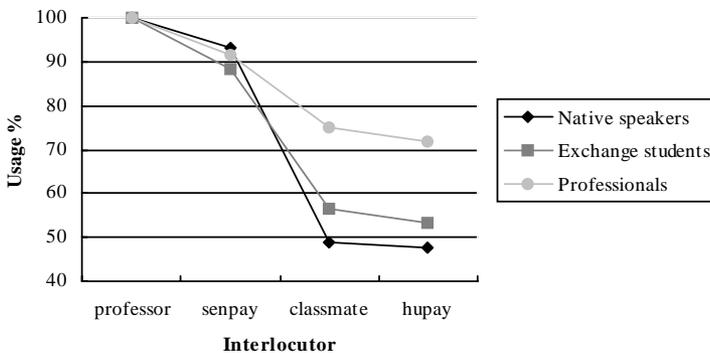
The current section reviews the use of speech styles in the L2 data. Four salient patterns of usage are identified: (1) avoidance of {E} and {T} styles, (2) lack of control between {E} and {Y}, (3) strategic use of the {Y} speech style and (4) inappropriate use of constructions with {Y}. I discuss each of these three patterns in turn.

4.1. Avoidance of {E} and {T} styles

The data suggests that L2 speakers – and in particular the “professionals” group – are more cautious when it comes to using non-honorific speech styles. In extreme cases, some speakers are shown to consciously avoid the use of such forms altogether.

Looking at the DCT data first of all, figure 1 displays the frequency at which the L2 groups (“exchange students” and “professionals”) used honorifics styles ({Y} and {P}) according to four different age-rank relationships (professor, senpay, classmate, hupay). The graph clearly shows that, when it came to addressing age-rank equals (classmate) and subordinates (*hupay*), the professionals group downgraded to the non-honorific styles at a significantly lower rate than the L1 speakers (classmate: $t = 2.6734$, $p = .01$ / *hupay*: $t = 2.6025$, $p = 0.1$).

Figure 1: Honorific speech style use in relations to power



Closer analysis of the data shows that L2 speakers were reluctant to

“downgrade” to the non-honorific styles based on power alone. Lacking a clear referent point as to when it would be acceptable to use non-honorific styles, L2 speakers tend to wait until totally intimate or, more often than not, until the other party suggested that they use the non-honorific styles. Participants also cited a reluctance to switch down to the non-honorific styles when doing so would index their position as being older or superior rather than simply closer to the other party, as it may in the instance of the *hupay*. “I find it hard to put myself above other people”, commented MGN76012,² “it just doesn’t seem natural”.

For some speakers, these negative associations with non-honorific speech styles resulted in a blanket use of honorific speech styles ({Y} and {P}) to all and sundry. In the following extract from the recorded interactions, participant FGN72011 is in conversation with an intimate several years younger than herself who she later referred to as her *tongsayng* (‘younger brother’). In some ways, the structure of the dialogue reflects the way that Korean native speakers may play the fictive older sibling role. FGN72011 leads the conversation, asking the *tongsayng* about his girlfriend and advising him on what he should do. However, what differs from native speaker norms is FGN72011’s continual use of the {Y} speech style.

2 Rather than use pseudonyms, I refer to each participant by a combination of letters and numbers. The first letter in the sequence denotes sex (M = Male ; F = Female) and the second displays the person’s identity (G = Graduate Student, E = Exchange Student, W = Worker). The next two numbers represent the year in which the participant was born. The last three numbers are a unique reference number for each subject.

(3) FGN72011: at FGN72011's home.		
1	FGN72011	ku yeca chinkwu-hako.....acik , manna- <u>yo</u> kathun salam? 'are you still meeting that girlfriend- the same person- <u>[Y]</u> ?
2	intimate -	yey manna-ko ((laughter)) iss-nuntey yey 'yes, I am meeting her, yes'
3		manna-ko iss-ci-yo 'I am meeting her'
4	FGN72011	way: hayngpok-haci anhayo? 'why- are you not happy- <u>[Y]</u> ?
5	intimate -	ung:: 'yeah'
6	FGN72011	way ku soli-ka na- <u>yo</u> ? ((laughter)) 'why do you make that sound- <u>[Y]</u> ?
7	intimate -	mwe 'well'
8	FGN72011	kyelhonha-l ke-ey- <u>yo</u> ku yeca-lang?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to that girl- <u>[Y]</u> ?
9	intimate -	anio 'no'
10	FGN72011	anio? 'no?'
11	intimate -	yey 'yes'
12	FGN72011	animyen.....kecimalha-ko heyeci-ko 'If not.....tell her a lie and break up'
13	intimate -	ney 'yes'
14	FGN72011	kulemyen talun yeca chaca-ya toy- <u>yo</u> : 'Then you must find another girl- <u>[Y]</u> '
15	intimate -	yey 'yes'
16	FGN72011	ku yeysnal yeca chinkwu-hako yenlakhay- <u>yo</u> ? 'are you in touch with that ex-girlfriend- <u>[Y]</u> ?
17	intimate -	aniyo , ku icey sicip ka-ss-telako- <u>yo</u> 'no, she's married now- <u>[Y]</u> ?'
18	FGN72011	a:: ah

During the interview sessions, FGN72012 reported the following reasons for avoiding the non-honorific speech styles (*panmal*):

1. She could not speak as quickly and fluently when using *panmal*.
2. Korean interlocutors also tended to avoid dropping into *panmal* when speaking to her.
3. She spoke Korean with a regional accent and this was more apparent in *panmal* and tended to provoke laughter from Korean interlocutors.
4. She strongly associated *panmal* with being “disrespectful” and “rude”.

The fourth of these points is of particular relevance to my study. For FGN72011, the use of non-honorific speech styles in any context, even towards intimates and status inferiors, represented impolite linguistic behavior. In particular, FGN72011 was reluctant to use non-honorific language towards inferiors and thus to press home a power advantage that she did not feel comfortable with. These observations are the first sign of what will become a repeated theme in this paper – that native-culture ideologies regarding “politeness” often render it difficult for L2 speakers of Korean to replicate native speaker norms.

4.2. Lack of control between {E} and {Y}

The data revealed that several participants struggled to achieve pragmatic control (Bialystok 1993) over the {E} and {Y} speech levels. In other words, when speaking *panmal*, occasionally the *-yo* ending of the {Y} speech style would slip out and, when speaking *contayqmal*, at times *-yo* would be unintentionally left off.

This lack of control over {E} and {Y} tended to occur with specific expressions, pre-final endings or grammatical constructions. In the role-play data of participant MGN76013, for example, while attempting to

use {E}, this speaker consistently switched to {Y} after the pre-final endings *-ney* (modal ending signaling newly perceived information), *-lkey* (volitional ending) and *-ketun* (ending signaling cause or explanation).

- (4) a. i-ship-pwun nuc-ess-ney-yo
'I see that I'm 20 minutes 20'
- b. com ttelecy-ess-ketun-yo
'because it fell'
- c. saylo nao-nun moteyl-ul sa-lyeko ha-lkey-yo
'I'm going to buy you a model that has just come out'

These findings confirm the observations of Park Sun-min (1994) that L2 speaker honorific use at times reflects the endings with which these learners had been taught particular expressions rather than social indexing.

4.3. "Strategic" use of {Y} speech style

The role-play data also reveals a fascinating tendency for some L2 speakers to use the {Y} speech style strategically to reduce the illocutionary force of their utterances and make their speech sound softer or more "polite". For these speakers, switching to the {Y} speech style while talking in panmal did not represent a lack of pragmatic control (as in section 4.2 above), but deliberate attempts to mitigate the force of sensitive speech acts. In the following examples, we see L2 speakers using the {Y} speech style in conversation with intimates when performing the sensitive speech acts of "promise" and "apology". These speakers typically and appropriately applied the non-honorific {E} and {T} speech styles in this interaction, but

upgraded when relaying utterances with potentially higher face threat such as the following:

- (5) a. ai cincca mianhay-yo [MEN85008]
'oh I'm so sorry.'
- b. nay-ka cenyek sa cwu-lkey-yo [FWK79020]
'I'll buy you dinner [to make up for breaking the camera].'
- c. ku ke- ku ke-nun nay-ka ta nay-lkey-yo [FEK86004]
'That- I will pay for that [the camera to be repaired].'

All of the three examples above are concerned with the speech act of apology – recognized by Brown and Levinson (1987) as a speech act with high potential face threat. (5a) comprises the apology IFID itself (“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 – performative verb of apology) ; (5b) and (5c) represent the supporting move of offer of repair – attempts to rectify or make up for the wrongdoing (Blum-Kulka and Olshtain 1984).

The fact that these upgrades to {Y} represented a strategy to be “polite” and reduce the potential face threat was confirmed during the interview sessions that I held with each participant. Comments from the interview session attempting to explain such upgrades include the following:

- (6) a. Especially if I'm late [reference to role-play situation], I think I would tend to use more -yo because I'd probably want to try and smooth things over, show respect or something. [MGN76012]
- b. Trying to be really sincere. Like I'm really sorry hay *cwulkeyyo*. [FWK79020]
- c. I think you want to use a higher language so they “oh he messed up so he's respecting me now” right even though we are the same age or younger or whatever, you know. [MEN85008]

d. I was using *contayqmal* to try to show that I was really, really sincere.
[MWK75018]

As can be seen in these extracts, for these speakers, upgrading to {Y} when performing sensitive speech acts represented attempts to “smooth things over”, “be sincere” and “show respect”. As such, these usages and the motivations behind them represent a discourse strategy totally different from anything occurring in native speaker interactions. To be sure, the literature on honorific upgrading (see for example Yoo Song-young 1997 and Lee Jung-bok 1999) is not wholly devoid of discussions of upgrading to {Y} to mitigate illocutionary force. However, it seems that the phenomenon is generally limited to situations in which the speaker is a marginal status superior and the hearer is a status inferior. In such instances, the status superior may use {E} as a normative level to index the status difference, but then upgrade to {Y} when performing sensitive speech acts. Although the speaker may be of higher status, the difference may not be great enough for him to be in a position to coerce the hearer. The switch to {Y}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status difference is small and that they are not intimate, thus providing the hearer with room to maneuver. Such usage does not appear to spread to language use between intimates ; friends do not use {Y} to each other except in jokes and sarcasm.

4.4. Inappropriate use of constructions with {Y}

The role-play and natural interaction data reveals a tendency for speakers to overuse a range of informal and potentially impolite

expressions occurring with the {Y} speech style in encounters with notable superiors. Although these expressions occur with the {Y} speech style and therefore could technically be said to be honorific, they are too casual and/or assertive for use towards elders. Examples from the first role-play (L2 speaker = student ; native speaker = professor) include the epistemic modal *-canha* signaling known information (7a), the expression *-tan mal-i-ayyo* ‘I’m telling you that’ (7b), and repeated use of the connective endings *-(nu)n-tey* (7c):

- (7) a. ku ttay papp-ass-tako kula-yss-canha-yo [FWK79020]
‘I was busy at that time, don’t you know’
- b. sikan-un machi-ese o-lyeko ha-yss-nuntey totwuk-i ce kapang
 kaci-ko ka-ss-tan mal-i-eyo
‘I was trying to come on time, but I’m telling you that a thief took my bag’ [FWK79020]
- c. yey ku ke ettehkey ha-nunci molu-nuntey-yo [FEN84005]
‘yes, I don’t know what to do about that’

For the role-play with the professor, the use of *-canha-yo* (known information) is too informal and furthermore presuppose that the status superior professor should remember that FWK79020 was busy. The expression *-tan mal-i-ayyo* [‘I’m telling you that’] is too assertive in a situation in which FWK79020 is supposed to be placating the professor for her misdemeanors rather than pleading her innocence. The expression also contains the plain *mal* (‘words, speech, language’), which is normally replaced with the honorific noun *malssum* when addressing status superiors. Finally, the repeated use of connective endings by FEN84005

appears to display transfer from this speaker's native language - Japanese. During the interview sessions, she reported that her use of *-(nu)ntey-yo* or *-ko-yo* was influenced by her native language, in which this feeling of unfinished-ness or of having more to say was connected with "polite speech". However, in the Korean context, overuse of such endings can make speech sound too casual or wish-washy and the unfinished-ness can give the feeling that the speaker wants to retain the floor and deny the hearer a turn.

5. Referent Honorifics

Given the fact that second language speakers err on the side of caution and "overuse" honorific speech styles, one might expect them also to employ referent honorifics at a higher rate than their L1 counterparts. However, the data suggests that the opposite is the case: L2 speakers have a tendency to omit referent honorifics. In line with this general pattern, I recognize three trends of usage in L2 referent honorifics: (1) avoidance of referent honorifics, (2) omission of referent honorifics in dative nominal constructions, overuse of +hearer honorifics/ - referent honorifics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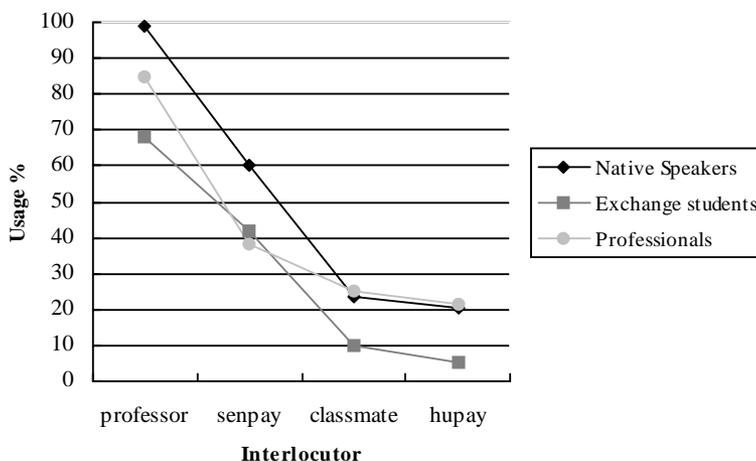
5.1. Avoidance of referent honorifics

The tendency for L2 speakers to omit referent honorifics was attested across all four types of data. In this section I consider examples from the DCT and natural interactions.

The design of the DCT allowed for the assessment of the inclusion of

the subject honorific *-sŏ-* in instances where the grammatical subject was the same entity as the hearer. As shown in the following graph, the usage of *-sŏ-* by both of the L2 groups lagged behind the L1 baseline. Most crucially, on the professor items, both the exchange students ($t = 4.0578$, $p = .0002$) and the professionals ($t = 2.7067$, $p = .009$) used *-sŏ-* at a significantly lower frequency than their L1 counterparts.

Figure 2: Usage of *-si-* in relation to power



Turning to the natural interaction data, in the following extract, FGN72011 is in conversation with another student in a *thalchum* class that she was taking. Although they are classmates and relatively intimate, the other student is considerably older (in her 60s) and also happens to be the wife of the teacher. In such instances, the age factor should too be great to allow any slackening of referent honorifics. However, as FGN72011 quizzes the elder regarding her reasons for taking the class, note the

omission of the subject “honorific” marker *-sŕ* in lines 1 and 4:

(8) FGN72011: at thalchum class		
1	FGN72011	→ i ke encey sicakha-yss-eyo? 'when did you start this- <u>[Y]</u> ?
2	elder	sam-nye:n- sa-nyen toy-ess-na- sa-nyen 'it's been three- four years- four years- <u>[E]</u> ?
3		sa-nyen cen-ey sicakha-yss-eyo 'I started four years ago- <u>[Y]</u> ?
4	FGN72011	→ ku mwe: namphyen swuep-ilase ilehkey? cheum-ey w-ass-eyo? 'that- well- did you come at first because it is your husband's class?'
5	elder	yey yes

I consider the reasons for the “underuse” of referent honorifics by L2 speakers in section 5.3 below.

5.2. Omission of referent honorifics in dative nominal constructions

Similar to the observations made regarding speech styles in 4.2, the data suggests that L2 learners struggle to control the application of *-sŕ* in certain constructions. In particular, a strong tendency was uncovered for participants to omit *-sŕ* in dative nominal constructions, in other words, utterance units in which the “honored being” appears as the (implied) dative nominal and the actual (implied) nominative is an inanimate object.

- (9) a. [kyoswunim-kkeyse] ku chayk yocum philyohay-yo? [MWK75018]
'Do you [professor] need that book these days?'
 b. [kyoswunim-kkeyse] [ku chayk] nayil tasi philyohay-yo? [MWK75018]
'Do you [professor] need that book again tomorrow?'
 c. [kyoswunim-kkeyse] [ku chayk] onul philyohay-yo [FWK79020]
'Do you [professor] need that book today?'

The omissions of subject honorifics by L2 speakers in such contexts suggests that there is a tendency for speakers to undergeneralize the application of *-sŭ* to instances in which the “honored being” is strictly in subject position. Whether this undergeneralization is due to the way that *-sŭ* is taught in KSL classes (i.e. as a “subject” honorific) or due to dative nominal constructions being more difficult to process is, at this stage, unclear.

5.3. Overuse of +hearer honorifics/-referent honorifics “code”

The analysis both in this section (section 5) and the previous one (section 4) have shown that second language speakers have a tendency to “overuse” honorific speech styles on the one hand, but avoid referent honorifics on the other. The upshot is that speakers tend to use the {Y} and {P} honorific speech styles on their own, without *-sŭ*. Such combinations of honorific and non-honorific language do exist in native speaker discourse, but have rather limited applications. The hearer should generally be of similar or subordinate age/rank to the speaker but increased distance or formality factors do not (yet) allow for the use of purely non-honorific language.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both of the L2 speaker groups used this combination of honorific and non-honorific language at a frequency roughly double to that of the L1 speakers on the DCT.

Figure 3: Use of honorific speech styles without *-sŕ* in DCT data

L1 speakers (n=40)	M	5,2
	%	21,7%
Exchange Students (n=10)	M	10,4
	%	43,3%
Professionals (n=10)	M	10,3
	%	42,9%
ANOVA	F = 9,106 p =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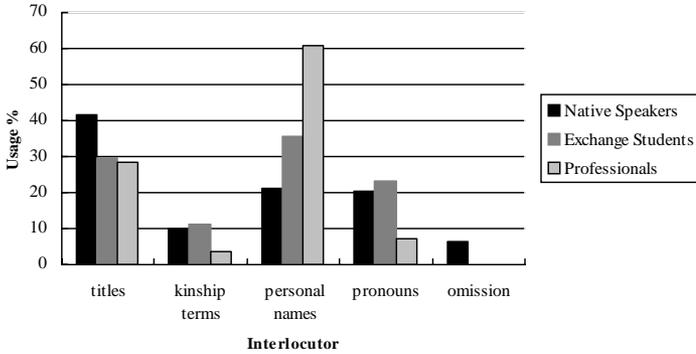
The following reasons for L2 speakers' preference for this mixed "code" were uncovered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 (1) tendency for this honorific/non-honorific "code" to be over represented in 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language courses and textbooks
- (2) KSL teachers and Korean interlocutors less likely to correct referent honorifics rather than speech styles
- (3) L2 speakers experience mor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function of referent honorifics
- (4) L2 speakers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referent honorifics
- (5) L2 speakers find this mixed code to be the most "comfortable"

6. Forms of Address

Due to the low frequency of address terms in the role-play and natural interaction datasets, the current section focuses exclusively on DCT dat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the data as to the frequencies of different forms of address in the L1 speaker, exchange student and professionals data, as summarized in the graph below.

Figure 4: Frequency of Forms of Address on DCT Data



Statistical tests show that the frequencies of all these four patterns of address (titles, kinship terms, personal names and pronoun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hree groups, although only marginally in the case of kinship terms. In the following sections, I comment on distinct patterns of usage and attitudes towards (1) titles, (2) kinship terms and (3) personal names.

6.1. Avoidance of titles

Closer analysis of the data shows that the L2 speakers did not only use titles at a lower frequency, but also used a smaller range of titles and in a narrower range of contexts. In fact, 60 of the 71 tokens for exchange students and 58 of the 68 tokens for professionals constituted use of the honorific titles *kyoswunim* ('professor'-hon) and *sensayngnim* ('teacher'-hon) towards the professor. Towards the *senpay* ('senior student'), whereas in the L1 data the titles *senpay* ('senior') and *senpaynim* ('senior-hon')

appeared 63 times (26.3%), in the L2 speakers these only appeared on 19 occasions (15.8%). L1 speakers also used titles such as *hakwu/hakhyeng* ('classmate') towards the classmate as well as *hupay* ('junior') and *hupaynim* ('junior-hon') towards the *hupay* ('junior student'). None of these forms of address appeared at all in the L2 data.

In the case of the exchange students and workers, the avoidance of terms of address based on university hierarchy was hardly surprising. In a sense, these forms and the concepts behind them did not really apply to these speakers. Thus, it was perhaps only the graduate students who may have needed to use terms such as *senpay(nim)*. Amongst these speakers, however, some resistance was detected towards the use of these terms. Participant FGK78014, for example, spoke as follows:

(10) I think maybe something in me like culturally just like shuts down, I'm like "you're one semester ahead of me, I don't care". FGK78014

Not only does the FGK7814's comment reveal a basic clash between her own egalitarian politeness ideology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Korean university, but a more specific reversion to indexing more marginal power differences in language. Although the vast majority of second language learners felt that it was quite reasonable to use respectful terms towards notable superiors such as professors and grandparents, many complained that marking differences of just one or two years in language appeared "illogical" to them, as FGK78014 put it.

6.2. Mixed attitudes towards kinship terms

The appearance of kinship terms in the DCT data was limited to the fictive usage of terms translating as “older brother” towards the *senpay* (‘senior student’). Although the exchange students used such terms at a similar frequency to the L1 group, the professionals were shown to all but avoid kinship terms.

The introspection sessions revealed thes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exchange students and professionals to reflect different sets of attitudes towards kinship terms. For some speakers – including the majority of exchange students – using kinship terms in a fictive way was a part of the language that was novel, fun and that they enjoyed. “I kind of like that”, commented MEN83007, “that wasn’t too hard to get used to”. However, other speakers – and especially the professionals group – reported a more cautious or even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use of kinship terms. Some of the older female participants also expressed a distaste for using *oppa* (‘older brother of a woman’) towards male interlocutors. The comments of FGN72011 and FGK78014 below show that these speakers associated *oppa* with a submissive feminine role:

- (11) a. I will use it [*oppa*] sometimes, but I am kind of prejudiced against it. It’s because of the Korean girls who whine and say “*oppa* [in whiney drawn out intonation] I don’t want to sound like that.
- b. It’s associated in my mind with something that’s like- like *aykyo* [‘cuteness’], Right, like trying to seem cuter than you are and like sort of emphasizing that by using *oppa*.

This avoidance of oppa and the negative view of how some Korean women talk is reminiscent in some ways of the experiences of Western women learning Japanese pragmatics reported in Seigal (1994, 1995). The clash between the Korean view of femininity and that of the Western participants, represented one more barrier i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honorifics for the female participants in the study.

6.3. Overuse of personal names

Overuse of the name+*ssi* formula was found to be a particular feature of L2 address terms usage. The frequency in the data of this *-ssi* suffix, which can attach both to given names and full names, is displayed in the table below:

Figure 5: Use of the *-ssi* suffix

L1 speakers (n=40)	M	3,4
	%	14,1%
Exchange Students (n=10)	M	6,6
	%	27,5%
Professionals (n=10)	M	8,8
	%	36,7%
ANOVA		F = 7,360 p = ,002

Similar to the mixture of honorific speech styles but omission of referent honorifics commented upon in previous sections, name+*ssi* seems to occupy a similar balance of polite egalitarianism – or at least the perception of it. The overuse of name+*ssi* also seems to reflect the fact that this is

one address formula in which second language speakers tend to be more rigorously socialized in. Due to their own unstable position in the status hierarchy, second language speakers may find that they themselves receive this form of address frequently from L1 interlocutors and thus are prone to copy such usage. In addition, the name+ssi format is, at least according to Lee On-kyeong (2005),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address form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This is also the form of address that Korean teachers use (quite appropriately) to address their students and encourage students to use to each other.

7. Conclusion

The discussions in this paper have revealed a number of salient patterns regarding the use of honorifics by speakers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o conclude the paper, I briefly summarize three of the main reasons as to why the honorifics systems of second language learners appear to differ so markedly from those of native speakers.

The first reason postulated is that the divergences from L1 norms stem from the way that honorifics are taught in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in other words, that they represent “transfer of training”. On this point, it has been noted that the honorifics pattern preferred by L2 speakers of Korean (name+ssi/no referent honorifics/{Y} speech style) is also the “code” that is most widely represent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Furthermore,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KSL teachers – as well as Korean interlocutors in the real world – are more likely to correct instances of omission of the {Y} speech level ending rather than referent honorifics.

In KSL, presenting this mixed “code” represents a convenient way to coach Korean learners into a use of honorifics that contains some level of “politeness” without getting “bogged down” in more complex discussions as to how honorifics are really used. However, the current paper suggests that this presentation of simplified honorifics in the KSL classroom may contribute to widespread patterns of inappropriate honorifics use by L2 learners.

The second factor that may contribute to the honorifics systems of L2 speakers “falling short” of the L1 baseline is insufficient socialization into Korean modes of social behavior. Although all of the participants in the current study had significant experiences of living in Korea, the context in which they used Korean were generally limited in one way or another and this affected the kind of honorifics competence they developed. In the case of the exchange students, university life provided them with ample opportunities to practice casual, non-honorific Korean with Korean friends and also with exchange students from China and Japan. However, since their Korean language teacher represented the only significant status superior with whom they interacted regularly, opportunities to be socialized into modes of interaction involving status superiors and the use of honorific language were greatly limited. As for the professionals group, these speakers used Korean in an academic or professional environment and were more accustomed to using and receiving honorific rather than non-honorific language. This group of speakers was generally less successful than the exchange students in creating casual friendships with Koreans. Although the exchange students could, to a certain extent, treat other students in the university as their status equals and peers, the

professionals found it more difficult to establish such relationships and develop opportunities to use non-honorific languag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se learners at times may have received insufficient instruction and socialization in the use of honorifics, these explanations can only go so far in explaining salient patterns of honorifics use by L2 speakers. The data clearly shows that not all of the uses of honorifics that strayed from L1 norms resulted from a lack of competence per se. In other words, there was a tendency for L2 speakers to misuse honorifics despite knowing that this usage may be inappropriate or even potentially offensive. To explain why this should be the case, in the current study I adopt the concept of “politeness ideology”. Put simply, speakers are less likely to converge towards native speaker norms when doing so would be in contradiction of their “native” or pre-existing thoughts and attitudes pertaining to what it means to behave or speak politely. On this point, participants in the current study reported a reticence to apply honorific forms that were either overtly subservient on the one hand or overtly condescending on the other and that therefore went against their “Western” ideology of egalitarian honorifics use. Using a mixed “code” of honorific speech styles but no referent honorifics allowed speaker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using Korean to some degree of appropriateness, but not sacrificing their own native-language ideals regarding politeness and human interaction. On the one hand, using the honorific speech styles gave them a feeling that they were being “polite” and not condescending or disrespectful towards any of their Korean acquaintances. Then, on the other hand, by omitting referent honorifics, their speech did not sound too subservient or too involved in the

perpetuation of a social system they did not necessarily aspire to become a part of.

References

- Bialystok, Ellen (1993) 'Symbolic representation and attentional control in pragmatic competence,' in Gabriele Kasper and Shoshana Blum-Kulka (ed.) *Interlanguage Pragma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3-57.
- Blum-Kulka, Shoshana and Elite Olshtain (1984) 'Requests and Apologies: 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 *Applied Linguistics* 5,3, 196-213.
- Brown, Penelope and Stephen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on, Andrew (2000) 'Pragmalinguistic Features of KFL Learners in the Speech Act of Request,' *Korean Linguistics* 11, 151-182.
- Chang Suk-jin (1996) *Korean*, Amsterdam: John Benjamins.
- Fouser, Robert (2005) 'Presentations of Politeness and Sociolinguistic Phenomena in Textbooks for Anglophone Learners of Korean,' Paper presented at the 3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October 22nd 2005.
- Goddard, Cliff (2005) *The Languages of East and South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 Sang-mee (2005) *Hankwuke moe hwaca-wa pimoe hwaca kan-uy uysa sothong mwuncey yenkwu—yengekwen hankwuke hakswupca-uy hwayongcek silpay-lul cwungsim-ulo*,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Hwang Juck-Ryoon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Kim Hee-sook (2003) 'Hyentay hankwuke hocinge-uy yeoksel: 2-cha sahoynay nulena-nun chincokesayong (A Paradoxical Usage of Kinship Address Terms in Modern Korean),' *Sahoyenehak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1, 55-93.
- Kim Jung-hee (1998) 'Woykwukin-ul taysang-ulo hankwuke taywupep ihaynunglyek

- cosayenkwu (A Study of Non-native Comprehension Ability of Korean Honorific Speech),’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im Soo-jung (1999a) ‘Hankwuke kyoyuk-ul wuyhan tayhwahyeng sisuteym-uy hankwuke taywupyohyen yenkwu (A study of Korean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Conversational Syste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wukekyoyukhakyen-kwu* 9, 435-454.
- _____ (1999b) ‘Oykwukin-ul wuyhan hankwuke kyocay-ey nathanan chengca taywu phyohyen,’ in *Namcen Park Kap-su kyoswu cengnyentoyim kinyem nonmwuncip*, Seoul: Kwuksechwulphan.
- Lee Ik-sop and S. Robert Ramsey (2000) *The Korean Language*, Albany, NY: SUNY.
- Lee Ji-young (1990) *Hankwuke taywuphyohyen-uy olyupwunsek - Hankwuke haksupca-uy olyuhyensang-ul pathang-ulo*, Masters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 Lee Jung-bok (1999) ‘Kwukekyengepep-uy cenlyakcek yongpep-ey tayhaye (On the Strategic Usage of Korean Honorifics),’ *Ehakyenkwu (Language Research)* 35.1, 91-122.
- Lee On-kyeong (2005) *Hankwuke kyoyuk-eyse chengca taywupep yenkwu - sahoycekwankyey cwungsim-ulo*,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Levinson, Stephen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Jeong-woon (2005) Hankwuke hochinge cheykyey, in Wang Hahn-seok et al (ed.) ‘Hankwuk sahoi-wa hochinge’, Seoul: Yeklak.
- Park Kyung-ja (1996)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merican Learners’ Use of Speech Levels and Honorifics in Korean,’ *Mincokmwunhwayenkwu* 29, 349-377.
- Park Sun-min (1994) *Hwacey-wa hocing-uy kwankyey yenkwu - oykwuke-lose-uy hankwuk kyoyuk-uy chukmyen-eys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peech Level and Address Term - F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Siegal, Meryl (1994) *Looking East: Learning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in Japan and the interaction of race, gender and social contex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 _____ (1995)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udy abroad: women learning Japanese in Japan*, in Barbara Free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25-244.
- Sohn Ho-min (1986) *Linguistic Expeditions*, Seoul: Hanshin.
- Sohn, John (1989) ‘Why Korean is Difficult for English Speakers to Learn,’ *Hankwukmal*

- kyoyuk* 1, 75-113.
- Yeon, Jaehoon (1996) 'Some problems in teaching Korean speech levels,' *Hankwukmal kyoyuk (Korean Language Education)* 7, 281-294.
- Yoo Song-young (1997) *Kwuke chengca taywu emi-uy kyochey sayong(switching)-kwa chengca taywupep cheykyey - him(power)-kwa yutay(solidarity)-uy cengtoseng-ey uyhan tamhwa pwunsekcek cepkun*,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On the importance of animacy and agency effects in the Korean diathesis system

Stefan Lorenz Knoob

SOAS

1. Introduction

Animacy and agency are two of the most fundamental cognitive-perceptual dimensions of human experience. The two are also, of course, intimately related: Agency as the potential for control in motion and action is one of the central features in the perception of animacy. And conversely, animacy is central to whether we will perceive a particular entity as having realised or at least potential agency. As for their specific role, animacy and its absence, and agency and its absence, are two of the parameters along which we perceive the involvement of the entities in a situational scene, as well as the situation itself. In language systems, the universal consequences are differentiation, variation and constraints in the structure and usage of argument marking patterns, diathesis constructions and voice-like verb-structural pattern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form and extent of such animacy and

agency-related effects differs considerably across languages. And unfortunately for contemporary linguistics, such effects are relatively weak in English and other Standard Average European languages. The situation is, however, quite different in Korean, where animacy and agency have strong effects that fall into at least three broad types. The first type of effect occurs in the argument pattern system, most obviously manifest i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Basic (Inanimate) and Animate Locational particles:

- (1) a. Inanimate Locational particles: 에, 에서, (으)로, 에다가 etc
 b. Animate Locational particles: 에게, 에게(서), 에게(로) etc

W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here is that this differentiation is maintained in the oblique agent-phrase-like arguments of passive-like clauses, as in the following contrasts:

- (2) a. 비둘기는 고양이에게 한쪽 날개가 찢겨서 날아가지 못하고 잡혔다.
 b. …… 고양이 발톱에 ……
 (3) a. 싸우다가 오빠한테 눈 찢려서 난리였지.
 b. …… 오빠가 던진 물건에 ……
 (4) a. [우리는] 전경들에게 막혀 한 발도 나갈 수 없었다.
 b. 길이 퇴근 교통으로 막혔다.

I shall refer to this phenomenon as *animacy* and *agency differentiation in argument patterns*.

The second type of effect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ctive and other verb and construction types, with the active types being predominantly

restricted to animate and agentive Subject referents. This is most obviously evident in the expression of concrete physical causation, where transitive active verbs and constructions are largely reserved to causation by an animate and agentive entity and avoided for causation by inanimate Subject referents:

- (5) a. 우리 딸들이 꽃 찢어버리는 게 취미야.
 b. *바람이 꽃 다 찢어버렸네.
- (6) a. 오빠가 눈 찢러서 난리였지.
 b. *젓가락이 눈 찢러서 난리였지.
- (7) a. [저는] 전기밥솥 없으면 밥 잘 못 지어요.
 b. *이 밥솥은 너무 오래돼서 밥 잘 못 지어요.

Instead, passive-like inactive verbs and constructions are the preferred or only solution:

- (8) 바람에 꽃이 다 찢겨버렸네.
- (9) 젓가락에 눈 찢러서 난리였지.
- (10) 이 밥솥은 너무 오래돼서 밥 잘 안 지어져요.

What matters here is the absolute strength of animacy and agency features of the pertinent referent. I shall therefore refer to this type of phenomenon as *absolute animacy and agency effects*.

The third type of effect is diathesis selection preferences that are conditioned by different animacy and agency features of core argument referents. Roughly speaking, these obtain where the Speaker expresses a causation-dynamic situation in which only one of the two core elements

is animate and the other inanimat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oncrete force-dynamic causation, the Korean Speaker will almost invariably choose between active and inactive constructions in such a way that the animate agent or patient element appears as the clause Subject:

- (11) a. 잔디는 애들이 밟아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b. *잔디는 애들에게 밟혀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12) a. 남편이 단속 카메라에 잡혀서 큰일났다.
b. *단속 카메라가 남편을 잡아서 큰일났다.

The familiar and much discussed ‘typical active–passive’ alternation is thus only unconstrained in situations with both animate agent and patient:

- (13) a. 아빠가 [딸래미] 밟아서 난리였지.
b. [딸래미] 아빠한테 밟혀서 난리였지.

What matters here is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two core situation elements in relation to a basic two-step hierarchy of animacy and agency potential. I shall therefore refer to this type of phenomenon as *relative animacy* and *agency effects*.

2. Animacy and agency effects in the Koreanist literature

In the literature on the Korean passive, data that shows animacy-related effects in diathesis selection has appeared regularly since at least the 1970s, particularly among Korean authors associated with the Kugŏhak tradition.

The main reason is, of course, is that they pose two problems for the traditional analysis that seeks to relate ‘passive’ verbs and clauses to active counterparts. Here,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Korean ‘passive’ tends to resist the addition of explicit agent phrases that relate to the active agent Subject. The second problem is that many ‘passive’ clauses have no (or no natural) ‘active’ counterpart.

On the other hand, however, even though the pertinent data is often discussed, the fact that it may be the result of systemic animacy-related effects and constraints has remained largely unrecognised in the Koreanist discourse. Thus, in most of the Korean grammar monographs I have seen, there is no reference at all to animacy effects or constraints in diathesis selection (f.ex. Nam Ki-sim & Ko Yŏng-gŭn 1985 ; Sŏ Chŏng-su 1996 ; Chang Suk-Jin 1996). The only exception I have seen is a brief comment on ‘pragmatic avoidance’ of inanimate agent subjects (Ho-min Sohn 1999: 369-370).

The situation is not that much better in the more specialised literature on the Korean ‘passive’. On the contrary, in order to relate ‘passive’ clauses to active counterparts, authors often adduce ‘data’ that is at least unusual or dispreferred, if not anomalous. Take the following examples, in which the proposed active clauses are of a type that is strongly avoided in actual usage, in line with Absolute Animacy Constraints against the use of active constructions for causation by inanimate entities:

- (14) a. 돌 하나에 기차가 뒤집혔다.
 b. [!]돌 하나가 기차를 뒤집었다. (*Both*: Im Hong-bin 1978: 315 ; [!]is mine)
- (15) a. 나무가 전기톱에 잘렸다.

b. *전기톱이 나무를 잘랐다. (*Both: Sŏ Chŏng-su* 1996: 1073-1074 ; *is mine)

Native speaker judgments of active clauses such as 14-b vary, and some speakers appear ready to accept them in principle. A number of facts, however, should make us very wary about them. The first is that linguists and speakers who consciously think about ‘grammatical rules’ are far more ready to accept them than the average ordinary speaker. The second is that even those who accept them usually concede that the inactive counterparts sound far more natural. And indeed, at least some linguists that present such examples do acknowledge that they are stylistically peculiar (see especially Im Hong-bin 1978 on 14b and similar examples). Thirdly, speakers are much less ready to accept such structures if one presents them in a more colloquial register. Thus, there seems to be general agreement that sentences such as the following are completely anomalous:

(16) *공이 냄비를 뒤집어 가지고 음식이 다 쏟아졌어.

And final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ctive sentences that would be even remotely similar to 14-b in corpus or web searches.

At this point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one exception to the general neglect of Absolute Animacy Effects on diathesis selection. This is the case of metaphorical usages that are conventionally applied only to the inactive verb and do not exist for the active counterpart, as in the following well-known examples:

(17) a. 마을이 어둠에 싸였다. (*Yi Ki-dong* 1976: 30)

b. *어둠이 마을을 썼다.

- (18) a. 그는 강박 관념에 쫓긴다.
 b. *강박 관념이 그를 쫓는다. (*Both*: Im Hong-bin 1978: 313)

On the other hand, however, explanations of why the inactive clauses the lack active counterparts tend to emphasise the idiomatic nature of such instances rather than the lack of animacy on the part of the anomalous active Subject referent. Thus, although Im Hong-bin's remark that "[18b]는 '강박 관념'이 '쫓는' 행동의 주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문이 된 것이고" clearly indicates awareness of the Absolute Animacy Constraint as the reason for the anomaly of the active sentence, his main emphasis lies on the fact that the pertinent idiomatic meaning is lexically and semantically sanctioned for the 'passive' verb 쫓기다 but not the active verb 쫓다.

Turning to the Relative Animacy Effects, these remained unrecognised until the 1980s, when a series of seminal studies by the non-native typologist Miriam Klaiman placed Korean voice within the cross-linguistic context of direct-inverse systems (Klaiman 1984, 1988, 1991: §4.1). Klaiman's analysis, however, has gained little acceptance, partly due to her non-traditional approach and partly due to inaccurate and disputable observations. Unfortunately, this has also meant that her identification of Animacy Hierarchy Effects in the Korean diathesis system remains largely ignored in the literature, with only few exceptions (notably U Hyōng-sik 1996 and Jaehoon Yeon 2003). One consequence has again been the widespread practice of presenting 'data' that does not or only very rarely occur in real usage:

- (19) a. *책상이 목수(에게 | 에 의해) 만들어진다. (Sōng Kwang-su 1976: 71 ;
 * is mine)

- b. *집 앞 담장이 할아버지에게 헐렸다. (Im Hong-bin 1977: 335 ; *is mine)
 c. *책이 아이에게 읽힌다. (Sŏ Chŏng-su 1996: 1054, *is mine)

To conclude then, animacy and agency-related effects in Korean diathesis selection still remain to be properly appreciated in the Koreanist discourse. Against this background one of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y should not be dismissed into the realms of pragmatics but embraced as explanations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voice and diathesis system.

3. Parallels in other languages

It is by now well-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inguistics that the fundamental perceptual distinction between animate and inanimate entities (as well as more fine-grained animacy distinctions) has profound effects on the organisation of linguistic systems. Thus, for one, many languages show animate-inanimate distinctions in argument-marking patterns. One well-known example is Spanish, where the inanimate target arguments of transitive active verbs take no object marker but animate target arguments are mostly marked with the Dative preposition *a*:

- (20) a. Juan golpeó la mesa.
 Juan hit.aor.3sg def.f table
 'Juan hit the table.'
 b. Juan golpeó a su perro.
 Juan hit.aor.3sg loc/dat 3.poss dog
 'Juan hit the table.'

Although in Korean, of course, the distinction is made within the oblique argument marking system, the phenomenon is a comparable one.

Animacy effects in the selection of active versus inactive diathesis are also widely attested. Thus, even in English, we find usage preferences that are less strict but analogous to the Korean Relative Animacy Effects. Thus, for example, for situations with 1st or 2nd person agents and inanimate targets, Colloquial English often shows a near-obligatory preference for active constructions. Most significantly this is even so where the target is topical, leading to object scrambling or left-dislocation:

- (21) a. All those photos, why on earth have you torn'em all up?
cf. 사진은 도대체 왜 다 찢어버렸어?
b. *All those photos, why on earth have they been torn up by you?
cf. *사진은 도대체 왜 너에 의해서 찢겨버렸어요?

- (22) a. This book I bought in Korea.
b. This book, I bought that in Korea.
c. *This book was bought by me in Korea.

In addition, active topic-fronting constructions are often near-obligatory with 3rd person pronouns:

- (23) a. All those photos, why on earth did she tear'em all up?
b. *All those photos, why on earth have they been torn up by her?

And, although passive constructions occur widely with animate agent phrases, there are at least some cases where topic-fronting active constructions remain the preferred choice:

- (24) a. This book, my wife bought that in Korea.
 b. ¹²This book was bought by my wife in Korea.

Where both cause locus and effect locus are inanimate, on the other hand, active constructions are normal where the cause locus is topical. But, where the effect locus is topical, passive constructions are the normal choice:

- (25) a. The tsunami completely destroyed this village.
 b. This village was completely destroyed by the tsunami.
 c. ¹This village, the tsunami completely destroyed it.

As so often, however, comparison with English is only of limited value for understanding what goes on in the Korean system. Thus, not only are animacy hierarchy effects relatively limited, but active constructions are usually a perfectly normal solution for the expression of inanimate causation (as here in 25a). Many other languages, however, are much more restrictive and generally disprefer extensions of their transitive active constructions to inanimate causation in most registers and contexts. One example is the Dravidian Language Kannada, where it seems that transitive active constructions are generally not used for inanimate causation (Nanjundaiah W. 1993 ; see also Bath 1991: 67-68):

- (26) a. ^{*}candamaarutavu marav-annu urulis-itu
 hurricane.(sbj) tree-acc knock,over-pst-3N.sg
 For: 'The hurricane knocked over the tree.' (Nanjundaiah W. 1993)
 cf. ¹²태풍이 나무를 넘어뜨렸다.
 b. Candamaarutad-inda maravu urul-i-tu

hurricane-inst tree, (sbj) fall, over-pst-3N, sg
Lit: 'By the hurricane the tree fell over.'
 = *Eqv*: 'The hurricane knocked over the tree,' (Nanjundaiah W. 1993)
cf. 태풍으로 나무가 넘어졌다.

- (27) a. avanu maḍake-yannu oḍe-d-a
 he, sbj pot, acc break-pst-3M, sg
 'He broke the pot,' (Bath 1991: 67)
cf. 아저씨가 항아리를 깬다.
- b. *kallu maḍake-yannu oḍe-y-itu
 stone, (sbj) pot, acc break-pst-3N, sg
 'The stone broke the pot,' (Bath 1991: 67)
cf. *?돌이 항아리를 깬다.
- c. kallininda maḍake oḍe-yal-aa-y-itu
 stone, inst pot, (sbj) break-inf-pass-pst-3N, sg
Lit: 'With/by the stone, the pot was broken' = *Eqv*: 'The stone broke the pot,' (Bath 1991: 68)
cf. 돌에 항아리가 깨졌다.

According to Bath, active clauses such as 26a or 27b are restricted to poetic style. It thus seems that they are possibly even more dispreferred than in Korean.

As for the Relative Animacy effects in Korean diathesis selection, similar phenomena are well-established for many North and Central American languages (see Klaiman 1991: §4.1). Thus, in the Mayan language Tzotzil the choice between active or agented/caused passive is forced where two 3rd person referents differ in animacy (Aissen 1997):

- (28) a. I-s-vok' p'in li maruch-e
 pf-3erg-break pot def Maria-encl

'Maria broke the pot.' (Aissen 1997: 728)

cf. 마리아가 항아리를 깬다.

- b. *I-vok'-e yu'un maruch li p'in-e
pf-3erg-break-pass by/agt Maria def pot-encl

'The pot was broken by Maria.' (Aissen 1997: 728)

cf. *항아리가 마리아에게 깨졌다

- (29) a. *I-s-mil Xun li ton-e
pf-3erg-kill Juan def rock-encl
'The rock killed Juan.' (Aissen 1997: 725)

cf. *돌이 후안을 죽였다

- b. I-mil-e ta ton li Xun-e
pf-kill-pass by rock def Juan-encl
'Juan was killed by the rock.' (Aissen 1997: 728)

cf. 후안이 돌에 깔려 죽었다

Note the similarities in the acceptability of the Korean structural parallels.

To conclude then, animacy effects in voice and diathesis systems are a cross-linguistically widespread phenomenon, and we can find many parallels to what is going on in Korean.

4. Animacy effects and the 'agent' and 'agent phrase' categories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o the appreciation of the Korean 'passive' has been the fact that it is used very differently from the passives of English and other Standard Average European languages that have informed linguistic theories of the past decades. Here, one problem is that Korean has no single 'agent phrase' pattern comparable to the English by

phrase. The second problem is that Korean ‘passive’ clauses often have no acceptable ‘active’ counterparts. This causes difficulties for the idea that the ‘active’ is systemically basic and the ‘passive’ systemically secondary and derived from the ‘active’. The third problem is that Korean ‘passive’ verbs are generally used in a way that corresponds both to the theoretical category of the passive predicate and the theoretical category of the anticausative verb, that is a morphologically marked inchoative or unaccusative verb.

Turning to the first issue, Korean inactive verbs occur with a wide variety of oblique expressions of the situation’s cause locus (agent, cause etc):

- | | | | |
|---------|--------------|------------|--------|
| (30) a. | N-에게/한테 | N-에 | N-(으)로 |
| | b. N-에 의해(서) | N-(으)로 인해서 | |
| | c. N-(으)부터 | N-때문에/땀에 | |

Not all of these are generally accepted as Korean manifestations of the ‘agent phrase’ category, it is easy to find arguments against an ‘agent phrase’ analysis for all but N-에게/한테.

Unfortunately, a discussion of all of these patterns is not possible here and we shall have to concentrate on the set of patterns in 30a. Here, of course, *에게* and *한테* are generally considered to mark ‘animate agents’, whereas *에* is said to mark ‘inanimate agents’. The function of the Instrumental particle (으)로, on the other hand, is more controversial: some will accept an agent-phrase analysis while many do not. Whatever position one takes, it is clear that both *에* and (으)로 are used to mark oblique

arguments in inactive clause constructions that can at least in some cases be related to a corresponding active Subject:

- (31) a. 왜 나만 (모기한테 | 모기에) 물리는지 모르겠어.
 b. 모기는 왜 나만 무는지 모르겠어.

- (32) a. 꽃이 바람에 꺾였네요.
 b. [!]바람이 꽃을 꺾었네요.

- (33) a. 차체가 (충알에 | 충알로) 여기저기 뚫렸다.
 b. [!]충알이 차체를 여기저기 뚫었다.

- (34) a. (용암에 | 용암으로) 온 마을이 문혔습니다.
 b. [!]용암이 온 마을을 문혔습니다.

On the other hand, however, in the case of 32-34 the event is caused by an inanimate entity or percept, and although the active clauses are acceptable, they are certainly the less likely choice. That this matters is clear from the fact that active counterparts are anomalous in cases such as the following:

- (35) a. 아가 잇몸에 물리면 얼마나 아픈지 물어?
 b. ^{*}아가 잇몸이 물면 ……

- (36) a. 바람에 꽃이 다 찢겼네요.
 b. ^{*}바람이 꽃을 다 찢었네요

- (37) a. 칼에 벽이 뚫리면 냉동실 망가져!
 b. ^{*}칼이 벽을 뚫으면 ……!

- (38) a. 화산 분출로 온 마을이 (용암에) 묻혔습니다.
b. *화산 분출이 온 마을을 (용암에) 묻었습니다.

Clearly, what makes the active sentences here anomalous is that the situations are too different from actions of an animate agent that are usually expressed by the active verbs 묻다, 찢다, 뚫다 and 묻다.

The factors that make some active sentences relatively acceptable but others anomalous are not that easy to identify, and the more data one considers, the more complex the situation seems to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s seem to be that the cause locus have autonomous motion features, that the cause locus has a direct force-dynamic impact on the effect locus (witness 34b versus 38b), and that the effect arises at the spatio-temporal endpoint of the motion path (witness 32b versus 36b).

What matters most in the context of this paper, however, is that active clauses such as 31-38:b are generally dispreferred because the cause locus is inanimate and thus lacks the most central cognitive-perceptual feature of the typical agent. And, of course, this is precisely why the inactive ‘agent phrase’ is not marked with the Animate Oblique markers *에게* or *한테* but with the Inanimate Oblique markers *에* or *(으)로*. What this means, however, is that the Korean system consistently distinguishes between agents and agent causation, on the one hand, and inanimate forces or causes and non-agent causation, on the other hand. In such a diathesis system then, the ‘agent’ and the ‘agent phrase’ categories in their established general sense are simply not adequate analytical categories.

5. Animacy effects and the passive–inchoative polysemy of the Korean ‘passive’

As I have already emphasised, one of the cent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assive’ verbs is that their usage generally conforms both to the theoretical notion of the passive and to that of a morphologically marked inchoative. And it is probably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passive–inchoative polysemy lies at the heart of most of the analytic problems and disagreements in the literature on Korean voice.

This, of course, was not always so, and in fact the problems began only when the Generative Turn began to influence the Koreanist discourse. Certainly, Ch’oe Hyŏn-bae (1937/61: 410-434) had no problem in accommodating inchoative-like usage under the term ‘spontaneous passive (절로되는 입음법)’, although he too treats the passive-like function as primary. Since the early 1970s,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and most authors began to insist on a strict categorial distinction between a ‘true’ or ‘typical’ passive and other ‘pseudo-passive’ or ‘untypical passive’ usage. One result of this analytic stance has been a focus on idiomaticity as an explanation for less-than-passive-like usage, based on instances such as the following well-known examples:

(39) a. 날씨가 풀렸다.

b. *X가 날씨를 풀었다. (*Both*: Yi Kitong 1976)

(40) a. 그는 강박 관념에 쫓긴다.

b. *강박 관념이 그를 쫓는다. (*Both*: Im Hong-bin 1978: 313)

And again another result has been attempts to show that either the ‘morphological passive’ (based on ㅎ] and allomorphs) or the ‘analytic passive’ (based on -아/어지다) is a passive (with non-passive uses) and the other an inchoative/anticausative pattern (with passive-like uses) (see esp. Yi Ki-dong 1976, 1978 versus Im Hong-bin 1977, 1978).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osition that I take is that the Korean verbal voice system simply consists of an active and an inactive side, and its inactive side has no further distinction between (more or less) spontaneous situations and caused (or indeed agent-caused) situations. Unfortunately, a detailed and empirical justification for this position is not possible in this paper. A system that conflates the inchoative and passive categories into one verb-structural voice category is, however, highly consistent with the way in which animacy effects shape the Korean diathesis system:

- (1) Actions in which an animate agent acts on an inanimate object can only be freely expressed either as an active or as an inactive without agent argument. This means that the inactive expression is strongly aligned with the expression of spontaneous events.
- (2) Situations that are caused not by agents but by inanimate entities or inanimate percepts are preferentially or obligatorily expressed by inactive constructions. This means that the expression of non-agent causation is only weakly aligned with the expression of actions.
- (3) Animacy differentiation in the system of inactive cause locus patterns means further lack of alignment between the expression of actions and non-agent causation.

Thus, if look at clause-constructural choices, we see:

- (a) Weak associ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actions and non-agentive causation,
- (b) Strong associ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non-agentive causation and spontaneous situations,

In other words, there is only weak systemic pressure for a verb-morphological ‘passive’ category that would subsume actions and non-agentive causation, but strong systemic pressure for a single verb-morphological category that subsumes both non-agentive causation and spontaneous situ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I believe, not at all surprising that the Korean verbal system has no distinct ‘passive’ category but instead a single inactive category.

References

- Aissen, Judith (1997) ‘On the syntax of obviation,’ *Language* 73,4, 705-750.
- Bath, D.N.S. (1991) *Grammatical relations: the evidence against their necessity and universality*, London UK & New York US: Routledge.
- Ch’oe Hyŏn-bae 최현배 (1937/61) 『우리 말본』 *Uri malbon (Korean grammar)*, 3번째 고침 (3rd revised edition), 서울 Seoul: 정음문화사 Chŏngŭm munhwasa (1st edition 1937).
- Im Hong-bin 임홍빈 (任洪彬 1977) 「피동성과 피동구문」 *P’idongsŏng kwa p’idong kumun (Passiveness and passive syntax)*, 『국민대학교 논문집』 (*Kungmin University Research Papers*) 12.1, 35-60 ; Seen as reprinted in 임홍빈 Im Hong-bin, 『국어문법의 심층 3』 *Kugŏ munpŏp ŭi simc’ŭng 3 (Explorations of Korean Grammar 3)*: 『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 *Ŏhwi pŏmju ŭi t’ongsa wa ŭimi (Lexical categories and their syntax and semantics)*, 서울 Seoul ROK: 태학사 T’aeaksa, 333-363.
- _____ (1978) 「피동화의 의미」 *P’idonghwa ŭi ŭimi (The semantics of passivisation)*, 『진단학보』 *Chindan hakpo* 45 (1978-10), 95-115 ; Seen as

- reprinted in 임홍빈 Im Hong-bin, 『국어문법의 심층 3』 *Kugŏ munpŏp ŭi simc'ŭng 3 (Explorations of Korean Grammar 3): 『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 Ŏhwi pŏmju ŭi t'ongsa wa ŭimi (Lexical categories and their syntax and semantics)*, 서울 Seoul: 태학사 T'eahaksa, 307-332.
- Klaiman, M. H. (1984) 'The grammar of doing and undergoing in Korean,' *Language Research 『어학연구』* 20,4, 331-343.
- _____ (1988) 'Affectedness and control: a typology of voice systems,' in Masayoshi Shibatani (ed.) *Passive and Voice*, Amsterdam NL, Philadelphia US: John Benjamins, 25-89.
- _____ (1991) *Grammatical Voice*, Cambridge UK, New York US et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njundaiah W. (1993) 'Shashi Nanjundaiah. Exact date unknown,' seen as copied into in the summary on LINGUIST List, Vol-4-445 (09-06-1993).
- Sŏ Chŏng-su 서정수 (1996) 『국어문법』 *Kugŏ munpŏp (Korean grammar)* 수정증보판 (Revised & enlarged edition), 서울 Seoul ROK: 한양대학교 출판원 Han'yang taehakkyo ch'ulp'anwŏn.
- Sŏng Kwang-su 성광수 (成光秀 1976) 「국어 의사피동문」 *Kugŏ ŭisa p'idongmun*, 『관대 논문집』 4, 65-84.
- U Hyŏng-sik 우형식 (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Kugŏ t'adong kumun yŏn'gu (Investigations into Korean transitive syntax)*, 서울 Seoul: 박이정 Pak I-jŏng.
- Yeon Jaehoon 연재훈 (2003)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 London: Saffron Books, Eastern Art Publishing.
- Yi Ki-dong 이기동 (1976) 「한국어 피동형 분석의 검토」 *Han'gugŏ p'idonghyŏng punsŏk ŭi kŏmt'o (An evaluation of the analysis of the Korean passive form)*, 『건국대학교 인문과학 논총』 (*Kŏnguk University Humanities Papers*) 9, 25-41.
- _____ (1978) 「조동사 '지다'의 의미 연구」 *Codongsa 'cida' ŭi ŭimi yŏn'gu (Investigations into the semantics of the auxiliary 'ci · ta')*, 『한글』 *Han'gŭl* 161, 29-61.

외국문학의 영향과 서정소설

김 경 선

북경외국어대학

1. 들어가기

한국과 중국의 현대문학은 외국문화의 강한 충격으로부터 그 막을 열게 되었다. 따라서 한중현대문학을 살펴봄에 있어 외국문학 사조와 외국문학의 영향을 도외시할 수가 없다. 이 시기 작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서구문화의 세례를 받았는데 한국의 이광수나 최남선, 중국의 노신이나 곽말약 등 각기 해당국 현대문학사의 첫 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 세대¹ 문호들에게서는 모두 외국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이들 한·중 현대문학작가들은 혹자는 자국문화의 토양 속에 외국문학을 융화시켜버려 그 흔적이 희미해지기도 했지만 혹자는 아예 외국문학적인 것을 그대로 옮겨와 외국적인 것과 자국적인 것이 각자의 빛깔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병존하는 특이한 문학작품을 창작하

1 趙園은 5·4 시기 작가들을 일세대로 그 후 30년대에 창작을 시작한 좌익문예운동 작가들을 이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 작가들의 서양문화의 세례를 받으면서 괴로움과 모순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시켜나간 것에 반해 1930년대 작가들은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가진 창작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와는 완전히 적합하지 않지만 초창기 작가들이 자기 정체성을 키워 가는 과정과 현상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서는 이런 분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본다(趙園 1997).

기도 하였다. 한국의 서정소설 작가 이효석과 중국의 서정소설 작가 郁達夫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남달리 예민한 감수성과 교육을 통해 확보하게 된 외국어 능력, 또한 당시 외국문학 사조의 충격에 놓인 문화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외국문학에 남다른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에 경도해버리면서 작품 창작에서 뚜렷이 외국문학 또는 외국문화적인 요소들을 띠게 된다.² 필자의 흥미를 끈 것은 20세기 초 서양의 문학사조나 문학작품의 영향은 아세아적인 것이었기에 이효석과 郁達夫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구 저서나 논문들에서도 같은 외국작가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고 또 그 영향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³ 이로부터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받은 외국문학의 영향은 어느 한 나라, 한 작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은 이효석 스스로도 “반드시 체휼을 사숙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후 잡다한 작가를 읽어서 그 모든 것에서 혼동된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마땅할 듯하다”고 밝히고 있다(주중연 1996: 147).

구체적으로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들에게서는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격돌과 화합을 거쳐 복잡하고 모순되는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⁴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의 소재, 문체, 모티브, 인물 등 면에서도 외국문화적이며 외국문학적인 요소들이 도처에서 산견된다. 이는 단지 이들이 외국문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의 모순도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들의 창작적 풍격과 특징을 규정지어주기도 했음을

2 이효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김해옥(1993: 4-10)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 뒤로 석사학위논문이 몇 편 더 있는데 뒤에 열거하기로 한다. 郁達夫에 관해서는 劉九明(2001), 許子東(1999), 趙園(1997) 등이 있다.

3 예를 들면 오스카 와일드, 체호프, 로렌스, 워즈워드 등이다. 이런 이름들은 일차적으로 먼저 텍스트로서 그들의 작품들이나 기타 문장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4 이세주는 이효석의 이런 문학 특징을 혼종성(hybridity)이라고 하면서 ‘메주내’와 ‘버터내’가 뒤섞인 것, 달리 말해 식민지와 제국의 감각이 혼용되고 착종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거니와 정한모도 이효석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메주문화와 버터문화의 갈등이 심각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이세주 2006: 36 ; 정한모 1984: 330).

집착케 한다.⁵ 이효석과 郁達夫가 받은 외국문학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이 효석과 郁達夫의 문학의 원천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중한문학의 보편성을 규명해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효석과 郁達夫는 어느 한 나라, 한 작가, 한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작가들한테서 영향을 받고 영감을 얻었다. 따라서 한편의 논문으로 이들의 서양문학적 성격을 전체적으로 규명해본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가장 공통되는 부분만을 비교하여 그들의 문학적 특징을 조명해보려 한다.

2. 외국문학의 영향

이효석과 郁達夫가 생활하고 문학활동을 한 시기는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붕괴되면서 유교학이 더는 사회발전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새로운 강력한 사회적 응집력을 지닌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토대가 형성되지 못한 시기였다. 이효석과 郁達夫가 서양문화에 강한 동경을 나타내는 것은 당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와 혼돈을 일으켜 사회의 통일성과 응집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던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이 이들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은 서양문화 충격 그자체가 준 영향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철저한 것이기 때문이다(黎德机 2006: 649).

다양한 양상으로 변주되면서 들어온 서구 문명은 근대성(Modernity)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 지표 가운데 하나가 새로움(newness)⁶이란 특징인데 생애

5 이에 관해서는 김경선(2004)을 참조할 것.

6 '새로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이세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참조할 것. 이세주는 이 '새로움'이라는 기호가 이효석 문학이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이세주 2006: 40).

전반을 통해, 문학 전반을 통해 새로움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았던 이효석과 郁達夫에게서 이와 같은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유럽문명에 대한 동경과 추구로 구체화되고 있고 서양문화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시류를 따르는 하나의 탈출구였을 것이다.

2.1. 서양문학의 영향⁷

이효석의 창작은 서양문학의 절대적 영향아래 놓여 있었다. 이효석은 러시아문학, 영문학, 불문학을 비롯한 서양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영향을 받았다.⁸ 그는 서양 작품의 단서 없이는 붓을 들기 어려웠다는 투로 적고 있는데⁹ 보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맨스필드, 체호브, Kessel의 영향이다.¹⁰

이효석은 「나의 문단 십년기」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고등보통학교 2, 3학년을 기숙사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미상불 문학의 열이 높아서 사생 중의 그 어느 한사람 책꽂이에 소설본 두서너 권 안 꼽은 사람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웬 일인지 함경도 출신의 사범생간에 특히 열이 심해서 그들이 탐독하는 것은 대개 노문학서로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체홉의 단편집이었다. 14, 5세에 체홉을 읽는단들 그 맛을 알고 정확히 이해할 수는 만무하다고 생각되나 일종의 문학의 분위기를 그런 데서 터득했던 것은 사실일 듯하다. 북극의 자연묘사라던가 각색 인물의 변화에 모르는 속에 흥미를 느껴갔던 듯하다. 당시 체홉을 읽되 그의 진미를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지금 와서야 겨우 체홉의 문학의 동기라던지 맛을

7 보다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따로 논의해야겠지만 논의의 편의상 하나로 구분하기로 한다.

8 정한모의 통계를 참고하면 이효석의 글들에서 약 120명의 작가들이 언급되고 있다(정한모 1984: 334).

9 김윤식(1989: 115)에서 재인용.

10 이점에 대해서는 김윤식(1989: 112-115), 정한모(1959) 참조.

참으로 알게 되었음에라. 참으로 문학소년에게는 체험은 어려운 대상이요 목표이다.¹¹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채호브의 단편 『悲嘆』은 인물 설정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나귀와 말을 각기 생의 반대로 똑같이 노방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두 주인공은 모두 늙고 지친 몸이 되어 이제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같이 생활전선에서 이미 낙오되었거나 점차 낙오되어 가고 있는 군상들로서 무기력하고 지쳐있으며 애수의 정서에 쌓여 고요한 안식을 갈구하고 있다.

허생원의 외롭고 슬픈 인생의 이미지는 『悲嘆』에서 아들을 잃은 마부 이오나의 슬픔과 많이 닮아 있다. 이오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려 승객들에게 말을 걸지만 번마다 거절을 당하고, 문지기한테마저 그 의욕은 좌절을 당한다.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하숙집의 이웃들조차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극도의 고독과 상실감 속에서 이오나는 마구간 속 자기의 말 곁으로 가서 말에게 속삭이게 된다.

허생원의 성처녀와의 하룻밤 이야기는 조생원으로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더는 귀를 기울일 흥미를 갖지 못하고, 뒤에 선 동이에게는 들리지 않아 실지 무슨 독백과도 같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셈이었다. 즉 나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외롭고 고독한 점에서 이 두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시하고 있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허생원이 나귀한테 느끼는 친밀감은 이오나가 그의 말에게서 느끼는 친분의 밀도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효석과 郁達夫는 여러 나라, 여러 작가의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한 작품에 동시에 여러 작가의

11 주종연(1996: 147) 재인용.

영향을 받았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숨막힐 듯한 메밀꽃의 이미지는 맨스필드의 배꽃의 이미지를 따오고 있다.¹²

저쪽엔 담으로 향해 한 포기 of 맛있는 배나무가 가지가지에 그득 꽃을 달고 있었다. 마치 구슬같이 푸른 하늘에 고요하고 화려하게 뻗치고 있다.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가 한 개나 있을까. 시들어 버린 송이가 한 송이나 있을까- 한창 깨끗하고 흐뭇하게 활짝 피어 있는 것이 멀리 서있는 피어사에게 완연히 보여 왔다.……

그 나무는 고요하게 그러나 타는 초벌의 불꽃과도 같이 하늘에 뻗치고는 아름답게 떨리고 있다. 불 동안에 자꾸만 높아져서 금시에 하늘 위 둥근 달에 채일 듯하다(『이효석 전집』V: 18-19).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들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 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 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산허리는 온 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이효석 단편소설선』전원: 93).

이효석의 메밀꽃과 맨스필드의 배꽃은 모두가 희다는 점을 따서 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효석이 이 단편을 창작할 무렵에는 이미 상당히 성숙된 창작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었는데도 외국문학의 영향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그의 작품 속에 외국문학적 요소들이 상당히 내재해 있음을 설명한다.

이효석이 갖고 있는 서구적인 취향과 문학창작에서 나타나는 엑조티시즘적인 특징은 郁達夫한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許子東에 따르면 郁達夫가 숭배했던 외국작가는 상당히 많다.¹³ 이는 그의 서구문화적 취향을 대변하는 중요

12 이점에 대해서는 김윤식(1989: 119) 참조.

13 許子東은 郁達夫가 숭배했던 외국작가 명단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투르케네브, 토스토예프스키, 괴테, 루소, 린도(Lindau, R), 워즈워드, D·H·로렌스, 오스카 와일드, 伊藤春

한 내용인데 갖가지의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한 문학유과와 예술경향들이 그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고 그 흔적을 뚜렷이 남기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러시아문학은 郁達夫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郁達夫는 「소설론」에서 러시아문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소설들 가운데서 중국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은 러시아 소설이다. 고골리, 투르게네브, 톨스토이, 스토예브스키, 곤찰로브 등 지난 작가들 외에도 근대작가 체호브, 고리키, 안드레예브, 야르츠이마세브 등 작품들이다(郁達夫 1991: 14).

郁達夫는 투르게네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투르게네브는 郁達夫가 접한 첫 외국작가이며 그의 「첫사랑」과 「봄」을 처음으로 읽고 외국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문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투르게네브에 대해 郁達夫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고금의 많고 많은 외국의 작가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익숙하며 그의 작품과 가장 오래 접촉해왔는데도 싫지 않은 작가는 투르게네브이다. 나에게 있어 이는 남다른 편애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소설을 읽고 소설을 쓰고 싶어진 것은 완전히 부드러운 외모에 우유했던 눈, 털북숭이 얼굴을 가진 북극거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¹⁴

郁達夫의 소설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투르게네브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는데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강한 자서전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

투르게네브의 작품들은 작가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郁達

夫, 葛西善藏(許子東 1999: 185).

14 郁達夫(1936), 崔九明(2001: 19)에서 재인용.

夫의 소설들도 거의 대부분이 작가의 자서전이며 자신의 신변잡사들을 작품의 소재로 하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자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郁達夫 소설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2) 郁達夫 작품들에서 인물들에게 부여한 ‘잉여인간’이라는 호칭은 투르게네브 작품에서 인용한 것이다. 郁達夫 작품들에서는 비록 이름은 달리하지만 25-26세의 약질의 지식청년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었고, 귀국한 후에는 교단에서 거나, 글을 팔아 궁핍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인물형상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살아도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죽어도 사람한테 해가 안 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물군들로서 모두 ‘잉여인간’으로 불릴 수 있다.

(3) 투르게네브는 작품에서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인물을 내세워 일인칭 서술자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郁達夫는 이 영향을 받아 작품에서 ‘나’ 또는 이름만 바꾼 또 다른 ‘나’의 자서전을 펼쳐 보이고 있다.

(4) 작품에서 나타나는 강한 서정성은 투르게네브의 작품특징과 많이 닮아 있다.¹⁵

李歐梵은 郁達夫의 초기 삼부작 『침륜(沉淪)』, 『남쪽으로 옮겨가다(南遷)』, 『은회색의 죽음(銀灰色的死)』이 외국 문학적 요소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쪽으로 옮겨가다(南遷)』는 괴테의 시 “미농”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 증거로 소설의 일곱 개 소제목 가운데 이 괴테의 소설이름에서 따온 것 외에 나머지 여섯 개는 모두 “미농”에서 따왔으며 이 시가 소설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郁達夫는 소설의 부록으로 “미농”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수록하고 있어 李歐梵의 논의가 보다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다. 郁達夫의 다른 한 작품 『은회색의 죽음(銀灰色的死)』은 주로 도손의 생애에서 많은 소재적 요소를 이용했으며 소설의 주인공이 술집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도손의 것과 많이 유사하다. 그리고 소설 이름은 스티

15 刘九明은 「郁达夫与屠格涅夫」이란 절에서 郁達夫와 투르게네브의 동이성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郁達夫가 투르게네브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다(刘九明 2001: 16-34).

브슨의 소설 A Lodging for the Night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환경 묘사나 주인공의 나이 및 성격특징도 이 소설에서 많은 내용을 따오고 있다(李杭春 2006: 741-742).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중 현대문학의 장은 서양문화나 서양문학의 충격으로부터 시작되면서 대부분 작가들이 서양문화나 서양문학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효석과 郁達夫에게서는 남달리 외국문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외국문학적인 요소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일본문학의 영향

다 아시다시피 郁達夫는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10년 넘게 하였다. 17세에 일본을 유학한 그로서는 이 10년이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들어선 인생의 중요한 시기였다.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 및 문화적 분위기는 郁達夫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비록 그의 시선은 서양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일본문화의 영향은 몸소 체험하면서 받게 된다. 이효석도 일제 식민통치 당시 경성제대 출신의 엘리트였으므로 일본문화나 문학의 동향은 수시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들의 이런 특이한 조건은 이들이 일본문학에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요소를 따오는 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실지로 郁達夫는 일본의 한시를 짓는 문사들과 교류가 잦았으며¹⁶ 일본작가들 가운데 사토하루오(佐藤春夫)를 가장 존경하였다.

일본 현대소설가들 중에서 내가 가장 숭배하는 사람은 사토하루오(佐藤春夫)이다. 그의 소설은 周作人군도 몇 편 번역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몇 편은 그의 가장

16 稻葉昭二(1984). 이 책에서 저자는 그가 일본의 여러 한문시인들과 교우한 사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걸출한 작품이 아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장미 병들다』 즉 『전원의 우울』이다. 기타 작품 가령 『지문』, 『이태백』 등은 모두 아름답기 그지없는 작품들이다. 최근에 발표한 작품인 『너무 외롭다』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내가 보건대 이 『꺾인 꽃』도 그의 최근의 성과작이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실연을 당하는 것에 대한 묘사는 정말 세밀하다. 나는 언제나 그의 경지를 배우려 하나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하였다.¹⁷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이다. 하나는 그가 사토하루오(佐藤春夫)의 창작 동향에 대해 수시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작품들을 읽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가 자신의 창작에서 사토하루오(佐藤春夫)의 특징을 따르려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는 우리가 郁達夫 문학과 일본문학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로 되고 있다.

小田岳夫는 郁達夫의 『침륵』과 『전원의 우울』과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아 있다고 하면서 그 유사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침륵』과 『전원의 우울』은 모두 심경을 서술한 소설이다.

둘째, 『침륵』과 『전원의 우울』의 주인공은 모두 우울증 증세가 있다.

셋째, 『침륵』과 『전원의 우울』은 모두 서두 부분에 모두 서양 시인의 시를 원문체로 인용하고 있다.

넷째, 『침륵』과 『전원의 우울』은 모두 힘을 기울여 자연 경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小田岳夫 1984: 33).

이로 보아 郁達夫는 사토하루오(佐藤春夫)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¹⁸

『침륵』이 『전원의 우울』에서처럼 신변잡기를 제재로 예술적으로 자아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유사하다. 郁達夫는 사토하루오(佐藤春夫)가 자신의

17 刘九明(2001: 193-194) 재인용.

18 유구명은 위의 小田岳夫와 체코 학자 M. 하리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郁達夫가 사토하루오(佐藤春夫)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하였다(刘九明 2001: 193).

생활을 제재로 한 것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자신이 일본 유학 초기 나고야 제8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생활을 제재로 삼고 있다. 『침륜』에서 작가는 고백체로 한 청년의 ‘생의 고민’, ‘성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으며 약소국가의 국민으로서 이국타향에서 기시를 당하는 고독감과 굴욕감을 토로하고, 조국이 강대하지 못한 것에 원망과 한탄, 그리고 해외에서 의지할 데 없는 비참한 심정을 서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창작 수법에 있어서도 『침륜』은 『전원의 우울』을 많이 본받고 있다. 『전원의 우울』은 외부사건의 서술보다는 주인공의 심정을 묘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인물형상을 부각하는 데 많은 역점을 두지 않았는데 『침륜』도 풍만하고 원만한 인물형상이 없으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도 없다. 소설은 주인공의 애달프고 쓸쓸하고 고독한 심정을 고백하는 데 가장 많은 편폭을 할애하고 있다.

이효석이 사토하루오(佐藤春夫)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효석이 자신의 작품의 『장미 병들다』는 사토하루오(佐藤春夫)에서 따왔음이 분명하며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효석은 사토하루오(佐藤春夫)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 대해 관심이 상당했던 것만은 짐작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으로 郁達夫와 이효석 작품들에서 보이는 외국문학의 영향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이들에게서 공통되는 것은 러시아문학, 영국문학, 일본문학 등 많은 나라, 많은 작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이다.

어느 작가이든 외국문학을 받아들일 때 나름대로의 선택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불가피적이다. 구체적인 수용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창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수용미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수용자이든 문화

역사발전 속에서라는 통시적인 환경과 문화접촉면이라는 공시적인 환경이라는 좌표 속에 서게 된다. 이 좌표는 문화수양, 지식수준, 감상취향 및 각자 경력 등으로 구성된 수용 창구가 만들어진 것인데 바로 이 창구가 수용자로 하여금 작품이나 작가의 어떤 것은 받아들여져 공감하게 되고 어떤 것은 수용자의 상상력을 계발하여 재창조를 하게하며, 어떤 것은 배척하거나 심지어 도외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효석과 郁達夫의 수용창구가 남다른 쉽게 보여 진다. 그들의 기존에 쌓은 문학수양, 고독했던 생활환경, 나약한 성격, 민감한 감수성은 그들이 탐독한 수많은 외국 작가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비슷한 생활 경력과 비슷한 창작 개성, 비슷한 미학적 취향을 가진 작가들을 수용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보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외국문학을 접촉하는 경로, 또는 각자가 처한 사회 환경이 다르므로 인해 구체적인 접수창구를 선택하는 데서는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점이 그들 자신의 작품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중국과 한국의 문단에서 특색을 갖게 되는 요소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선(2004) 「작가의 생애와 서정소설」, 『한·중 문화 속의 민속』, 한중인문학회·부산외국어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 김윤식(1989)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 김해옥(1993) 『이효석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박사논문.
- 이세주(2006) 『식민지 근대와 이효석 문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한모(1959) 「효석문학에 나타난 외국문학의 영향」, 『국어국문학』 20, 54-56.
- _____ (1984) 「효석 문학의 서구적 소재연구」, 『국어국문학』 92, 317-348.
- 주중연(1996) 「“메밀꽃 필 무렵” 분석」, 『이효석』 이상옥 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이효석 단편소설선』 전원 (1983).
- 『이효석 전집』 V 春潮社.

- 趙園(1997)〈郁達夫：在歷史與文化衝突之間〉，王曉明(主編)『20世紀中國文學史論』，東方出版中心。
- 刘九明(2001)『郁达夫与外国文学』，华中科技大学出版社。
- 小田岳夫(1984)「郁达夫传」，『郁达夫传记两种』，浙江文艺出版社。
- 稻葉昭二(1984)「郁达夫 他的青春和詩」，『郁达夫传记两种』，浙江文艺出版社。
- 李杭春，陳建新，陳力君(主編)(2006)『中外鬱達夫文集』下，浙江大學齣版社。
- 郁达夫(1936)「闲书」，上海良友图书印刷公司。
- _____(1991)「小说论」，『郁达夫文集』第五卷，花城出版社。
- 許子東(1999)〈郁達夫：浪漫派?感傷主義?零余者?私小說作家?〉，『上海五十年文學批評叢書』，評論卷，華東師範大學出版社。
- 黎德机(2006)〈混乱，还是一致〉，李杭春等編，『中外郁达夫研究文选』下，浙江大学出版社。

한(조선)반도의 재래설화와 중국조선족 구전설화의 전파관계 연구

김 동 훈

상해공상외국어대학

1. 앞말

중국조선족 구전설화는 한(조선)반도의 이주민들에 의해 전파, 계승, 발전되어 온 우리 민족 구전문학의 중요한 한 갈래이다. 본고의 취지는 중국에서의 한(조선)반도 재래설화의 전파와 변이, 주변민족설화의 변안차용, 새로 창작된 자생설화 등 세 개 계통을 근간으로 중국조선족민담의 독특한 존재상황과 전승발전의 법칙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중국조선족 민담의 개관

2.1. 중국조선족 설화의 형성 과정

중국조선족의 민담은 중국지역으로의 한(조선)반도 이주민의 이민사와 함께 시작된다. 조선족이 전격적으로 중국에 이주, 정착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한 세기를 넘는 동안에 조선족설화는 만청정부의 동화정책,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해방 후 중국 사회의 복잡다단한 변화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개

양상과 발전모습을 보이면서 숨가쁘게 전진하여 왔다. 조선족설화의 역사적 흐름을 시대적 특징과 민담 자체의 내적인 운동 법칙에 비추어 대체적으로 생성, 발전, 좌절, 부활 등 네 개의 단계로 갈라 볼 수 있다.

2.1.1. 생성기

중국조선족은 이민의 설움을 안고 살아온 ‘슬픈 족속’들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만주지역에 대거 이주하기 시작한 조선족 이민 일세대는 『에밀레중』, 『바보온달』, 『나무꾼과 노루』, 『토끼와 거북』 등 한(조선)반도의 전래 설화들을 원모양 그대로 중국 땅에 옮겨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지역, 새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민담과 전설들을 창작하여 망향의 설움을 달래고 삶의 용기와 미래의 꿈을 키워갔다. 이주민들이 창작한 향토설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용천골』, 『해란강』, 『용정의 유래』 같은 수문전설, 『매미』, 『망향의 언덕』같은 망향전설과 『식발갱이』, 『소가죽 한 장만큼』같은 반일 배만 민담들이다. 수문전설에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농경민족의 후예들의 생존의식이 다분히 표출되어 있고 망향전설에는 실향민의 치열한 한의 정서와 잠재적인 회귀의식이 앙금처럼 두텁게 깔려 있다.

이러한 민담들이 입으로 유전은 되었지만 그 당시에 문자로 고착될 만한 행운을 지니지는 못했다.

최초에 조선족설화를 수록한 문헌자료로는 가린의 『조선민담집』, 유건봉(劉建封)의 『장백산강간지략(長白山江崗志略)』, 계봉우가 편찬한 『초등소학수신서』를 들 수 있다.

『조선민담집』은 제정 러시아의 작가 가린 미하일롭스끼가 1898년에 쓴 『조선·만주·요동반도 여행기』라는 기행문에 수록되었다. 가린은 백두산 답사 길에 두만강, 압록강 양안 지역에 유전되고 있던 조선민담 52편을 채록하여 『신들의 세계』라는 러시아문 잡지에 연재하였고 그것을 한데 묶어 1904년에 즈나지에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행했다. 가린은 1898년 9월 14일 두만강

하류로부터 러-조 국경초소를 통과한 후 예정된 백두산 탐험노정을 거쳐 10월 18일 압록강하류 의주-안동을 떠날 때까지 30여 일 동안 만주와 북부조선의 국경지대를 여행하면서 짬짬이 편을 갈라 조선민담을 수집했다. 이 민담집은 이국인에 의해 채록된 러시아어 조선민담집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장백산강강지략』은 지방지 문체로 된 문헌자료로서 20세기 초에 길림성 안도 지현으로 있던 중국 한인(漢人)계 문인 유건봉이 1908년에 한 달 남짓한 동안 백두산지역을 답사하면서 수집한 140여 편의 민간설화들을 계통적으로 수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분명하게 ‘한인(韓人)’의 구술이라고 밝힌 것이 20편 가량 되는데 그것들만 추려가지고도 이 자료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백두산관계 조선족전설집이라는 것이 알려진다.

『초등소학수신서』는 1914년 북간도의 조선족사립학교에서 반일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편찬 발행한 등사본으로서 편자는 당시 북간도 연길에 와서 반일운동을 하던 애국계몽사상가 계봉우 선생이었다(류병호 2002). 『초등소학수신서』는 전체 60과로 구성되었다. 동화, 우화의 형식으로 씌어져 조선어문과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수신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 주로 인간의 본분, 지조, 공덕, 우애, 효도, 애국애족, 민족자강, 미신타파 등에 대해서 간결하게 예문을 들고 그 주제에 알맞은 그림을 첨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예문은 전래동화나 우화에서 인용한 것이 30%인데 그 가운데 이솝우화에서 발췌한 것은 한 편뿐이며 대부분은 조선의 전래설화에서 인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최인하 1997).

1920년대에 진입하여 김좌진,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에 관한 전설들이 장백산일대에 널리 전파되었다. 1920년대 화룡현 청산리에 거주하였던 심윤철 노인을 통해 필자가 직접 들은 것만 해도 10여 편이 된다. 예컨대 『김좌진의 보리밭 기는 재주』, 『홍범도의 밭고랑 뛰어넘는 재간』, 『엄계달의 사격술』, 『불타버린 사향리』, 『불행중 다행』 등 설화들은 당시 이곳 남녀노소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1931년 9·18사변 이후 공산당

계열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하여 김일성 장군에 대한 많은 전설과 『박지형』, 『연통나자』, 『신출귀몰』, 『올가미전투』, 『오랍누이』, 『별천지』, 『정찰반장 김봉숙』 등 새로운 항일설화들이 널리 전파되었다(김태갑·박창묵 1992).

1930-1940년대 상반기 용정, 연길과 장춘에는 『북향』, 『카톨릴소년』, 『만선일보』 등 문학지와 신문들이 발행되면서 구전동화나 민담들이 가끔 간행물에 나타나곤 하였다. 당시 설화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로는 송창일, 이구조, 노향근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조선 총독부의 검열을 거쳐 간도지역에서 발행된 초등학교 『조선어독본』에도 『떡보의 이야기』 등 전래 민담들이 여러 편 실려 있었다. 동화 『놀고먹던 꿀꿀이』는 항일무장투쟁 초기 길림소년회의 명의로 간행되었다.

생성기의 조선족민담은 단편적이고 산발적이거나 구 생성의 짝수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시기에 비록 우리 민족의 전문적인 구술자나 목적의식적인 채록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자발적으로 잉태되고 표박, 유동하는 과정에서 점차 커가고 있는 초기단계의 진실한 모습을 가식 없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다.

2.1.2. 발전기와 좌절기

이 시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부터 1966년 ‘문화대혁명’ 발발 전까지가 해당된다.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과 더불어 조성된 새로운 사회적환경과 여건은 조선족설화가 개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이때부터 조선족설화는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사회 여러 계층의 중시를 받기 시작했다. 해방초기만 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민담을 ‘실업쟁이의 심심풀이’거나 ‘술집에서의 한담’으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덕해, 최채를 비롯한 당시 민족심이 강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지도 간부들은 구전설화의 수집사업에 대해 각별히 중시할 것을 각급 문학예술단체에 촉구했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설화채집 사업이 연변지역에서 먼저 추진

되었다.

조선족설화의 보존과 채집연구에 선구자적인 업적을 쌓은 분으로는 항일투사 정길운을 꼽을 수 있다. 의용군 출신인 정길운은 1952년 군에서 재대되어 연변조선족 자치주로 돌아온 후 구비문학 대오의 건설에 몰두했다. 그는 구비문학을 ‘민족의 아름다운 얼굴과 넋을 찾는’ 성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김례삼, 김용식 등 구비문학에 뜻을 둔 민족 지성인들을 조직하여 조선족설화의 수집, 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 결과 1954년 『연변문예』 잡지에 정길운이 채집한 조선족민담 『주먹재판』이 건국 후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그 이듬해 동 잡지에 김용식의 『장정과 중』, 주선우의 『진달래』 등 민담이 연속 발표되었다.

1956년 8월 연변민간문학위원회의 성립과 더불어 조선족 설화문학은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변민간문학연구회에서는 1956년 11월 훈춘현에서 「제1차 중국조선족 민담대회」를 개최하여 김규찬, 배선녀, 양재태 등 100여 명의 민간연예인들을 발굴해냈는데 이때 배선녀 안노인이 구술한 민담 『백일홍』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1961년 8월 연변민간문예 연구회에서는 ‘소방대가 불을 끄러 가’는 그런 속도와 긴박감으로 조사팀을 편성하고 이불짐을 싸들고 연변 각지와 흑룡강성의 상지, 오상지역, 요녕성의 심양부근에 내려가 조선족민담에 대한 전면조사와 수집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설화 1,500여 편을 수집했는데 그중에서 300편을 골라 80만자에 달하는 『조선족민간문학자료집』 1, 2집(정길운, 김례삼, 박창목 편)을 편찬해냈다.

상기 기꺼운 발전국면은 ‘4인방’의 작간으로 일어난 ‘10년 동란’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겪게 되었다.

1 1961년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임 주장으로 있던 주덕해 씨의 말임.

2.1.3. 부활기

1976년 10월 '4인방'이 무너지자 10년 동안이나 지속된 '문화대혁명'도 스스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노선과 실사구시의 지도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민속문화의 화원에도 봄바람이 불어왔다.

1978년 10월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가 회복되고 잇따라 '문화대혁명' 시기 민간연예인과 구비문학채집자 그리고 민담 『천수』에 들썩워졌던 '잡귀신', '반동작품' 등의 죄명이 벗겨졌으며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1985년 이후 전 중국 경내에서 진행된 구비문학집성의 편집활동을 계기로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임원들은 연변지역과 목단강, 심양, 단둥 지역의 조선족 집거구역에 내려가 구전문학유산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황구현, 차병걸, 김덕순 등 새로운 이야기대왕을 발견하였다.

황구현 노인은 문인형 구술가로서 1987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후하여 1,030여 편의 설화를 구술했는데 그중의 일부가 『천상배필』, 『과경노』, 『황구연고사집(黃구龜淵故事集)』(중문판) 등 설화집으로 출간되었으며 중국 20세기의 3대 이야기대왕의 한사람²으로 선정되었다.

차병걸 노인은 예능형 구술가로서 민담구술, 민요가창, 판소리 등 민간예술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재주를 보여주었다. 그가 구술한 민담은 420편, 그중에서 120편이 정리되어 『팔선녀』, 『주부의 눈물』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김덕순 안노인은 모성(母性)형 구술가로서 1988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80고령에 150편의 옛말을 연속적으로 구술했는데 그 가운데서 106편이 『김덕순고사집(金德順故事集)』(중문판)이란 이름으로 이미 세계 27개 나라에 번역, 소개되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중국 동북 3성의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거주하면

2 198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는 천편 이상의 이야기를 구술할 수 있는 천재적 이야기꾼이 세 사람 있었다고 하는데 황구현 노인이 곧 그중의 한 분이다.

서 삼국정립의 형국을 이루었다.

2.2. 중국조선족 설화의 갈래에 대한 전체적 요해

지금까지 채록된 중국 조선족 설화자료는 72종, 2,500여 편에 달한다. 상기 조선족 설화의 계통에 따라 대충 검토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개 갈래로 나누어진다.

1) 한(조선)반도에서 전승되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전래설화 및 변이형태 계통, 이 부분의 설화가 전체 설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이야기의 구술자가 한(조선)반도 이주민들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주변민족설화를 번안 차용하면서 만들어진 설화가 전체설화의 10%에 가깝다. 중국조선족의 삶의 환경은 단일민족으로 한(조선)반도에 살던 때와 전혀 달랐다. 이주민으로부터 조선족으로의 새로운 삶의 터전은 중국 주체민족인 한족(漢族) 및 기타 여러 민족과 부대끼며 살아온 흔적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조선족설화에는 한족(漢族)의 4대 설화를 비롯한 중국고사들, 만주족의 시조전설, 장백산전설 내지는 몽고족의 일부 설화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번안 또는 차용설화가 한 부류를 이루고 있다.

3) 이주민의 새로운 인문, 지리환경에로의 적응과 새로운 삶의 환경 개척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난 자생설화가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이주, 정착 초기 인간본연의 이율배반적인 망향의식과 정착의식을 나타낸 설화들, 수문전설을 비롯한 일련의 향토전설, 민족적 향수로서의 일련의 백두산 관계설화와 발해-고구려 관계설화, 항일의 봉화와 더불어 생성된 일련의 항일설화 등이 그 예가 된다.

3. 조선 - 한국 민담과 중국조선족 민담의 분류학적 비교

3.1. 최인학교수의 분류표에 대입해 본 중국조선족 민담의 유형

중국조선족민담의 80% 이상이 한(조선)반도 전래민담에 토대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인하대학교 최인학(1997)의 『한국민담유형표』에 대입하여 중국조선족민담의 유형표를 작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다.

필자는 우상열박사와 함께 2001년에 최인학교수의 『한국민담유형표』에 기초하여 한국민담과 중국조선족민담의 분류대조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분류표는 중국에서 채집 출간한 조선족민담집에서 설화 데이터가 비교적 구전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문학 자료집』 2, 3, 4집을 비롯한 13책을 중심으로 총 42권을 분류대상으로 설정하였다(김동훈·허위훈 2001: 1-136).

3.2. 양자의 분류학적 비교 시론

최인학교수의 『한국민담유형표』와 김동훈, 우상열의 『중국조선족민담유형표』의 ‘대단위’구성과 ‘중단위’구성에서 대입상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우상열 2002: 47).

〈표 1〉 대단위 항에서 본 조선족 민담과 한국 민담 비교

한국 측 대단위	한국	비율(%)	조선족	비율(%)
동식물민담	383	22.27	201	20.62
보통민담	797	46.34	419	42.97
소화	465	27.03	346	35.45
형식담	24	1.39	2	0.2
신화적민담	51	2.96	3	0.31
합계	1,720	100	975	100

〈표 2〉 중단위 항에서 본 조선족 민담과 한국 민담의 비교

한국 측 중단위	한국	비율(%)	조선족	비율(%)
동물의 유래	71	4.32	51	5.26
동물의 사회	97	5.9	51	5.26
식물의 유래	7	0.42	32	3.3
인간과 동물	208	12.64	67	6.91
신이 사위(남자)	29	1.76	12	1.24
신이 부인(여자)	35	2.13	15	1.55
신이 출생	15	0.91	10	1.03
혼인과 재물	96	5.84	80	8.25
주보	74	4.5	31	3.19
괴물퇴치	37	2.25	26	2.68
인간과 신앙	215	13.07	48	4.95
효도	100	6.08	61	6.29
운명의 기대	54	3.28	45	4.64
갈등	142	8.63	85	8.76
바보	169	10.27	99	10.21
지혜	238	14.47	202	20.82
간사·교활자	58	3.53	47	4.8
합계	1,645	100	970	100

이 두 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단위’와 ‘중단위’의 각 항에서 조선족 설화와 조선-한국설화는 각기 선정된 총 화형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예컨대 ‘중단위’의 ‘효도’ 같은 항에서 조선족민담과 한(조선)반도의 민담이 거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은 효도라는 전통적인 도덕률에 있어서 중국 조선족과 전체 한(韓)민족은 공통된 정신적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대단위’의 ‘인간과 신앙’ 항에서 한(조선)반도 민담이 조선족민담에 비해 8.12%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족민담이 한(조선)반도 민담에 비해 ‘인간과 신앙’에 속하는 중하단위 ‘타계’, ‘풍수’, ‘점복’, ‘주술’관계 민담이 훨씬 적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지난 세기 1950-1960년대의 조선족민담 수집과정에서 상기 유형의 민담들이 이른바 미신적 내용으로 치부되어 외면당하거나 간혹 구술, 채집되었

다 해도 출판자의 편집검열 과정에서 일단 ‘교양적 가치가 없고 내용이 소극적’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공개 발표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이런 인식적 편향은 이미 시정되었으나 아쉽게도 그런 유형의 민담을 간직하고 있던 이주민 1, 2세대의 구술자들이 거의 사망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민담을 보충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어진 것 같다.

한편, ‘지혜’항에서 조선족민담이 한국민담에 비해 6.35%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라는 요소가 조선족 이주민의 삶의 여건상 그만큼 더 필요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족 민담에서의 지혜담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대단위’ 소화항(웃기는 이야기항)에서 조선족민담의 비율(35.45%)은 한국민담의 비율(27.03%)보다 8.42%나 높다.

‘중단위’의 ‘식물의 유래’, ‘동물의 유래’같은 항에서 조선족민담이 한국민담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선족 이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동식물을 대할 수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족 민담에는 동식물관계 민담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이’, ‘괴물’, ‘주보’, ‘타계’, ‘영혼과 인간’, ‘풍수’, ‘점복’, ‘주술’ 등 관계 민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4. 한(조선)반도 재래설화의 전파와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의 변이양상

중국 조선족민담의 80% 이상은 한(조선)반도 전래민담과 그 변이 형태 계통에 속한다. 그중의 일부는 원형 그대로 전승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원형의 변이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그 변이 형태를 보면 세부적 요소의 변화로 나타나는 원용(原用) 및 기본 모티프의 누락이나 첨부로 나타나는 설화의 축약과 확장, 또는 그 복합적 형태가 대중을 이루게 된다.

예하면 『민간문학자료집』 제4집에 수록된 조선족민담 「고마운 사람」은 『한국민담유형표』 237 ‘선심이 목숨을 구하다’와 지명, 인명 및 그 배경이 다를 뿐 기본 모티프의 전개방식이 전적으로 같다. 조선족민담 「숫구이 총각」³은 『한국민담유형표』 356 ‘활로 새잡기’의 축약형태이고 조선족민담 「혹심 먹은 친구」⁴는 『한국민담유형표』 410의 ‘열녀의 죽음’의 변이형태이다. 조선족설화 『불가사리』⁵는 신라의 『사금잡』(『삼국유사』 권1) 설화와 고려의 승려 신돈의 행각을 배경으로 확장된 것이다.

아래에 주몽설화, 금강산설화, 장자못설화, 열녀설화 등 몇 개 대표적 유형을 들어 그 변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4.1. 주몽설화의 변이

주몽설화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최대 강국이었던 고구려왕국의 시조 동명성왕을 노래한 유명한 난생설화이다. 재래로 한(조선)반도에 전승되고 있는 주몽신화는 대체로 『삼국사기』(『삼국유사』를 포함)의 계통과 『동명왕편』(‘제왕운기’, ‘실록지리지’를 포함)의 계통 두 가지가 있었다.

중국 조선족민담구술가 황구연(작고), 김덕순(작고) 두 노인이 구술한 주몽신화는 대체로 『동명왕편』의 계통을 따르고 있다. 황구연 노인의 구술에서는 해부루의 득자, 해모수와 유화의 연애, 해모수와 하백의 지혜 겨룸, 유화의 괴이한 잉태, 주몽의 출생, 주몽의 사냥재주와 일곱 왕자의 시기, 주몽의 준마 기르기, 주몽의 도주와 물고기의 도움에 의한 강 건너기, 고구려 건국 등 『실록지리지』의 신화적 모티프들이 모두 들어있다. 김덕순 노인의 구술에는 상기한 모티프 외에 하백이 해모수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려 시도했다거나, 유화

3 김동훈(1993: 323-327).

4 차병걸(1987: 240-245).

5 박창목(1984: 419-495).

를 장백산 천지 물 속에 가뒀어 넣었다거나, 도주하는 아들에게 보리씨를 주었다는 등 유화라는 여성의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요녕 관전현 김택기 노인의 족보에 기록된 주몽신화는 『삼국사기』 계통으로서 매우 간략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상의 기록과 완전히 다른 또 한편의 주몽신화가 있는데 그 것이 곧 강운초 씨가 수집 정리한 설화 『태왕비석』이다(김태갑 1992: 425-431). 이 설화에 의하면 주몽의 출생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부여의 임금 추상왕이 40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 슬퍼하였다.
- 2) 꿈에 강에 떠내려가는 동자를 건지려다가 실패했다.
- 3) 정월 초하룻날 심복 세 병을 데리고 압록강에 나갔더니 머리채가 열장 넘는 소녀가 강변에 꿰어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는 강신령의 발을 받아 머리채가 물 속 바위 밑에 눌러 있는 하백의 딸이었다.
- 4) 추상왕은 소녀를 구원하여 궁녀로 삼았다.
- 5) 궁녀가 햇빛을 받아 잉태하여 1년 2개월 만에 세수대야만큼 큰 괴상한 태를 낳았다.
- 6) 추상왕은 그 괴상한 태를 들에, 말구유에, 길가에 던졌으나 온갖 짐승들의 보호해 주기에 태의 껍질을 벗겨보니 그 속에 옥동자가 나왔다.
- 7) 동자가 추년왕으로 추대되어 샘골(즙안)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 8) 추년왕의 20대 후손인 호태왕이 비석을 세워 개국선왕의 공적을 기록했다.

이 설화에서 추년왕을 고구려의 개국선왕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 고주몽을 지칭한 것인데 전래 문헌설화에 비하여 그 화소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부여의 임금 해부루가 추상왕으로 개칭되고 고구려시조 주몽이 추년왕으로 등장한다. 해부루의 기자(棄子) 모티프는 보존되어 있으나 금와왕 및 일곱 왕자의 시기 등 모티프는 전부 탈락되어 있다. 둘째 주몽의 출생경력과 비범한 재주에 대한 서술은 매우 유사하나 주몽을 낳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숨졌다

는 모티프는 주몽신화의 전개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맥락을 보면 추년왕은 곧 주몽이니 틀림없는 주몽전설의 변종이다. 길림성 집안 현에 세워져 있는 태왕비석에 추모왕(주몽)을 한자(漢字)로 ‘牟王’이라 새겼는데 ‘모(牟)’자가 ‘년(年)’자와 매우 비슷해 보인다. 그러므로 추년왕을 곧 추모왕의 와전이며 따라서 이 설화는 호태왕 비석이 세워진 후 ‘牟’자를 ‘年’자로 오해한 어떤 선비가 그 이름을 빌어 민간에 전하고 있던 주몽설화에 접목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백두산전설』(이천록, 최용관)에 수록된 설화 「천녀욕궁처」(용용수 구술)는 주몽설화의 골격에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패턴은 가미한 전형적 작품이다. 이 설화의 모티프를 요약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옥황상제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셋째 딸 부구륜을 가장 사랑하였다.
- 2) 세 딸이 부르후리 늪에 내려와 목욕할 때 까치가 날아와 주과를 떨군다.
- 3) 부구륜은 그 열매를 삼키고 홀연 몸이 무거워져 홀로 지상에 남게 된다.
- 4) 부구륜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부구리용순이라 명명했다.
- 5) 부구리용순은 어머루이란 곳에 이르러 악, 모, 휘 세 추장을 굴복시키고 어더리성의 국왕이 되었다.
- 6) 부구리용순은 여진족의 시조가 되었으며 뒷날 유건봉이 부르후리에다 ‘천녀욕궁처’란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여기서 1), 2)는 천상적 모티프, 3), 4)는 지상적 모티프이며 5)는 영웅으로서의 통치과정을 말하고 6)은 뒷날의 건비과정을 부회하고 있다. 이 설화를 주몽설화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 1) 주몽의 어머니 유화와 부구리용순의 어머니 부구륜은 모두 신의 딸이다. 유화는 수신 하백의 딸이고 부구륜은 천신의 딸이다.
- 2) 유화와 부구륜은 둘 다 천신의 힘을 빌어 임신하게 된다.

- 3) 주몽과 부구리용순은 둘 다 비범한 재능의 소유자이며 꼭 같은 개국영웅이다.
- 4) 유화와 부구륜은 둘 다 세 자매 가운데의 하나이다.

이 두 설화는 신화적 원형의 유사성 외에 모티프와 화소에서 커다란 변이적 현상을 보인 것도 역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첫째, 주몽은 햇빛을 받아 잉태한 어머니가 낳은 알에서 출생하지만 부구리용순은 까치가 떨어뜨린 주과(朱果)를 삼키고 잉태한 어머니의 옥동자로 태어난다. 알이 열매로 바뀌어진 것은 난생신화의 원형이 탈색되면서 점차 인간적 성격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주몽은 남쪽 땅에 이르러 비류왕을 굴복시키고 개국시조가 되었으나 부구리용순은 악, 모, 휘라는 세 추장을 굴복시키고 개국시조로 되었으니 전자는 국가간의 전쟁을 뜻함이고 후자는 민족의 통합과정을 의미한 것이다.

셋째, 유화는 수신의 딸로서 물속에 갇혔다가 구원을 받아 왕비로 등장하였다면 부구륜은 친신의 셋째 딸로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상의 어머니로 되는데 전자는 난생설화의 신화적 성격을 많이 띠고 후자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민담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4.2.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변이

금강산설화는 일명 ‘나무꾼과 노루’, ‘팔선녀 이야기’ 등 이름으로 한(조선)반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흔히 ‘칠석전설’로, 일본에서는 보통 ‘날개옷 설화’로 통용되어 왔다.

손진태 선생의 『한국 민족설화의 연구』에 근거하여 일찍 한(조선)반도에 널리 전승되어 온 금강산선녀 설화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초부 총각이 산 중에서 쫓겨 오는 노루를 감추어준 은혜로 노루가 가리키는 대로 금강산 팔담에 가서 팔선녀 중 한 사람의 명주속옷을 감추었으므로 다른 선녀

들은 다 천상으로 날아갔으나 속옷 잃은 선녀만은 초부의 요구대로 그의 처가 되었다. 초부는 노루의 계원은 잊고 자녀 둘을 낳은 뒤 속옷을 돌려주었더니 선녀는 천정을 뚫고 천상에 올라가 버렸다. 초부는 노루의 지교로 선녀들이 물 길는 바가지를 타고 승천하여 처자를 다시 만났다. 초부는 어머니를 뵈옵고자 천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왔다가 팔죽을 말등에 얹질러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낙마하여 다시 귀천하지 못하고 사후에 웅계가 되었다. 지금도 장닭이 지붕 위에 올라 양천하고 우는 것은 초부가 천상의 처자를 잊지 못해 우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설화가 중국의 요녕성 심양시교, 길림성 연변지구, 길림지구, 흑룡강성 오상지구의 조선민족들 사이에는 ‘목동과 선녀’,⁶ ‘비런지’,⁷ ‘인삼과 꽃시슴’⁸ 등 다양한 형태로 변용, 변이되고 있다.

김덕순 할머니가 구술한 『목동과 선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장백산 기슭에 조실부모하고 머슴으로 살아가는 열여섯 살 목동이 있었다. 어느 하루 사냥꾼에게 쫓겨온 꽃시슴을 도와주고 그 사례로 장백산 천지에 목욕하러 내려오는 칠선녀 중 맨 끝 여동생의 날개옷을 감추어 아내로 받아들인다.
- 2) 목동은 소를 먹이고 선녀는 배를 짜서 재미있게 살면서 삼년 석달 사이 아들 둘을 낳았다. 천제인 부친이 대노함을 알게 된 선녀는 남편에게 날개옷을 보여 달라고 조른다. 남편이 낮잠 쉬는 짬을 타서 선녀는 두 아들을 겨드랑이에 끼고 승천한다.
- 3) 목동은 꽃시슴이 시키는 대로 선녀들이 물 길는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 4) 목동을 본 천제는 그에게 쥐나라에 가서 인피 백장과 교환 서말을 가져오라는 난제를 내서 시험해 본다. 목동은 가난했던 지난 시절 가까이 지낸 적 있는 쥐왕의 도움을 받아 난제를 풀고 귀로에 오른다. 도중에 천제의 세 아들에게 인피와 교환을 빼앗겼으나 총명한 아내의 도움으로 끝내 난제를 풀어낸다.
- 5) 목동과 선녀는 장백산 기슭에 내려와 꽃시슴과 더불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6 김덕순(1982: 24-43, 35-41).

7 연변민간문예연구회(1979: 235-248).

8 이천록(1989: 236-245, 177-183).

상기 두 설화를 비교해 보면 등장물에서 초부가 목동으로 팔선녀가 칠선녀로, 명주속옷이 날개옷으로, 금강산이 장백산으로, 노루가 꽃사슴으로 바뀌어진 외에 모티프와 화소에서도 중요한 변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조선)반도의 금강산 팔선녀 이야기는 비극적인 수탉 유래설과 연계되어 있음에 반하여 장백산 일대의 「목동과 선녀」 설화는 시조전설과의 연계 속에서 지상행복설로 변이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목동과 선녀」는 조선민족의 민족사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난제풀이 방법으로 사위를 고르는 난제시련형 혼인풍속을 확대 과장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난제형은 한(조선)반도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그 특수한 연구 가치를 갖고 있다.

난제형은 가린 미하일롭스키가 수집한 『백두산민담』에도 보인다. 이 민담 집에는 「나무꾼과 선녀」⁹라는 제목으로 백두산에 사는 총각 박씨가 선녀와 결혼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옥황상제의 시련을 이겨내는 복잡한 모티프가 설정되어 있다. 먼저 옥황상제가 내는 수수께끼(수탉, 수탉지로 변신한 장인을 찾아내기)를 풀고 또 만사위가 내는 수수께끼(하늘에도 땅에도 떨어지지 않는 화살을 찾아내기)를 풀 다음 결국 아내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역시 난제형과 행복담이 결합된 복잡한 구조로 짜여진 것이 특징적이다.

『비련지』도 팔선녀설화의 다른 한 변형인데 비극적 미가 매우 돋보이는 작품이다.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 지상에 내려와 놀다가 목동의 피리소리에 매료되어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이에 대노한 옥황이 공주를 잉어로 변신시켜 늪가운데 버렸으므로 다시는 남편과 아이들마저 만나지 못하는 슬픔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련지』에서 선녀가 목동의 아내가 됨은 『팔선녀』와 비슷하나 총각이 수탉이 될 대신 선녀가 잉어로 되어 천상에도 남편에게도 돌아

9 가린(1987: 50-70).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에 이르면 그 비극적 미가 한 층 더 돋보인다고 하겠다.

4.3. 장자못설화의 변이

장자못설화는 한(조선)반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 설화의 하나인데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중이 동냥을 달라니까 인색한 시아버지는 쇠똥을 퍼주었는데 그 집 며느리가 마음에 안됐음으로 쌀을 퍼주었다. 중은 그 집 며느리를 불러 살려면 자기를 따라오되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한다. 며느리는 애기를 업고 중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뇌성벽력이 치기에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모자는 돌로 되어버리고 그가 살던 집은 깊은 못으로 되었다고 한다.

중국 연길시 연집향에 살고 있는 김범룡 씨가 구술한 『각시바위』 설화¹⁰는 곧 장자못설화의 지역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 1) 지척소(연길)의 부호 이정승의 집에 중이 동냥을 얻으러 간다.
- 2) 이정승은 중에게 말똥을 담아주어 학대한다.
- 3) 이를 본 이정승의 첩 천미향이 몰래 쌀을 퍼서 중에게 바꾸어 준다.
- 4) 미향이 이정승의 첩이 된 사연을 말하자 중은 그 집이 침몰할 것을 예언하고 미향에게 애기를 업고 병풍산으로 오르되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당부한다.
- 5) 갑자기 벽력이 쳐 뒤를 돌아보니 미향은 즉시 바위로 변한다.
- 6) 이정승의 칼이 바위에 닿자 두 동강이 나면서 이정승의 목을 찔다.
- 7) 그때 솟은 물이 연집강이 되고 미향이 변한 바위는 각시바위라 불려진다.

10 정길운(1982: 29-38).

여기서는 시아버지가 이정승으로, 며느리가 첩으로, 쇠똥이 말뚱으로 바뀌면서 마음씨 나쁜 이정승과 미인 천미향과의 대조적 선악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금기를 어긴 탓으로 바위로 변한 여인과 그 바위를 치던 이정승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복합적 구성을 지니고 있다. 1)-3)은 장자못설화의 원형과 같고 4)-6)은 선량한 자의 금기 위반과 악한 자의 파멸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7)은 증거물을 통해 연길, 병풍산, 연집강 등 지역적 배경에 신비성을 부여하고 있다. 변용과정에서 또한 불교의 영험작용을 일부 담화시키고 신비적 차이와 대립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 원형적 미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

4.4. 열녀설화의 변이

한(조선)반도에 전승되고 있는 열녀설화에는 도미와 그의 아내,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도미설화의 변이 설화로는 김명환 씨가 수집한 식물민담 『박꽃』¹¹⁾을 들 수 있다.

- 1) 옛날 음흉한 임금이 한 아름다운 농부의 아내를 탐하여 시골 마을에 행차 하였다.
- 2) 소식을 들은 농부의 아내는 추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배를 매고 있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 3) 임금은 자신이 속은 사실을 알고 농부의 아내를 강제로 궁중에 끌고 왔다.
- 4) 농부의 아내는 수청을 허락하는 척하고는 옷섶에 바늘을 꽂고 잡자리에 들었다가 임금의 명문을 찌르고 달아난다.
- 5) 임금도 죽고 농부의 아내도 능지처참 된다.
- 6) 농부는 아내의 시신을 집 뒤에 묻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을 찾아 하늘나라로 떠난다.
- 7) 삼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아내의 무덤 옆에는 박꽃이 피어났다.

11 정길운(1982: 433-437).

- 8) 박꽃이 핀 것은 정조를 지킨 아내의 영혼의 빛깔이라 전해지며 그 후로 처녀들이 시집갈 때면 꼭 바늘을 꿸고 간다고 한다.

이 설화는 도미설화의 한 변형으로서 주로 열녀의 절개와 순결을 상징하고 있다. 1)-3)의 모티프는 도미설화의 원형과 비슷하나 개루왕이 신하로 변장하는 모티프가 농부의 아내가 처녀로 변장하는 모티프로 변형되고 있다. 4)-6)은 죽음으로 항거한 농부 아내의 깨끗한 마음씨의 표출로서 도미설화와는 달리 피해자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로 바뀌어지고 있다. 7)은 도미설화와는 달리 아내가 임금에게 눈알을 빼앗긴 남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편이 죽은 아내의 시신을 파묻고 하늘나라로 간다. 8)은 처녀가 바늘을 옷선에 꿸고 시집가는 혼인풍속의 유래담과 결합되면서 도미설화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백두산지역에 유전되고 있는 춘향설화도 한반도의 열녀설화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하면 19세기 말 백두산 지역에서 채집된 『사랑』¹²⁾이라는 춘향설화의 내용은 이러하다.

- 1) 춘향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미인이었으나 많은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경박한 처녀였다.
- 2) 원님의 아들 이도령과의 만남으로 그 하나만을 사랑하게 되었다.
- 3) 이도령의 부친이 백성들을 지나치게 수탈한 탓으로 벼슬에서 쫓겨나고 이도령 일가는 유배당하게 되었다.
- 4) 신임 원님은 춘향을 붙잡아다 수청 들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원님은 춘향을 투옥시키고 노파처럼 추한 모습이 될 때까지 매를 치도록 했다.
- 5) 모진 매를 맞고 아름다움을 빼앗긴 뒤에야 춘향이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깥 출입을 금했다.
- 6) 이도령이 춘향집에 찾아오게 되자 춘향은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다.
- 7) 그들은 이 고을을 떠나 먼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12 가린(1987: 119-123).

이 설화는 한(조선)반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춘향설화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한(조선)반도의 춘향설화는 열녀설화, 신원설화, 암행어사설화가 결합된 복합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면 이 설화는 스토리가 비교적 단순한 열녀설화이다. 여기에는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금의환향하는 모티프도 없고 춘향을 학대한 원님을 징벌하는 모티프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춘향 자신도 처음에는 열녀가 아니라 행실이 경박한 여자라고 했고 이도령의 부친도 출세해서 서울로 승진해 간 것이 아니라 백성수탈죄로 파직당한 가증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야기가 소박하고 단순하며 생활적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춘향설화에 부여시킨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조선족 구전설화에서 상술한 변이가 생기게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중국조선족은 지리적으로 한(조선)반도와 달리 여러 민족의 문화를 다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주변 민족의 설화들을 보다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한반도로부터 가지고 온 전래민담에 대한 전승 자세도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 농경민족의 후예인 중국 조선족은 새로운 땅에 이주, 정착하는 과정에 강렬한 생존의식과 이상생활에 대한 추구를 동반한 변이설화를 자기의 정신생활에서의 중요한 지주로 삼아왔다. 한(조선)반도의 전래이야기들을 인명, 지명만 바꾸어 새로운 환경에 맞추거나 일부 모티프를 변경, 확장시켜 새 이야기처럼 꾸미려는 민담의 본질적 속성이 변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변이설화 가운데 수문담, 망향담, 효성담, 지혜담, 동식물담이 특별히 많은 것은 인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이주민의 생존지혜와 도덕적 각성 및 본능적인 회귀의식이 그들의 정신생활에 깊이 투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설화창조자의 현대의식의 강화는 흔히 재래설화 속의 신적 존재, 금기행위, 불교영험담 등 모티프를 배척하면서 시대적 변이를 초래한다. 현대의

식의 과다노출은 설화의 원초적 의미를 쇠퇴시키고 설화의 주인공에게 근대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설화의 문학적 가치를 엄중하게 상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설화변이 과정에서의 ‘근대화’적 경향에 대해서는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 만일 설화 속에 등장하는 약자가 신의 도움을 입어 괴물을 퇴치하였다거나 머슴이 지혜로 주인의 명을 뺏어 먹었다거나 소년이 신기한 새털옷을 이용하여 임금과 자리를 바꾸었다면 그것은 민담의 논리에 완전히 부합되지만 현대의식의 참여 하에서 가령 농민이 꿩이를 들고 지주와 직접 싸웠다거나 백성이 봉기를 일으켜 직접 황제를 뒤엎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설화가 아니라 정치적 교술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셋째, 설화전승의 주체로 되고 있는 민담구술자들의 개인적 원인에 의한 설화의 변이도 주목할 만하다. 구술자들의 구술풍격, 구술환경, 망각과 와전, 우연적인 충동 또는 시대정신에 발맞추려는 자세는 설화의 전승과정에 모티프나 화소의 첨가, 삭제 또는 과장, 생동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하면 황구연 노인은 문인형 구술가로서 구서당식 유식한 언어와 고어, 전고를 다양하게 운용함으로써 사건의 구성이 엄밀하게 짜여진다. 유랑예능인 출신의 차병걸 노인이 구술한 설화들은 노래, 우스개와 유모아가 많이 삽입되면서 유희적인 분위기가 짙게 드러나며 가정주부형의 김덕순 할머니의 이야기들은 깨끗하고 참신한 여성적인 품격이 잘 드러난다. 하기에 그가 구술한 주몽설화에는 주몽의 어머니 유화의 성격이 다각적으로 보다 완벽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 매편의 민담을 가급적으로 보다 완전하게 꾸미려는 구술자의 주관적인 욕구에도 채집자가 ‘정리’과정에서 문학적 완미성을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조선족 민담이 갈수록 더 많이 복합적 구조를 취하면서 기록문학에 접근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이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주변민족 민담의 변안차용 및 자생민담

장백산을 중심으로 두만강, 압록강 이북과 송료평원에 이주 정착한 중국 조선족은 본 지방의 토착민족인 만주족과 산해관 이서에서 이주해온 산둥, 허북의 한(漢)족이민들과 오랫동안 잡거하면서 만주족 향토전설과 한(漢)인들의 『견우직녀』, 『맹강녀』, 『백사전』, 『양산백과 축영태』 등 4대 전설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으로 한(漢)족의 구전설화들을 변안, 수용하였으며 그 과정에 민담전파의 내적 법칙에 따라 다양한 변이도 나타났다.

조선족설화의 생성전승에 있어서 타민족으로부터의 변안, 차용은 구비전승과 문헌전승 등 여러 면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안, 차용과정에서도 중대한 변이가 동반되고 있다. 변이의 요인은 조선족과 주변민족들이 고유하고 있는 각이한 문화적 가치관념이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그것을 민담화하는 과정에서 부동한 민족은 각이한 생활적 경험과 심미적 추구를 나타내고 있는바, 백두산 동물숭배에서 만주족은 뱀과 새를 신령으로, 한민족은 용과 여우를 신령으로, 조선족은 백호와 백시슴을 신령으로 모시고 있다. 심리적 경향에 있어서도 만주족민담에는 민족적 자부심이 강렬하고 한민족 민담에는 치부의 욕구가 강렬하며 조선족민담에는 윤리도덕적 추구가 강렬하다. 따라서 조선족 민담의 변안, 차용과정에서 타민족의 종족기원담 혹은 치부이야기가 조선족 민담에서는 대부분이 효성, 정조, 의리를 주제로 한 ‘덕담’으로 개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 조선족의 자생설화도 조선반도의 전래민담과 구별되는 독특한 설화군체를 이루고 있다. 비록 그 생성전승의 역사가 짧고 양적으로 많지 못하며 문학적으로 세련미가 부족한 것 등의 약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 조명은 오래전부터 학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조선족의 자생민담은 그 시초부터 조선족이주민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해왔다. 『해란강』, 『용친골』, 『용드레촌』 등 수문설화에서 보여준 농경민의 용

승배와 생존지혜, 『매미』, 『금강봉』, 『남평과 노덕』, 『망향의 언덕』 등 망향 설화에서 보여준 실향민의 잠재적인 회귀의식과 위령제로서의 특성, 『삭발갱의』, 『소가죽 한 장만큼』 등 정치민담에서 보여준 만청정부와 민족동화정책에 대한 항거와 일제의 간도침략음모에 대한 폭로 등은 민족수난사의 증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청산리 전투』, 『항일유격근거지』에 관한 백여 편의 항일설화들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지긴 하나 조선족의 끈질긴 전민항일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다. 조선족의 항일관계설화들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주는 영원한 정신적 기념비로서 구비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조선족 자생민담 중에서도 두만강관계, 백두산관계, 고구려-발해관계의 200편에 달하는 설화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 유난히 돋보인다. 설화속의 두만강은 백룡, 신선이 드나드는 신령적 존재이며 백두산은 민족의 수호신, 천지는 용궁으로 통하는 길, 동해바다의 눈으로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다. 백두산 산삼은 권선징악의 도덕적 대변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오녀산』, 『장수바위』, 『보마성』 등 역사설화들은 국토방위에 나선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현양하는, 민족적 향수로서의 뿌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6. 결론

1. 중국조선족 민담 2,000편 중, 한반도의 재래설화를 옮겨놓은 변이계통이 80% 이상, 주변 민족민담의 변안과 차용부분이 10%, 자생민담이 10% 미만을 차지한다.

2. 최인학의 『한국민담유형표』에 대입해 본 결과 총화형에서 ‘효도’항이 거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은 전통적인 도덕률에서 두 집단이 공통된 정신적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중국조선족 민담에는 형식담과

신화적 민담이 한국민담에 비해 그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형식적 기교를 요구하는 형식담이 많이 배제되고 신화적 요소들이 많이 퇴색하였음을 의미한다. ‘인간과 신앙’항에서 한국민담의 비율이 8.12% 높고 ‘지혜’항에서 중국 조선족 민담이 6.35%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중국조선족 민담에는 동물민담이 상대적으로 많고 신이, 괴물, 후보, 타계, 영혼과 인간, 풍수, 점복, 주술관계 민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3. 한반도의 주몽설화, 팔선녀설화, 장자못설화, 효녀설화, 공희설화의 전파와 변이양상을 살펴본 결과 그 변이 요인은 동북아 삼각지대에 위치한 조선족 이주민의 생존지혜, 회귀의식, 열린 문화자세 및 근대의식의 각성 등이다.

4. 주변민족 민담의 변안, 차용과정에서 조선족민담은 한(漢), 만(滿) 등 타민족의 민담과 다른 각이한 문화적 가치관 및 미학적 추구를 반영하고 있다.

5. 조선족 자생민담은 민족수난사의 역사적 증언 내지 민족적 향수로서의 뿌리의식 심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참고문헌

- 가린(1898) 「백두산민담」 (러시아문 『조선·만주·요동반도 기행문』에 수록).
 계봉우(1914) 『초등수학수신서』 (프린트본, 연변박물관 소장).
 김덕순(1982) 배영진(역), 『金德順故事集』, 상해문예출판사.
 김동훈(1993)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구비문학편』 상·하권, 민족출판사.
 김동훈·허위훈 (주필)(2001) 『중조한일민담비교연구』, 료녕민족출판사.
 김태갑(편)(1992) 『조선족전설집』, 민족출판사.
 김태갑·박창목(편)(1992) 『항일전설설화집』, 연변인민출판사.
 류병호(2002) 「복우 계봉우 연구」, 북경대학 조선어문헌연구소(편), 『코리아연구』 제8기, 민족출판사.
 박창목(1984) 『민간문학자료집』 4집, 연변민간문예연구회.
 우상열(2002) 『중국조선족설화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유건봉(1908) 『长白山江崗志略』, 청나라 말기 안도현 향토지.

- 이천록(1989) 『백두산전설』, 연변인민출판사.
- 정길운(1963) 『조선족 민간문예 자료집』 2집, 연변민간문예연구조.
- (1982) 『민간문학자료집』 3집, 연변민간문예연구회.
- 차병걸(1987) 『팔선녀』, 임승환 정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최인학(1997) 「북간도 초등소학수신서에 대한 소고」, 『인하어문연구』 제3호, 인하대학교.
- 황구연(1990) 박찬구(역), 『黄龟渊故事集』, 중국민간문예출판사.

“만주” 이주민 소설의 공간연구

- 조선, 한국, 중국 조선족의 작품 비교를 중심으로

서 영 빈

대외경제무역대학

1. 들머리

본 연구는 조선민족 수난의 상징인 “만주” 이주민들의 삶을 소재로 다룬 조선, 한국, 중국 조선족의 해방 후 장편 역사소설들에 나타난 서사공간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 작품들 속에서 서사공간이 어떻게 문학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나아가서는 이 세 개 지역 한글문학의 공통성과 변별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문학 연구학계에서는 재외 한인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의 대부분이 개설류의 소개서들이라는 점은 필자의 이러한 인식의 정당함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이 세 개 지역의 한글문학에 대한 영향과 교섭의 기본적 상관성까지 거의 논의되어 본 적이 없다. 구체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 문학과 한국문학과의 영향관계, 중국 조선족 문학과 조선문학과의 교섭관계를 밝히거나 중국 조선족 문학의 한민족문학으로서의 과도기적 가치를 밝힌 연구 성과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 문학

이 한민족문학의 일부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작품들 사이에서 이러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는 불모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은 중국 조선족 문학의 상대적인 양적, 질적 빈약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자료의 제약성, 연구 정보의 폐쇄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한 인식의 한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필자는 한국문학, 조선문학, 중국 조선족 문학 가운데서 가장 대표성을 지닌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서사공간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려 한다. 비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가의 대표성, 작품 제재의 상관성, 작품 시공간의 일치성, 작품 형식의 동일성, 창작방법의 공통성을 고려한 결과 한국문학으로 안수길의 『북간도』, 조선 문학으로 이기영의 『두만강』, 그리고 중국 조선족 소설로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을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세 작품은 모두 리얼리즘의 창작방식으로 같은 시대를 역사배경으로 하여 “만주” 이주민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고, 공통되게 가족사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모두 대하소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안수길의 『북간도』는 구한말에서 광복까지의 간도 지역을 배경으로 조선 이주민들의 삶과 만주 개척사를 형상화함으로써 민족의 수난사와 민족해방투쟁을 구체화한 작품으로서 문학사가들에 의해 ‘민족문학의 가장 확실한 거점의 하나’(김윤식, 정호웅)로 평가되어 왔다. 북한 인민상 수상작품인 이기영의 『두만강』은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의 한반도와 “만주”를 주무대로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을 형상화하면서 한국 민중의 계급해방투쟁을 구체화한 작품으로서 북한에서 ‘민족서사시’(조선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은 구한말인 1860년대 말부터 1907년까지의 간도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피어린 간도개척사를 구체화한 작품으로서 중국 조선족 문단에서 평단의 주목을 끌며 각종 권위적인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 세 소설은 궁극적으로 “민족적 정체성 지키기”의

서사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 연구들에서 필자는 이 세 작품의 갈등양상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안수길의 『북간도』는 가문간의 갈등을 서사의 표층에 배치하여 그러한 가문들이 대표하는 민족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사골격을 형성한 소설이고, 이기영의 『두만강』은 사회의 기본 모순을 계급모순으로 파악하고 주인공들이 겪는 계급갈등을 고리로 하여 민족갈등, 애정갈등 등 여타 갈등을 내재한 소설이며, 『눈물 젖은 두만강』은 간도 개척사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애정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사를 이끌어가면서 그 내면에 민족갈등, 계급갈등을 반영한 소설임을 밝힌 적이 있으며(서영빈 2006a), 또한 작가의 창작환경과 작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그 시대 “만주” 이주민들의 삶의 재현이란 서사적 명제가 그들의 소설 속에서 어떻게 문학적 수사로 형상화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서영빈 2006b).

본문에서는 작품의 서사공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작품 속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의미를 대조하고 그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의 공간이동의 의미를 파악하며 나아가서 그러한 공간이동과 작품주제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보기로 한다.

2. 한반도중심 서사공간과 “만주”중심 서사공간

상기 세 작품은 갈등구조와 인물형상에서 뿐만 아니라 서사공간에 있어서도 서로 공통성과 차이를 보인다. 『북간도』와 『눈물 젖은 두만강』이 “만주” 중심의 서사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두만강』의 경우는 한반도 중심의 서사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세 소설이 모두 허구적인 인물과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을 하나로 엮어 총체적인 환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기하려 했던 것처럼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실재 공간과 허구적인 공간으로 나뉜다. 하지만 공간문제는 인물과는 달리 실재 공간이라 하더라도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상기 세 작품이 그리고 있는 서사 공간의 공통성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나가면서 그것이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간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소설은 작품의 서두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 이한복과 장치덕이 사잇섬으로 감자 캐러 간 후 집 식구들이 애타게 그들을 기다리는 데서 작품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소설은 제1부 제1장에서 주인공 이한복 일가가 간도로 이주를 떠나는 데서 마무리된다. 그리고 제2장부터 시작하여 제5부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건이 모두 간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북간도』라는 제목에 걸맞게 서사의 공간도 대부분 북간도로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 소설의 마무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망으로 주인공 정수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해방 당시 “만주”의 한인 인구가 216만 명을 초과했다는 통계자료를 참조하면(현규환 1967: 169) 해방 이후 “만주”에 살던 한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한반도로 돌아왔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수의 경우 한반도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만주”에서 계속 생활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작가의 실제 경력은 해방을 맞아 한반도로 귀환하지만 “만주”에 남아있었던 작가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작가가 『북간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묘사했던 것은 주인공들의 앞으로의 운명과 연관 지은 발상이라기보다는 그 한 단락의 역사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고난의 삶이 었을 것이다.

이것은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홍일은 조선 이주민의 후예로서 지금까지 간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작가이다. 따라서 그가 소설화하려고 했던 것은 이주민들의 그 당시 한 단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로 이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최홍일에게 있어 간도는 “우리”와 연관된 한 시기 “남”의 땅의 역사가 아니라 말 그대

로 “내” 삶의 역사인 것이다. 윤윤진이 중국 문단의 “뿌리 찾기 문학사조”와의 연관 속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을 고찰한 것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타당성을 지닌다. 따라서 최홍일은 철저히 중국 조선족의 시각에서 간도라는 공간을 바라보고, 간도를 타자화하기보다는 자아와 동일화시키면서 간도를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파악한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첫 시작은 한인이 간도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되는 것이 아니라 간도의 한인인 팔룡이 간도에서 조선으로 장사를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물론 작품 속에서 팔룡이 일가가 조선을 떠나 간도로 이주할 당시의 정경이 소급 제시되기는 하지만 작품의 서술시간은 간도에서 시작된다.

그 무렵, 강을 하나 사이 둔 동남쪽의 반도땅에는 기아와 죽음이 군림하고 있었다. 아침 해가 곱고 찬란하다 하여 그 이름을 일컬어 조선! 땅덩어리의 모양이 토끼를 닮아서인지 량순하고 순박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였다. (중략)
강 하나를 사이 두고 이쪽은 묵어빠진 땅이요, 저쪽은 굽주림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었으니……(밀줄은 필자의 것- 이하 같음)(상.p.2)

이처럼 서술자는 간도와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조선을 타자화한다. 따라서 작품의 곳곳에 간도적인 시각이 묻어난다.

두만강이 흐른다. (중략)

강치고는 무서운 급류였다. 압록강을 북변의 장강이라고 한다면 두만강은 북변의 황하라고나 할가? 성깔 사나운 들말처럼 협곡을 가르며 쏟아져 내리던 강이 강역동 앞벌에 이르러서는 한결 성미가 누그러든다. (상.p.3)

바로 광서 16년(1890년)의 봄이었다. 언 땅을 녹이며 방긋방긋 철 빠르게 다가온 봄 아씨는 백의개척농들에게 또 한해의 푸른 꿈을 심어준다. (상.p.170)

서술자의 이러한 시각은 중국 조선족의 자아 정체성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뿌리”는 조선반도에 두고 있지만 이곳 간도는 “남의 나라 땅”이 아닌 “우리의 땅”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결코 작가의 중국인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그의 역사의식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눈물 젖은 두만강』에는 백두산, 고구려, 발해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특히 광개토왕을 고구려왕들 중 가장 뛰어난 분(상.p268)으로 평가한 대목은 인상적이다. 물론 대부분의 서술이 감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작가의 역사관이 뚜렷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역사 인식에 있어 안수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작자 자신의 민족적 신분에 대한 자각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역사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가장 유표한 것은 동학혁명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과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선각자로 등장하는 석준이가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최홍일은 민족사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기영의 『두만강』은 한반도 중심 서사로 이루어진다. 각 장의 내용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제1부의 서사공간은 송월동이라고 하는 허구적인 공간이다. 작품 속의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오늘의 천안부근일 것으로 짐작되는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 곶손이와 악덕 지주 한길주와의 갈등을 주요 서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군이 고향인 작가 이기영에게 있어 천안 일대의 풍속, 민심, 지리, 환경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다. 이리하여 작가는 자신이 익숙한 이 송월동이라는 무대를 전반 작품 내내 끌고 간다. 제1부의 마무리는 곶손이가 간도를 목적으로 이주를 떠났다가 무산에서 헌병에게 잡혀 심한 문초를 받다가 풀려난 후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간도로 가지 못하고 무산의 강덕만 식구들에게 눌러앉고, 씨동이란 의병대장 이강년의 편지를 갖고 간도로 떠나는 데서 끝난다.

『두만강』 제2부의 작품 공간을 살펴보면 무산, 간도, 송월동이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한다. 투쟁의 이념이 전해져오는 곳은 간도이고, 투쟁이 실질적으로 소상하게 다루어지는 곳은 한반도의 무산과 송월동이다. 어떻게 보면 작가는 박곰손이를 한반도에 “남겨둠”으로써 주인공들이 “만주”와 한반도를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광활한 서사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던 것이다. 이기영에게 있어 간도는 생소한 곳이다. 작가가 두만강의 3부를 쓰기 위해 간도로 직접 답사를 간 것도, 그리고 나서 제2부의 일부 내용을 손질했던 것(조남현 1989: 218)도 이러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작가는 자신이 익숙한 한반도를 주 무대로 하고 자신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항일무장투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곳으로, 또한 작가가 지향하는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정당한 방식인 항일유격대가 활동하는 공간인 간도를 자신의 서사 공간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각종 항일세력의 비교와 대립 속에서 주인공들이 “자연스럽게” 항일유격대로 전향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체험부재의 “부담”을 줄였던 것이다.

『두만강』 3부의 무대는 간도, 송월동, 함흥, 서울, 일본 등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공간의 확대는 주인공의 공간 이동과도 관련되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에피소드적 사건의 삽입으로 인한 공간의 확장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동경대지진을 그린 부분이라고 하겠다.

『두만강』 3부작에 대한 연구자들의 평가 중에서 거의 일치한 견해는 작품의 3부보다는 2부가 낫고 2부보다는 1부가 낫다는 것이다. 최원식은 3부를 평하면서 “우연성은 남발되고 비현실성은 강화되고 소설적 긴장은 풀어졌다”고 비판한다(최원식 1989: 325). 본고는 이것이 객관적인 시각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고는 작품의 이러한 전개가 형성된 원인에 더 주목한다. 본고는 그 원인을 갑작스러운 공간의 확장에서 찾아본다. 공간이 갑자기 확대된다거나 이야기가 에피소드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에피소드식 사건을 하나의 선으로 엮어나가는 과정에서 우연성이 남발하고 비현실성이 두드러지

게 드러나게 되며 그리하여 작품의 긴장감이 뚝 떨어지고 만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세 작품의 공간구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안수길의 “북간도”는 과거 체험을 타자화한 공간이고, 최홍일의 “북간도”는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 파악한 공간이며, 이기영의 경우 “북간도”에 대한 체험부재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간 확장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작품의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3. 공간이동의 의미비교

작품에서의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인공의 공간이동을 통해 그 의미가 부각될 수도 있다. 공간이동의 의미파악이란 그런 흐름에서 고찰할 때 작품의 주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인물들의 공간이동이 큰 의미를 부여받는 중요한 원인은 사회구조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며 갈등의 변화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이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동의 원인이 되겠다.

상기 세 작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동도 모두 작품의 주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먼저 『북간도』의 경우를 보면 주인공의 공간이동은 크게 이런 몇 개 장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이한복의 경우 한반도에서 간도로의 공간이동이 부각된다. 이한복의 이주원인은 분명하다. 그것은 “감자나마 마음 놓고 먹어 보자”는 소박한 염원에서 출발한 이동이다. 어려운 삶의 환경으로부터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향하기 위한 이한복의 공간이동은 따라서 경제적 생존을 위한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윤과 정수의 공간이동은 이한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창윤이 동복산이의 송덕비 잔칫날 밤에 쌓였던 분격을 비각에 질러놓은 불꽃과 함께 날려 보내고 현도가 있는 용드레촌에 찾아오니 거기는 2백여 리밖에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면서도 비봉촌과는 딴 나라 같았다. (p.96)

이것이 창윤이 비봉촌을 떠나 용드레촌으로 이동한 원인이다. 이것은 더 나은 물질적 삶을 위한 경제적 생존차원의 이동인 것이 아니라 조선 이주민들에 대한 청인들의 핍박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민족갈등에 의한 정치적 차원의 이동인 것이다.

정수의 공간이동은 정치적 차원의 이동이라는 점에서는 창윤이의 이동과 일치한다. 그는 독립군의 근거지인 왕청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인태에게 왕청으로 가게 해달라고 조르지만 주인태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자 정수는 주인태를 쫓아 왕청으로 찾아간다.

어떻든 정수는 생활에 허픔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무렵의 길이었다. 최봉설이 국내에 잠입, 동지를 규합해 청진 경찰서의 구류감에 갇혀 있는 윤준희 등 세 사람을 구출하려다가 실패하고 간도로 되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 왔다. 해삼위 여관에서의 탈주 사건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최봉설이었다. 주인태를 찾아 왕청현 일랑거우로 찾아갔다.

“어떻게?”

주인태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정수의 뜻을 알고 있는 주인태다. 정수를 흥범도 장군에게 소개해 주었다. (p.428)

정치적 차원의 이동이라는 점에서는 정수의 이동이나 창윤의 이동이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창윤의 이동이 송덕비에 불을 질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피동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정수의 이동은 주동적이고 의식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간도』에서 주인공들의 공간이동은 이한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족갈등으로 인한 것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두만강』의 경우 주인공의 공간이동은 주로 박곰손과 씨둥이를 통해 이루

어진다. 박곰손의 공간이동은 1부의 마지막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가 고향을 뜨게 된 원인과 북간도를 목적지로 잡은 이유가 이렇게 나타난다.

공연히 이대로 있다가는 가을에 가서 정말 쪽박을 차게 될 것 같다. 아직 집간이나 있을 적에 서둘러서 모든 것을 팔아 가지고 일찍이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을 상 싶다. 곰손이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치밀었다. (②p.259)

저두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지 않소. 아무리 타국이 좋다 해도 제 나라야만 하겠소.……그러나 내남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 모두들 떠나지 않소. 허기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 같은 백성들이 어데를 가든지 천덕꾸러기가 되겠지만 만주 벌판은 땅이 넓고 거기는 또 왜놈의 압제를 안받는다니 그래서 여쭙는 게요. (②p.260)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시게 된 것은 양반들이 행악질을 한 때문이구, 지금 이 고장을 떠나게 된 것은 양반 대신 왜놈들이 등쌀을 놓기 때문이지요. 정말이지 왜놈들만 안 들어왔으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못살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② p.261)

여기에서 박곰손이 고향을 떠나 만주로 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의 말을 통해 나타나는 대로 왜놈들 때문이다. 양반들과 일본 침략세력을 동일한 계급의 적으로 파악하는 계급의식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며 이러한 계급적인 갈등이 바로 공간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씨동의 경우 공간이동은 크게 4차에 걸쳐 나타난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간도로의 이동으로서 그 결과 명동학교에 입학하여 학생들 중심의 반일투쟁에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간도에서 교육을 마친 후 국내로의 이동인데 그 결과 고향 송월동에 잠입하여 의병활동을 한다. 세 번째는 연길감옥에 수감되어 사회주의 사상을 접수한 후 다시 국내로 잠입하는 것인데 결국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네 번째는 가족이 있는 간도로 돌아가 항일유격대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씨동의 공간이동은 그의 정신적인 발전사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계급의식의 성숙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그의 공간이동은 표면적인 원인에서 본질적인 원인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두 주인공의 공간이동은 순전한 정치적인 공간이동으로서 작품 속에서 계급갈등을 서사구조의 기본 틀로 잡은 것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며 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경우 서사공간이 용드레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공간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만 팔룡이가 고향을 떠나 9년간이나 타향살이를 한 것이 거의 유일한 공간이동인데 그 원인은 봉녀가 팔룡이 어머니의 성화로 아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자 팔룡이 봉녀를 따라나섰기 때문이다. 역시 애정갈등에 의한 공간이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 외에 석준의 공간이동이 비교적 활발한데 그것은 의병, 항일, 교육과 관련된 이동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이동이라 하겠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석준이 거의 유일하게 민족갈등과 계급갈등, 남녀갈등, 종교갈등 등에 걸쳐 선각자의 형상으로 부각되는 것과 관련된다.

4. 마무리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에서의 서사공간은 상당히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다. 세 작품 속의 공간은 모두 저자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서사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북간도』의 경우 타자화된 북간도가 서사공간의 중심부를 차지하지만 『눈물 젖은 두만강』의 경우는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북간도 공간을 파악하고 서사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두만강』의 경우는 한반도와 북간도를 넘나들면서 서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작품의 정치적 중심공간은 북간도이지만 작가 본인의 체험부재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

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두만강』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간의 확대로 구성이 산만해지고 작품이 우연성 구조로 전락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작중 인물들의 공간이동은 작품의 기본 갈등구조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그러한 갈등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북간도』에서는 공간이동의 의미가 경제적인 원인으로부터 정치적인 원인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만강』에서는 대부분 정치적 원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며, 『눈물 젖은 두만강』에서는 애정갈등으로 공간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자료

- 안수길(1987) 『북간도』, 중앙일보사.
 이기영(1989) 『두만강』, 사계절출판사판.
 최홍일(1999) 『눈물 젖은 두만강』, 민족출판사.

참고문헌

- 강영주(1986) 『한국역사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 몽(1996) 「민족수난사와 개척사를 폭넓게 펼쳐 보인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 『문학과학예술』 6기.
 김영동(1982) 「한국소설에 수용된 북간도」, 『새국어교육』.
 김윤식·호웅(1993) 『한국소설사』, 예하.
 김재용(1989)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생활과 투쟁의 서사시적 형상화」, 이기영, 『두만강』, 풀빛.
 김종욱(2004)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 『국제어문』 30집.
 김호웅(1998)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박은숙(2002) 『안수길 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창순(1990) 『북간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1959) 『조선문학통사』 현대문학편, (『북한문예자료선』 3, 인동, 1988년).

- 서영빈(2006a) 「남북한 및 중국조선족 역사소설의 갈등양상 비교」, 세계한국학회발표논문.
- (2006b) 「통일문학사 서술시각에서 본 중국조선족문학」, 『한국문학이론과비평』.
- 윤윤진(1996) 「뿌리 찾기'와 '눈물 젖은 두만강」, 『장백산』, 5기.
- 이상경(1992) 『이기영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남현(1989) 「두만강을 통해 본 북한문학」, 『문학사상』 6월.
- 최원식(1989) 「소설과 역사의 법칙성」, 『두만강』해설, 사계절.
- 최홍일(1994) 「북국의 땅 연변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머리말), 삶과함께출판사.
- 한수영(2005) 「만주, 혹은 '체험'과 '기억'의 균열」, 『현대문학의 연구』.
- 현규환(1967) 『한국유이민사』, 어문각.

The Role of Keijō Imperial University in the Formation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The Case of Kuunmong Studies

Yu, Myoung-In

Ruhr–University Bochum

1. Introduction

Keijō Imperial University (KIU), founded in 1924, was the only university in the Korean peninsula up until 1946 and, as the main predecessor of the pres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¹ has also left unmistakable traces in many academic fields. It was one of the core institutions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its establishment has been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reasons why the Koreans' efforts to establish their own citizen-initiated university ended in failure.² All this considered, and taking into account

1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KIU (Keijō teikoku daigaku, Kor. Kyōngsōng cheguk taehak 京城帝國大學) was renamed Kyōngsōng University (Kyōngsōng taehak 京城大學). In 1946 it was merged with nine junior colleges in and around Seoul ranked considerably lower, such as Keijō Junior College of Medicine (Keijō igaku senmon gakkō, Kor. Kyōngsōng ūihak chōnmun hakkyo 京城醫學專門學校, founded in 1916) and Keijō Junior College of Law (Keijō hōgaku senmon gakkō, Kor. Kyōngsōng pōphak chōnmun hakkyo 京城法學專門學校, founded in 1922), into SNU.

Korean resentment against the former colonial ruler,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there has been almost no serious attention given to the KIU throughout the 20th century. In fact, the period of KIU's existence is virtually excluded from the history of the humanities.

This exclusion occurs predominantly in the humanities, at least if compared with other fields such as medicine and law at SNU. Still,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y in South Korea generally traces its beginnings back to 1946. This discord can be easily recognized by the respective official historiographies:

- (1) 서울大學校醫科大學史 1885-1978, 1978.
- (2) 서울大學校法科大學百年史 1895-1995, 2004.³

As the titles *History of College of Medicine SNU 1885-1978* and *Centennial History of College of Law SNU 1895-1995* reveal,⁴ their starting points are se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Medicine (and engineering, the natural sciences, etc.) might have been considered as a western discipline ; likewise in the case of law, which was alternatively regarded as a part of a modern institution. From the very beginning, these subjects

2 For the wide circulation of this opinion on the *millip taehak söllip undong* (私立大學設立運動) during the 20th century see Chŏng Sŏni (2002: 23).

3 (1) *Sŏul taehakkyo ūigwa taehaksa*, (2) *Sŏul taehakkyo pŏpkwa taehak paek nyŏn sa*. The former is compiled by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college and the latter by the alumni association.

4 Italics are used for original titles in transcription, English (sub)titles, as used above, titles of published English translations, as used below, and 'standard' translations of titles, whereas my renderings, mostly in parentheses or quotation marks, appear in roman type.

are not regarded as Korean native disciplines and, consequently, their 'genuine Korean roots' did not need to be 'discovered' or 'invented' at all. Another and perhaps a far more important reason for setting their starting points back far beyond the 'official' foundation of SNU in 1946 and thus embracing the whole colonial period might be that their roots could be even traced back to institutions established by western missionaries or the Korean government before the Japanese annexation, so that no great significance would be attached to the KIU. This option is, however, not quite available for members of the humanities in Korea.

This paper questions the validity of that kind of *Vergangenheitsbewältigung* (struggle to come to terms with the past), i.e. setting a *Stunde Null* (zero hour) in order to reconstruct the 'pure Korean' academic roots of the humanities. In exploring this question, this study will be limited to consideration of the early years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Han'guk munhak yŏn'gu* 韓國文學研究, henceforth: KLS), selected as an exemplary, major discipline of the humanities in (South) Korea.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formation of studies on *Kuunmong* (九雲夢),⁵ doubtless one of the most famous and most intensely researched pre-modern novels,⁶

5 It is known a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translated by James Scarth Gale in 1922) and as *A Nine Cloud Dream* (translated by Richard Rutt in 1974) to western readers.

6 The number of existing pre-modern editions of famous works like *Kuunmong*, *Sa-ssi namjŏnggi* (謝氏南征記, Record of Lady Xie's Journey [or Pérégrination (Bouchez), Dismissal (Rutt), Expedition (literally and also symbolically, 'the south' is said to refer to the Southerners (Namin 南人), rival faction of the author)] to the South, also by Kim Manjung), *Ch'unhyang chŏn* (春香傳, Story of Ch'unhyang) and *Hong Kiltong chŏn* (洪吉童傳, Story of Hong Kiltong): K 292, S 213, C 328, H 89. This set of statistics is derived from Cho Hŭiung (1999, 49-64, 206-218, 760-780, 851-856). Translations into foreign languages are excluded by counting. The number of studies including the name of each of those works in their title is as follows: K 145+104 (master's and doctoral theses +

written by Kim Manjung (金萬重 1637-1692), “the single writer of national literature in pre-modern Korea”.⁷ This gives us an opportunity to focus on the origins of KLS in a small and simplified, yet still representative frame.

This study has three purposes. First, it provides an overview of dominant narratives about the origins of KLS, illustrates the inaccuracy of the information applied to the narratives, and questions the adequacy of their concepts. Second, it presents the earliest modern contributions, mostly by Japanese scholars like Takahashi Tōru (高橋亨 1878-1967), to *Kuunmong* studies (KS) that went unnoticed in previous studies and compares them with the later contributions by such scholars as Kim T’aejun (金台俊 1905-1949) and Yi Kawŏn (李家源 1917-2000). Finally, based on this comparison,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KIU and its period, and attempts to outline an alternative view of the history of KLS.

2. Dominant narratives about the origins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The books listed below can be regarded as factually constituting an official historiography of KLS written by established members of the discipline. The term ‘50 years’ included in their title imply a certain picture of the historical viewpoint among experts.

articles in periodicals), S 46+25, C 238+138, H 117+74. These figures are based on the entries in the KERIS database (www.riss4u.net, 5 February 2007).

7 “Chosŏn kodaie-ŭi yuilhan kungmin munhakka (朝鮮 古代의 惟一한 國民文學家)”, Kim T’aejun (1930, 18 December). This is the first acknowledgement of the literary-historical and national literary importance of Kim Manjung, which has been repeated ad nauseam by subsequent researchers.

(1) 國語國文學會 編, 國語國文學會 50年, 2002.

(2)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編, 國文學 研究 50年, 2003.⁸

The first case of '50 Years of the Society of Korean (or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is easily understood and it is obviously legitimate that the year of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 i.e. 1952 is set as the starting point of its own history. In this respect, the significance of the volume would be merely reduced to that of a self-portrayal of the organization. However, the society functions as an umbrella organization in its field, comprising more than 2000 members. In the second case of '50 Years of KLS' the starting point is the 1945 liberation. The compilation committee paradoxically belongs to an institute of a private university that seems to be very proud of its long tradition of more than 110 years as the first female educational institute in Korea. Anyway, the volume is a partial result of an ambitious compilation project of disciplinary history,⁹ in which many influential scholars take part. Besides KLS the series includes almost every major discipline in the humanities, all taking the same year 1945 as their starting point.

In this overall perspective, it can easily be speculated that the period before the Korean War (1950-1953) and the liberation, in other words, the colonial period is simply and 'officially' excluded from the history of KLS. The disregard for this period, i.e. the attempt to treat the KIU-period as "prehistorically"¹⁰ within disciplinary history has a long tradition, as the

8 For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ical information see Kugŏ kungmun hakhoe (2002) and Ihwa yŏja taehakkyo Han'guk munhwa yŏn'guwŏn (2003) in the 'References' below.

9 *Han'guk haksulsa ch'ongsŏ* (韓國學術史叢書, Series: History of [Social and Human] Sciences in Korea).

following passage from the preface to a literary historiography in 1948 reveals:

Some few graduates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henceforth: KL], i.e. my older fellow students discussed KL and wrote some works, however, after their study [at KIU]. Everything was a result of their continuous research. And it proves that they in fact became specialists, through self-study.¹¹

The reason why even Kim Sayŏp (金思燁 1914-1992), a graduate who had studied at KIU between 1933 and 1938 himself, ignored the KIU-period of his own college days by using inaccurate information like that above,¹² is not very hard to divine: it may be found in the nature of KLS. It is well known that this field, along with Korean linguistics and Korean history (studies), is the core of what is called national learning (kukhak 國學, henceforth: NL),¹³ which must, as a matter of course, be ‘purebred’ Korean. The fact that Korean students majored in such a ‘very Korean’ subject ‘under’ Japanese professors – such a patently “ridiculous” thing – would be better forgotten, as the following quotation suggests:

10 The term “prehistory (chŏnsa 前史)” is used for instance by Sŏng Hokyŏng (成昊慶, 1952-), one of the authors in the second case (p. 179).

11 Kim Sayŏp (1948, 3 ; 1954, 3). This is also one of those quotation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repeated and have been never seriously reflected upon by subsequent researchers. See e.g. Pak Kwanghyŏn (2003: 371).

12 The following fact, amongst other evidences, clearly disproves his argument. One of the major contributions by Ku Chagyun (具滋均, 1912-1964, 1931-1936 at KIU, professor at Koryŏ University and an older fellow of Kim Sayŏp himself) is, as is well known, *Chosŏn p’yŏngmin munhaksa* (朝鮮平民文學史, Literary History of the Common Korean People). As the author himself also confirms in his own preface, this is actually a revised work of his old graduation thesis. See Ku Chagyun (1948).

13 For its definition and research fields see Kukhak yŏn’gu nonjŏ ch’ongnam kanhaenghoe (1960) and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1996).

Although KIU, the only university in the country, was established and the department of KL was set up in 1926, it consisted of nothing more than unspecialized Japanese professors who held seminars as a part of colonial studies. Many articles about literature appeared in papers and magazines. However, it was quite difficult to find those about pre-modern works and the history of KL. There were no capable people, no studies worth publishing accumulated. Some KIU-graduates, who had begun with their activities after [An Hwak, Mun Ilp'yŏng and Yi Pyŏnggi], undertook the task of systematizing academic studies of KL. It is ridiculous that Japanese professors instructed them, but they learned academic methods, majored in KL, and wrote graduation theses. Just as a result of this, they were able to make a big contribution. Since, however, they had a larger distance from the contemporary cultural movement than An Hwak, Mun Ilp'yŏng and Yi Pyŏnggi, it must be said that they lacked an awareness of the key issues.¹⁴

This quotation is not just from any book. It is from the most influential and most widely sold volume on the history of KL,¹⁵ written by one of the most respected historians of KL alive, Cho Tongil (趙東一 1939-). The wide circulation of this narrative based on inaccurate information and misleading statements among experts and students is thus beyond dispute.

First, one of the two “unspecialized” Japanese professors was Ogura Shimpei (小倉進平 1882-1944), the leading specialist in Korean language at that time and the initiator of the study of old Korean poetry, who had a lasting influence on young scholars such as Cho Yunje (趙潤濟 1904-1976).¹⁶

14 Cho Tongil (1994: 250-253). A similar one that is written in English and makes no mention of the KIU will also be quoted later, in its full length.

15 The historiography from 1988 reached its fourth edition in 2005. The third edition (1994) quoted above reached the eleventh print in 2002. Its English translation,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y Charles La Shure, is announced to be published this winter (2007) by Saffron, London.

And, again, Cho Yunje was not just any scholar. He was the luminary of KLS¹⁷ and the specialist of Korean poetry. Second, except for An Hwak (安廓 1886-1946), the other two scholars mentioned by Cho Tongil began their publishing activities concerning KL not earlier than the KIU-graduates of the first generation. They were simply older and had more publications about general issues at that time. But most of their publications cannot easily be regarded as being about KL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 Mun Ilp'yŏng's (文一平 1888-1939) activity lasted mainly from 1933 to 1939 when he worked for a newspaper.¹⁸ Yi Pyŏnggi's (李秉岐 1891-1968) publications about KL began to appear only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1930s.¹⁹ Third, one of the KIU-graduates who literally dominated the academic field in the 1930s²⁰ and laid the foundation stone for KLS was later appointed to a lectureship as the successor of Takahashi, another "unspecialized" professor. His name was Kim T'aejun and he had serialized the very first edition of his *Chosŏn sosŏlsa* (朝鮮小說史, History of the Korean Novel) i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most widely distributed newspapers at

16 For their academic relations see Cho Yunje (1964: 373) and Kim Yunsik (1984: 13).

17 At least for some time, he was considered as such. The honorary title was later conferred on An Hwak.

18 *Chosŏn Ilbo* (朝鮮日報). For his publications see Mun Ilp'yŏng (1948 ; 1996), also Ch'oe Kiyŏng (2003: 91-99).

19 Already in the 1920s, he dealt with Korean grammar and published his first preparatory instruction in a journal in 1929. For his linguistic contributions in this period see Yu Chunp'il (1998: 86). At that time, he was also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ijo puhŭng undong* (時調復興運動, sijo revival movement) in literary circles. Some experts, however, hold that his article in *Chindan hakpo* (震檀學報) in 1934 can only be regarded as his first major substantial contribution in the range of KLS. See Kugŏ kungmun hakhoe (1992: 67-70).

20 For Kim T'aejun's publications see Yŏm Muung (2005: 127-137).

that time, *Tonga Ilbo* (東亞日報) in 1930 while he was still a sinology student (1926-1931, with a two-year preparatory course). He was also very well known for his cultural and political activities as a committed socialist, which finally led to his execution in 1949 when he was accused of being a Russian spy.

As Kim Sayōp did before, Cho Tongil could have simply ignored the period in his historiography. But he tried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that period, in other words, to create a narrative (or develop the existing one) by using inaccurate information. It might also be of special interest to explore the reasons behind such a reconstruction since it would seem indispensable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viewpoint among experts. A group of very influential scholars²¹ might have found a favourable chance to highlight An Hwak, the ‘purebred’ Korean “national(ist) historian”²² and author of *Chosŏn munhaksa* (朝鮮文學史, History of KL, 1922), as a new starting point of KLS in a period still ‘uncontaminated’ by Japanese scholars.²³ They and their followers also

21 Cho Tongil (SNU-graduate, emeritus professor for KL at SNU) and the following three scholars can be named as initiators, amongst others: Yi T’aejin (李泰鎮, 1943-, SNU-graduate, professor for Korean history at SNU), Ch’oe Wŏnsik (崔元植, 1949-, SNU-graduate, professor for KL at Inha University), Kwŏn Osŏng (權五聖, 1941-, SNU-graduate, emeritus professor for Korean music at Hanyang University). They published e.g. *Chasan An Hwak kukhak nonjŏ chip* (自山安廓國學論著集, A Collection of An Hwak’s Works of National Learning) in 1994.

22 Cho Tongil (1997: 25). The passage will be quoted below.

23 Clearly,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historical viewpoint and the NL movement, considerable work needs to be done. This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paper. At this point, however, it would seem useful and also indispensable to at least compare their acknowledgement of An Hwak with that of the older generation. It is safe to say that the older generation generally spoke very negatively of An Hwak and they

found another opportunity to arrange some personalities who seem to have had nothing to do with the KIU like Mun Ilp'yŏng and Yi Pyŏnggi afterwards into a group called "NL-school researchers (kukhakp'a yŏn'guja 國學派 研究者)",²⁴ probably in order to reconstruct the 'genuine Korean roots' of the humanities. Another reason might be found in the fact that Kim T'aejun's very name used to be a political taboo, whereas his works have been received among experts anonymously but continuously, which was caused by the ideological rigidity in Korean society and academic circles in the past decades. Thus, many of his contributions such as the first edition of Chosŏn sosŏlsa are not taken into account at all.²⁵ In this respect, even Cho Tongil might not have been aware of his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his college days, if he did not ignore the facts more or less deliberately. Even at the end of the chapter that the citation above comes from, he recommends a couple of studies on Kim T'aejun, in which the importance of Kim T'aejun and his works are mentioned.²⁶

The on-going narrative must now be examined from another angle. One

neglected his works. For examples of negative assessments see Kim T'aejun (1934: 107), Ku Chagyun (1964: 133), Kim Tonguk (1972: 267) and Yi Tongyŏng (2000: 146). In the latter Cho Yunje's opinion is also to be seen.

24 Ihwa yŏja taehakkyo Han'guk munhwa yŏn'guwŏn (2003: 40).

25 For this and other problems of the previous studies on Kim T'aejun see Yu Myŏngin (2006).

26 For instance, Pak Hŭibyŏng (1993), the most comprehensive account of Kim T'aejun's life and works up until that time, is listed there (p. 257).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Cho Tongil or someone else simply added the list of references to the third edition (1994). Even in this case, he can hardly be exempted from his responsibility as the author or chief editor of the standard work on the history of KL.

of the many disciples of Cho Tongil – Yu Chunp'il (柳浚弼, 1966-), tried to support his mentor's idea, which has already become apparent above, conceptually, by divid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to three periods, as follows: “seminal period (t'aedonggi 胎動期)”, “formation period (hyōngsōnggi 形成期)”, and “rootedness period (chōngch'akki 定着期)”.²⁷ The first period refers chiefly to the 1920s and thereafter, i.e. the time of the NL-school researchers, the second to the post-college time of the first KIU-graduates' generation, i.e. the 1930s, and the last one begins with the 1945 liberation. Yu Chunp'il's periodization has obviously been derived from his mentor's narrative, as the next passage – actually the same narrative as that mentioned above, but in English – shows:

Modern research efforts of KL began in 1920s. The national historians of the time tried to assimilate traditional values with modern enlightenment and to heighten the national awareness against Japanese oppression through vast research on overall Korean literary history. An Hwak's work was most notable in this regard. His *Chosŏn munhaksa* (History of KL), published in 1922, although incomplete in his analysis, is valuable in its contribution to explain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national culture with selective, independent adaptation of Western culture.

By 1930s, a new generation of college educated writers who majored in KL started to structuralize and professionalize the research of KL. In *Chosŏn sosŏlsa* (History of Korean Novels), Kim T'aejun expressed sincere interest in novels, a first in the field, and arranged and evaluated the history of novels from its separated creation from Confucius ideals to the modern novels. In *Chosŏn siga sagang* (History of Korean Poetry and Songs) [朝鮮詩歌史綱], Cho Yunje analysed

27 Yu Chunp'il (1998: 3). The terms in English above are quoted from his own English abstract. His dissert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cited studies in the research field of the early years of KLS.

the evolution of Korean language poetry and songs and established the method to perform detailed evaluation of data. Moreover, he tried to establish a national historical perspective of how the national spirit draws its universalism from literature and use it as the foundation for liberation and unification. His *Kungmunhaksa* (History of KL), published in 1949 after liberation, was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new generation that entered the literary field after 1945 we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They majored in KL in universities and became professors right after graduation established their specialty sub-fields and concentrated on discovering and organizing all available data and research material. They essentially created a new domain of literary study. Yi Kawŏn's Chinese-character literature study,·····are all notable works in their subspecialty areas that had widespread influence.²⁸

In such a scheme, there is no place for the KIU-period and therefore no need to take the trouble to deal with the meaning of the first university. It is quite simply and conveniently made to disappear.

Now it can easily be presumed that the narratives on the top level, i.e. those concerning the history of KLS as a whole, such as the older one of Kim Sayŏp (and his contemporaries) and the more sophisticated one of Cho Tongil and Yu Chunp'il, are continuously reproduced and modified on lower levels, which concern the history of each branch of KLS like KS, as the next passage shows:

To put it concretely, after the two studies [of Kim T'aejun and Yang Kŏnsik in 1936]²⁹ had been published and through the liberation, a blank period

28 Cho Tongil (1997: 25).

29 They are "*Kuunmong*-ŭi yŏn'gu (九雲夢의 研究, Study of *Kuunmong*)" and "*Kojoŏn munhag*-ŭi kamsang-gwa yŏn'gu, *Kuunmong*-ŭi kach'i (古典文學의 鑑賞과 研究, 九雲夢의

continued for quite a time. It was only in 1954 that Yi Kawŏn's "*Kuunmong* p'yŏnggo (九雲夢 評攷, Study of *Kuunmong*)"³⁰ appeared.³¹

This narrative is from the mid-1980s. It is more elaborated in argument and seems to be more convincing than the older one (Kim Sayŏp in 1948), but it is still not as developed as the new one (Cho Tongil and Yu Chunp'il in the 1990s), which was based on the ideology and new concept of the NL, which has been already discussed above.

Of special interest at this point is the insertion of a "blank period (kongbaekki 空白期)",³² probably in terms of a borderline or a turning point between the (Japanese) past and the (Korean) present. This blank period may also be regarded as a sort of a 'period of mental rehabilitation', which should be installed in order to gain (or maybe rather to demonstrate) a recovered Korean academic spirit. In this respec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narratives. On the other hand, as it is to be recognized in many other fields, the assumption of such a blank or *tabula rasa*³³ period covering the 1940s to the mid-1950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to set a *Stunde Null* seems to be quite normal. Indeed, it might be adequate or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war situation after 1937,

價值, Appreciation and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Kuunmong's* value").

30 His study first appeared as a part of his annotated translation of *Kuunmong* in 1955. The year 1954 might refer to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manuscript.

31 Pak Pyŏngwan (1986: 363). A similar opinion is also expressed by Kim Pyŏngguk (1983: IV-61).

32 It is also used in Kugŏ kungmun hakhoe (1997: 31).

33 An equivalent term "paekchi (白紙)" is also used in the same context in Kugŏ kungmun hakhoe (1983: 14).

which was probably not conducive to academic activities,³⁴ yet it requires a more detailed examination on the basis of the history of KS for the purposes of this paper.

3. *Kuunmong* studies by Korean scholars

As seen in the last quotation, experts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today's KS begin with Yi Kawŏn's study of 1955. No proper attention was thus paid to the earlier contributions, e.g. it went unnoticed, even among specialists, that Kim T'aejun's research results were received to a large extent and further elaborated by Yi Kawŏn. His study is basically nothing but a development of his mentor's³⁵ idea within the same framework, or more specifically, of the chapter dedicated to *Kuunmong* and Kim Manjung in *Chosŏn sosŏlsa*.

Apart from the (explicit and implicit) quotations from the *Chosŏn sosŏlsa*, the use of identical terms such as “kungmin munhag-ŭi sŏn'guja (國民文學의 先驅者, pioneer of national literature)”³⁶ and “kamsangjŏk

34 This general or over generalized opinion must also be carefully examined. In the scope of KLS this is not true, at least quantitatively. During the nine years from 1928 to 1936, 23 volumes and 519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same term from 1937 (Japanese invasion of China) to 1945, i.e. during World War II, 31 volumes and 526 articles appeared. And only during the next five years from 1946 to 1950 (before the Korean War), 98 volumes and 410 articles were produced. This set of statistics based on Pak Sŏngŭi (1972: 256-261) clearly shows the publications on KL, i.e. in the circles of KLS were produced continuously and even in a growing tendency, not influenced by the war situation at all.

35 For obstacles Yi Kawŏn must have experienced as a (or, possibly, the only) disciple of the socialist or communist Kim T'aejun and for his late 'coming out' see Yi Kawŏn (1999).

chŭkhŭng siin (感傷的 卽興詩人, sentimental improvising poet)³⁷ indicate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ies by Kim T'aejun and Yi Kawŏn. It is another strong sign of their close relationship that Yi Kawŏn quoted a passage from the introduction written by Elspet Keith Robertson Scott in Gale's translation not from the original source but from the *Chosŏn sosŏlsa*, in which Kim T'aejun might have deliberately translated the passage wrongly in order to put more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Kuunmong*.³⁸ Moreover, Kim T'aejun's major influence is to be recognized by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similarity with parts of Yi Kawŏn's study and the same interpretation of *Kuunmong* as well.³⁹

A brief comparison:⁴⁰

In the left column of the following table we list all the six parts of the

36 Yi Kawŏn (1955: 7). Cf. e.g. "kungmin munhakka (國民文學家, writer of national literature)" in Kim T'aejun (1939: 113).

37 Kim T'aejun (1939: 113) ; Yi Kawŏn (1955: 30).

38 See Gale (1922: ix), Kim T'aejun (1939: 119), and Yi Kawŏn (1955: 17). For Kim T'aejun's incorrect translation see Chŏng Kyubok (1959: 156). The (re)quotation is only to be seen in the first edition of Yi Kawŏn's translation. It is removed from the later editions and the separate publications of his study.

39 A comprehensive and detailed comparison of both these studies will become available in my forthcoming dissertation (working title: *Kuunmong* and the history of KLS). Due to the limitations of space and in order to concentrate on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a detailed analysis will therefore be neglected here. Instead, some examples and remarks are added for reference purposes. The mentor's influence on the disciple will be unmistakably recognized by reading both studies, even by a casual glance at them.

40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some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both these studies are to be observed. However, they will also be neglected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Here,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studies will focus only on their similarities rather than their differences.

chapter 5.2 “Sosŏlga-ro pon Sŏp’o Kim Manjung (小説家로 본 西浦 金萬重, Kim Manjung seen as a novelist)” in the third edition of *Chosŏn sosŏlsa* (1939)⁴¹ and on the right side the ten parts of the Yi Kawŏn’s study.

金台俊 1939	李家源 1955
I 金萬重의 一生	(I =) 1 九雲夢의 著者 西浦 金萬重의 一生
II 九雲夢·南征記의 著作까지	(III =) 2 西浦의 文學에 代한 見解와 理論
III 西浦·北軒의 國民文學의 見解	(II =) 3 九雲夢의 著作
IV 名作 九雲夢의 考究	(IV =) 4 九雲夢의 主題와 構成
V 九雲夢의 繙案 夢字類의 流行	(new) 5 九雲夢의 異本攷
VI 南征記 小考	(VI =) 6 九雲夢과 關聯性을 가진 西浦의 作品
	(new) 7 九雲夢의 外國文學에서의 받은 影響
	(V =) 8 九雲夢의 後世에 미친 影響
	(new) 9 震域小説史上으로 본 九雲夢
	10 結語 (kyŏrŏ, conclusion) ⁴²

In part 1 “*Kuunmong*-ŭi chŏja Sŏp’o Kim Manjung-ŭi ilsaeng (The life of Kim Manjung, author of *Kuunmong*)” Yi Kawŏn first outlines the political ups and downs of the author and pays attention to the discrepancy between Kim Manjung as an author and as a factional politician, to amplify what has been done by Kim T’aejun in his part I “Kim Manjung-ŭi ilsaeng (The life of Kim Manjung)”.

Part 2 “Sŏp’o-ŭi munhag-e taehan kyŏnhae-wa iron (Literary opinion and theory of Kim Manjung)” just contains some more examples than part III “Sŏp’o, Pukhŏn-ŭi kungmin munhakchŏk kyŏnhae (National literary opinion of Kim Manjung and Kim Ch’unt’aek) of Kim T’aejun.

41 Kim T’aejun (1939: 108-124).

42 Transcriptions and renderings of the other parts are provided in text.

Between part II “*Kuunmong, Namjŏnggi*-ŭi chŏjak-kkaji (Until the writing of *Kuunmong* and *Namjŏnggi*)” and part 3 “*Kuunmong*-ŭi chŏjak (Writing of *Kuunmong*)” there is no considerable difference.⁴³

The same appli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 IV “Myŏngjak *Kuunmong*-ŭi kogu (A study of the masterpiece *Kuunmong*)” and part 4 “*Kuunmong*-ŭi chuje-wa kusŏng (Theme and structure of *Kuunmong*)”. The literary interpretation of the novel with such keywords as “Buddhist fatalism or predestination (pulgyojŏgin sungmyŏngnon 佛教의 宿命論)”⁴⁴ figures prominently in Kim T’aejun as well as Yi Kawŏn. This and other interpretations that are scarcely to be seen in any other contemporary studies unmistakably show the direct influence of Kim T’aejun on Yi Kawŏn.⁴⁵

As regards part 5 “*Kuunmong*-ŭi ibon ko (A study of editions of *Kuunmong*)”, Kim T’aejun was apparently convinced that the work was initially written in Korean. Thus he might have had no need to examine the existing editions. Owing to the limited length of his historiography it might also have been nearly impossible to include such a survey in this chapter. Yi Kawŏn was the first to undertake this task, i.e. to give an

43 Excepting the following point: Yi Kawŏn presumes that Kim Manjung might have composed his *Kuunmong* in Sŏnch’ŏn (宣川), his next to last place of exile, in 1688 and tries to correct the Kim T’aejun’s opinion that the work was composed in Namhae (南海), where the author died in exile, in 1689.

44 Yi Kawŏn (1955: 16). Cf. Kim T’aejun (1939: 116).

45 Although both of them acclaimed Kim Manjung the most important national writer and praised the national literary-historical value of the author and his works, they had great doubts about their literary value and their appropriateness or usefulness in the contemporary social context. Their critical attitude towards *Kuunmong* has not been widely received by subsequent researchers.

annotated list of editions, which he may have consulted, in order to choose the suitable edition for his annotated translation.⁴⁶

In part 6 “*Kuunmong*-gwa kwallyōnsōng-ŭl kajin Sōp’o-ŭi chakp’um (Kim Manjung’s other works related to *Kuunmong*)” Yi Kawōn presents three works: *Sa-ssi Namjōnggi*, *Sōp’o* manp’il (西浦漫筆, Kim Manjung’s Random Essays) and *Sōp’o chip* (西浦集, A Collection of Kim Manjung’s Works). They are already treated by Kim T’aejun in part VI “*Namjōnggi* sogo (A brief study of *Namjōnggi*)” and in other parts.

In part 7 “*Kuunmong*-ŭi oeguk munhag-esō padŭn yōnghyang (Influence of foreign literature on *Kuunmong*)” Kim T’aejun dealt with the general influence of foreign literature on Korean fiction in his *Chosōn sosōlsa*.⁴⁷ Based on his research results Yi Kawōn tried to compare Chinese fiction to *Kuunmong*.

Between part 8 “*Kuunmong*-ŭi huse-e mich’in yōnghyang (*Kuunmong*’s influence on the next age)” and part V “*Kuunmong*-ŭi pōnan mong-charyu-ŭi yuhaeng (Prevalence of dream stories, adaptations of *Kuunmong*)” there is no difference.

A part like 9 “Chinyōk sosōlsa sang-ŭro pon *Kuunmong* (*Kuunmong* viewed in the light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novel)” can of course only exist in Yi Kawōn’s study. It is merely a brief summary of Kim T’aejun’s whole work in which the significant meaning of *Kuunmong* has been

46 Yi Kawōn also shared the same opinion with his mentor, concerning the language used in the manuscript, and thus made no effort to examine the editions. Although the part is named as such with “ibon ko (異本攷)”, his survey was not systematized and is not comparable with later studies of editions such as the one put together by Chōng Kyubok.

47 See Kim T’aejun (1939: 14-17).

strongly expressed.

In spite of the 16-year gap, there is, in almost every respect, a much closer similarity between the “two new generations”⁴⁸ which are represented by Kim T’aejun and Yi Kawŏn in the present study, than under the widely held view on them. In previous studies too much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m. The external situation shaped by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essentially caused no genuine breaks in the unfolding of KS (and KLS).

One might be willing to argue that it is very proper to speak of a “blank period” in the disciplinary history because of the lack of developments over those 16 years. But even in this case, one point must be added and seriously considered: throughout the whole colonial period there were only a couple of Korean scholars who contributed substantial studies on KL with long-lasting influence, i.e. Kim T’aejun, Cho Yunje, Yang Chudong (梁柱東 1903-1977) and others.⁴⁹ In the 1940s, Kim T’aejun devoted himself to the socialist movement, so that he could make no more contributions. This was merely a personal decision, albeit forced, of course, by the political situation. In Yang Chudong’s case, his massive work *Chosŏn koga yŏn’gu* (朝鮮古歌研究, A Study of Old Korean Songs) appeared in 1942, right in the middle of the “blank period”. All this considered⁵⁰ the blankness of this

48 See the quotation by Cho Tongil (1997: 25) above.

49 For instance, there were 22 Korean graduates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IU. Except for linguists and those who died early or went to the North, only seven remained: Cho Yunje, Ku Chagyun, Kim Sayŏp, Yun Ŭngsŏn (尹應善: ?-?, studied 1930-1935), Son Nakpŏm (孫洛範: 1911-1984, 1931-1936), Yi Chae-su (李在秀: 1912-1974, 1932-1938) and Yang Chaeyŏn (梁在淵: 1920-1973, 1940-1946). Many of them devoted themselves rather to training students and young scholar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graduates see Yi Ch’ungu (1980).

period is to be regarded as an individual recess rather than an institutional phenomenon.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have an overview of all Korean⁵¹ editions of *Chosŏn sosŏlsa* listed below and to pay attention to the year of publication of them, since, as mentioned above, practically only the last edition (1939) has been noticed and used in previous studies. Kim T'aejun's study (1936), on the other hand, has been presented as a separate study, i.e. as having no relation with his historiography,⁵² whereas it was actually just a partial publication of *Chosŏn sosŏlsa*.

- | | |
|---|--------------------|
| (1) The first edition of <i>Chosŏn sosŏlsa</i> , | 1930-1931 |
| (2) The second edition of <i>Chosŏn sosŏlsa</i> , | 1933 |
| (3) “ <i>Kuunmong-ŭi yŏn'gu</i> ” in <i>Chosŏn munhak</i> , | 1936 |
| (4) The third, revised edition of <i>Chosŏn sosŏlsa</i> , | 1939 ⁵³ |

Apart from some changes, which will be neglected here, there is no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editions regarding the chapter on *Kuunmong*, including the partial publication. It means that Kim T'aejun's KS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in 1930. From the textual facts and the circumstances of his personal life in those days it may be inferred that the

50 Also see the statistics of publications given above.

51 One Japanese edition by the author himself appeared right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rst edition. It was serialized from 14 November 1930 to 30 March 1931, containing 107 numbers in *Chōsen Tsūshin* (Kor. Chosŏn T'ongsin 朝鮮通信). This edition is very similar to the first edition. It remains to be investigated, however, which is earlier.

52 Cf. the quotation by Pak Pyŏngwan (1986: 363) above.

53 For bibliographical information see Kim T'aejun (1930 ; 1933 ; 1936 ; 1939) in the 'References'.

Chosŏn sosŏlsa was written during the two years from 1928 until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manuscript (14 January 1930), with only minor modifications afterwards, i.e. during his regular study period at KIU. This means that his KS were also already sketched during those years.⁵⁴ How could Kim T'aejun conceive of such a work so early? Although *Kuunmong* was popular, traditional Neo-Confucian scholars denounced reading prose literature of this kind. The majority of readers still read out together and listened to the story, a reception setting which would not easily arouse the academic interests of scholars. And intellectuals from the tradition-conscious generation such as Pak Ŭnsik (朴殷植 1859-1925) and Chang Chiyŏn (張志淵 1864-1921) persisted yet again in their hostile attitude towards pre-modern fiction.⁵⁵ It was the only younger generation at that time who might well have possessed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pre-modern literature, the rising generation of writers and critics of the 'new literature' such as Yi Kwangsu (李光洙 1892-1950). Indeed, however, they were the worst enemies of the 'old fictional literature', including *Kuunmong*:

Professor X mentioned above seems to have made great progress in comparison to the recent years, he is said to use *Kuunmong* for an exercise on KL. That is of course closer to the purpose than [using] *Kyŏngmong yogyŏl* (擊蒙要訣, Essential Instruction on Expelling Ignorance, 1577), since, in general terms, the *Kuunmong* is obviously a novel and belongs to literature in its narrow sense. That professor seems to have, however, still a long way to go in order to

54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see Yu Myŏngin (2006: 218, 224).

55 For the general circumstances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see Ch'ŏn Chŏnghwan (2003: 76-90).

understand the principle that the national language is the basic condition for national literature. . . . Let's say, in Korea there is a university ; at that university there is a department of KL. What is to be taught there is, by any means, neither the *Kyŏngmong yogyŏl* nor the *Kuunmong*. What is to be taught there are hyangga from Silla, sijo, *Ch'unhyang chŏn*, and works of the contemporary writers of Korea.⁵⁶

Who else could have been aware of the *Kuunmong's* meaning? In this context it is of special interest to examine An Hwak's opinion on *Kuunmong* in his *Chosŏn munhaksa*:

In *Pukhŏn chapsŏl* (北軒雜說, Pukhŏn's Miscellaneous Treatises) by Kim Ch'untaek (金春澤 1670-1717) it can be seen that in the reign of Sukchong Kim Manjung wrote many novels. But nowadays I don't know which works he has written except the *Kuunmong*.⁵⁷

The passage from the *Pukhŏn chapsŏl* he would have consulted reads:

Novels — whether with the elegance and beauty of the *Taiping guangji* (太平廣記) or through the strange twists and stylistic vastness of the *Xiyouji* (西遊記) and the *Shuihu zhuan* (水滸傳), and such as the *Ping-Shan-Leng-Yan* (平山冷燕),⁵⁸ however tasteful they might be — are utterly useless at the end of the day. Sŏp'o wrote a quite large number of novels in the vulgar [Korean] language.

56 Yi Kwangsu (1929: 6). For his hostile attitude towards *Kuunmong* see also Yi Kwangsu (1918: 20). Within the scope of the present study, only Yi Kwangsu's opinion is presented as a case in point. In my dissertation, however, a quite large number of the opinions of his contemporaries are analysed.

57 An Hwak (1922: 102).

58 The first three are known as *Extensive Records of the Taiping Era*, *Journey to the West*, and *Water Margin* to western readers. The fourth work, *Ping-Shan-Leng-Yan*, is entitled by the family names of the four main characters.

Among them, namely *Namjŏnggi* has allegories⁵⁹ that do not belong to the same class [of the mentioned works]. So I translated it into the [Chinese] written language.⁶⁰

From the *Pukhŏn chapsŏl* Kim T'aejun gained two pieces of significant information, which went totally unnoticed by An Hwak. First, Kim T'aejun developed the theory that not only *Namjŏnggi* but also *Kuunmong* must have been composed first in "the vulgar [Korean] language (sogŏn 俗諺)" by Kim Manjung and then translated into literary Chinese by his grand-nephew Ch'unt'aek. Second, he recognized the author's national literary value and made him the representative of national literature, which he is still considered today.

Since in the whole *Pukhŏn chapsŏl* there is no single passage addressing *Kuunmong* but only *Namjŏnggi* instead, it may also be doubted whether An Hwak even read the passage himself. Apart from his questionable scholarship, he showed no interest in *Kuunmong*, remaining largely ignorant about it even eleven years after his own historiography and three years after Kim T'aejun's *Chosŏn sosŏlsa*.⁶¹

[In *Kuunmong*] there is nothing extraordinary to be seen ; it is just an adaptation from hanmun sosŏl (漢文小說).⁶²

59 For the translation of 'Chin, bi / Kor, pi 比' as "allegories" see Bouchez (1979: 27).

60 小說 無論廣記之雅麗 西遊水滸之奇變宏博 如平山冷燕 又何等風致 然終於無益而已 西浦頗多以俗諺爲小說 其中所謂南征記者 有非等閒之比 余故翻以文字, Kim Ch'unt'aek (1997: 228).

61 At that time An Hwak was already aware of Kim T'aejun's work and once mentioned its second edition. See An Hwak (1933) in Ch'oe Wŏnsik (1996: 215).

62 An Hwak (1933) in Ch'oe Wŏnsik (1996: 209). "Hanmun sosŏl" refers generally to Korean fiction written in literary Chinese. However, according the usage of here and other places in his works, An Hwak might have used the term with the same meaning

An Hwak, the “national historian”,⁶³ could never quite fathom the *Kuunmong’s* value as national literature against all expectations, which he, as ‘the father of NL’, certainly should have done. It was him, who quite obviously “lacked an awareness of the key issues.”⁶⁴ Indeed he devoted only seven lines to ‘the masterpiece of national literature’ in his historiography, which is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stone of KLS and NL today.⁶⁵ Everything shown so far straightforwardly undermines Cho Tongil’s narrative as well as the widely held view among experts. “The new generation” that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was not the 1945-generation but the KIU-generation.⁶⁶ The scholars of the 1945-generation, whose disciples are now the leading senior scholars in the discipline, could have had a new self-confidence and a new vision facing the liberation, or, rather, they could at least have wanted to assume such a new stance. However, they were, at least at that time and for a time thereafter, still unable to put their ‘academic frontier spirit’ into practice.

4. Contributions by Japanese scholars

Among the Korean intellectuals at that time, Kim T’aejun was indeed the very only one who highlighted Kim Manjung and his works. Even Cho

as ‘chungguk sosŏl (中國小說, Chinese novel)’.

63 See the quotation by Cho Tongil (1997: 25) above.

64 See the quotation by Cho Tongil (1994: 250-253) above.

65 As an inevitable result of this analysis, it would be of special interest, but beyond the scope of the present study, to examine the posthumous building process of An Hwak’s reputation as the major representative of NL in Korean academia.

66 For the phrases in quotation marks see the quotation by Cho Tongil (1997: 25) above.

Yunje could not recogniz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se before him.⁶⁷ I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is regard to trace those who were able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Kuunmong* apart from the young Korean scholars or students.⁶⁸ Not only history, religion, and the arts, but also literature, especially pre-modern literature was a subject, which could not remain ‘untouched’ by Japanese ‘colonial’ scholars, who became interested in *Kuunmong*, which they translated and published in series like these:

- (1) 青柳綱太郎 編, 謝氏南征記・九雲夢: 原文和譯對照, 京城: 朝鮮研究會, 1914.
- (2) 細井肇 編, 九雲夢, 東京・京城: 自由討究社, 1921.⁶⁹

The translation of 1914 was the first volume of the second series of *Chōsen kenkyūkai koshō chinsho kankō* (朝鮮研究會古書珍書刊行, Old and Rare Book Publications by the Korea Research Society). Regarding the academic character of the series⁷⁰ and the placement as the first volume

67 Kim Yunsik (金允植: 1936-, SNU-graduate, emeritus professor for KL at SNU), the specialist for the historiography of this period, seems to take the view that it was Cho Yunje who first acknowledged the literary-historical and national literary value of Kim Manjung and his works. See Kim Yunsik (1984: 69). The comparison of Cho Yunje’s earlier studies on pre-modern fiction with Kim T’aejun’s *Chosŏn sosŏlsa*, which will be neglected here, clearly shows that Kim Yunsik did not carefully consider the early works of Kim T’aejun. Kim Yunsik’s comparison between both of the KIU-graduates (e.g. pp. 58-66) and his estimation of Kim T’aejun must be seriously reconsidered.

68 Except for James Scarth Gale (1863-1937) and Elspet Keith Robertson Scott (?-1956). It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paper to outline all these. Yi Sanghyŏn (2004) can be recommended as a general reference for this topic.

69 For transcription and bibliographical information see Aoyagi (1914) and Hosoi (1921) in the ‘References’. The second one was reprinted also by Hosoi (1924) in Japan. No serious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Japanese translations, although they are already known among experts such as Cho Hŭiung (1999), who dutifully registers them.

it may be said that the *Kuunmong* made it into ‘the major league’ at that point in time.

The editor of the second translation, Hosoi Hajime (細井肇, 1886-1934),⁷¹ was also the founder of the Chōsen Kenkyūkai (1908). He also founded the publishing house Jiyū Tōkyūsha (自由討究社) and opened the Keijō branch in 1911. At that time Aoyagi Tsunatarō (青柳綱太郎, 1877-1932) took over the management of the Chōsen Kenkyūkai and published the first translation.⁷² Hosoi clearly was the key figure in this field. He was indeed not only a founder or owner of the publishing houses, but also author of many work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is context is his *Chōsen bunka shiron* (朝鮮文化史論, Discourse on the Cultural History of Korea, 1911) in which he paid a special attention to Kim Manjung and the *Kuunmong*. In chapter 7 “Richō jidai (李朝時代, The age of Chosŏn-Dynasty)” he summarized a brief biography of the author Kim Manjung.⁷³ From today’s vantage point, there is basically nothing new in it. This is, however, the earliest work that spoke of the significance of the author and his novel in the context of the

70 According to the incomplete bibli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library at SNU, the series generally includes historical, political, geographical and encyclopaedic works such as *Changnŭng chi* (莊陵誌), *P’yŏngyang sokchi* (平壤續志), *Mongmin simsŏ* (牧民心書), *Samguk sagi* (三國史記), *Tongguk t’onggam* (東國通鑑), *Chosŏn pangmul chi* (朝鮮博物誌), etc. Among the total of 27 titles (47 volumes) in all three series there are, besides Kim Manjung’s works, five titles that could be regarded as fictional literature in a broad sense: *Kakkan sŏnsaeng silgi* (角干先生實記), *Chosŏn yadam chip* (朝鮮野談集), *Haeyurok* (海遊錄), *Handang yusa* (漢唐遺事) and *Yŏnam oejip* (燕巖外集).

71 For his personality and colonialist activities see e.g. Paek Sŭngjong (2005).

72 These facts are mainly derived from the appendix of each translation.

73 Hosoi (1911: 527).

history of KL. Besides, Hosoi dedicated eleven pages to the summary of the story line in chapter 8 “Hantō no nanbungaku (半島の軟文學 Light literature of the [Korean] peninsula)”.⁷⁴ A passage from the preface to this chapter reads:

It is for years that Mr. Takahashi Tōru, B.A., devotes himself to the deepened study of light literature of the peninsula. From all that I hear, he already translated large number of works and these perfect translations are to be published soon.⁷⁵

Takahashi, who was acclaimed as the leading authority in the field of Korean fiction, was also a council member of Hosoi’s Chōsen Kenkyūkai. All this considered, Takahashi was probably aware of the *Kuunmong* translation projects of Hosoi. To what extent he participated in those projects is not easy to assess, because there is no further indication. At this point, however, it is of more importance to trace what he did with *Kuunmong* afterwards:

As far as the writers in the reign of King Sukchong are concerned, a part of free thoughts at that time is represented by Kim Manjung’s writings in which, among other things, [the influences of] many Buddhist sutras can be recognized, and particularly by his famous novel *Kuunmong*, in which the comforting of his mother is recorded and Buddhism is described as the first among the three

74 In this chapter there are nine titles in all: *Ch’up’ung kambyōlgok* (秋風感別曲, pp. 552-), *Namhun t’aep’yōng ka* (南薰太平歌, 563-), *Simch’ōng ch’ōn* (沈清傳, 566-), *Kuunmong* (577-), *Cho Ung ch’ōn* (趙雄傳, 590-), *Hong Kiltong ch’ōn* (600-), *Ch’unhyang ch’ōn* (627-), *Changhwa Hongnyōn ch’ōn* (蕃花紅蓮傳, 630-), *Chaesaeŋyōn* (再生緣, 632-636).

75 Hosoi (1911: 551).

religions [or teachings]. This novel is called the best under the novels written by Koreans of all times and stands out as a remarkable work in the history of KL, — excellent thoughts, beautiful style, freedom from the usual thoughts of that time, and in this way sparkling.⁷⁶

This passage, which can be regarded as very ordinary from today's perspective, comes from Takahashi's massive work *Richō bukkyō* (李朝佛教, Chosŏn-Dynasty Buddhism, 1929), to be precise, from the part treating Kim Manjung and his novel.⁷⁷ The passage above is followed by a concise summary of the novel, and finally its last scene is excerpted. That was one of Takahashi's two contributions. The other one was his seminar, as seen in the quotation from Yi Kwangsu (1929) above. The “professor X”, i.e. Takahashi,⁷⁸ who was since 1926 holder of the chair in KL at KIU once used *Kuunmong* for his seminar, probably in the fall semester of 1928 or the spring semester of 1929. Of all intellectuals during that period, it was precisely that “unspecialized” Japanese professor who finally raised the *Kuunmong* to the status it enjoys today.

5. Conclusion

What all analyses in this study show is that the dominant narratives about the origins of KLS, based mainly on An Hwak and Cho Yunje, must be seriously reconsidered and that the KIU-period as well as Kim T'aejun's early contributions will have to be seriously taken into account as a crucial

76 Takahashi (1929: 794).

77 Takahashi (1929: 794-798).

78 Cf. e.g. Pak Kwanghyŏn (2003: 352).

topic of research on the early history of KLS. This reconsideration is still in its early stage, so it might be to say that a disciplinary-historical research on KLS proper has not been undertaken yet, as the existence and persistence of those narratives attest to.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the KIU, the role of Cho Yunje and even Kim T'aejun and Takahashi in recent years. But they are, without exception, based on the master narrative of Cho Tongil and Yu Chunp'il, which has been clearly disproven in this paper, and lack critical reflection.

Results of this research, which has been carried out as a first step towards establishing a solid founda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origins of KLS, leave more to be investigated and answered. Above all,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that remain to be explored regarding Kim T'aejun's contributions. For instance, there is no clear indication that he was associated with Takahashi already in his early college days. According to his university record he didn't attend any seminars at the department of KL. However, it is plausible to assume that he at least heard about the seminar on *Kuunmong*, which even Yi Kwangsu outside the KIU knew about, and that he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Kuunmong* and Kim Manjung in good time for his work, even if he had never read or registered all the translations and works mentioned above, which, however, seems quite unlikely. Clearly, this is speculative, and considerable further work needs to be done. In this respect, this paper will conclude by addressing some of the remaining questions.

Cho Yunje's first major work *Chosŏn siga sagang* appeared in 1937, i.e. eight years after his graduation. His younger colleague Kim T'aejun published his first major work *Chosŏn sosŏlsa* in 1930, in whose

framework he carried out his KS. How did he manage to make a contribution of such great consequence so early in his life? Further research should be directed to explore this question,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a clearer picture of the origins of KLS. Another problem is a matter of research method. The examination of the early contributions, as it has been illustratively applied to the present study, ought to be carried out in close context with their authors an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 in order to prevent a distorted picture of the origins of KLS.

Let me finally address the general nature of the history of the humanities in Korea. Exploring this field is not easy at all, for quite conceivable reasons, including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i.e. 'a past within reach', the colonial experiences, and the personal relations among scholars and between mentors and disciples. It could thus easily be regarded as a quite thankless task. In the end, however, many of those scholars themselves and among the researchers of the next generation will profit considerably from such research. Furthermore, Korean studies outside Korea can provide a favourable basis for this kind of research, which may be expected to stimulate the academic world inside Korea and, as a result of this, to facilitate a more active and productive interchange of ideas between researchers in and outside Korea.

References

- An Hwak (1922) *Chosŏn munhaksa* (History of KL), Keijō: Hanil sŏjŏm.
An Hwak (1933) 'Yijo sidae-ŭi munhak' (Literature of the age of Chosŏn-Dynasty),
(*Ŏnmun*) *Chosŏn* 18, Chosŏn ch'ongdokpu, 43-55 ; in Ch'oe Wŏnsik (1996), in

- Chŏng Haeryŏm (ed.) *An Chasan kukhangnon sŏnjip*, Seoul: Hyŏndae sirhaksa, 200-216.
- Aoyagi Tsunatarō (ed.) (1914) *Sa-ssi namjŏnggi*, *Kuunmong* [Sha-shi nanseiki, Kyūunmu]: *genbun wayaku taishō*, Keijō: Chōsen kenkyūkai. [= Aoyagi Nanmei].
- Bouchez, Daniel (1979) 'A Neo-Confucian view of literature: Kim Ch'un'ae's comments on the *Namjŏnggi*', *Korea Journal* 19-5, KNC for UNESCO, 27-32.
- Ch'oe Kiyŏng (2003) *Singminji sigi minjok chisŏng-gwa munhaw undong* (Nationalist Intellectuals' Cultural Movem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eoul: Hanul.
- Ch'ŏn Chŏnghwan (2003) *Kŭndae-ŭi ch'aek ilkki* (Reading Books in Modern Times), Seoul: P'urŭn yŏksa.
- Cho Hŭiung (1999) *Kojŏn sosŏl ibon mongnok* (Annotated Bibliography on Editions of Pre-modern Novels), Seoul: Chimmundang.
- Cho Tongil (1994) *Han'guk munhak t'ongsa* 5 (Complete History of KL), Seoul: Chisik sanŏpsa.
- Cho Tongil (1997) *Korean Literature in Cultural Context and Comparative Perspective*, Seoul: Chimmundang.
- Cho Yunje (1964) *Tonam chapchi* (Cho Yunje's Miscellaneous Treatises), Seoul: Ŭryu munhwasa.
- Chŏng Kyubok (1959) 'Kuunmong yŏngyŏkpon ko' (A study of the English translation), *Kugŏ kungmunhak* 21, Kugŏ kungmun hakhoe, 134-157.
- Chŏng Sŏni (2002) *Kyŏngsŏng cheguk taehak yŏn'gu* (A Study of KIU), Seoul: Munŭmsa.
- Gale, James Scarth (transl.) (1922) *The Cloud Dream of the Nine*, London: The Westminster Press.
-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ed.) (1996) *Kwangbok osip chunyŏn kukhag-ŭi sŏnggwa* (Results of National Learning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Sŏngnam: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 Hosoi Hajime (1911) *Chōsen bunka shiron* (Discourse on the Cultural History of Korea), Keijō: Chōsen kenkyūkai.
- Hosoi Hajime (ed.) (1921) *Kuunmong* [Kyūunmu], Tokyo & Keijō: Jiyū tōkyūsha.
- Hosoi Hajime (ed.) (1924) *Kuunmong*, Tokyo: Hōkōkai.
- Ihwa yŏja taehakkyo Han'guk munhwa yŏn'guwŏn (ed.) (2003) *Kungmunhak yŏn'gu osip nyŏn* (50 Years of KLS), Seoul: Hyeon.
- Kim Ch'un'ae (1997) 'Pukhŏn chip' (A collection of Kim Ch'un'ae's works), in Minjok munhwa ch'ujinhoe (ed.) *Han'guk munjip ch'onggan* 185, Seoul: Kyŏngin

- munhwasa.
- Kim Pyŏngguk (1983) 'Kuunmong, kŭ yŏn'gusajŏk kaegwan-gwa pip'an' (Critical outline of the research history on *Kuunmong*), in Sin Tonguk (ed.) *Kim Manjung yŏn'gu* IV-, Seoul: Saemunsa, 61-73.
- Kim Sayŏp (1948) *Chosŏn munhaksa* (History of KL), Seoul: Chŏngŭmsa.
- Kim Sayŏp (1954) *Kaego Kungmunhaksa* (Revised History of KL), Seoul: Chŏngŭmsa.
- Kim T'aejun (1930) 'Chosŏn sosŏlsa' (History of the Korean novel), in *Tonga Ilbo* (69 times: 31 October 1930–25 February 1931).
- Kim T'aejun (1933) *Chosŏn sosŏlsa*, Keijō: Ch'ŏngjin sŏgwan.
- Kim T'aejun (1934) 'Sijo kiwŏn-e taehan chaego' (Reconsideration of the origins of sijo), *Haktŭng* 3, Hansŏng tosŏ chusik hoesa, 28ff [pen name: Ch'ŏn'aesanin].
- Kim T'aejun (1936) 'Kuunmong-ŭi yŏn'gu' (A study of Kuunmong), *Chosŏn munhak* 2-10, Chosŏn munhaksa, 153-156.
- Kim T'aejun (1939) *Chŭngbo Chosŏn sosŏlsa* (Revised History of the Korean Novel), Keijō: Hagiyesa.
- Kim Tonguk (1972) 'Kungmunhak yŏn'gusa-wa ap'ŭro-ŭi kwaje' (History of KLS and future tasks), *Minjok munhwa yŏn'gu* 6, Koryŏ taehakkyo, 267-270.
- Kim Yunsik (1984) *Han'guk kŭndae munhak sasang yŏn'gu* 1 (A Study of Modern Literary Thoughts in Korea), Seoul: Ilchisa.
- Ku Chagyun (1948) *Chosŏn p'yŏngmin munhaksa* (Literary History of the Common Korean People), Seoul: Munjosa.
- Ku Chagyun (1964) 'Sŏp'yŏng: Cho Yunje chŏ *Han'guk munhaksa*' (Book review: History of KL by Cho Yunje), *Asea yŏn'gu* 13/7-1, Koryŏ taehakkyo, 133-137.
- Kugŏ kungmun hakhoe (ed.) (1983) *Kugŏ kungmun hakhoe samsip nyŏn sa* (30 Years' History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Ilhogak.
- Kugŏ kungmun hakhoe (ed.) (1992) *Kugŏ kungmunhak sasip nyŏn* (40 Years of Studie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Chimmundang.
- Kugŏ kungmun hakhoe (ed.) (1997) *Kososŏl yŏn'gu* 1 (Studies on Pre-modern Novels), Seoul: T'aehaksa.
- Kugŏ kungmun hakhoe (ed.) (2002) *Kugŏ kungmun hakhoe osip nyŏn* (50 Years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T'aehaksa.
- Kukhak yŏn'gu nonjŏ ch'ongnam kanhaenghoe (ed.) (1960) *Kukhak yŏn'gu nonjŏ ch'ongnam* (Annotated Bibliography on Studies of National Learning), Seoul: Ŭryu munhwasa.
- Mun Ilp'yŏng [Chosŏn ilbosa (ed.)] (1948) *Hoam chŏnjip* (A Complete Collection of

- Mun Ilp'yŏng's Works), Seoul: Ilsŏngdang sŏjŏm.
- Mun Ilp'yŏng [Chŏng Haeryŏm (ed.)] (1996) *Hoam saron sahwa sŏnrip* (Selected Works of Mun Ilp'yŏng's Historical Treatises), Seoul: Hyŏndae sirhaksa.
- Paek Sŭngjong (2005) 'Paek Sŭngjong-ŭi *Chŏnggamnok* sanch'aek 19: tae ilbon chegug-ŭi aegukchŏk chisigin Hosoi Hajime' (Paek Sŭngjong's taking a walk in *Chŏng's Prophecies*: Hosoi Hajime, a patriotic intellectual of the Great Japanese Empire), in *Sŏul Sinmun* (19 May 2005).
- Pak Hŭilbyŏng (1993) 'Ch'ŏnt'aesanin-ŭi kungmunhak yŏn'gu' (Kim T'aejun's research on KL), *Minjok munhaksa yŏn'gu* 3: 248-283 ; 4: 166-218, Minjok munhaksa yŏn'guso.
- Pak Kwanghyŏn (2003) 'Kyŏngsŏng chedae chosŏn ōhak chosŏn munhak kangjwa yŏn'gu' (A study of the chairs in Korean language and KL at KIU), *Han'guk ōmunhak yŏn'gu* 41, Han'guk ōmunhak yŏn'gu hakhoe, 343-375.
- Pak Pyŏngwan (1986) '*Kuunmong*-ŭi yŏn'gusajŏk sŏngch'al' (Self-reflection on history of KS), *Kojŏn munhak yŏn'gu* 3, Han'guk kojŏn munhakhoe, 363-392.
- Pak Sŏngŭi (1972) 'Nonjŏ-rŭl t'onghayŏ pon kungmunhak yŏn'gusa' (History of KLS viewed in the light of the publications), *Minjok munhwa yŏn'gu* 6, Koryŏ taehakkyo, 249-261.
- Takahashi Tōru (1929) *Richō bukkyō* (Chosŏn-Dynasty Buddhism), Tokyo: Hobunkan.
- Yi Ch'ungu (1980) *Kyŏngsŏng cheguk taehak* (KIU), Seoul: Taragwŏn.
- Yi Kawŏn (1955) '*Kuunmong p'yŏnggŏ*' (A study of Kuunmong), in Yi Kawŏn (annot. and transl.) *Kuunmong*, Seoul: Tŏkki ch'ulp'ansa, 1-44. [paginated separately]
- Yi Kawŏn (1999) 'Hangmun-ŭl ch'ajasŏ, wŏllo hakcha-wa-ŭi taedam' (Tracing the scholarship, interviews with senior scholars), *Minjok munhaksa yŏn'gu* 15, *Minjok munhaksa yŏn'guso*, 350-380.
- Yi Kwangsu (1918) 'Puhwar-ŭi sŏgwang' (The dawn of restoration), *Ch'ŏngch'un* 12, *Ch'ŏngch'un*sa, 18-31.
- Yi Kwangsu (1929) 'Chosŏn munhag-ŭi kaenyŏm' (Definition of KL), *Sinsaeng* 2-1, Sinsaengsa, 6.
- Yi Sanghyŏn (2004) *Cheimsŭ Keil-ŭi Kuunmong pŏnyŏk-kwa munhwa-ŭi pyŏnyong* (A Study of James Scarth Gale's Translation of *Kuunmong*), Master's thesis, SKKU.
- Yi Tongyŏng (2000) 'Kungmunhak yŏn'gusa sŏsŏl'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KLS), *Tonam hakpo* 18, Tonam hakhoe, 145-150.
- Yŏm Muung & Ch'oe Wŏnsik, et al. (2005) *Haebang chŏnhu, uri munhag-ŭi kil ch'atki*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Our Literature's Looking for a Way), Seoul:

Minŭmsa.

Yu Chunp'il (1998) *Hyŏngsŏnggi kungmunhak yŏn'gu-ŭi chŏn'gae yangsang* (Course of Development of KLS in the Formation Period), Ph.D. Diss., SNU.

Yu Myŏngin (2006) 'Kim T'aejun-ŭi han'guk munhak yŏn'gu-wa hakye-ŭi yŏksa insik' (Kim T'aejun's research on KL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in Korean academia), in *Han'gukhag-ŭi saeroun choryu*,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on Korean Studies, August 2006, Kyushu University, Japan, 215-231.

韓中日 3국 학계의 『朝鮮策略』 연구현황 및 『朝鮮策略』 여러 異本の 考證과 校勘

權赫秀
동북사범대학

1. 들어가는 말

1880년 9월 6일 귀국직전의 조선왕조 訪日修信使 金弘集¹이 일본주재 중국 청정부 공사관 參贊 黃遵憲으로부터 전달받은 『朝鮮策略』은 한중관계 및 동북아국제관계에 대한 근대중국 최초의 전략적 보고서이자 근대역사상 중국 사람에 의해 최초로 제출된 조선왕조 대외관계 및 대외정책에 관한 건의서였다. 총 6,000자 남짓한 漢文으로 작성된 『朝鮮策略』에서 황준헌은 당시 조선 왕조의 급선무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침략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그 대비책으로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 以圖自強”을 제시하여 그 후 조선왕조 고종정부의 내정외교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중관계, 한일관계를 포함한 동북아국제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바로 그러한 관계로 『朝鮮策略』에 관한 연구는 줄곧 한중일 3국 학계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되어 왔다.

문제는 지금까지 저자 황준헌 본인이 직접 남긴 『朝鮮策略』 원본은 발견되

1 金弘集의 본관은 慶州, 字는 敬能, 號는 道園 또는 以政學齋라 하였고 初名은 宏集이었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弘集”으로 표기한다.

지 않은 채 여러 가지 寫本이 중국 및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가에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여러 寫本의 문구와 내용 상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심지어 본문 내용의 해석과 이해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 19세기 말 프랑스 역사학자 랑글로아 세노보(Langlois · Seignobos)가 “역사가는 사료와 함께 활동한다……사료 없이 역사가 없다(No document, no history)”²고 說破한 것처럼 역사학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사료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朝鮮策略』의 원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존 여러 寫本 즉 異本에 대한 판본고증 및 교감작업을 포함한 종합적 사료비판은 마땅히 『朝鮮策略』의 내용과 영향 분석 등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적인 사료에 대한 고증과 검토 등 비판 작업은 마땅히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일종의 예비작업으로서³ 본고는 결국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한중일 3국 학계를 중심으로 황준헌의 『朝鮮策略』에 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현존하는 『朝鮮策略』 여러 異本の 판본을 자세히 고증한 뒤 현존하고 있는 총 7종의 異本을 서로 대조하여 『朝鮮策略』의 문구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교감을 시도하고 아울러 그 교감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나름대로 『朝鮮策略』 연구의 새로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韓中日 3국 학계의 『朝鮮策略』 연구현황

필자의 조사의 의하면 적어도 한중일 3국 학계에서 일본학계가 가장 먼저 황준헌의 『朝鮮策略』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 1940년에 출간된 『近代日鮮關係の研究』에서 일본학자 다보하시(田保橋潔)는 『朝鮮策

2 Langlois and Seignobos (1892: 17).

3 王爾敏(1986: 282). “考是考證虛實，尋究追源，剖判隱微，辨是辨析異同，酌情察理，折衷一是，此則其工夫爲史著之豫備。”

略』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아울러 당시 조선왕조 고종정부의 내정외교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였다(田保橋潔 1940: 745-746). 바로 위 책의 766쪽 각주에서 다보하시의는 그냥 “黃遵獻 朝鮮策略”이라는 내용만 표기하였을 뿐 위 사료의 所藏處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당시 일본식민통치 하의 京城帝國大學 교수 겸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纂主任을 맡고 있던 그가 조선왕조 왕실문헌 속에 秘藏되어 있던 『朝鮮策略』 사본을 직접 참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⁴ 다보하시의 위와 같은 간략한 소개와 논평은 그 식민사학의 성격과 상관없이 한중일 3국을 포함한 국제학계에서 『朝鮮策略』 내용에 대한 최초의 소개이자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2차 세계대전 종결 5년 후의 1950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 출간한 『日本外交文書』 제13권의 1882년 “朝鮮修信使 金宏集” 관련 사료에 『朝鮮策略』 원문 및 당시 고종과 여러 대신들이 『朝鮮策略』의 내용을 검토하던 『國王大臣對話書』 자료를 수록하였다(外務省 1950: 389-396). 『일본외교문서』 제13권 389쪽의 편집자 주에 의하면 『朝鮮策略』 및 『國王大臣對話書』 자료는 당시 元山주재 마에다(前田獻吉) 총영사⁵에 의해 1883년 3월 29일 동경으로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당시 한국주재 일본외교관에 의해 본국정부로 보고된 일종의 주재국 관련 정보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외교문서』 제13권에 의해 그동안 줄곧 秘藏되어 온 황준헌의 『朝鮮策略』 원문이 최초로 완전 공개되면서 관련국가 학계의 연구에 큰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 그 후 한중일 여러 나라 학계의 『朝鮮策略』 관련 연구가 상당부분 『日本外交文書』 제13권에 수록된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1979년에 일본학자 하라다(原田環)는 『朝鮮策略』을 중심으로 청정부 直隸

4 일제하 조선사편수회의 상황에 관한 내용은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1938) 및 趙東杰(1989: 241-318) 참조.

5 金源模(1984: 268)에 의하면 당시 일본주재 元山 외교기구는 總領事館이 아닌 領事館으로 되어 있다.

總督 겸 北洋通商大臣 李鴻章과 일본주재 공사 何如璋의 朝鮮政策을 비교 검토하였는데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학계의 『朝鮮策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여주었다(原田環 1979). 1993년에 이르러 하라다는 다시 청정부 내부 소위 “朝鮮開國近代化論”의 시각에서 黃遵憲의 『朝鮮策略』과 何如璋의 『主持朝鮮外交議』를 비교, 검토하였고 훗날 그 내용을 보완하여 1997년에 출판한 자신의 저서 『朝鮮の開國と近代化』에 수록하였다(原田環 1993, 1997). 그리고 1999년에 하라다는 또 『朝鮮策略』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⁶ 그만큼 하라다는 현재까지 일본학계에서 『朝鮮策略』에 관한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해온 학자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2월에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의 히라노(平野健一郎)는 東京大學文學部に 소장된 『朝鮮策略』 사본을 바탕으로 근대초기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정치문화의 비교연구를 시도하면서 아울러 한일 두 나라에 소장된 5종의 『朝鮮策略』 寫本の 문구를 직접 교감하였다.⁷ 그의 소개에 의하면 동경대학교 문학부 도서관 漢籍中心에 소장되어 있는 『朝鮮策略』 사본은 일찍 元山주재 일본영사관 “御用係”로 재직하던 나카무라(中村莊次郎)가 소장하였던 것인데 그 출처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앞서 『日本外交文書』 제13권에 수록된 『朝鮮策略』 사본의 새로운 異本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히라노의 교감작업은 일본과 한국학계에서 공개된 다섯 가지 『朝鮮策略』 異本을 서로 대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그 底本과 對校本의 선택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예컨대 한국학계의 趙一文 譯註本은 사실상 對校의 가치가 없는 한글번역본에 불과하였다) 그가 사용한 소위 일본학계의 漢文古籍 정리방법 역시 근대중국의 명문장가 황준헌의 한문저술인 『朝鮮策略』의 교감작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었다.

한편 히라노의 지적에 의하면 일본과 한국학계에 이미 공개된 『朝鮮策略』

6 原田環(1999). 이 자료는 필자와 한때 師生의 연분을 가졌던 일본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박사과정 廣岡淨進 군의 도움으로 입수하였음을 밝혀둔다.

7 平野健一郎(2002). 이 자료는 일본 明治大學校 金美花박사의 도움으로 입수하였음을 밝혀둔다.

의 다섯 가지 異本の 문구가 44-45%나 되는 차이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현존하는 『朝鮮策略』 여러 異本에 대한 교감작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姜範錫(1996) 및 姜東局(2002)는 사실상 제일 한국인학자가 일본학계에서 발표한 『朝鮮策略』 관련연구였다.

대체로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학계의 『朝鮮策略』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일본학계의 관련연구보다 약간 늦어졌다. 1958년 한국 國史編纂委員會에서 韓國史料叢書 제9책으로 출간한 『修信使記錄』의 『修信使日記』 卷二에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사본을 바탕으로 『朝鮮策略』의 全文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앞서 『日本外交文書』 제13권에 이어 『朝鮮策略』의 全文이 두 번째로 공개 되는 것으로서 특히 한국학계의 관련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62년 趙恒來가 1880년대 초 고종정부 “遣日使節”과 관련하여 『朝鮮策略』을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조항래 1962) 황준헌의 『朝鮮策略』에 관한 한국학계 최초의 연구로 생각된다. 그 이듬해 발표된 金時泰의 논문은 19세기말 조선왕조 고종정부의 정치사정 특히 소위 “革新政策”에 미친 『조선책략』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김시대 1963), 같은 해 李瑄根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책략』의 金弘集 自筆寫本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부록으로 위 자필 사본에 대한 교감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는데⁸ 『朝鮮策略』 원문에 대한 한국학계 최초의 교감작업으로 생각된다.

그 후 1973년에 조항래는 수신사 및 『朝鮮策略』의 파문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였고(조항래 1973) 1977년에 趙一文이 상기 『修信使記錄』에 수록된 『조선책략』의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해제와 일부 주석까지 붙여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조일문 1977). 조일문의 위와 같은 역주 및 해제작업은 특히 한문 해독능력이 부족한 한국독자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여 『朝鮮策略』의 연구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사실 전문적인

8 李瑄根(1963). 그 후 1968년 臺灣의 『中韓文化論集』 二에 게재된 「朝鮮修信使金弘集與黃憲憲所擬朝鮮策略的研究보고」는 내용상 위 논문의 중국어 번역본으로 생각된다.

학술연구가 아니었다. 1976년에 이르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정리 출간한 『金弘集遺稿』에 수록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修信使日記』 寫本에 『朝鮮策略』의 내용도 포함되었다(고려대학교도서관 1976: 306-313). 『金弘集遺稿』의 해제에 의하면 앞서 1958년 國史編纂委員會에서 출간한 『修信使記錄』에 수록된 『朝鮮策略』의 底本이 바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修信使日記』 寫本 속의 『朝鮮策略』 자료라고 한다. 즉 『金弘集遺稿』에 수록된 『朝鮮策略』은 한국학계에 의해 두 번째로 공개된 『朝鮮策略』 사본이지만 사실 앞서 1958년에 공개한 첫 번째 사본과 같은 底本이었다.

1979년 말에 權錫奉이 청정부의 조선정책 시각에서 『朝鮮策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훗날 그 논문을 보완하여 자신의 저서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에 수록하였다(권석봉 1979, 1986: 117-146). 1983년에 조항래는 다시 “防俄策”과 “聯美論” 차원에서 『朝鮮策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조항래 1983) 여전히 『조선책략』의 영향을 연구하는 일관된 脈絡이었다. 2000년에 출판한 『개방과 예측-대미수교관련수신사기록(1880)초』에서 宋炳基는 앞서 1963년 이선근에 의해 공개된 『朝鮮策略』 김홍집 자필사본의 初校本을 바탕으로 『日本外交文書』 제13권, 『金弘集遺稿』 및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異國問答記』와 일본 東京大學文學部 소장 寫本 등 여러 『朝鮮策略』 자료와 대조하여 자세한 교감과 주석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그 원문과 한글번역본을 함께 발표하였는데, 말하자면 1963년의 이선근에 이어 한국학계에서 두 번째로 되는 『朝鮮策略』 원문의 교감작업이었다. 같은 해 출간한 권혁수의 『19세기 말 한중관계사연구』에서 황준헌의 『朝鮮策略』을 당시 청정부 對朝鮮政策의 새로운 전환시각으로 분석하였는데(권혁수 2000: 50-91) 그중 『朝鮮策略』을 굳이 『私擬朝鮮策略』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표기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 및 한국학계의 연구 상황에 비해 중국학계의 『朝鮮策略』 연구가 가장 늦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및 한국학계에

비해 약 30년 늦은 1981년에 錢仲聯이 황준헌의 從弟 黃遵庚이 제공한 『黃遵憲文鈔』 寫本에 근거해 황준헌의 여러 글을 정리, 발표하였는데(錢仲聯 1981) 그중 포함된 「朝鮮策略引言」의 내용은 『朝鮮策略』 全文의 약 1/10 정도에 불과한 서론부분이자 사료정리작업의 성격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었지만 여하튼 중국학계에서 최초로 『朝鮮策略』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1988년에 鄭海麟이 자신의 저서 『黃遵憲與近代中國』에서 『朝鮮策略』에서 나타난 황준헌의 「外交思想」에 관한 분석내용은 비록 소위 「외교사상」에 제한된 단편적인 연구였지만 지금까지 중국학계 최초의 『朝鮮策略』 관련연구로 생각된다(鄭海麟 1988). 그 후 1991년에 중국인 학자 鄭海麟, 張偉雄의 편찬으로 일본에서 중국어로 출간된 『黃遵憲文集』에서 상기 黃遵庚 寫本을 바탕으로 『日本外交文書』 제13권과 『修信使記錄』에 수록된 『朝鮮策略』 내용과 校勘을 거쳐 그 전문을 수록하였고 특히 “향후 무릇 『朝鮮策略』에 관한 연구와 인용은 마땅히 필자의 校正本에 의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鄭海麟·張偉雄 1991: 91-101). 이는 황준헌의 從弟 黃遵庚의 『조선책략』 사본이 최초로 학계에 공개되는 것이자 또한 중국학자에 의한 최초의 『朝鮮策略』 校勘本이었다.

1994년에 楊天石은 자신이 한국방문기간 『朝鮮策略』 관련 사료를 조사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조선책략』의 저술경위 및 당시 조선왕조의 내외정치에 미친 과장을 자세하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물론 앞서 한국학계의 선행연구 수준을 초월하지 못하였지만 여하튼 중국학계에서 『朝鮮策略』 관련 역사배경을 최초로 자세하게 보고한 것이었다. 그 이듬해 李得征의 『朝鮮策略』과 「近代朝鮮의 對外開放」에 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중국학계의 관련 연구성과를 충분히 참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수준에 있어서도 앞서 일본 및 한국학계의 선행연구에 미치지 못하였다(李得征 1995). 1996년에 제일 중국인 학자 李慶이 『日本外交文書』 제13권 및 『修信使記錄』에 수록된 『조선책략』을 서로 교감한 내용을 자신이 정리한 史料集에 수록하여 출간하였는데(李慶 1999: 1-11) 말하자면 앞서 鄭海麟 등의 『黃遵憲文集』에 이어

『조선책략』에 대한 중국학계의 두 번째 校勘本이었다. 그러나 李慶은 위와 같은 교감작업의 底本 및 對校本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朝鮮策略』을 무엇 때문에 굳이 『朝鮮策略書』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표기하였는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 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夏曉虹은 연속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자신이 일본방문기간 조사한 사료에 근거하여 황준헌의 『조선책략』 저술경위 및 그 국제적 과장에 대한 내용을 장황하게 소개하였는데(夏曉虹 2000, 2001) 글의 체제상 규범을 갖춘 학술논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사료조사작업에 관한 소개에 불과하였고 또한 그 내용상 앞서 살펴본 일본과 한국학계의 선행연구 수준을 초월하지 못하였다. 2005년에 출간된 『黃遵憲全集』 上册에서 廣東省 文史研究館 1962년 『黃遵憲文鈔』 寫本에 근거해 『朝鮮策略』의 全文을 수록하여⁹ 앞서 『黃遵憲文集』에 이어 황준헌의 從弟 黃遵庚의 『朝鮮策略』 사본이 다시 한번 학계에 공개되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아무런 교감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의 학계에서 발표된 황준헌의 전기 또는 年譜에도 『조선책략』에 관한 내용이 간간히 포함되어 있지만¹⁰ 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평을 삼가 한다. 그러나 최근 鄭海麟의 『黃遵憲附黃遵楷傳』의 제3장에서는 무려 4節 총 30페이지의 분량으로 『朝鮮策略』의 저술배경, 기본내용, 영향과 의미 및 “聯俄拒俄” 외교사상을 자세하게 논술하였는데(鄭海麟 2006: 32-60) 지금까지 중국학계의 『조선책략』 관련연구에 있어서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또한 깊이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물론 황준헌과 김홍집의 만남 및 『조선책략』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조금도 없었고 특히 한국학계의 선행연구에 대한 참조가 부족하였던 점은 위 연구의

9 陳鐸(2005: 251-258). 그에 앞서 吳振清, 徐勇, 王家祥의 정리로 2003년에 天津人民出版社에서 출간한 『黃遵憲集』 上下卷의 경우 상기 『黃遵憲文集』의 내용보다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 논평을 생략한다.

10 吳天任(1972), Noriko Kamachi (蒲地典子)(1981), 吳天任(1985), 張偉雄(1999).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까지 일본, 한국,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朝鮮策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한 진척을 보여 왔고 또한 여러 사본이 속속 공개되면서 그중 일부는 교감작업까지 진행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교감작업에 있어서 여러 나라 학계에서 이미 공개된 여러 가지 異本에 대한 충분한 비교적 검토가 부족한 관계로 각자 나름대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즉 오류가 적지 않는 사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朝鮮策略』 원문에 대한 교감 등 충분한 사료비판이 선행되지 않는 한 『조선책략』에 대한 연구는 결국 기초사료의 부실이라는 “先天的”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구체적인 연구과정에 있어서도 관련국가 학계의 선행연구성과를 충분히 조사 및 참조하지 못한 채 대체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폐쇄적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연구시각에 있어서 흔히 특정 주제 또는 韓中 또는 韓日, 中日 등 특정 쌍무적 관계에만 제한되어 근대 동북아국제관계의 큰 틀 속에서 역사, 국제정치 및 문학 등 여러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가 아쉬웠다.

물론 위와 같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향후 『朝鮮策略』 관련연구가 보다 종합적이고 깊은 차원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朝鮮策略』 여러 異本の 版本 考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원 저자 황준헌이 직접 남긴 『朝鮮策略』의 原本은 발견되지 않고 또한 향후 새롭게 발견될 가망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 학계에 여러 가지 寫本만 흩어져 있는데 그중 공식 출간된 것

으로 『日本外交文書』 제13권, 『修信使紀錄』, 『金弘集遺稿』, 『黃遵憲文集』, 『黃遵憲全集』 등이 있고 또한 金弘集自筆寫本, 東京大學文學部 所藏本 등이 寫本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학계의 경우 이미 公刊된 『日本外交文書』 제13권 본과 동경대학 소장본 즉 동경대학 문학부 漢籍中心 고쿠리문고(小倉文庫)에 소장된 『朝鮮策略』 사본이 있다. 중국학자 夏曉虹과 일본학자 히라노(平野健一郎)의 연구에 의하면 위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사본은 당시 원산주재 일본영사 마에다(前田獻吉)에 의해 일본외무성으로 보고된 자료로서 그 후 어떤 연유로 나카무라(中村莊次郎)의 소장을 거쳐 결국 동경대학에 소장된 것이라 한다. 즉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사본과 앞서 『日本外交文書』 제13권에 수록된 『朝鮮策略』은 사실상 하나의 같은 底本에서 나온 것으로서 문구 상 약간의 차이는 후자의 출판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생각된다. 그리고 『朝鮮策略』 원문에 대한 히라노의 일본식 교감노력은 일본학계의 연구자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朝鮮策略』 자체가 중국인에 의한 순수 중국식 한문 작품임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 학계에 대한 보편적인 참고가치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학계의 경우 지금까지 1958년의 『修信使記錄』 및 1979년의 『金弘集遺稿』에서 『朝鮮策略』 전문을 두 번 발표하였고 또한 1963년에 발표된 李瑄根의 金弘集自筆寫本 初校本과 2000년에 발표된 宋炳基 校勘本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修信使記錄』과 『金弘集遺稿』에 수록된 『朝鮮策略』은 사실상 모두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사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같은 底本에서 나온 것인즉 그중 『修信使記錄』에서 나타난 출판 오류는 20년 뒤에 출간한 『金弘集遺稿』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2000년 宋炳基의 校勘本은 대체로 1963년 李瑄根의 初校本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학계의 네 가지 소장본과 대조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李瑄根 初校本에서 派生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학계에서 공개된 『朝鮮策略』은 사실상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이선근에 의해 공개된 金弘集, 自筆寫本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중 김홍집 자필사본의 경우 그 출처와 소장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당시 『朝鮮策略』를 직접 받아왔던 당사자인 김홍집 본인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사본으로서 그 판본가치는 당연히 기타 여러 사본을 능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학계의 한문정리방식으로 진행된 『朝鮮策略』 원문에 대한 교감노력은 한국학계의 연구자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인에 의한 작성된 순수 중국식 한문저술인 『朝鮮策略』의 교감에는 역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학계의 경우 현재까지 『黃遵憲文集』, 『東瀛遺墨』 및 『黃遵憲全集』에서 『朝鮮策略』의 전문을 발표하였는데(錢仲聯의 경우 서문에 해당하는 “引言” 부분만 발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함), 그중 『黃遵憲文集』과 『黃遵憲全集』은 모두 黃遵憲의 從弟 黃遵庚의 寫本을 底本으로 한 것이지만 前者의 경우 상당히 진지한 교감작업을 거쳐 그 내용의 정확성에 있어서 뒤늦게 출간된 후자를 오히려 능가하였다. 그리고 『東瀛遺墨』의 경우 주로 『日本外交文書』 제13권을 바탕으로 『修信使記錄』 등 자료와 대조하여 校勘한 것으로 대체로 『日本外交文書』 제13권 자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황준경 사본의 유래와 소장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지만 여하튼 黃遵憲의 가문에서 私藏되어 온 것으로서 만약 轉寫과정에서 별다른 오류가 없다면 지금까지 『朝鮮策略』의 원 저자 黃遵憲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즉 판본 가치 상 앞서 김홍집 자필사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지금까지 관련국가 학계의 선행연구성과를 충분히 참고하고 또한 관련국가 학계에서 이미 공개된 위와 같은 여러 寫本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쳐 교감된 『朝鮮策略』 자료는 하나도 없는 채 각자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교감되지 않은 『朝鮮策略』 원문에 대한 폐쇄적인 연구를 제각기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폐쇄적 연구 성향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학술발전의 대세에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朝鮮策略』과 같은 국제적인 주제의 연구에 부합되지 않았다. 일찍 1930년대 초 당시 中華民國 國立清華大學 사학과 교수 蔣廷黻(T. F. Chiang)은 국제관계연구의 특성이 바로 그 국제적 성격에 있으므로 최소한 두 나라 많게는 수십 개 국가와 관련된 국제문제의 연구에 있어서 무릇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는 바 만약 어느 한 나라 정부의 자료에만 의존해 연구를 진행할 경우 마치 재판관이 한쪽 당사자의 진술만 믿고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였다(蔣廷黻 1930: 1). 실제로 『朝鮮策略』과 같은 한중일 여러 나라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오늘날 국제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多國多言語 문헌의 교차적 분석(Multi-National Documents Cross Checking)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朝鮮策略』과 같이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異本만 전해지고 있는 경우 중국학계의 교감작업은 먼저 그중 가장 믿음직한 것을 底本으로 선정한 뒤 나머지 필요한 異本을 對校本으로 삼아 상호 대조해가면서 교감을 진행한다(黃永年 2001: 65-68). 앞서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朝鮮策略』은 근대중국의 명문장가 黃遵憲이 순수 중국식 한문으로 완성한 저술로서 그에 대한 교감작업 역시 기본적으로 중국학계에서 통용되는 古籍整理 방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일본과 한국 학계의 선행 연구성과 및 이미 공개된 여러 異本도 충분히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의 교감작업에서는 앞서 鄭海麟, 張偉雄 編著 『黃遵憲文集』에서 발표한 『朝鮮策略』 자료를 교감의 底本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인 즉 위 자료는 지금까지 한중일 여러 나라 학계에서 공개한 여러 『朝鮮策略』 사본 중에서 원 저자 黃遵憲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黃遵庚 寫本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교감을 거친 善本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출간한 陳錚 編 『黃遵憲全集』의 경우 비록 위 『黃遵憲文集』과 같이 모두 黃遵庚 사본을 底本으로 하였지만 아무런 교감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판본가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앞서 출간한 『黃遵憲文集』에 훨씬 못 미쳤다.

그리고 그동안 축적되어온 일본과 한국학계의 선행 연구성과를 감안하여 일본과 한국학계에서 이미 공개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朝鮮策略』 자료를 對校本으로 선정하여 위 黃遵庚 寫本과 대조하였는데 그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 金弘集自筆寫本. 즉 1963년 李瑄根이 발표한 初校本을 가리키는데 현재 까지 위의 황준경 사본을 제외하고 황준헌과 김홍집 즉 『朝鮮策略』의 두 당사자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 사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李瑄根의 당시 初校내용은 참고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인즉 첫째로 金弘集 自筆寫本의 본래 모습을 존중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 李瑄根의 初校작업 당시 다른 寫本에 대한 참조가 거의 없었고 또한 교감작업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참고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宋炳基의 校勘本 역시 위와 비슷한 이유로 참조하지 않기로 하였다.

2) 『金弘集遺稿』 본. 그 底本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김홍집 『修信使日記』 사본으로서 현재까지 한국학계에서 발표한 『朝鮮策略』 자료 중에서 위의 김홍집 자필사본 다음으로 믿을 만한 자료로 생각된다.

3) 『修信使記錄』 본.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修信使記錄』에 수록된 『朝鮮策略』 자료는 위 『金弘集遺稿』 본과 동일한 底本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출간 당시 오류도 적지 않았지만 한국학계에서 최초로 공개한 『朝鮮策略』 자료이자 아직까지도 한국학계를 비롯한 관련국가학계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對校本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4) 東京大學 文學部 도서관 소장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본은 『日本外交文書』 제13권에서 공개한 『朝鮮策略』 자료의 底本으로서 현재까지 연대가 가장 일찍 한 『朝鮮策略』 자료이자 19세기 말 당시 직접 한국에서 전해 온 사본으로서 중요한 판본가치를 갖고 있다.

5) 『日本外交文書』 제13권 본. 일본학계는 물론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공개된 『朝鮮策略』의 全文이자 아직까지 일본학계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6) 『東瀛遺墨』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日本外交文書』 제13권 자료에 의거해 『修信使記錄』 등 자료와 대조하여 초보적 교감을 거친 것으로서 『日本外交文書』 제13권 자료의 초보적 校勘本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4. 『朝鮮策略』의 原文 校勘

위와 같은 원칙과 방법에 의한 교감결과 현재까지 『黃遵憲文集』의 『朝鮮策略』 자료가 일단 원 저자 황준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또한 내용상 가장 오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일부 문구 상 틀린 곳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東瀛遺墨』의 경우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오류를 보여 판본가치상 위 『黃遵憲文集』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학계의 김홍집 自筆寫本과 『金弘集遺稿』본은 위 黃遵憲 寫本 다음으로 『朝鮮策略』의 두 당사자와 관계가 밀접한 寫本이자 내용 역시 상당히 정확하여 아직까지 한국학계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修信使記錄』본에 비해 훨씬 더 믿음직하였다. 그리고 일본학계의 경우 동경대학 문학부 도서관 소장본은 그 입수경위와 시간 및 내용의 정확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일본학계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日本外交文書』 제13권 본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도서관(편)(1976) 『金弘集遺稿』,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고려대학교사학회(1962) 『史叢』 第8輯.
권석봉(1979) 「朝鮮策略과 清側意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서울: 일조각.
_____(1986)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서울: 일조각.

- 권혁수(2000) 『19世紀末 韓中關係史研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 서울: 백산자료원.
- 金時泰(1963) 「黃遵憲의 朝鮮策略이 韓末政局에 끼친 영향」, 『史叢』 제8집, 고려대학교 史學會 편집발행.
- 金源模(編)(1984) 『近代韓國外交史年表』, 서울: 檀大出版部.
- 李瑄根(1963) 「庚辰修信使 金弘集과 黃遵憲著 朝鮮策略에 관한 재검토」, 『東亞論叢』 제1輯別冊.
-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1938)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 趙東杰(1989) 『現代韓國史學史』, 서울: 나남출판.
- 조일문(역)(1977) 『조선책략』,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조항래(1973) 「庚辰(1880년)修信使와 朝鮮策略의 波紋」, 『韓日研究』 제2집.
- _____(1962) 「黃遵憲의 朝鮮策略에 대한 檢討—고종17. 18년의 遣日使節에 關하여」, 『大邱大學論文集』 第3輯.
- _____(1983) 「朝鮮策略을 통해 본 防俄策과 聯美論 연구」,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集』.
- 外務省編纂(1950) 『日本外交文書』 第13卷, 東京: 國際連合協會.
- 姜範錫(1996) 「黃遵憲(朝鮮策略)의 行間」, 大阪市立大學 『法學雜誌』 42(4).
- 姜東局(2002) 「中國의 世界秩序의 變容과 言說—〈朝鮮策略〉의 “親中國”을 めぐる 議論을 中心に」, 『思想』 944號.
- 田保橋潔(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 原田環(1979) 「〈朝鮮策略〉을 めくって—李鴻章と何如璋의 朝鮮政策」, 『季刊三千里』 第17輯.
- _____(1993) 「清における 朝鮮의 開國近代化論: 〈朝鮮策略〉と〈主持朝鮮外交議〉」, 廣島史學研究會(編), 『史學研究』 第203號.
- _____(1997) 『朝鮮의 開國と近代化』, 廣島: 溪水社.
- _____(1999) 「〈朝鮮策略〉의 構成と論理」, 『芝蘭集: 好並隆司退官紀念論文集』, 岡山: 岡山大學文學部.
- 平野健一郎(2002) 「黃遵憲〈朝鮮策略〉異本校合—近代初頭東アジア國際政治における 三つの 文化の交錯について—」, 日本國際政治學會編, 『國際政治』 第129號.
- 陳錚 編(2005) 『黃遵憲文集』 上册, 北京: 中華書局.
- 黃永年(2001) 『古籍整理概論』,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 蔣廷(民國19) 『近代中國外交史資料輯要』 上卷 自序, 上海: 商務印書館.
- 李得征(1995) 「論〈朝鮮策略〉與近代朝鮮의 對外開放」, 北京大學 『韓國學論文集』 第四輯(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專輯),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李慶編注(1999) 『東瀛遺墨—近代中日文化交流稀見史料輯注』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錢仲聯(輯)(1981) 「人鏡盧雜文抄」, 『文獻』 第七輯.
- 王爾敏(1986) 『史學方法』, 臺北: 華東書局, 11月四版.

- 吳天任(1972)『黃公度先生傳稿』,香港:香港中文大學.
- _____(1985)『清黃公度先生遵憲年譜』,臺北:臺灣商務印書館.
- 夏曉虹(2001.1.17)「黃遵憲〈朝鮮策略〉之餘波」,『中華讀書報』.
- _____(2002.8.16)「揭示一段?埋多年的歷史真相—黃遵憲撰寫〈朝鮮策略〉的緣起」,『中華讀書報』.
- 鄭海麟(1988)「從朝鮮策略看黃遵憲的外交思想」,『黃遵憲與近代中國』,北京:三聯書店.
- _____(2006)『黃遵獻附黃遵楷傳』,北京:中華書局.
- 鄭海麟,張偉雄(編)(1991)『黃遵憲文集』,東京:中文出版社.
- 張偉雄(1999)『文人外交官の明治日本—中國初代駐日公社團の異文化體驗』,東京:柏書房.
- Langlois and Seignobos (1892)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story*, London.
- Noriko Kamachi(蒲地典子) (1981) *Reform in Chian: Huang Tsun-hsien and the Japanese Model*, Harvard University Pres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rt and Architecture in Sokpalsa in Korea and Ajanta in India

Santosh K. Gupta

Academy of Korean Studies

1. Introduction

Sokpalsa, in Korea is one of the greatest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Korea started producing Buddhist art since Buddhism took its root in the country. Native Korean artisans were influenced by both China and India. Later, they developed indigenous architectural styles and native iconic features in all sorts of Buddhist art. In the structure of Sokpalsa, they used granite stone to engrave Buddhist sculptures. Even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structures, which are unique in Buddhist art history, granite was excessively used. The construction of Sokpalsa bears greater similarities to the structural patterns of Ajanta caves in India. It may be assumed that Koreans adopted the Indian influence behind the construc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s. Both the caves are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which have similar

background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intends to deal with two fundamental aspects of Sokpalsa and Ajanta. It basically aims to provide a brief architectural sketches of both the caves such as design, external and internal architectural patterns and sculptural arrangements.

Sokpalsa as a hub of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has three parts: (1) a rectangular antechamber ; (2) a corridor and (3) a main rotunda with a domed ceiling in the back. However, the concept of antechamber and rotunda is not utilized in Ajanta caves. Although, other Indian caves such as Baugh (cave no 2) has applied the concept of antechamber to its architecture. The structure of Sokpalsa is based on the cosmology of Mt. Sumeru. It has been expressed through the depiction of the 'Jewel Net of Indra' in the art form. The depiction of Indra in Ajanta is not well organized, since it does not explore a balanced cosmological setup as it is evident in Sokpalsa. of both the places will be also discussed.

The icon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examine the main Buddha statue of both the Sokpalsa and Mahabodhi temple of India. Furthermore, it seeks to investigate the Indian influence on iconography that is evident in Sokpalsa. The images of Deva, Yaksa, Gandarva, Kinnara, which resembles the Hindu Gods and Goddess, are adapted in Mahayana Buddhism; therefore, these deities are also depicted in the form of Buddhist art in various forms throughout Buddhist countries. In fact, Mahayana Buddhism has incorporated Hindu pantheons during the course of history. Those deities are depicted in the Ajanta cave as well. The depiction of dragon in Sokpalsa is a peculiar expression, which is not found in Ajanta cave. In fact, dragon as a creature has very important place

in the religious history of Korea. Historical references explain that The Silla people venerated dragon and royalty, as both yellow colors were dragon is symbols of kingship.

Many art historians have made efforts to deal with art and architecture of Sokpalsa and Ajanta caves. For a better understanding and accurate accounts of architectural structure and common points of both the places, a comparative approach is necessary. Regarding the theoretical basis of construction of Sokpalsa, Buddhist Philosophy and the Major Moments of Cosmology written by Kloetzli is the major and important source. It is relevant to understand the Buddhist architectural pattern. Korean Buddhist Sculpture written by Kang Woo Bang covers various aspects such as brief history, doctrinal perspective, iconography and architectural setup of Sokpalsa. The other book based on Ajanta, and written by Sheila Weiner, deals with two fundamental aspects, iconography and stylistic trends. Stella Kramarisch's The Art of India also deals with the tradition of Buddhist art.

2. An Overview of Ajanta and Sokpalsa

Both these monasteries are the example of Buddhist grottoes, which are divided into two parts, Chaitya, a hall containing Buddha images and other sacred objects, and the monastic halls for residence. Generally, all Indian Chaityas and Vihara are made by cutting natural rocks. Particularly Ajanta caves are the striking example of this artistic pattern and styles. Sokpalsa is an artificial stone cave, which is made of granite stone, but it has an indelible imprint on the history of the world art. The model of Sokpalsa is mostly a copy of ancient Indian cave.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construction and internal configuration. Thus, Indian influence on Sokpalsa might be traced out. The available archeological and literary sources such as cave inscription, plate inscription, and rock edict bears greater significance. Some historical records are available on Sokpalsa. Samgukyusa, which was compiled by a Silla monk known as Ilyon (1206-1289), is one of the main sources that bear detail history of construction. Other records Yi Mongam sonsaeng munjip (literary collections of Mr. Mongam Yi, 1670), Sanjung ilgi (Mountain Dairy, 1688), Pulguksa kogum ch'anggi (The Foundation stone of Buddha Land Monastery through the Ages, 1740), and "Sokkuram chungsu sangdong mun" (Repairing Record of Stone Buddha Monastery, 1891) als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on history of Korean Buddhism as well as history of art in Korea. There are ample historical sources available on Ajanta cave such as the Inscriptions of Vakataka titled Corpus Inscriptionum Indicarum (Otagamund: Government Epigraphist for India 1963) ; Epigraphic Notes titled Indian Antiquary, Buddhist Cave Temples and Their Inscriptions; Ajanta Inscriptions of caves xvi and xvii; Vayu and Brahmanda puran; Rastracuta Inscription xxvi; and Inscription of Buddhahadra (also known as Ajanta xxvi), are the main archaeological evidences. Si-yu-ki (Records of the Western World) written by Hieuen Tsang,¹ a famous Chinese traveler who visited India in 7th century AD, is one of the earliest sources of Ajanta. It needs to mention that until 1819, Ajanta cave was not uncovered. James Burgees has conducted the initial work of excavation in 1966. Yet many caves are unexcavated.² However,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the

1 <http://www.ibiblio.org>, 06-05-24.

date of construction of Ajanta. Historians opine that various caves were started to construct before the Christian era and lasted until seventh century AD. There are inscription of Satvahanas (1st century BC.), Abhir, Saka, Vakataka-Gupta and Iksvasus dynasties that provide information on the cave history. Ajanta cave represents extended history of several generations of rulers of India where people have contributed to immortalize the cave structure as the masterpiece of history of Indian art. On contrary, the construction of Sokpalsa is the representation of one generation, although, re-construction has taken place several times later on.

Another aspect is that Ajanta not only represents one sect of Buddhism, but also incorporates the characteristic of Hinayana and Vajrayana Buddhism. However, Sokpalsa completely represents the entire Mahayana tradition. It is essential to note that construction of Sokpalsa is based on the Cosmology of Mt. Sumeru, which was posited by ancient Indians cosmologists (Kim 2006: 117). There has been wide ranging debate that the construction of Sokpalsa is based on Buddhist doctrine. Prof Kim Jungmyung, an expert of Korean Buddhism argues that the discussion on Buddhist doctrine is not logical, and even speculative (Kim 2006: 117). He also argued that even the main Buddha image is not exactly known. Other scholars have emphasized on the maximum similarity of the main Buddha image of Sokpalsa and Mahabodhi temple.

The contemporary royal family of both the countries took greater interest in the construction of Ajanta and Sokpalsa. According to Samguk Yusa, Sokpalsa was built to pray for the reincarnation of the Kim clan. Prime

2 Ibid,

Minister Kim Dae-seong of Silla took keen interest in the construc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However, in Indian the Vakataka inscription attests that Varaha Deva, a minister of King Harisena took interest in the construction of Ajanta. This inscription also throws light on the genealogy of the minister's family (Kim 2006: 117). Further, direct monarchical support, ministers and few wive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to develop the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Kim 2006: 25). There are many inscriptions found during the excavation of Ajanta that highlights the contribution of royal family. Unfortunately, some inscriptions are badly diluted and even speculative.

The pertinent question is how Korean artists were inspired to construct Sokpalsa in the pattern of Ajanta is a pertinent question. Was there any direct contact with India, or some Korean monks visiting during that period? In this perspective, there are two possibilities, first, many cave temples were constructed in China since the inception of Buddhism, on this basis, some scholars argued that Sokpalsa was modeled after a rock cave temple in China.³ Dunhuang, Yungang, and Longmen grottoes are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Chinese cave temples that were constructed by boring of natural rock, and bear certain similarities with the Indian style of caves. It is not the intension of the author to emphasize the Chinese influence on Sokuram grotto. The author thinks on the possibility of the second option that Korean artists or monastic might have visited Ajanta, which inspired them to construct a similar structure back

³ However, the Chinese cave is a natural rock cave, while the Korean one is purely artificial. For further details, see the Center for Information on Korean Culture (2006: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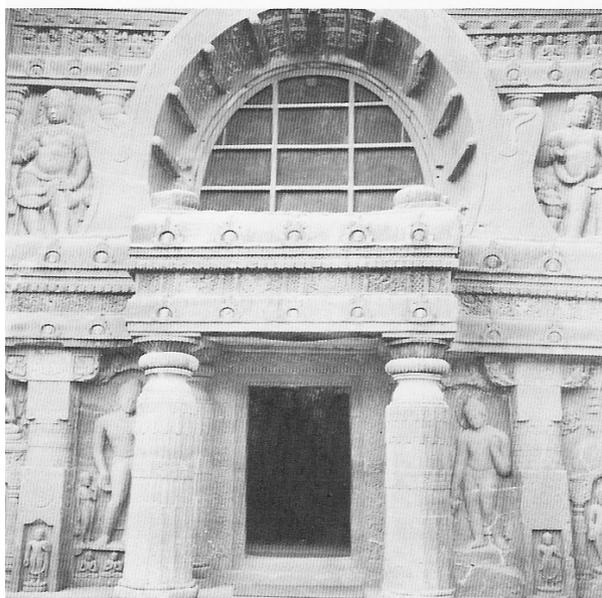
home. Various accounts reveal that the first century A.D. was a time of cultural spread in the orient. Almost in the five hundred years, this culture had been mushrooming in the Far East along with Korea, as a form of Buddhism. There are wide-ranging scholarly debates over the chronological framework of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Many scholars assert that Buddhism came to Korea directly from India, although others assert that it came to Korea through Central Asia or from China. One of the primary sources, *Samguk yusa* written by Ilyon, for confirming historical veracity says that Princess Ho of Ayodhya married king Suro of Korea who had found Kaya Dynasty in 1st century A.D. in South of Korea. However, the myth of Kim Suro and Princess Ho is not completely accepted by the academia of Korea and India. Many monks of Korea and a few monks of India visited each other's lands. They made effort to propagate dharma, to enhance the social solidarity, to sort out the contradictions of the social institution, and to develop a national sentiment. The effort of monks had pertained a great opportunities to the people to cross the boundary and make a people-to-people contact. He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cite the name of eminent monks of both India and Korea who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haping of Buddhist tradition. Ado was the first Indian monk who visited Korea in 4th century A.D. The second name is Maranta who went to Paekje and received a warm welcome from the royal family. Other historical records assert that a group of the three Indian monks went to Korea with monk Anhong, who was associated with Hwangnyoung monastery. Many Korean monks visited India to learn dharma or to pay respect to the places hallowed by the memory of Buddha. In this regard, except Monk Kyomik (who visited Central India in

526 AD.), not a single Korean monk visited India before eight century AD (Lee 1998: 44). He returned along with an Indian monk Devadatta. According to Samgukyusa, Silla monks including Hyeop, Hyont'ae, Kupon, Hyonkak and two other (whose names are lost) journeyed to India including Nalanda, Bodhgaya, Kusinagar, and Amaravati for study of Buddhism (Ilyon 1972: 293), but the author did not mention the date of departure. Among them, Hye-op stayed in Nalanda Monastery for long time, and possibly, he died in Nalanda. Further records are not available to attest the historical fact. Immensely, from the eight century onwards Korean Buddhists began to take a keener interest in India and Indian culture (Lee 1998: 44). The availability of concrete Korean sources that explore any direct rel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are rare. Even Indian sources are completely silent on the issue. There is no Korean source except Samguk Yusa which bears authentic information that any Korean monk who visited to Ajanta cave. Thus, it would be difficult to establish the fact that any monk of both countries had contributed to copy the Ajanta cave in Sokpalsa. But, perhaps, above-mentioned monks would have provided some information about Ajanta cave.

3. Designs and Technique

The architecture of Sokpalsa is based on the scientific principles. Many scholars have studied various aspects of Sokpalsa, and interpreted through their own understanding. It is worth mentioning that Sokpalsa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 where mathematical principles are applied to construct the structure, and even in the arrangement of sculpture (Kang

2000: 99). There is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configuration. Based on applied mathematical approach, modern scientists discovered that Silla architects employed the geometric theories of the golden rectangle symmetry (Kim 2006: 9). The proportion of static arrangement bears harmony between the individual, society, and nation. However, such kind of mathematical proportion is not applied in Ajanta cave. The cosmic principle was applied to cutting of rock and especially in the Sculptural arrangement (Rawson 1972: 30).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at how much mathematical theory applied in the boring of natural rock. Sokpalsa is artificial cave where it built by piling stone upon stone. Hundreds of granite pieces of various shapes and sizes were assembled to form the cave (Kim 2006: 9).



External structure of Ajanta

Even they did not applied mortar to arrange the stone, and it held together by stone reverts. However, the external structure of Ajanta is generally hollowed-out natural rock. On the main entry gate, there are two round pillars hollowed-out where the two statues of Dvarapala have carved. Besides, many statues of God and Goddess are carved in the wall that has been associated with Hindu mythology for long time.⁴ Besides some differences, Sokpulsu bears some similarities, for example, the two massive stone pillars are standing at the entrance to the rotunda (Joo 1994: 234).



External Structure of Sokpulsu

Remarkably, the statue of Dvarapala is not available on the pillars of Sokpulsu. The internal structure of Sokpulsu is composed of three parts: (1) a rectangular antechamber in the front; (2) a corridor; (3) a main rotunda with a domed ceiling in the back (Kim 2006: 9). Around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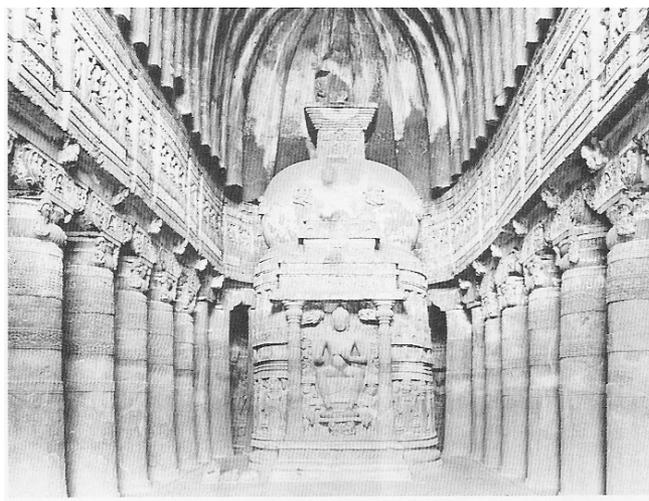
⁴ For further details are attached in the list of plates, which is exploring the concept of Dvarapala, for further details, see Weiner (1977: xii).

antechamber, the eight guardian deities are carved in relief on the wall (Joo 1994: 235). In the corridor, carved images of both the female Buddhist Statuaries, and the ten great disciples of Buddha has enshrined along the wall. More clearly, the antechamber is separating internal structure in the two sections, center door and main shrine hall, where visitors are not able to enter directly in the main hall, as in Ajanta. The rectangular front room contains the four carved guardian image on each side. Further, on the mouth of the inner passage, the two carved Deva images are arranged. Perhaps, the two carved Deva resemble the concept of Dvarapala of Ajanta cave. The roof of circular main room originally carved with tiles where the ceiling is formed by dressed stone slabs and knuckle stone. The center of ceiling consists of a round stone slab decorated with a lotus flower. In the main hall, the principle Buddha image is enshrined a little back from the center, which is supported by the two octagonal pillars. Behind the main image, there is an eleven-face statue of Avalokiteshvara, Goddess of Mercy, has enshrined. There has been long scholarly debate regarding on the gender of Avlokiteswara.

Ajanta is mainly component of the Corridor and a main rotunda. There are twelve pillars inside the main hall supporting the ceiling. In Sokpalsa, two main pillars are on the main entrance supporting the ceiling. The three doorways: a central doorway and the two side-doorways are carved. Between the main and side-doorways, two square windows have carved that lit the interiors to shed enough sunlight. There is no concept of antechamber which preceding the Sanctuary (Weiner 1977: 65).

Although, other Indian cave structures such as Bagh, Aurangabad, and Allora bears the concept of antechamber.⁵ The two figures of the Buddha

with right arms extended to the position of generosity, which appears immediately to either side of the entrance (Weiner 1977: 53).



Internal Structure of Ajanta

It needs to mention that the Guardian image of Sokpalsa is also arranged immediately to either side of the entrance, but not Buddha image as in Ajanta. Due to lack of antechamber in Ajanta cave, where devotee is immediately overwhelmed upon entering the main hall from the center door. The main Buddha statue is not separated with back wall as in Sokpalsa. Further, the main Buddha image has carved in the wall. Around the image, there is a circumference (Pradaksinapatha), and on each side are octagonal pillars screening off side aisles entered by small doors from

5 The concept of antechamber varies in the history of Indian art. Further, not only Ajanta cave, but also later Vihara shrines are lacking the concept of antechamber. Later tendency was toward the elimination of the antechamber.

the hall, and further lit by small square windows near the roof (Weiner 1977: 69). Particularly, the windows of Ajanta cave are shedding light upon main Buddha image. The concept of windows and two small gates, which are around the main hall, are not in Sokpalsa. But the concepts of Pradaksinapahta where two octagonal pillars are providing space around main image of Buddha are also in Sokpalsa. It is imperative to note that the concept of Pradaksinapata is derived from Lankavatara Sutra, which explores details regarding the worship, as it was also described in the Mahavastu (Weiner 1977: 70).

Ajanta cave is famous for diverse paintings and applied techniques, where Sokpalsa bears greater significance in the arrangement of diverse sculpture. The sidewalls of Ajanta cave are painted with murals showing two important episodes from the Buddha's life: the left wall is showing the story of Gautama being tempted by Mara. And the right wall is showing the miracle of Sravasti. Besides, many paintings bear diverse subjects related to Jataka text (Finegan 1952: 290). The story of Mahaviniskarman (departure), story of Sujata, the story of Mahaparinirvan (death), great enlightenment, and Buddha's previous death are the main theme of paintings. There are also several mythological creatures, animals; trees and flowers are carved on the wall. Even the wall of main Buddha hall is painted to explore the large number story of Jataka. Besides, Ajanta cave also bears the Hindu influence, where non-religious subject has been also highlighted through the paintings. On the other hand, the various figures are arranged around the main Buddha hall of Sokpalsa. Even in antechamber, the Buddhist sculptures such as the eight guardian deities are arranged in sequence. Further, around the rotunda, an image of Indra and

Mahabrahamna, the two Bodhisatvas, and ten Disciples line the wall to the right and left. There are also depiction of animals and birds such as Naga, Garuda, devil and animal face especially in the 8 guardian deities (Joo 1994: 235-238).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ll depicted sculpture is largely associated with Indian Mythology. Especially, the concept of Naga can be visualized in Indian Mythology, where it was popular as a Naga cult for long time (Weiner 1977: 102-103). It is quite clear that Mahayana Buddhism has incorporated Naga cult from Hindu tradition during the course of history. The similar depiction of dragon (Naga) is also in Sokpalsa, which already existed as a form of dragon cult before the inception of Buddhism. Thus, it seems that the dragon cult was assimilated with Buddhism, and later on became part of Korean art. The concept of dragon King, and lady dragon has already echoed in Shamanist myth.⁶ Even, Silla King Munmu wished to reincarnate as a dragon to protect the nation (Ilyon 1997: 56). Further, the similar myth is also echoed in Sino-Tibetan history (Finegan 1952: 301). Regarding depiction of Dragon in structure of Sokpalsa is puzzling that how Korean people had incorporated it in Buddhism, and it needs further investigations.

The entire construction of Sokpalsa is based on the Buddhist cosmology. Remarkably, Korean artists have successfully applied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⁷ where mathematical principles are embodied in the harmony between the main Buddha image and other architecture

6 Korean mythology has attested the concept of East and West Sea. For further details, see Lee (2000: 215).

7 The structure of Sokpalsa bears an example of Journey of human life, which covered worldly land to Buddha land. The structure of Sokpalsa corresponds with Mt. Sumeru ideology (Kim 2006: 11).

configuration. The two famous art historians, Yoneda Myoji and Kang Woobang have tried to emphasize the mathematical proportion of Sokpalsa in order to probe the Buddhist idea of enlightenment. According to Yoneda, the basic unit of measurement was dancheok (f tang foot, approximately 29.7) (Kang 2001: 335). Korean artists have applied appropriate proportion of geometry in each construction. The circular main chamber is 12 Tang feet, even in wide also. The sculpture of Bodhisattva and the Ten Great Disciples is 12 (total 48 feet) Tang feet. Remarkably, 12 Tang feet, the basic unit has also applied in the main Buddha statue, and in the creation of the sculpture around antechamber. Other unit 2 and 6 has often applied in the setting of sculpture (Kang 2005: 99-103). It is imperative to note that the doctrine of dependent origination has expressed in a fantastic way by the depiction of Jewel net of Indra that also attests the application of Tang unit.

On the counterpart, Ajanta is famous for marvelous paintings on the wall, ceilings, and pillars where artist has applied mysterious technique in sketching of photos. The structural pattern of Ajanta is also based on scientific approach, for example, the dimension of the Varanda (entry hall) are 64 feet (in radius 32 feet) in length, 9 feet in width, and 13 feet in height. On the other hand, the height of Sokpalsa is 12 Tang feet, and the diameter is also 12 Tang feet. The total area of the main hall of Ajanta is nearly 64 feet square where 20 carved pillars are supporting the roof (Sokpalsa is not covering same area). Further, 20 feet square space is around the main Buddha statue (Finegan 1952: 292) ; however, Sokpalsa covers only 12 Tang square feet. Over all, both constructions demonstrate different scientific approach, and except height, which is approximately

similar, other applied numerical value for size of the sculptural arrangement, differs from each other. The Korean artist has attempted to recreate the cave of Ajanta in the Sokpalsa of Korea. Although they applied scientific approach, and to some extent, Sokpalsa represent more Buddhist approach than Ajanta. However, Ajanta cave is famous for paintings where artisans had applied "Fresco Technique".⁸ It seems that both temples have applied different technique.

The wall of Ajanta, first was covered with a layer of earth clay or cow dung mixed with chopped straw of animal hair as a binding medium, the thickness is one inch or one and half inch. After smoothing the surface, it was covered with a thin layer of finely sieved gypsum or lime plaster, and then finally actual painting was done. The applied materials were completely natural and locally available. Even similar examples of applied techniques are not available in Indian sub-continent. Nalini Bhagwat wrote,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e available space at the disposal of Ajanta painters is not restricted like that of Sanchi, Bharut or Amaravati sculpture, but is comparatively extensive."⁹ Further, Ajanta painting is unique for subject matter where most of the Jataka stories have been highlighted. Thus, Stella Kramarisch has concluded that the Ajanta paintings are final expression of Indian art (Kramarisch 1965: 47).

8 Benjamin Rowland has written details about the fresco element and its applied technology. He recorded "fresco in its true sense implies the application of colors to a layer of moist lime plaster, Indian and all other Asians murals were painted on a dry wall. <http://www.ibiblio.org>. 06-05-24.

9 Ibid.

4. Overview of sculpture and Iconography

This section mainly focuses on the main Buddha statue of Sokpalsa, and further on Mahabodhi temple of India. The four statues of heavenly kings are arranged in the corridor of Sokpalsa. Among them, the statue of Sakra Devanam Indra, a heavenly god, is directed reminiscent of the Indian God.¹⁰ He rules the heaven. The depiction of the two Vajrapani as a guardian of temple is quite remarkable in Sokpalsa (Kim 2006: 124). The Korean artist has carved a wonderful statue of Jewel net of Indra that stretches out infinitely in all directions. There are an infinite number of Jewels, twinkling like millions of stars, and imbued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expression, the Korean artists have tried to express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 where all natural phenomena have mutual identity, and where all are one and one is all.¹¹ The concept of Indra can also visualize in Ajanta cave where there is depiction of Vajrapani. According to Indian perspective, Vajrapani¹² is among those who are attendants of court or court bearers. However, the similar concept of Indra's heaven can be traced out from Sanchi stupa of India where there is depiction of the six heavens or Devaloka of the Buddhist paradise. Bharhut stupa also

10 According to Hindu mythology, Indra is God of heaven. However, Indra is Rigvedic God where he also mentioned as a God of thunder. Mahayana Buddhism has incorporated the concept of heaven during the course of history, thus he became part of Buddhist mythology.

11 This metaphor of the Jewel net of Indras often used in the Avatamsaka Sutra to explain the theory of interdependency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This theory explains the homogeneous relation between whole and part. For further details, see Kang (116-117).

12 According to Veda, Indra also known as a Vajrapani.

attests the concept of heaven where is depiction of heaven of Indra along with Apsara (Finegan 1952: 269-271). Besides Indra statue, the depiction of two Vajrapani separately in Sokpulsu needs further examination because, according to Hindu mythology, Vajrapani is another name of God Indra. However, there is reference that the single image of Indra split into two shapes in China during the course of history.¹³ Perhaps, The Muscles of statue and design of cloths explore Gandhara impact on Vajrapani image of Sokpulsu. The eight guardian deities carved in the anteroom are reflection of Hindu deities. Among the eight deities, Asura, Naga, Kinnara and Garuda are quite remarkable (Joo 1994: 235-236). Asura, who always fight with God, especially with Indra, is quite popular myth of Hindu tradition. According to Vedic literature the, Asuras have become the enemies of the Gods, and are thought of evil spirits or demons (Finegan 1952: 131). On the one hand, there is no direct depiction of Asura in Ajanta, on the other hand, the facial expression of Sokpulsu bears some similarity as described in Hindu mythology. The figure of Asura on Sokpulsu is scantily clad, and has devil face carved in its abdomen. The ceiling of Ajanta cave is decorated with animal fantasies and flying Gandarva (Rawson 1972: 30). The mystical Garuda bird of Sokpulsu seems very close to flying Gandarva of Ajanta cave. There are depictions of many Naga figures on Ajanta cave¹⁴ that reflect back to Naga cult of Hindu tradition. The depiction of Kinnara in Sokpulsu is very similar to the divinely beautiful Apsarases of Ajanta cave.¹⁵ The eleven-faced examples

¹³ Kang, 129.

¹⁴ The Naga figures also appear in Amaravati and Nagarjunakonda of India. For details, see Weiner (1977: 102-103).

of Avlokiteswara are only available in China and Korea. Behind the main Buddha statue of Sokpalsa, the depiction of eleven-faced Avlokiteswara is imperative and peculiar. The Ajanta images of Padmapani Lokesarva, is depicted in the Dharmacakra mudra that differs from the images found in Sokpalsa (Weiner 1977: 60).



Front and back side of Sokpalsa of Korea

The main Buddha image of Sokpalsa is the core of architectural design. There is wide-ranging historical debate over the geometrical arrangement of the main Buddha statue.

The height of the main Buddha statue of Sokuram is more than the nine feet.¹⁶ The seated Buddha image envisages the 3.5m-high.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n the main Buddha statue. However, more accepted view is that the main Buddha statue is depiction of Sakayamuni Buddha (Kim 2006: 124), who is seated in a cross-legged position on a 1.34m-high lotus pedestal, and the robe draped over the left shoulder. The right hand

15 The Indian artist depicted many Apsara in the decoration of ceiling. See Rawson (1972: 30).

16 Kang, 123.

gesture signifying toward the earth, is witnessing toward his realization of enlightenment. On the counterpart, the main Buddha statue of Ajanta is not a Shakayamuni Buddha. This is unidentified Buddha, seated on a lion throne in Dharmacakra mudra. Thus, both Ajanta and Sokpalsa are different. However, many scholars assert that the main Buddha statue of Sokpalsa is copy of Mahabodhi temple of India. Prof Kim has argued that the identity of the main Buddha statue is not exactly known yet (Kim 2006: 117). However, his paper does not shed any light as to why the identity of the statue is unknown. According to bird's eye view, it seems similar to Mahabodhi temple. The sculpture of Mahabodhi temple is quite clear, and it is also depiction of historical Buddha Sakayamuni on the threshold of enlightenment,¹⁷ who is seated in Vajrasana mudra, his right hand in the earth touching posture.



Front and back side of Mahabodhi temple of India

The robe is draped over the left shoulder as in Sokpalsa. But there are differences that the statue of Mahabodhi temple is an example of metal sculpture, but Sokpalsa is an example of stone sculpture. The backside

¹⁷ <http://www.asiasocietymuseum.org>, 06,06,05.

folded robe of Sokpalsa is seems Gandhara impact, which is plane in Mahabodhi. Besides little differences, Yoneda Miyoji has carefully measured the each part of the body of main Buddha of Sokpalsa, which can be compared with Mahabodhi temple Buddha recorded by Xuanzang.

The measurement of statues¹

	Total height	Width Between knees	Width between shoulders	Pedestal height	Pedestal width
Mahabodhi Buddha	1 jang, 1cheok, 5chon	8cheok, 8chon	6cheok, 2chon	4cheok, 2chon	1jang, 2cheok 5chon
Sokuram Buddha	1jang, 1cheok, 3chon	8cheok, 8chon	6cheok, 6chon	5cheok, 5cheok	9cheok, 5chon

1 jang = 10 cheok, 1 cheok = ten chon.

Above Mentioned chart shows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tatues. The similarity of size cannot be overlooked. The feature of both statues seems almost same ; most significantly, the posture, dress and eastern orientation are also very similar. Thus, it seems that the Korean artists tried to copy the statue of Mahabodhi temple. There is reference that the many monks of East Asia and Central Asia were visited Bodhgaya to pay the respect where Mahabodhi temple has been served as a secret pilgrimage for the Asian Buddhists. Even, some of the image in this group was apparently made in Tibet, Burma, Central Asia, and China.¹⁸ Although, they differ in size and design, but Sokpalsa seems exception in this group.

¹⁸ <http://www.asiasocietymuseum.org>, 06.06.05, pp. 1-2.

5. Conclusion

Korean people have created Buddhist art since its inception. Primarily all constructions were greatly influenced to the Chinese pattern. But after assimilation of Buddhism, they developed their own style that reached on the greater height during Silla period. Sokpalsa is the marvelous expression of Korean art. There is chronology of monks who visited India and Korea till 9th century AD. But due to lack of authentic sources, any presumption would not be appropriate that how Sokpalsa has incorporated the tenets of ancient Indian tradition. Both Sokpalsa and Ajanta are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and providing a comprehensive view of the development of Buddhist art. Sokpalsa is representative work of Silla period where peak of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can be visualized. The construction of Sokpalsa seems well organized where artisans have followed the Buddhist idea of geometry. However, the Buddhist idea of geometry is not well known yet in Ajanta, and it needs further investigation.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 which has highlighted by a depiction of Jewel net Indra, is peculiar in the history of Buddhist art. The external and internal structure of Sokpalsa largely resembles to the Ajanta cave. The depiction of Hindu deities in Sokpalsa attests that the construction was inspired with Ajanta cave. Perhaps, the designer of Sokpalsa was not only tried to copy, but also applied more developed technology and Buddhist idea in construction. Perhaps, the designer of Sokpalsa was also aware about other architectural structures of Bhag, Amaravati, and Sanchi. The main Buddha statue, which has been a matter of scholarly discussion for long time, needs more investigation. The

comparison between Sokpalsa and Mahabodhi statue is worth considerable. However, it needs more scholarly mooring to explore the iconography of the main Buddha statue of both temples.

References

- Adams, Edward B. (1991) *Korea's Golden Age: Cultural Spirit of sila in Kyongju*, Seoul: International Publishing House.
- Finegan, Jack (1952) *The Archeology of World Relig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 Ilyon (1997) *Samguk Yus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Ilyon [Tae-Hung Ha and Grafton K, Mintz (tr.)] (1972) *Samguk Yus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Joo, Nam-chull (1994) 'Buddhist Temple Architecture,' in *the Korean Culture Heritage I: Fine Arts*, Seoul: Korea Foundation.
- Kang Woo bang (2001) 'Bulguksa and Seokbulsu Temple,' *Korea Journal* Summer.
- Kang Woo Bang (2000) *Korean Buddhist Sculpture*, Korea, Art Media Resources.
- Kang, Woo bang (1990) *Korean Buddhist Sculpture*, Korea: Youlhwadang Publisher.
- Kim, Jongmyung (ed.) (2006) *Topics in Traditional Korean Thought: Course Reader*,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ramarisch, Stella (1965) *The Art of India*, New York: Phaidon Publishers Inc.
- Lee, Kwangsu (1998) *Buddhist Ideas and Rituals in Early India and Korea*, Delhi: Manohar.
- Lee, Peter H, (ed.) (2000) *Myths of Korea*, Seoul: Jimoondang International.
- Rawson, Philip (1972) *Indian Art*, London: Studio Vista.
- The Center for Information on Korean Culture (2006) *Exploring Korean History Through World Heritag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Weiner, Sheila L. (1977) *Ajant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ttp://www.en.wikipedia.org>.
- <http://www.asiasocietymuseum.org>.
- <http://www.tourismofindia.com>.
- <http://www.ibiblio.org>. 06-05-24.

Meaningful Commodities – Mirrors, merchandise and market policies in the Koryŏ period

Charlotte Horlyck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 Introduction

During the Koryŏ kingdom 高麗 (AD918-1392) the production of the decorative arts, including celadon ceramics, textiles and bronze wares, flourished under the patronage of the royal court. The casting of bronze mirrors increased significantly as well, bringing with it new styles, shapes and designs. Though the change in mirror production could be considered a natural outcome of the thriving arts scene, this would be a simplistic view of a complex phenomenon; the production and use of mirrors have to be viewed as a much larger historical process, shaped by regional politics, the local 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ies and the rise of elite consumption.

As is customary for bronze mirrors, those of the Koryŏ period are plain on the one side, thus allowing for reflection, and are in most cases

decorated on the other. Unlike earlier Korean mirrors which were predominantly circular, Koryŏ ones were cast in a wide spectrum of sizes and shapes, such as circles, squares, flowers, clouds and bells. More often than not they were adorned with a large array of different motifs encompassing pictorial subject matter as well as stylised flower, bird and animal patterns. Clearly, the manufacturing process was not restricted by a lack of imagination or creativity on behalf of the craftspeople producing the objects. Yet, certain motifs are more prominent than others and as some appear only on particular types of mirrors, it can be assumed that specific regulations and social concerns dictated mirror production and use. Evidently mirrors took on a new function within society during this period and it will be argued that this was largely formed by the increased commodification of the objects as they came to be used as collectibles, gifts, trade merchandise and ritual artefacts. These roles or ‘social lives’, to use a phrase by Arjun Appadurai,¹ are not necessarily mutually exclusive and over a period of time a mirror is likely to have functioned under one or more such guises. It can also be argued that it is precisely these social lives that continuously gave value – commercial as well as symbolic – to mirrors, in that they functioned alongside one another in a self-perpetuating relationship where one could not be entirely separated from the other.

In focusing on the making and consumption of mirrors and by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lay behind a mirror of a particular shape and design being used in a specific way, the aims of this paper are two-fold,

¹ Arjun Appadurai (1986: 3).

First, the manufacturing processes of mirrors will be discussed,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how mirrors, as commodities, functioned in society. The latter will take as its focal point the strong influences of mirror designs from the Chinese mainland, that were either directly copied or modified to suit Koryŏ tastes and traditions. It will be argued that as there was no shortage of locally cast bronze artefacts in Koryŏ until the closing decades of the dynasty, the import and imitation of Chinese mirrors must largely have been due to other factors, such as fashion, the desire for exotic objects, the social prestige associated with the possession of a foreign mirror and the value of mirrors as antiques.² From this perspective, the approach taken here differs from earlier studies on these objects since they have not addressed the possible associations between the iconography of mirror designs and the functions of the objects as social constructs shaped by the milieu and time in which they operated.³

2 This argument is based on that of Arjun Appadurai who has demonstrated that the consumption of objects is largely based on active rather than passive choices made by the consumer at a specific point in time. In this way, the meaning attributed to things derives from human transactions and motivations and it is these 'life histories' that give things value. See Appadurai (1986: 3-63). A similar view is presented by Craig Clunas who focuses on how 'things' were consumed (as opposed to 'produced') in Ming China. See Craig Clunas (2004).

3 The small number of publications on the subject is predominantly in the Korean language and mainly focuses on their stylistic qualities, with a compilation by Yi Nan-yŏng being the most extensive. More than 500 Koryŏ mirrors from Korean collections are illustrated and arranged typologically according to their decorative schemes in her book titled Han'guk ūi tonggyŏng 韓國의銅鏡 (Korean bronze mirrors) published in 1983. More recently, an updated and expanded version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published by the same author. See Yi Nan-yŏng 李蘭映 (2003). For a more recent discussion of Koryŏ period bronze mirrors, see Charlotte Horlyck (2006).

2. Production

During the Koryŏ dynasty the government laid down rules concerning which clothes, accessories and objects each social class could use and wear in order to make sure that subjects behaved and dressed according to their social standing. Such sumptuary laws were facilitated by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regulated workshops which were subject to official control, since under this system, the products that were made and their consumers could be regulated more easily.

The making of crafts⁴ thus flourished as an efficient government-run industry as well as a private one. In the capital of Kaesŏng 開城, specialised workshops (K. kongjang 工匠) produced either wares of specific materials, such as stone, silk or lacquer, or made certain goods, including knives, bows and writing brushes, as well as mirrors. All such workshops operated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office. Those producing embroidery, hats and shoes, for example, were administered by the Bureau of Clothing (K. Sangŭiguk 尙衣國).⁵

In the capital, the Office for Metalworking (K. Changyasŏ 掌冶署) controlled eleven workshops which predominantly specialised in manufacturing artefacts of specific metals, such as silver, bronze, and ‘white copper’ (K. paektong 白銅).⁶ Since it is not detailed which objects were

4 It should be noted that the Koryŏ concept of craft differs from its modern interpretation as it encompasses a wide variety of artefacts and skills, ranging from the making of architectural constructions to the breeding of horses and the cultivation of flowers. For a list of craft workshops which operated under government control, see Hong Sŭng-gi 洪承基 (2001: 185). See also Hong Sŭng-gi 洪承基 (1975).

5 Koryŏsa 80: 1a-15b.

made in these workshops, it must be assumed that each produced a wide variety of goods as opposed to a few select kinds. In contrast, a workshop specialising in the casting of mirrors (K. *kyŏngjang* 鏡匠), which was also managed by the Office for Metalworking, stands out as being the only one which appears to have made only one type of object⁷ ; thus not only verifying that the manufacture of mirrors was subject to government control, but also suggesting that they were cast in significant numbers.

Moreover, since the making of the objects would have been closely monitored, ensuring a persistently high standard of production, the office would only have employed those craftsmen with the skills to produce such first-rate artefacts. This is demonstrated in the case of a large mirror with an intricately executed decoration of ducks among floral sprays and a rare inscription stating that it was cast by the master craftsman Kŭm Hyŏ 金叶 in a government workshop: 高麗國鏡匠金叶造 (K. *Koryŏguk kyŏngjang kŭmhyŏjo*) (fig. 1).⁸ Weighing around 1,4kg, it is relatively heavy for mirrors of this period which tend to range from around 40gr to 1,6kg. The weight of the mirror is significant as it seems that certain motifs appear solely on large, heavy mirrors whereas other patterns are only seen on

6 Paektong is an alloy of copper and nickel, which sometimes also contained zinc. The nickel served to make the copper soft and thus easier to hammer. In Korea it was produced already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when it was frequently used for the casting of bells. See Jeon Sang-woon (1974: 252-254).

7 *Koryŏsa* 80: 14b.

8 In contrast to Chinese mirrors, *Koryŏ* ones are less likely to carry inscriptions and as a result the original place of production is largely informed by the iconography appearing on the mirrors. The lack of inscriptions on mirrors is, however, not unique to these objects. Ceramics, too, tend to be devoid of inscriptions, even the ones that were made by the royal kilns for use at the court.

smaller and lighter ones, suggesting a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of a mirror, its decoration and its owner. In the case of the mirror illustrated in fig. 1, its size and its sophisticated design suggests it was made for a high-ranking member of society who could afford it and was allowed such an item of luxury.

Other inscriptions that appear on Koryŏ mirrors are less detailed and number only a few characters that simply confirm the provenance of the object, as in the case of two virtually identical examples, now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at are reported to have been found within the vicinity of Kaesŏng. Decorated with a simple scroll motif, they both carry a cartouche with the following characters: 高麗國造 (K. Koryŏgukcho), which literally means “made in Koryŏ”, suggesting that they were also produced in the above-mentioned government-run workshop (fig. 2).

This specialized mirror workshop then functioned as a counterpart to the regional foundries that catered to the local market, this being a possible reason behind the great diversity in the quality, style and designs of Koryŏ mirrors. Such workshops are likely to have been run by private metalworkers in craft centres (K. so所) located in the countryside.⁹ These centres of production were administrative units assigned to the manufacture of specific products, such as paper, thread, coal and salt.¹⁰ Other groups of skilled craftspeople included those working in temples (K. sŭngjang 僧匠) where they made bells, gongs and incense vessels. Ch’oe Ũng-ch’ŏn

9 Private craftspeople are often recorded simply as chang 匠 or changin 匠人. See Ch’oe Ũng-ch’ŏn 최응천 (2004: 173).

10 Pak Yong-un 朴龍雲 (1996: 142-142, 244). For a discussion of bronze bells and other inscribed metal wares made by private craftspeople, see Ch’oe Ũng-ch’ŏn (2004: 173-175).

suggests that such temple craftsmen may have had the same official titles as government craftspeople though little is known about how they were administered. Temple and private artisans may at times have worked together as suggested by an inscription on a bronze bell at Sŏnaksa temple 仙岳寺, dated to 1066. The inscription reads: 匠□□□ “craftsperson……” and 鑄匠棟梁僧鏡珍 “cast by the Master Priest Kyŏngjin”, indicating a collaboration between two different craftspeople, one of them being a Buddhist monk (Ch’oe Ŭng-ch’ŏn 2004: 178-179).

The crafts industry flourished during the early and mid Koryŏ period, but was brought into decline as the Mongol invasions of the mid-thirteenth century devastated the country. With the subsequent Mongol domination of Koryŏ affairs and a weakened royal court, the demand for high-quality crafts items lessened, and this was to have a critical effect on the metal crafts production too. Written records suggest that some artisans even abandoned their profession and began toiling the land. It seems that the shortage of skilled metalworkers was so acute that when, in 1346, Yŏnboksa temple 演福寺 in Kaesŏng wanted to cast six bells, no local craftspeople could be found, and instead artisans from Yuan China were invited to complete the job (Ch’oe Ŭng-ch’ŏn 2004: 180). This must also have had a paramount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mirrors in the closing years of the Koryŏ rule.

3. Distribution and imitation of Chinese mirrors

In being closely dictated by current fashions and market demands, craftsmen rarely select patterns and shapes at random, and during the

Koryŏ period, foreign mirrors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mirrors, as Chinese and to a lesser extent Japanese mirror designs were adapted and modified to suit local taste and traditions. In fact, many of the motifs which appear on Koryŏ mirrors, like the phoenix, dragon, peony and other popular patterns, were imported from China over the course of time and were gradually included into the Korean iconographical scheme a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many mirrors with these decorations no longer resemble their foreign prototypes. However, in some cases overseas mirror designs were closely imitated, suggesting a deliberate effort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original motifs and their non-native references. This was particularly the case of Chinese mirrors, which were widely distributed and copied on the Korean peninsula.

Mirrors from the Chinese mainland entered Koryŏ in the wake of tributary and especially trade liaisons. Official embassies were exchanged on a more or less regular basis between Kaesŏng and the various states of the Five Dynasties 五代 (907-960) and later with the Song 宋 (960-1279), Liao 遼 (907-1125), Jin 金 (1115-1234) and Yuan 元 (1279-1368). From the Koryŏ perspective, diplomatic activities were pursued in order to secure its border, maintain commercial interests and obtain coveted foreign goods. A significant aspect of the ambassadorial missions were the many items which were exchanged through the official gift-giving process that went hand in hand with the dispatch of ambassadors.¹¹ Gifts normally included

11 In addition to the gifts, all expenses for accommodation and travel within the host country were, by long-established tradition, borne by that country. Sustaining official relations therefore entailed a considerable expense which was not always welcomed. The Song often lamented the high costs occurred in maintaining official relations with Koryŏ, both in terms of hosting the foreign envoys and of dispatching diplomats to the

the best examples of local manufacture as well as items specifically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and though not specified in the historical sources it cannot be excluded that, as in earlier times, mirrors were among the Chinese gifts to Koryŏ. The tradition of presenting mirrors to neighbouring states as gifts was well established by the Han漢 dynasty (206 BC-AD 220) and this custom continued among high and low-ranking members of society until at least the Tang唐 period (618-906). Emperor Xuanzong 玄完 (r. 712-756), for example, presented mirrors to his favourite consorts and meritorious officials,¹²

Raw metal and metal wares were frequently among the tributary items sent by the Koryŏ court, not only suggesting that such goods were sought after internationally but also confirming Koryŏ's ability in producing them. Thus, in 1078, the Koreans presented to the Song court objects of gold, silver and bronze as well as knives, horses, ginseng and scented oil (Kim Sang-gi 金庠基 1985: 68-70). In 1262 the Mongols demanded a levy of 20,000 kŭn 斤 of copper (K. hodong 好銅) (approximately 1200 kg), undoubtedly in the belief that Koryŏ could supply it.¹³

Bronze and its component copper were therefore not rare commodities in Korea, as also verified in the Tongguk yŏji sŭngnam 東國輿地勝覽

Koryŏ capital. However, it recognized Koryŏ's strategic usefulness in the event of hostilities with the Khitan and only relinquished relations when they were felt to jeopardize its relationship with the Liao. For a discussion of the criticism of the expenses occurred in the maintaining of diplomatic exchanges with Koryŏ, as voiced by Song officials, see Michael Rogers (1958).

12 For a preliminary discussion on the influx of Han mirrors in early Korean society, see Charlotte Horlyck (2002).

13 Koryŏsa 25: 24b-25b.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Korea), dating to 1486, from which it becomes clear that copper was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on the peninsula (Jeon Sang-woon 1974: 248). Bronze and copper also featured in Koryŏ's commercial activities, which were closely linked to its diplomatic missions. In addition to the goods they paid as tribute, it is known that the Koreans also exported various metals to the Song, including gold, silver and bronze.¹⁴ At times when no official relations were in place, merchants still remained active and foreign mirrors could easily have been brought to the peninsula by the many traders from China, Japan and even the Islamic world that operated in the peninsula (Pak Yong-un 1996: 328-330). Song merchants appear to have been particularly active, and this is likely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Song mirrors in particular were copied by Korean craftspeople.¹⁵

Evidently, the import and local imitation of foreign mirrors was, for most of the Koryŏ period, neither driven by a shortage of materials nor by the inability to manufacture such objects locally. Instead, the desire for foreign mirrors, particularly Chinese ones, appears to lie in the new role mirrors began to play in Koryŏ as luxury goods. It can be argued that this was an important reason why certain imported motifs were not changed but remained in their original form in order to stress their exclusive and foreign

14 The Chinese also bought silk, paper, ginseng and pine seeds. See Kim Sang-gi (1985: 163) and Pak Yong-un (1996: 241).

15 According to Kim Sang-gi, traders from Song China visited Koryŏ 128 times between the reigns of Hyŏnjong 顯宗 (r. 1009-1031) and Ch'ungyŏl 忠烈 (r. 1274-1308). The historical records do not detail how many times Koryŏ merchants travelled to Song China (Kim Sang-gi 1985: 158-161). For further insight into the Koryŏ-Song trade, see Song Xi 宋晞 (1979: 139-186) and Song Xi [Sung Sheel] (1995).

qualities. The Koryŏ court was a great patron and consumer of the arts, and its use of fashionable luxury goods is likely to have influenced other strata of society. In order to answer the demand for the latest Chinese merchandise, Korean craftspeople may have copied imported Chinese mirrors in order to satisfy the demand among those who for financial or other reasons were unable to obtain the foreign goods themselves. Nor can it be excluded that such local products were sold as fakes to unsuspecting buyers.

As mentioned above, Koryŏ metalworkers were particularly influenced by Song mirrors and two mirrors with an unmistakable Song motif were excavated from a burial site at Kŭmch'ŏndong 金川洞 in North Ch'ungch'ŏng province 忠清北道, dating from the late eleventh to the early twelfth century (fig. 3). Petals and a band of dots surround the knob. The central design is made up of closely set circles with square centres inside which are four or five dots. Each circle is joined to the next with large singular dots.

In Korean publications the design is termed *ch'ilbomun* 七寶文, literally 'seven-treasure-motif'.¹⁶ The term 'seven treasures' (Sk. *sapta ratna*) refers to the seven Buddhist treasures, which commonly are gold, silver, lapis lazuli, crystal, agate, rubies or red pearls and cornelian (Soothill and Hodous 1969: 11-12). Yet, this motif is undeniably a copy of the Song mirror pattern which in Chinese is commonly called a 'chained-coin-pattern' (Ch. *lianqianwen* 連錢紋). The motif of intersecting circles, leaving square spaces in the middle of each, takes its name from Chinese copper coins,

¹⁶ The motif is briefly discussed by Hwang Ho-gŭn 黃浩根 (1996: 247-248).

which since the Han 漢 dynasty (206 BC-AD 220) have been circular with a square hole in the centre. The casting of mirrors with this design was undoubtedly triggered by a conscious effort to emulate a Song design. Thus, in order to emphasise its foreign connotations, even the wide, flat rim – this being a Chinese and not a Koryŏ feature – was in most cases retained. The design is therefore normally found on circular mirrors with this type of rim, though eight-lobed examples also exist.¹⁷ Like their Chinese counterparts, they tend to measure around 10cm in diameter.

Another important group of imported mirrors are those with early Chinese motifs, particularly Han and Tang ones. In Song China, Han mirrors with the liubo 六博 design¹⁸ and other early patterns underwent a revival fuelled by the antiquarian interest in things of the past which Chinese scholars cultivated at this time. Ancient mirrors became collectors' items and it was not uncommon to be buried with them.¹⁹ In order to cater to this demand, Korean workshops even began copying popular pre-Song examples, not only from the Han but also from the Tang periods.²⁰

One of the most popular Tang mirror motifs is that of the 'animal and grapevine', which was imitated extensively.²¹ The original provenances of

17 For similar Koryŏ examples, see Kyŏto Kokuritsu Hakubutsukan 京都国立博物館 (1988: 187, 191). See also Yi Nan-yŏng (1983: 108).

18 In many Western publications this pattern is referred to as a TLV design due to the appearance of T, L and V shapes.

19 Chou Ju-hsi provides several examples of Tang mirrors excavated from tombs of the Liao and Jin, thus indicating their dual role as antique collectibles and burial goods. See Chou Ju-hsi (2000: 11).

20 For a metallurgical analysis of Tang, Song and Ming copies of Han mirrors, see Bulling and Drew (1971-1972).

21 For examples, see Yi Nan-yŏng (1983: 65-71).

most of these Koryŏ imitations are not known, but a few years ago one such mirror was excavated from a grave at the previously mentioned burial site at Chŏngjiri in South Ch'ungch'ŏng province (fig. 4). As is typical of this design, the central knob is shaped in the form of a crouching animal. Around it are four animals superimposed on a field of vines and grapes. A raised band separates the inner zone from the outer band which is again decorated with crouching animals amidst grape plants arranged in flowing scrolls of leaves and fruits. In China, this type of motif began appearing on mirrors around the end of the sixth century when it developed as a result of increased contact with regions located to the west of China, where these types of scrolling grapevines and leonine animals were frequently used as a decorative motif. The animal and grapevine mirror was extremely popular during the Tang period, as well as in the Song and Yuan, when it was often copied or simply re-cast, the latter being facilitated by the deep relief of the originals. The fact that the animal and grapevine motif only appears on Korean mirrors in this particular arrangement and was not reinterpreted or changed locally, is suggestive of the importance attach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pattern. Even the few Koryŏ mirrors bearing only a scrolling grapevine are close copies of Tang pieces, and not Koryŏ re-adaptations.

The reluctance of mirrorsmiths to modify certain Chinese designs is not unique to the Koryŏ period, but also occurs in pre-Koryŏ times. During the Iron Age鐵器 (c.300 BC-AD 1), Proto-Three Kingdoms原三國 (c. AD 1-300) and Three Kingdoms 三國 (c. 300-668) periods, bronze mirror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within the China-Korea relationship, as they were used by the Chinese as gifts bestowed upon those who paid them tribute.

Over the course of this time, mirrors thus became prestige goods, symbolising political authority and economic wealth. By the Koryŏ period, however, mirrors were no longer as desired as tributary gifts and diplomacy was not the main avenue through which foreign mirrors entered Korea. Instead they were sought after commodities associated with high social status, since they implied access to non-native merchandise, affordable only to affluent members of society. Antiquarianism and the custom of collecting also seems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istribution and imitation of earlier Chinese mirrors. The Koryŏ upper class was well-versed in the Chinese classics as knowledge of them was a crucial component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Officials frequently engaged one another in discussions on Chinese art and poetry, and it can therefore be assumed that they would have had an interest in the collecting of Chinese antiquities in general and mirrors in particular.

4. Conclusion

During the Koryŏ dynasty the production of mirrors underwent a transformation as manifested in the mirrors' stylistic variables - their shapes, sizes and in particular their motifs, thus suggesting their manufacture and use was governed by new ideas and concerns which had not previously played a role. This paper set out to examine the social and ideological framework in which mirrors functioned and questioned their use as symbols of social status, as collectibles and as ritual artefacts. The discussion centred on their iconography and questioned how their stylistic variables signified and enhanced the roles mirrors played in society.

On the basis of the material examined,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desire for beautiful, unusual and, in the case of imported mirrors, exotic accoutrements was one of the main driving forces behind the popularity and unprecedented rise in the production of extravagant objects of vanity. Only members of elite social groups would have had the surplus means to indulge in such spending, and it can be argued that it was their taste that governed the production of mirrors in Koryŏ. Fashion was dictated and standards were set by the government-controlled mirror workshop in the capital, which is likely to have catered to the aristocracy residing there. Sumptuary laws restricting the use of lavish goods would have limited the access of regional elite groups to such exclusive items and their needs would accordingly be answered by the output of local workshops.

The demand for new and exciting luxury artefacts resulted in the casting of a wide spectrum of shapes, sizes and motifs. Some of the new patterns invented were indigenous to Korea but foreign mirrors continued to fascinate and be emulated by craftsmen. It was not only the latest examples that were fashionable. Earlier Chinese mirrors enjoyed popularity, too, possibly paralleled by the Song Chinese interest in things antique. The upper levels of Koryŏ society were well versed in Chinese classics and would have been aware of the references to the past in such items.

Foreign mirrors entered Koryŏ in the wake of its diplomatic and trade relation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Gifts of mirrors had formed an important part of the tributary system that was established between China and the various groups o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the late Iron Age and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and consequently, such objects became closely associated with political power and high social status.

Despite the fact that it is not explicitly stated in the sources, it is possible that mirrors were also presented to the Koryŏ court as part of diplomatic exchanges. However, the most appreciated diplomatic gifts were those not available locally, and since the Koreans were already skilful in manufacturing bronze objects which they even sent to China as tribute, it was books that they preferred. Therefore, mirrors no longer formed a crucial part of the tributary system and their earlier political connotations weakened. Instead, foreign prototypes mainly entered Koryŏ through an active trade network and either served as inspiration for or were faithfully copied by local craftsmen eager to cater for the needs of the Koryŏ consumer society.

References

- Appadurai, Arjun (1986) 'Introduction: commodities and the politics of value, in Arjun Appadurai (ed.)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lling, Anneliese Gutkind and Isabella Drew (1971-1972) 'The Dating of Chinese Bronze Mirrors,' *Archives of the Chinese Art Society of America* Volume 25, 41-45.
- Ch'oe Ŭng-ch'ŏn 최응천 (2004) 'Koryŏ sidae kŭmsok kongye ũi changin' 고려시대金屬工藝의장인 (Metalwork craftsmen of the Koryŏ period), *Misulshak yŏn'gu* 美術史學研究, Number 241 (March).
- Chou Ju-his (2000) *Circles of Reflection: The Carter Collection of Chinese Bronze Mirrors*, Cleveland: The Cleveland Museum of Art.
- Clunas, Craig (2004)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Honolulu: Hawaii University Press (reprint).
- Hong Sŭng-gi 洪承基 (2001) *Koryŏ sahoesa yon'gu* 社會史研究 (Studies on Koryŏ social history), Seoul: Ilchogak 一潮閣.

- Hong Sŭng-gi 洪承基 (1975) 'Koryŏ sidae ŭi kongjang' 고려시대의工匠 (Craftspeople of the Koryŏ period), *Chindan hakpo* 震檀學報 Volume 40 (October), 61-80.
- Horlyck, Charlotte (2002) 'Korean Bronze Mirrors and their Chinese and Japanese Influences,' *Orientalia* Volume 33,9, 48-51.
- Horlyck, Charlotte (2006) *Mirrors in Koryŏ Society: Their History, Use and Meanings*, Unpublished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 Hwang Ho-gŭn 黃浩根 (1996) *Han'guk munyangsa* 韓國文樣史 (A history of Korean patterns), Seoul: Kangnam ch'ulp'an munhwa sent'ŏ 강남출판문화센터.
- Jeon Sang-woon (1974)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traditional instruments and techniques*, Cambridge, Massachusetts: M. I. T. Press.
- Kim Sang-gi 金庠基 (1985) *Koryŏ sidaesa* 高麗時代史 (History of Koryŏ), Seoul: Sŏul taehakkyo ch'ulp'anbu 서울大學校出版部.
-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京都国立博物館 (1988)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zōhin zuhan mokuroku tōji - kinkōhen* 京都国立博物館藏品図版目錄陶磁一金工論 (Illustrated catalogue of ceramics and metalwork in the collection of Kyōto National Museum), Kyoto: Benridō 便利堂.
- Pak Yong-un 朴龍雲 (1996b) *Koryŏ sidaesa* 高麗時代史 (History of Koryŏ), Seoul: Ilchisa 一志社.
- Rogers, Michael C. (1958) 'Sung-Koryŏ Relations: Some Inhibiting Factors,' *Oriens* Volume 11, 194-202.
- Song Xi 宋晞 (1979) *Song shi yanjiu lun cong* 宋史研究論叢 (A collection of essays on the history of the Song dynasty) Vol. 2, Taipei: Huagang chuban gong si 華岡出版公司.
- Song Xi [Sung Shee] (1995) 'The Trade and Culture Relation between China and Koryŏ during the Northern Sung,' *Chinese Culture* Volume XXXVI (2), 65-74.
- Soothill, William Edward and Lewis Hodous (1969) *A Dictionary of Chinese Buddhist Terms*, Taipei: Ch'eng-wen Publishing Company, 11-12.
- Yi Nan-yŏng 李蘭映 (2003) *Koryŏ tonggyŏng yŏn'gu* 高麗銅鏡研究 (Study of Koryŏ bronze mirrors), Seoul: Tosŏ ch'ulp'an 도서출판.

함석헌: 군사주의 · 국가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길

박 노 자

University of Oslo

1. 머리말: “개인”이라는 화두(話頭)

한국적 근대의 최대의 미(未)해결 과제라면 아마도 주체적이면서도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의 만들기일 것이다. 1920년대 초반부터 “개인”이나 “인격”은 빈번히 쓰이는 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은 “민족”/“국가”라는 틀 안에서 갇히기도 하고 “여성”으로 성별화 되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체에 복속되기도 하고, “아동”으로 분류돼 훈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특정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 집단의 테두리에 갇히기도 했다. 물론 “민족”을 명분으로 삼은 국가가 자본가 계급을 창출시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병영화(兵營化)를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개발주의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국가라는 전체성이 개인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지배하게 됐다. 오늘까지 와서도 권위주의적 개발주의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인물인 박정희가 “가장 인기가 높은 전직 대통령”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등장되어 보통 60-70% 안팎의 응답자로부터 조건부긴 해도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¹ 지난 시대의 내면적 주체성의 미(未)확립이 어떤 장기적 결

1 이명관, 「인물 평가하기」, 『부산일보』 2005년 2월 23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office_id=082&article_id=3574500000§ion_id=102&menu_id=102.

과를 가져다주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했던 예수를 신앙한다 하면서도 “군대는 우리 울타리”라고 늘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의 수가 약 60만 명이나 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강인철 2006: 40). 과연 이 60만 명 중에서 조 목사 설교문과 예수 가르침의 일치 여부에 대해 독립적 개인 판단을 시도해 본 이들이 몇 명이 될까? 물개성적인 “일체단결”은 일부 종교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전체의 하나의 “아비투스(habitus: 관습)”를 이룬다. 독도 관련 의 일본과의 분쟁이든 월드컵이든 “국가”/“민족”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중들의 자발적인 동원을 유도하는 “이벤트”들이 잘 보여주듯이,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의 주술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거의 면역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억압적 근대의 광기 속에서는 함석헌(咸錫憲: 1901-1989)이—매우 드물게—민족적 전체의 전체(專制)에 대한 종교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견제, 즉 개체와 전체 사이의 “균형 잡기”를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시도해 봤다. 그는, “민족” 내지 “국민”을 대신할 수 있는 “계급”과 같은 사회과학적 개념을 설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종교적 논리를 통해 “민족”의 상대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2. 함석헌이 본 역사, 인종, 그리고 민족

함석헌이 “민족”이라는 이름의 인간 집단이 전근대 시대부터 이미 인류 역사의 주된 “단위”이었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조선민족”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 왔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민족주의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민족의 영구성”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를 함석헌의 정치, 역사 인식이 형성됐던 시기인 1920-1930년대의 (일부 좌파를 제외한) 다수의 식민지 지식인들이 공유했다. 함석헌을 최초로 “사회적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가 평양고등보통학교 3학년 시절에 참여했던 전(全)

민족적 3·1운동이었던 만큼, 그리고 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그의 고향(서북 지역)의 지도 인물이 바로 그가 그 뒤에 공부했던 오산 학교의 설립자이었던 뛰어난 기독교적 민족주의자 이승훈(李昇薰 1864-1930)이었던 만큼, 그가 “민족주의자”로 성장되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조광 2003). 조선인이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된 식민지 시대에는, 함석헌에게는 “민족”이란 무엇보다도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다른 식민지 지식인들 처럼 그가 조선민족이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신세로 전락되게 된 “내인(內因)”을 찾는 데에 골몰했으며, “찬란했던” 고대 시절과 대조되는 오늘날 조선민족의 “쇠락”, “불명예”를 한탄했다. 고대 조선인들의 “기본적 성질인 인(仁)과 용(勇)”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뒤에, 30대 초반에 조선 역사의 “성서적(聖書的)” 해석의 작업에 착수한 함석헌은 오늘날의 조선인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조선 사람의 근본성이 착하다고 하였지만, 오늘날 조선사회는 질투음해(嫉妬陰害)로 서로 쟁탈(爭奪)하는 수라장이 아닌가. 삼백년 정치가 봉당(朋黨)의 싸움으로 종시(終始)한 것은 차치하고, 소위 현대 데모크라시 문명을 배웠다는 신인개조한다는 교육계에도 왈 기호니 서북이니 하는 것이 있고 이천만의 여론을 지도하노라고 하는 언론계에도 나는 전라니 너는 황평이니 하는 것이 있다. 조선 사람은 강용(剛勇)하다 했지만 지금은 유약 이것이 조선 사람의 대명사가 아닌가. 의분은 조선 사람의 성질이라 했지만 지금은 구차(苟且)가 그 천성같이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어 방해하려하고 내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는 골육도 돌아볼 것 없고, 사회의 병폐는 날로 심해 갔건만도 참 의용적 정신에서 민족적으로 살길을 찾아보자는 노력을 위한 기관은 언어 볼 수 없고 잔패(殘敗)민족의 표지(票紙)를 숨길 수 없이 얼굴에 붙였건만도, 일편참괴(一片慙愧)의 념도 강개(慷慨)의 지(志)도 발하는 것이 없이 스스로 신사인줄 알고 안연(晏然)하고, 권세를 주마 약속하면 오천년의 역사를 버리기 폐리(弊履)를 버리듯이 쉽게 하고 이익이 있을만하면 동족을 팔아먹기 단 일전에도 서슴지 않고 한다. 이를 보고 누가 인(仁)한 민족이라 하며 용감한 민족이라 할까?²

2 함석헌(1934.8) “조선 사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성서조선』 67호).

일본의 침략·식민화가 함석헌으로서 일차적인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었지만, 그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大)민족의 자격을 한 때에 가졌던 우리”의 “쇠락(衰落)”을 한탄하고, “민족의 위기”를 통감(痛感)했다. 상당수의 근대 계몽기, 일제 시기의 민족주의 사상가들처럼 1930년대의 함석헌도 “조선혼(朝鮮魂) 타락의 원인”으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상징되는 “모북사상(慕北思想: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과 한 때에 고구려로 대표됐던 “모험진취 정신”의 쇠퇴, “잘못 받아들여진” 유교의 “현실주의, 출세주의, 숙명론”과 “고식(姑息)주의의 풍속” 등을 지목했다.³ “조선혼(朝鮮魂)의 인(仁)”을 일차적으로 강조했던 함석헌과 달리 조선인들을 “뛰어난 무사(武士)이었던 대궁족(大弓族)의 후예”로 간주하여 고대 조선의 “무사 정신”을 늘 강조해 온 안확(安廓: 1886-1946)과 같은 당대의 대표적 민족주의 사학자도, “조선 시대의 문사(文士)의 발호(跋扈)와 군사, 경제의 쇠퇴”, “유교적 교육의 공론(空論)주의”, “헌신 정신, 단합 정신의 결여”, “귀족 전횡” 등을 들어 조선민족의 궁극적 “쇠락”을 설명했다(안확 1932). 즉, “우리 민족 패인(敗因)의 찾기”라는 형태의 식민지 피지배자로서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은, 함석헌의 개인적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로서 일부 공산주의자 내지 아나키스트를 제외한 다수의 조선 지성인들의 지적인 공동 분모에 가까웠다. 무엇보다도 “무사 정신의 쇠퇴”, “모화(慕華) 사상”, “조선인의 이기주의” 등에 비판의 중점을 맞춘 “패인 찾기”는, 그 원형에 있어서는 근대 계몽기의 계몽주의자들이 내면화한 서양/일본의 유교/중국 비하 인식 등 오리엔탈리즘적 시선⁴을 계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피식민자(被植民者—the colonized)로서의 “패인이 된 전통의 닦하기”와 식민자(植民者) 오리엔탈리즘의 일정한 내면화라는 부분을 떠나서

3 함석헌(1935.2-11) “고려의 다하지 못한 책임: 3”, “수난의 오백년 1-7”, “생활에 나타난 고민상”,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성서조선』 73-82호).

4 고미숙(2006: 20-86, 445-453). “유교”, “지나(支那)”, “무기력한 수구적 조선의 관료”에 대한 대척점(對蹠點)으로서 1920-1930년대의 많은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이 일제의 권력도 친근하게 여겼던 김옥균을 영웅시(英雄視)하여 낭만화시켰다: 공임순(2005: 275-289).

라도, “전근대”에 대한 배제가 근대적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세계 사상사의 보편이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함석헌이 일명의 근대적 지식인으로 그 지적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그의 민족주의는 그 당시를 풍미했던 사회진화론적 민족주의와는 그 본질을 달리했다. 사회진화론적 민족주의는 “彼와 我的 투쟁” 중심의 약육강식이라는 과정을 통한 “민족사”의 전개를 설정했다면, 함석헌의 종교적 민족주의는 “민족사”의 과정을 “신의 아가페에 도달하는 여정, 종교적, 도덕적 “민족적 자아의 성장” 과정으로 해석했다(양현혜 2007). 함석헌의 “민족”은, 민족주의자들이 흔히 상상하곤 하는 “통일된 인격체”이긴 했지만, 이 인격체는 통상적인 사회진화론적 민족주의의 “전사상(戰士像)”과 다른 “종교인상(宗教人像)”이었다.

민족의 성쇠도 국가의 흥망도 모든 문화도 다 이 하나님을 탐색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⁵

이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저술했던 당시인 1930년대 중반에 함석헌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민족”의 발달 과정을 개인에 빗대어 “발생기(원시시대)”, “성장기(고대 및 중세)”, “단련기(중세 이래 지금까지)”, “완성기(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나누어보고, “민족 분화”, “각 민족의 문화 완성”의 시기로 “성장기”를 주목했다. 그 뒤에, 1960년대 초반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역사〉를 정리하면서 함석헌은 “민족 분화”의 시대인 “성장기(“소년기”- 원시시대 및 고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지구 위에 민족이 많다 하나 그 분화는 그리스도의 기원까지요 그 후에 볼 수가 없으며 인간이 가지는 생활과 문화가 내용에 있어서 이 시대에 이미 구비됐다. 동양에서도 이 시대 말인 한대(漢代)를 경계로 삼아가가고 전후의 역사를 갈라서 말하는

5 함석헌(1934.5) “세계사의 윤곽”,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성서조선』 64호.

것이요, 서양에서도 로마를 그저 호수에 비하여 그 전의 모든 문명이 여기에서 집대성이 되었고, 그 후의 모든 문명이 또 여기에서 근원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이 잘 아는 일이다.⁶

고대에 있어서의 “민족 분화”—함석헌은 고대의 종족적 집단(ethnic group)과 근대적인 “민족”을 같은 존재로 파악했다—와 인류의 “종족적” 재편의 원인을, 함석헌은 18세기 중반 이후의 지리적 결정론의 전통대로 “지리”에서 찾으려 했다. 지리결정론이란, “지정학(地政學)”의 기초를 세운 독일의 지리학자 랫젤(Friedrich Ratzel: 1844-1904) 이후로는 1900-1910년대의 구미 지역의 “주류” 학계에서 한 때에 거의 통념화(通念化)됐으며, 1930년대 일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함석헌이 “대륙성”, “해양성”, “반도성(半島性)”, “기후와 토질”이 민족 형성과 그 역사에 미친 영향을 논했다는 것은, 적어도 1930년대 동아시아의 근대적 삶의 형태로 보서는 거의 당연했을 것이다.⁷ 그에 의하면 “섬사람은 섬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며, 대륙의 사람들은 대륙적인 것을 그 문화 위에 가지는” 등 “민족 분화”는 인류 존재의 지리적 조건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성서적 사학자”인 그에게 “지리적 조건”은 “인류 역사의 무대”에 불과했으며, “인류 역사”라는 “극”의 ‘연출가’는 결국 다름이 아닌 “신의 섭리”이었다(조광 2003: 118). 결국, 이 논리로 일관되면 “민족의 분화”도 “신의 섭리”에 의한 일로 이해돼야 됐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함석헌은 “민족”보다 더 근원적인 종족적 단위로 “인종”을 설정했다. 그의 인종론은 유럽 19세기 중반 이후의 인종주의가 이야기하는

6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사」, 『함석헌전집』 권9, 104쪽.

7 조광(2003: 533-536). 1920년대에 접어들어 랫젤이나 셴플(Ellen Semple: 1863-1932)과 같은 정통 지리결정론이 구미 학계에서 본격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Richard Peet 1985: 309-333). 그런데 식민지나 해방 직후 시절의 함석헌으로서 외국 학계의 이와 같은 지리결정론 비판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접근성이 보다 나은 구미지역의 대중적 서적에서는 1960-1970년대까지 지리결정론이 거의 “진리”로 취급되곤 했다.

피부색 기준의 인종 분류보다는 차라리 그 전의 “성서적 인종론”에 더 가까웠다. 예컨대 함석헌이 성경의 인류 창조론과 비교 언어학의 성과에 의해서 “인류의 주된 인종”들의 발전의 추이를 분석한 프리차드(James Cowles Prichard, 1786-1848)의 저서⁸를 읽었는지의 여부를 필자로서 알 수 없지만, 그가 사용하는 “인종”의 개념은 차라리 프리차드의 다분히 종교적인 “인종”의 용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는 “인종의 분화”를 떠나면 구석기부터 일어난 일로 파악했으며, <창세기>의 텍스트대로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을 “인류의 주요 세 인종”의 원조로 주장했다. 이처럼 인류의 태생 시기부터 나누어진 인간 집단인 만큼, “인종”들은 각자 그 고유의 특색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함석헌의 또 하나의 주장이었다. 요컨대 “셈의 후손”으로 인식되어지는 “아시아 인종”의 경우에는, 함석헌에 의해서 매우 “온화한” 것으로 묘사된다.

아시아계에 속하는 인종은 대체로 그 성질이 온화하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잔인을 싫어한다. 자기주장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관용하는 편이 많고, 베타의 품이 심하지 않다. 물론 아시아 사람 가운데도 정복시대의 몽고족과 같이 폭용(暴勇)한 자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도 서구인이 생각하는 것같이 그렇게 폭용한 것이 아니요, 또 유럽 인종에서 보는 듯한 것에 비할 바 못된다. 아시아의 민족에는 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을 싸움을 붙여 서로 목을 찌르고 거꾸러지는 것을 그 신사와 숙녀가 보고 쾌재를 부르는 것 같은 것은 없고, 아시아의 역사에는 유럽의 종교 전쟁 시대에 보는 듯한 끔찍한 것은 없다. 동양인은 그 얼굴부터가 악의와 음흉을 가지지 않았다.

이외에는 함석헌은 “동양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감정의 담백”, “(영적인) 깊이”, 그리고 “통일에 대한 존중”과 “자유에 대한 주장의 부재”, “서구적 개인의 부재”를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야벳의 후손”인 “유럽 인종”은, 함석헌에 의해서 “평온하지 못하고”, “성질이 활발하고”, “동양인처럼 감정을 누르는 대

8 James C. Prichard (1973).

신에, 감정을 애써 표출하고”, “자기주장, 자유, 개성,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함석헌이 생각했던 “아시아 인종”과 “유럽 인종”의 대조성은, “자연적이며 정적이며 복종적인 아시아”와 “인위성, 자연 정복에의 욕망이 강하고, 동적이고 자유, 민주주의적인 유럽”의 차이였다. 한편으로는,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 인종”은 함석헌에 의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고 주로 야만시(野蠻視) 됐다.

저들(아프리카인)에게 있어서 주되는 것은 정신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요, 그저 자연 뿐이다. 그 문화에서 종교의 볼 만한 것도 없고, 과학도 없고 그저 원시적이다. 본능적이다. 거기 있어서 사람은 자연의 위대에 압박되어 있다. 자연만으로는 어떻게 무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프리카다.

“무의미한 원시적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천적(天的)” 아시아와 “인적(人的)” 유럽만이 남는다. 이 둘 사이의 가치 평가를 함석헌이 어떻게 했는가? 함석헌이 세계사를 각종의 민족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역할을 맡으면서 고유의 특질이 허용하는 대로 인류 전체를 “신”이라는 궁극의 지점으로 이끌고 가는 우주적 과정으로 파악했다. 신의 섭리에 따르는 역할이 원칙상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기에, 원리원칙으로 본다면 함석헌의 종교적 세계사 시각은 배타적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영(靈), 정신의 고향” 아시아는 “인류의 발원지”, “문명의 요람”임에도 본래부터 “보수성이 강한 인종”이기 때문에 “역사가 만일 아시아인의 손에만 맡겨졌다면 보수(保守), 고루(固陋)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신에 유럽은 “인간 중심”적이며 “현실적”이며 “진취적”이다. 함석헌이 늘 존경하여 1962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미국의 종교 철학자 호킹(William Hocking, 1873-1966)⁹도, 인도와 같은 “동양” 문화의 “영적인 가치”

9 김용준(2006).

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일부 힌두교 철학의 “현실 실제성의 지나친 부정, 과도한 유식론(唯識論)”이 “유럽과 같은 진취적인 자연의 탐험, 과학적 문명의 창조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인도 문명의 소극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지 않았던가?¹⁰ 즉, 많은 서구,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들처럼 함석헌이 현실적 의미의 인류 “진보”의 공로의 대부분을 유럽/기독교에 돌리는 것이다.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가 유럽의 “자원 공급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함석헌의 현실 인식이었는데, 그가 이 현실에 명시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 그에 의하면 “아프리카를 광명화(문명화)” 시키는 것은 바로 “유럽의 사명”이었다던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가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유럽인들의 행위(식민화 등)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유일한 독립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비판적으로 언급한 함석헌은, 동시에 유럽의 식민주의에 나름의 비판적 의식을 가지는 것 같기도 했다(Leroy S. Rouner 1966: 116-126). 남한에서 반(反)독재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1960-1970년대의 함석헌은 미국의 “흑백 문제(인종 차별의 문제)”를 언급했을 때에는 흑인들의 비극에 대한 백인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검은 그리스도”라고 극구 칭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흑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반(反)차별, 평등주의 인식을 보이면서도 그 시기의 함석헌이 여전히 서구 역사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고 기본적으로 긍정 위주로 파악했으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사 속의 민주주의 발전의 절정”이라고 평가했다.¹¹

함석헌의 인종론이나 “민족성” 담론 등을 오늘날의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평한다는 것은 아마도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학자라기보다는 종교인이었던 함석헌은 “민족”과 같은 인간 집단들이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10 Leroy S. Rouner (1966: 59-66).

11 「미국 문명과 흑백 문제」, 『함석헌전집』 권5, 209-214쪽.

라기보다는 “이미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성서>의 논리 그 자체는 종족적 집단들에 대해서는 형성, 변이과정보다 “기원”이나 “신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역할”을 강조하기에, 함석헌도 “성서적 입장”에 서 있었던 만큼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의 종교적 논리는 아프리카나 이슬람 세계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세계사의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둘의 관계에 대립보다 상호 보완성을 찾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는 서구 우월주의자도 황인종 우월주의자도 아니었다. 그가 인식한 “세계사”는,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쌍두마차에 의해 이끌려가는 듯한 이미지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적 유럽과 여성적 아시아”라는 고전적인 오리엔탈리즘의 모델에 가까웠던 그의 논리는, 거의 위협스러울 정도로 “아시아의 고유의 보수성”을 강조해 일제시대에 유행했던 중국, 조선에 대한 “정체성(停滯性)”론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동양의 인(仁)”을 부각시켰던 그는 주관적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된 기독교에 내재돼 있었던 서구 우월주의적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지만, “진취성”과 “진보”, “개인 사상”, “자기주장”과 “자유”, “민주”를 유럽의 전유물로 만드는 그의 “동서양 이분법” 그 자체는 서구 우월주의의 주된 논리적 근거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다만, 그가—호킹과 같은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기독교 사상가로서 “동서양의 대립”보다 “동서양의 보완성”을 훨씬 더 강조했기에 위와 같은 “각 문명 고유 특질”의 논리는 극단으로 가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동서양의 특질”을 보는 그의 시각이 서구 19세기의 고전적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파생되는 “서양 대(對) 동양”의 상투적인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탈서구화(脫西歐化)”의 과제를 끝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온 한국 기독교 사상 전반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다.

3. 함석헌의 “종교적 인격주의(人格主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평화적”, “정신적”, “종교적”이지만, 함석헌도 그 근저에서 근대적 민족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을 깔고 있었던 사상가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해서 군사주의적 국가주의라는 관제(官制) 민족주의의 하나의 변종과 치열하게 맞서게 됐던가? 장준하 선생을 포함한 그토록 많은 민족주의적 기독교 지성인과 달리 그가 처음부터 박정희의 군사 정변과 “군인 정치”에 맞서게 된 사상적인 근원이 무엇이며, 그가 매우 일관되게 1960-1970년대의 병영국가 공고화 과정에서 “딴 소리”를 내온 배경이 무엇인가? 개화기와 일제시기의 사회진화론적인 사조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 나폴레옹이나 이광수가 그린 “성웅(聖雄) 이순신”을 숭배한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뒤인 1963년에, “같이 살기 운동”이라는 일종의 풀뿌리 생명 공동체 운동을 벌이려 했던 함석헌이 “생존경쟁을 원리로 삼는 국가주의의 가는 길이 곧 멸망의 길ियो, 사랑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같이 삶의 길이야말로 새 길이다”라는 예언자적 판단¹²을 내려 박정희의 사회진화론적 국가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힘에 의해서 가능했을까? 지금까지도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安息敎)에 속하지 않는 기독교 사상가로서 선구적으로—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병역거부를 주장하여 1957년 3월에 병역을 거부하여 1년 4개월 감옥에서 복역하게 된 제자 홍명순(洪命淳)¹³을 키울 수 있는 힘, 군인을 “나쁜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군대의 “궁극적 폐지”를 바랄 수 있는 힘¹⁴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일차적으로는, 스승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61-1930)처럼 “무교회주의

12 「3천만 앞에 울음으로 부르짖는다」, 『함석헌전집』 권14, 22-23쪽.

13 「씨알의 설움」, 『함석헌전집』 권4, 73쪽.

14 정지석(2007: 263-283).

자” 함석헌도 “protestantism”을 원시 교회의 “진실된 정신의 회복”으로 보면서 근본적으로 “개인 자유의 존중”으로 간주했다. 외부적 자유라고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일제시기의 한참인 1930년에, 젊은 무교회주의자 함석헌은 자신이 믿는 “종교” 내지 “신앙”을 다음과 같이 “내부적 자유의 공간”으로 묘사했다.

신앙에 들어가는 지도를 하는 것은 옳으나, 신앙은 이룰 것이라고 외적으로 규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일이다. 신앙이란 나라는 사람 - 나, 온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 하나님과 다른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찾아다니는 나, 독특한 개성과 가치를 가지는 나라는 사람, 그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다.……신교는 교권을 부정하고, 교회의 조직에서 개인을 해방시켜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¹⁵

물론 위에서 고백된 젊은 날의 함석헌의 개인주의는 엄정하게 이야기하면 “종교적 인격주의(personalism)”이지 세속적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와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 함석헌 자신은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소위 “개인주의”, “이기심이나 (개인) 독립”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원이 궁극적으로 전체적이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고, “성서 중심주의”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독교적 인격주의자였던 그에게는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의 신교의 국교화는 진정한 의미의 개성적 종교의 배신이었고, 종교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는 “국민”은 “괴물”이었다. “국민의 시대”인 현대는, 그에게는 “위대한 혼”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위대한 혼에 목마른” 시대였다.¹⁶ 인간을 “종족적 존재”로 파악해도, 인간의 종교를 “개성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은 함석헌이었기에, 그에게는 “종교를 삼켜버린 괴물”인 근대적인 “국민”을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위로부터 만들려 했던 박정희는 거의 절대적인 반대자일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종교 사상가로서의 함석헌에게서의 민족의 “도구성”을

15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함석헌전집』 권9, 182-185쪽.

16 위의 책, 186-188쪽.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함석헌이 사상가로서 커졌던 1920-1930년대에, 식민모국 일본에서는 극우파의 이념가들은 물론 비교적 “온건한” 관념주의 철학가들도 (자기 자신의) 특정 국가를 이상화, 절대화하는 길로 이미 들어섰다. 그 당시의 경도(京都) 학파의 지도자 격인 니시다 기타로(西田 幾多郎 1870-1945) 같으면, “일본의 독자적인 국체의 요체”로서 “내재적인 것이 곧 절대적인 것이 되고, 절대적인 것이 곧 내재적인 것이 되는” 신속(神俗) 합일을 보고 소위 “황실”을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세속적 현재 속에서의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는 등 “일본 민족”만큼은 보편이 아닌 “특수”, 역사 전개에 어떤 “도구”라기 보다는 그 전개의 “목적”(절대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합일의 장소 場所)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했다(사이토 스미에 2001: 212-215). 니시다는 선불교를, 함석헌은 기독교를 각각 종교로 받드는 등 둘 다 “종교 철학자”이었지만, 니시다는 선불교적 세계사 이해와 달리 함석헌의 기독교적 세계사 이해 체계에서는 어떤 민족에게도 “목적”으로서의 위치는커녕 “영원한 주역”으로서의 위치까지도 주어지지 않았다. 1930년에 쓴 한 글에서는, 함석헌이 유대 민족의 ‘선민(選民) 되기’의 의미를 “메시아 낳기”, 즉 기독교적 문명의 모태가 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배태시킬 “사명”을 다한 유대민족은 “씩은 담처럼 무너졌다”고 표현했다. “민족” 그 자체보다 “우주의 구원사(救援史)”에의 그 “민족”의 “기여”는 함석헌으로서 의미 있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민족의 “의미”는 기독교 보급의 터전이 된 지중해의 통일된 그리스어 문화권의 “준비”였고, 로마 민족의 “의미”는 〈성서〉 보급의 안정된 기반을 끝내 제공해 준 지중해 중심의 세계 제국의 건설이었고, 유럽 문명의 “의미”는 역시 기독교의 세계적 전파나 종교 개혁의 단행 등에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에의 “기여”는 개인이 오로지 “민족”을 통해 할 수 있다지만, 함석헌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궁극적인 시점은 “전(全)아담의 자손이 다같이 하나님의 슬하에 돌아와 서로 손을 잡는 것”이었다.¹⁷ 사실,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함석헌은 결국 그 명분상으로 “세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충실한 크리스천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의 신 중심의, 〈성서〉 중심의 충실한 “민족 상대화”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으로 보이는 까닭은, 한국의 근, 현대 기독교가 서양/미국 “문명”이나 자민족의 절대화 논리에 그만큼 포섭돼 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 안창호(1878-1938)같으면, 1919년에 상해의 한 한인 교회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주제로 삼아 “사랑”에 대해 설교했을 때에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일체화”로서의 사랑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일차적으로 “자기의 몸 대신에 대한 국가를 본위 삼아 일하는” 사람, 민족을 위해 “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을 참된 사랑의 실천가로 이야기했다. 안창호에게는 “도덕력(道徳力)”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것보다 “민족의 힘 기르기”의 첩경, 즉 수단에 더 가까웠지만(장이욱·주요한 1987), 함석헌은—“민족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민족”을 무엇보다 세계의 도덕적 진화에 공헌하는 “도구적 존재”로 파악했다.

“민족”은 함석헌에게 불가피한 “역사의 도구”가 됐지만, 그 도구를 종교인으로서의 함석헌이 “순선(純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보는 역사의 비극성은, “현실에서 민족은 세계적 도덕을 깨친다, 인류로서 찬미할 도덕이 민족에서는 죄가 되고, 인생으로서 배척할 죄악이 민족에서는 찬양할 미덕이 된다”¹⁸ 데에 있었다. “민족심(애국심, 애족심)”에서 인간의 결점들이 다 발동된다는 것을, 일제 군국주의 광기의 시대를 겪어본 함석헌이야말로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예컨대 마르크스에게는 자본주의란 사회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필수 불가피한 단계이었듯이— 그에게는 “민족”이란 ‘사해동포주의’, 즉 진정한 종교의 영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두보, 준비 단계이었다. 이스라엘민족이란, 애국심과 단결력이 가장 강한 민족 사이에서 결국 “민족”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해동포적인 기독교’가 탄생됐듯

17 「민족 위에 나타난 신의 섭리」, 『함석헌전집』 제9권, 235-261쪽.

18 『함석헌전집』 제9권, 127쪽.

이, “민족”이 “세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함석헌의 논리이었으며, “민족의 역사란 신이 우리에게 지우는 짐”이라는 것은 그의 결론이었다.¹⁹ 그는 “민족” 내지 “인종”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원칙에 충실한 종교인으로서 이를 어느 정도 “하위 배치”시키는 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4. 결론을 대신 하여: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길에서의 함정들

함석헌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전개되어 가는” 세계사는 민족들의 역사, 즉 국가들의 역사이었지만, 특히 1950년대 후반 이후의 그에게는 “국가”란 모순, 갈등으로 이해됐다. “비주류 종교인”으로서의 함석헌은, 민초들을 오로지 통제와 순치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관제(官制) 국가주의를 하달시켜도 민의를 수렴할 줄 모르는 외삽적(外挿的) 성격의 독재 국가, 그리고 이 국가를 “반공의 기지”로 삼아 유착 관계에 들어갔던 “주류” 기독교계와는 늘 길항적인 관계에 있어 왔다. 그가 “5-16을 어떻게 볼까”라는 명문(名文)에서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아무 혁명도 민중의 전적 찬성, 전적 지지, 전적 참가를 받지 않고서는 혁명 아니다.……민중의 의사를 듣지 않고 꾸미는 혁명은 아무리 성의로 했다 해도 참이 아니다”라는 명구(名句)²⁰를 남겨 박정희의 정변에 대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린 유일하다 싶은 국내 지성인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부국강병”에 대한 집착을 근·현대 1세기 동안 거의 끝내 버리지 못해 온 후발주자 한국에서, 그것도 부국강병에의 열망이 국시(國是)이자 거의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내면화한 이데올로기가 된 시점에서, 함석헌은 국가주의를 “평화의 정말 방해자”

19 위의 책, 128쪽.

20 『함석헌전집』 제17권, 125-136쪽.

라고 규정하고, “국가 지상주의”, “정부지상주의”, “국가주의라는 큰 우상”을 “깨뜨려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했다.²¹ 정부가 “계몽”과 “근대화”를 이끄는 “절대선(絶對善)”으로 인식되어 온 토양에서는, 함석헌처럼 정부를 “필요악”으로 규정하여, “대국” 대신에 “나라가 작아도 민중이 잘 사는” 복구와 같은 “평화로운 소국”, “작은 정부”를 이상적인 현실적 국가 형태로 내세운 것은,²² 한국 현대 지성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함석헌은 분명히 “전쟁”과 “군사화 된 국가”에 정반대되는 “평화”와 “민중”의 사상적 옹호자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에게는 “해방신학”과 같은 동시대 외국 일부의 급진적인 종교적 사조에서와 같은 “계급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가 만든 “씨알”의 개념은, 사회과학적 의미의 “피착취 계급”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면서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애매하기도 한다. “씨알”은 “난 대로 있는 사람”, “맨 사람”이며, “사람의 짓(人爲)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하는(自然) 움직임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점”을 구하려 했던 종교 사상가로서의 함석헌에게는, “씨알”은 하나님에게 근접되는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 물질에 대한 “정신”으로 느껴졌다.²³ 결국, 그에게는 역사란 “생명”으로서의 “씨알”과 “반(反)생명”으로서의 “권력”의 영구적인 “싸움”으로 이해됐다. 이와 같은 일종의 “인민주의적(populist)”, 민중주의적 “피해 대중 대(對) 권력”의 역사, 사회의 개념화는, 자본주의적 계급 분화가 아직 초보적 수준에 있었던 1960-1970년대에는 상당한 시의성(時宜性)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노동자 계급의 “피고용자”로서의 계급적인 자아의식과, 함석헌의 매우 포괄적이며 다소 추상적인 “씨알 의식”은 과연 어느 정도의 상호호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가? 함석헌은, 유신 독재에 맞서서 반대하는 주체로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언급

21 『함석헌전집』 제4권, 39-41·77-80·355-357쪽.

22 위의 책, 340-379쪽.

23 「역시 씨알밖에 없습니다」, 『함석헌전집』 제8권, 56-68쪽.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그 계급적 성분이 불분명한 “우리 모두”를 내세운다. “우리는 정치인, 비정치인을 초월해 국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건지고 새 역사를 이룩하자는 새 운동을 일으킴으로 해를 보내는 송년사를 삼았다”²⁴ 그는 “군대”와 군사주의적 “국가”를 부정적으로 파악했지만, 그 내부적인 계급적 모순성이 호도된 “국민”이라든가 “나라”의 개념을 계속 즐겨 썼다. 그는 복구의 “작고 평화로운 국가”들을 선호하기도 했지만, 복구의 사민주의적 사회가 계급투쟁에 기반을 둔 그 세력이 동등해진 노동계급과 자산계급 사이의 일종의 “타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즉 그 출현의 전제 조건이 노동자의 계급적 조직화와 계급적 투쟁의 가능성이 됐다는 사실²⁵을 거의 인식하지 않은 듯했다. 이와 같은 계급적 차원에 대한 도외시의 분위기는, 1950-1970년대의 한국 지성사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했는데, 함석헌은 “무(無)계급적 사고”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종교가 일찌감치 권력화되어 부정한 국가와의 부당한 “동거 관계”에 들어간 이 땅에서는, 함석헌은 분명히 몇 안 되는 “참된 종교인”이었다. 진실 된 종교적 양심으로 그는 국가의 물리적, 이념적 폭력에 대한 “밋”의 저항을 지지했다. 그런데, 근대 폭력 국가에 맞서는 근대 종교인으로서, 그는 “민족”이라는 근대적 관념을 역시 그 사고의 중심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 “국민”이라는 근대의 주민 통합적인 개념의 ‘전체성’은, 결국 “씨알”이라는 함석헌 자신의 독특한 “인민주의적” 관념의 전체성으로 이어졌다. 압축적 성장 시기의 임금 인상과 지가(地價) 상승, 신분 상승의 가능성 증폭으로 그 위치가 튼튼해진 중산계층과 여전히 빈곤 속에서 허덕이었던 노동계급 사이에 골이 깊어져 갔던 시절에, 함석헌은 여전히 각 계급, 계층의 개별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권력”과 “전체 우리 모두”의 대결의 구도로 사유하고 있었던 듯했다. 군부 독

24 「있을 것 못 있을 것」, 『함석헌전집』 제8권, 173-180쪽.

25 G ø sta Esping-Andersen (1985: 41-145).

재 권력의 존재가 중산계층(학생, 지식인) 일부를 급진화시켜 “민주화 투쟁”을 촉발시켰을 때에, “우리 대(對) 독재”의 구도가 어느 정도의 시대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겠지만, 중산계급 출신의 과거의 “민주화 인사”들이 “국민 정부”나 “참여 정부”의 요인(要人)이 되어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행할 때에는, 과연 구체적인 계급성이 결여되는 종교적 “인민주의”는 여전히 저항의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계속 점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위대한 종교 사상이 함석헌의 반(反)국가주의, 반(反)군사주의, “씨알” 사상이 계속 살아 숨쉬는 “대툼”, 저항의 유효한 이념으로 남자면, 이 사상이 사회과학적 현실 읽기 방법, 계급성이 있는 투쟁 전략과 “교배(交配)”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함석헌의 “정신 혁명”과 현실적인 변혁 투쟁 사이의 연결거리가 현저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철(2006)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중심.
- 고미숙(2006) 『나비와 전사』, 휴머니스트.
- 공임순(2005)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 김용준(2006) 『내가 본 함석헌』, 아카넷.
- 사이토 스미에(齋藤純枝) 등 지음, 이수정 옮김(2001) 『일본 근대 철학사』, 생각의 나무.
- 안확(1932.6) 「조선사의 개관」, 『조선』 176호(『자산안확국학논저집』 제4권(1993), 여강출판사, 152-163쪽에서 영인됨).
- _____(1993) 『자산안확국학논저집』 1-6권, 여강출판사.
- 양현혜(2007) 「함석헌과 우치무라 간조의 ‘두 개의 J」, 씨알 사상연구회 엮음, 『씨알, 생명, 평화』, 한길사, 371-395.
- 이명관(2005.2.23) 「인물 평가하기」, 『부산일보』.
- 장이욱·주요한(1987) 『나의 사랑 한반도야: 도산 안창호의 말과 얼, 그리고 삶』, 홍사단출판부.
- 정지석(2007) 「개혁적 반전 평화주의 사상」, 씨알 사상연구회 (엮음) 『씨알, 생명, 평화』, 한길사, 263-283.

- 조광(2003) 「1930년대 함석헌의 역사인식과 한국사 이해」, 『한국사상사학』 제21집, 507-547.
- 함석헌(1934-1935)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성서조선』 61-83호 연재.
- (1988) 『함석헌 전집』 1-20권, 한길사.
- Esping-Andersen, Gøsta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et, Richard (1985) 'The Social Origins of Environmental Determinism,'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5.3, 309-333.
- Prichard, James C. (1973) *Research into the Physical History of 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uner, Leroy S. (1966) 'Hocking and India,' *Philosophy East and West* 16, 1-2, 59-66.

일본 총련계 민족학교의 민족어교육에 대해

- 우리말 교육의 성과와 규범의식을 중심으로

김 미 선

일본 국립민족학 박물관

1. 들어가기

2005년의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1.7%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는 여러 면으로 다민족, 다언어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책적 면이나 지역주민의 생활면에서, 그리고 개인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도 외국인의 존재가 부상되고 있다.

재일외국인과 호스트사회와의 공생의 문제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언어 문제로 그중에서도 외국인 자신들의 출신언어교육과 현지어(일본어) 교육은 외국인과 일본사회가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단일민족과 단일언어를 국가이념으로 해 온 일본에서는 이민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공적부담의 모어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외국인의 모어교육은 해당 커뮤니티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실행·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재일코리언이 지금까지 실행해 온 민족어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주 1세기의 역사를 지닌 재일코리언의 민족어 교육은 조국의 복잡한 정

치적 관계와 일본사회와의 이념적 갈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총련계 조선학교, 한국계 민족학교, 일본공립학교의 민족학급, 청년단체의 우리말강습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총련계 조선학교는 독자적인 이중 언어교육을 실행해 왔으며 민족어교육의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족성의 강조, 언어의 기능면과 규범의식간의 갈등, 일본사회의 북조선(북한) 이미지로 인한 언어의식의 저하 등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재일코리언의 민족어교육과 관련해서 총련계 민족학교(조선학교) 언어교육의 실태와 성과,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언어문제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하겠다.

2. 민족어교육의 개요

2.1. 역사

현재 코리언 커뮤니티의 언어는 세대교체와 함께 민족어인 조선/한국어에서 일본어로 교체된 지 오래다. 조선/한국어는 재일코리언 활약층인 2세 이후 세대에 있어서, 제2언어로 모국어, 조국어, 민족어, 우리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칭으로 민족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른 명칭도 사용하겠다.

재일코리언의 민족어교육은 식민지배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재일코리언에게 직면한 과제는, 귀국과 함께 자녀들이 귀국한 후에 무리 없이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었다. 1945년 10월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이 결성되어 오사카에서 국어강습소가 개강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어와 문화, 역사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어강습소가 각지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귀국목적의 임시적으로 개설된 국어강습소는 조국의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을 이유로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통합 정비된 3년제 초등학교의 과정을 거쳐 6년제의 정규학교로 발전되었으며 중등학교, 고등학교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1945년 11월에 건국청년연맹(현재의 민단)이 결성되어, 두 단체에 의해 민족학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민족학교는 해방 후 1948년까지 초등학교 540교, 중학교 4교, 청년학교 10교가 설립되어, 학생수 5만 8천명, 교원 수 1,100명에 달했다.¹

해방 후의 조국분단의 현실은 재일코리언의 삶에도 정치적 분단을 초래했으며 그 영향으로 민족학교도 조국의 정치적 현실이 반영되어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조련에 이어 한국을 지지하는 민단이 설립되자 재일코리언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학교는 조총련계와 민단계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규모나 체계적인 면에서 민족교육의 중심이 되어온 것은 총련계 민족학교로 민족이라는 저항적인 이념아래 철저하고 독자적인 학교교육을 현실화하였으나, 민단계 민족학교의 경우 재일코리언을 일본사회에 영주하는 마이노리티로 타협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지위향상에 관심의 중점을 두는 등 조국의 정치적 이념과 일본사회에서의 정주관계가 두 단체의 민족교육과 민족어교육의 형태와 유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2.2. 민족어교육의 형태와 한계점

현재 재일코리언의 민족어교육은 학교교육과 그 외의 사설기관, 그리고 가정 내의 민족어사용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장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련계와 민단계의 민족학교를 들 수 있으며, 그리고 일본의 공립학교의 민족학급²을 통해서도 민족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1 大阪民族教育60年誌編纂委員会, 2005, 『大阪民族教育60年誌』, 学校法人大阪朝鮮学.

2 1948년 일본 정부의 민족학교 강제폐쇄령에 저항해 재일코리언의 다수거주 지역인 오사카와 고베에서 대규모 교육투쟁이 있었다. 민족학급은 이에 대한 사태 수습책으로 같은 해 6월 오사카부지사와 투쟁회 대표와의 교섭의 결과로 개설되었다. 공립 초/중학교의 과외수업에 민족교육을 보장하는 문제가 합의되어 교섭당시는 30여 초/중학교에 민족학급이 개설되었으

가 주어지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민족어학습 이외에 민족어습득이 가능한 곳으로는 가정 내의 우리말사용, 청년단체의 우리말강습소, 민족단체의 토요학교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영사관, 문화원이 제공하는 한국어교실도 늘고 있다.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를 계기로 일본에 상륙한 한류붐으로 인한 한국어인기로 사설 어학원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민족어 교육이 중심내용으로 책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문화가치의 상품화, 한국어보급이 주된 목적으로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어학원이 재일코리언의 민족어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열거한 내용으로만 보면 적지 않은 선택의 기회가 민족어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5년 현재 73개교에 달하는 총련계 민족학교는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각종학교 자격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자격취득의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커리큘럼의 편성과 거의 모든 수업을 조선어(우리말)로 행할 수 있다는 학습차원의 이점이 있다. 이러한 조선학교의 독자적인 교육형태는, 일본사회와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집단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민족어교육의 기능적인 성과가 사회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한편, 현재 4개교에 달하는 민단계 민족학교는 한 학교를 제외한 세 학교가 정식인가를 받아, 일본의 사립학교자격이 주어져 재정적인 면은 극복이 되었으나 전 수업을 일본어로 행해야 하는 점, 교과서 검정, 커리큘럼의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민족어교육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립학교의 민족학급에서 행해지는 민족어교육은 일주일에 한 시간 방과 후에 과외수업으로 행해지고 있어 민족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에는 시간적

며 2005년 현재 오사카 부내에 100여 개 이상의 학교에 민족학급이 개설되어 있으며 주 1회의 과외수업이 행해지고 있다

으로나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수업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민족 문화를 상징하는 어휘를 습득하는 것으로 민족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민족어습득은 민족어를 구사할 수 있는 1세대의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인한 민족어사용자의 부재로 쉽지만은 않다. 민족학교교육을 통해 민족어학습의 경험이 있는 2세의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민족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거리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실질적인 민족어습득은 어려운 형편이다.

청년단체의 민족어학습은 사적인 모임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어 강사진, 교재 등 전문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적인 언어학습보다는 청년모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말학습이 도입되고 있으며, 청년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민족을 접하는 기회를 얻어 우리말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습득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설학원도 민족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 민족적인 요소가 의식되지 않은 어학학습에 중점을 두는 점 등, 민족어교육의 엄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으나 학습자의 목적과 해석에 따라 민족어교육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3. 총련계 민족학교(조선학교)의 민족어교육

3.1. 그 특징과 언어 접촉 현상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일관된 교육체계와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완결된 과정이 조직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총련계 민족학교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로 불

리며(이하 조선학교) 2005년 현재 대학 1, 고급학교 11, 중급학교 38, 초급학교 62, 병설유치원 45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설립 당시부터 대부분의 학과가 철저한 민족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민족어교육(우리말교육)을 민족교육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John C. Maher(1993)는 조선총련, 민단의 각 학교교육에 대해 코리아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독자적이며 고도로 발달된 학교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일본어와 조선어를 병용하는 이중 언어교육의 채용을 평가했다.

金德龍(1991)은 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해 [민족적 문화공간], [내셔널 센터]로 일반적인 학교교육기관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국땅의 [작은 조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선학교의 다중적인 기능에 대해 언급했다. 조선학교가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한 언어(민족어)교육 이외에도 민족문화를 접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일종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가 3세 이후 세대들로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있으며 학교 이외에 민족어를 접하는 기회는 극단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민족어는 학교언어로 공적 언어이며 일본어는 사적 언어이기도 하다. 이는 이민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다이글로시아³ 상태 즉 이민의 출신언어, 민족언어가 사적장면에서 사용되는 변종(Low Variety)으로, 호스트언어가 공적장면에서 사용되는 변종(High Variety)으로 해석되는 경우와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조선학교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민족어는 수업이나 회의, 집회 등의 공적장면에서 사용되며 일본어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는 방과 후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사적 언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3 하나의 스피치 커뮤니티에 있어서 다른 두 개에 언어 또는 두 개의 변종이 각자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화자가 두 언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상태를 말함. 한 쪽이 사회적으로 높은 변종으로 다른 한 쪽이 낮은 변종으로 인지되는 상황. 이민언어 커뮤니티에서는 민족어가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낮은 변종으로, 호스트언어 즉 공용어가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높은 변종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이렇게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가 제각기 영역적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두 언어의 기능적 균형성이 문제시되기도 한다(徐2000). 민족어의 일상생활의 표현능력의 문제와 학습언어로서의 일본어의 습득의 양의 문제로 양 언어능력의 부분적인 결여점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조선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수업을 조선어로 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본어 사용능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 일본어능력을 중시하는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초급부에서는 일본사회에서의 생활용어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급부에서는 일본학교의 국어 수업처럼 이해와 표현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아름다운 일본어(美しい日本語)로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들면 일본의 문학과 저명한 인물의 작품을 교재로 한 일본어교육과, 상용한자(1945자)의 습득 그리고 한자검정시험과 같은 외부평가 도입을 들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각종 작문대회에 참가시켜 일본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조선학교의 철저한 이중 언어교육은 필연적으로 두 언어의 접촉상태를 유발한다.

Weinreich(1953)는 두 언어의 접촉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차용(borrowing), 피진화(pidginization), 두 언어의 혼용(language mixture), 언어간섭(interference) 등을 들었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위에 열거한 여러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학교공간에서의 다수에 의한 언어 접촉현상은 그들의 개별적인 현상을 정착시키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으며 정착을 입증하는 여러 명칭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간섭으로 인해 고정화된 민족어내용은 총련조선어(植田2001), 조선어 일본지역 변종(宋2007), 제일 조선어(『월간이어』 2000.4)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교 언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두 언어를 혼용하는 ‘짬뽕말’을 들 수 있으며(金2003), 이 또한 조선

학교 학생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다.

3.2. 민족어교육의 방법

민족어교육의 방법으로 가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선 일본어과목 이외의 전 과목을 민족어로 교육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독자적인 커리큘럼 제작을 들 수가 있다. 거의 모든 교원이 민족학교 출신으로 민족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화자라는 점은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이중 언어교육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학교운영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비인가학교라는 점도 커리큘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민단계 민족학교가 인가학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커리큘럼의 제한을 받아 실질적인 이중 언어교육이 어려워진 점을 생각하면 조선학교의 비인가 학교라는 사실상의 선택은 자유로운 수업시간의 배당과 독자적인 커리큘럼의 구축 등 조선학교의 교육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수업시간 등 별지 <자료 1> 참조).

그 외에 학생들에게는 제2언어이기도 한 민족어교육을 독자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개발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초급부 1학년단계에서 습득하게 되는 발음은, 일본어모어화자에게 행해지는 기존의 방법, 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법(모음/자음별 단음습득방식)과는 달리 모어화자(자국민)에게 행해지는 음절습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 어찌 보면 종래의 방법과 이론을 일탈한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어휘 부분에서는 초급부 1학년과정에 학교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거의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레벨에 맞추어 교사와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족어의 어휘를 늘려가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유치부나 초급부 저학년에서는 일본어의 문형식에 조선어의 단어를 삽입하는 형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선어의 문형식에 일본어의 단어를 삽입하는 형식, 또는 번역식 문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우리말소조(클럽)’, ‘우리말활동’ 등과 같은 우리말강화 특별활동이 과외수업이나 수업시간을 통해 도입되어 있으며 민족어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일본어금지’와 같은 강제적인 규제가 행해지기도 한다.⁴

4. 교육성과

필자는 민족어교육의 실질적인 내용과 그 성과를 알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민족학교의 수업참관과 교사,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국어지도위원들과의 좌담회를 가진 바 있다. 국어지도위원들과의 좌담회를 통해서 얻어진 민족어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도달 시기는, 발음지도의 경우 초급부 저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1학년 때에 거의 완성된다고 하며, 읽기/쓰기는 4학년 때에 거의 완성된다고 한다. 물론, 언어습득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학습자전원에게 의도한 바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평가임을 지적해 둔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초급부 저학년에서, 중급부, 고급부에 이르기까지의 성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자료화하기에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필자의 경험적인 관점에서 언급한다면 초급부 저학년에서는 단문형식의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했으며 점차적으로 향상하여 고급부를 졸업한 이후에는 거의 불편없이 민족어를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평가의식면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宮脇(1993)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한

4 수업방식에 관해서는 필자의 수업참관과 국어 관련교사(국어지도위원회위원)와의 간담회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사용했다

양케트조사(별지 <자료 2>)에 의하면, ‘말하기’는 초급부의 98.4%가 민족어말하기를 ‘아주 잘한다’, 또는 ‘잘한다’고 평가했으며, 같은 내용으로 중급부는 99%, 고급부는 93.7%, 대학생은 96.2%에 달했다. ‘듣기’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초급부 96.6%, 중급부 94.3%, 고급부 95.9%, 대학생 94.2%가 ‘아주 잘한다’ 또는 ‘잘한다’고 평가했다. ‘읽기’는 초급부 91.7%, 중급부 99.1%, 고급부 94.9%, 대학생 94.2%가 ‘아주 잘한다’ 또는 ‘잘한다’고 평가했으며, ‘쓰기’는 초급부 91.7%, 중급부 98.1%, 고급부 95.9%, 대학생 96.1%가 같은 내용으로 답해, 언어교육의 4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초급부의 단계에서 90% 이상이 자신들의 습득수준을 아주 높게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일본어의 경우에도 거의 전 기능에 90% 이상이 ‘아주 잘한다’ 또는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의식면에 있어서도 이중 언어교육이 균형 있게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다.

5. 교육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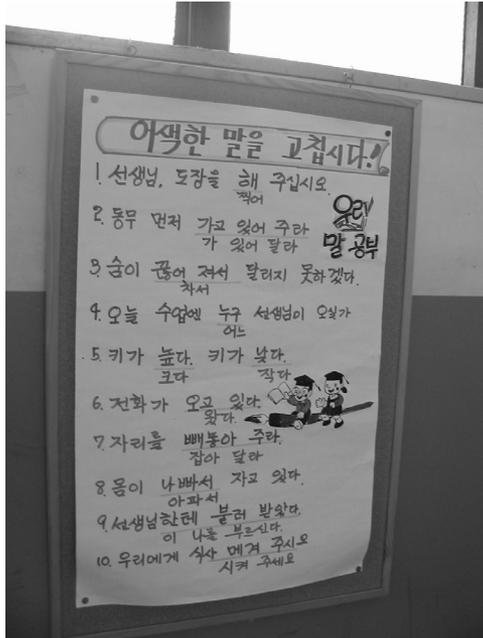
5.1. 기능적 성과와 규범적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학교의 민족어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민족어교육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성과 의식과는 상반된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金德龍(1991)은 조선학교의 이중 언어사용에 대해, 민족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문어표현을 구어표현에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학교형 이중 언어”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리나 김(1994)도 구어체의 다양한 어미구사 부족이나 일본어의 간섭을 받은 조선어 사용, 두 언어를 혼용하는 현상, 추상적 개념이나 정치적 목표를 나타내는 어휘습득에 비해 일상생활용어에 관한 어휘의 빈약함, 표현의 고정화 등을 들어 조선학교의 민족어교육의 한계를 지

적했다. 한편, 徐暎喜(2000)는 조선어교육에 중점을 둔 이중 언어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일본어능력이 저하되며 바른 조선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점, 교과서를 통해 습득한 문어표현의 사용이 정형화되는 점과 사춘기 때에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점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사진 1〉 고쳐야 할 우리말



이와 같이 조선학교의 민족어교육,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평가는 학교교육에서 습득된 문어체의 확장사용에 관한 스타일의 문제, 어휘의 불균형 '바른 조선어'의 습득문제 등 언어습득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언어의 규범의식에 입각한 평가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습득한 민족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규범의식의 강조는 민족학교 내부 또는 총련 내부의 의식에서도 그다지 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러한 예는 학교복도나 교실 안에 게시된 우리말(민족어)에 관한 내용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진 1>은, 오사카에 있는 한 조선학교 중급부의 교실복도에 걸린 우리말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바른 우리말' 사용의 강조하기 위해 게시된 것이다. '어색한 말을 고칩시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고쳐야 할 어색한 말' 10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고쳐야 할 정답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하와 같은 내용들이다.

1. 선생님 도장을 (해→찍어)주십시오.
2. 동무, 먼저 (가고 있어 주라→가 있어 달라).
3. 숨이 (끓어져서→차서) 달리지 못하겠다.
4. 오늘 수업엔 (누구→어느) 선생님이 오실까.
5. 키가 (높다→크다). 키가 (낮다→작다).
6. 전화가 (오고 있다→왔다).
7. 자리를 (빼 놓아주라→잡아 달라).
8. 몸이 (나빠서→아파서) 자고 있다.
9. 선생님 (한테 불러 받았다→이 나를 부르신다).
10. 우리에게 식사 (메겨 주시오→시켜 주세요).

위의 게시판에 나열한 내용들은 모두가 일본어의 표현을 직역한 표현으로 학생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의 문형식, 또는 표현⁵⁾에 조선어의 단어를 대응시켜 만든 형식들이다. 한편, 총련계의 대표 미디어로 꼽히는 조선신보사에서 발간한 월간 잡지 '이어'에서도 대대적으로 조선학교에서 사용하는 민족어의 내용에 대해 '여기가 이상하다 재일조선어(ここが変だよ「在日朝鮮語」)'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은 바가 있다(『月刊イオ2000年4月号』). 발음, 인토테이션, 회화, 표현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우리말이 '난해져 가는(乱れていく)' 것을 지적했다.

5 1. 先生, はんこを押してください. 2. 先に行っておいてくれ. 3. 息が切れて走れない. 4. 今日の授業にはどの先生がいっちゃうか. 5. 背が高い'背が低い. 6. 電話がきている. 7. 席をとっておいてくれ. 8. 体が悪くて寝ている. 9. 先生に呼ばれた. 10. 私たちにおごってください.

항목별 내용을 보면 「발음은 언어의 기본 이런 발음은 우리말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모음, 자음, 음절의 부자연스러운 습득, 일본식 인토네이션의 사용 등을 들었으며, 「일본어 직역식이 횡행, 자연스러운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으로 일상회화에 있어서 문어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일본어를 직역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을 지적했다. 또, 「여기까지 왔다면 일본어이다. 우리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항목으로 한 문장에 두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혼용현상(Code-Mixing)에 대해 언급해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언어행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에 대해 ‘재일조선어’라는 명칭을 부여해 이러한 현상이 일상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 현상에 대해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에 대해 바르지 못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식화시키고 있다. 같은 특집호에는 이에 따른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략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필요성을 깊이 느낄 것’, ‘무엇보다 바른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 ‘살아있는 우리말을 직접 접할 것’, ‘우선은 많이 듣고 사전을 휴대하며 의미를 찾는 습관을 지닐 것’ 등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한 추상적인 방법이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범의식을 중시한 조직 내부의 언어관을 나타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들 조선학교, 총련 내부에서 지적한 ‘어색한 우리말’, ‘이상한 재일조선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접촉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언어 간섭현상이기도 하며, 이민언어를 기술할 때 보이는 호스트언어와 민족어의 접촉으로 생긴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커뮤니티 내부의 민족언어에 대한 의식은 규범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언어의 사회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형태적, 통사적 완결성이 중시되는 규범주의에서 비롯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宮脇(1993)가 실시한 앙케트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성과의식은 커뮤니케이션

을 중시한 기능적 측면이 중시된 결과이며 학교 측의 평가는 학생들에게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조국(북조선)의 국어를 모델로 한 표준(문화어)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규범 중시의 학습방법은 학생들에게 오용을 파악하여 개선할 기회를 제시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들이 학습해 온 민족어(조선어)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필자가 출강하는 K대학의 조선어강좌에는 매년 수 명의 조선학교 출신자가 조선어 기초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조선어 구사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 조선어능력이 높은 수준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을 한 이유를 물어보면, 제도적 맹점⁶을 이용하여 쉽게 단위취득을 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바른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심지어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배워 온 민족어는 내부의 지적과 같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바르게 다시 배워야 할 바르지 못한 민족어(우리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층 더 나아가 그들이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도 일본특유의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언어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5.2. 한반도의 정치문제와 민족어의 이미지

일본사회에 의해 창출된 코리언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빈곤, 납치문제, 핵문제 등으로 생성된 후진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된 북조선(북한) 이미지와, 2002년 월드컵, 한국드라마 겨울연가(후유소나) 열풍, 경제지위향상 등으로 만들어진 발전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된 한국이미지이다. 같은 민족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가 부가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반도간의 정치적 관계, 일본특유의 정치풍토,

6 조선어 수강자격이 특별히 설정되지 않아 예를 들어 조선어 모어화나 조선어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강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 내의 코리언도 소속된 단체나 지지여부에 따라 북조선과 한국이미지로 대극화되어 있으며 그들의 실생활과 언어사용, 언어의식전반에 걸쳐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면에서 보면 현재 한국드라마에서 사용되는 한류스타가 사용하는 서울말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와, 북조선의 국영 TV 캐스터가 사용하는 조선어의 악센트는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일본사회에서는 이질적인 요소로 재생산되고 있다.⁷ 현재 일본에서는 한류에 힘입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한국어학습이 붐을 이루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에서도 수강생이 늘고 있으며, 이전에 아시아어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일반서점의 한국어 학습교재가 이제는 독자적인 한국어코너가 만들어질 정도로 매년 많은 양의 교재가 발간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해외에 한국어 보급을 위해 정책적인 힘을 기울이고 있다.⁸ 일본의 거리에는 한글안내표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⁹ 한국에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도 매년 1위¹⁰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학교 학생들이 현재의 일본의 언어환경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 온 민족어를 '북조선어'로 인식해 열등감을 느낌과 동시에 한류드라마의 한국어를 동경의 대상으로 느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류드라마에 등장하는 서울말과 정치적 이슈 이외에는 등장할 기회가 없는 북조선의 평양말에 대한 느낌이 일본을 생활무대로 하는 젊은층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기는 힘들 것이다.

7 필자의 의식 조사(미발표)에 의하면 일대학생들의 다수는 북조선의 보통시민도 국영방송의 캐스터와 같은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8 주된 기관으로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원, 국제교육진흥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원, 한국국제협력사업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글학교, 해외동포재단 등이 있다.

9 현재 일본의 공적 안내표지에 4언어표기(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일반적이다.

10 2006년 입국자 통계를 보면 한국인 약 237만 명(그중 신규입국자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입국외국인의 약 30%를 차지한다.

6. 맺음말

조선학교에 있어서의 민족어교육은 해방 후, 언어교육의 이론적, 경험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당초의 의도와 목적은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코리언 커뮤니티에 있어서 민족어가 존속되어 온 것은 조선학교의 독자적인 노력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가라는 불리한 제도와 환경적 조건이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가능케 했으며 철저한 이중 언어교육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민족어교육의 실천적인 방법에 있어서, 제2언어교육상의 국어교육(제1언어 교육) 방법론의 도입, 어휘교육의 이행적인 코드 믹싱 등, 이론의 틀에 구속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의 독자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용 장면에 있어서 양 언어의 혼용(코드 믹싱)의 부정, 본국중심주의에 입각한 규범의식의 강조 등, 민족어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자신감의 결여 등 언어의 사회적인 현실성을 도외시한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정착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코리언커뮤니티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인 사회적 제도가 조국과 민족이라는 의지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본국중심주의에 입각한 민족어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게 된 것도 민족어교육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어느 면에서 보나 조선학교의 민족어교육과 커뮤니티언어가 갖는 기능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 언어가 갖는 사회적 배경이 현재 일본에서 코리언 커뮤니티의 언어문제를 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는 본고의 앞부분에서 지적한 외국인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언어문제를 논의할 때에 선행사례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세계구조와, 소자화, 고령화 등의 사회적 여건으로 다민족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 사회의 논점으로 외국인

(뉴커머)의 언어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그들이 당면해서 살아가야 할 일본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일본어학습의 문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커뮤니티와의 커뮤니케이션, 자신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추구하기 위한 모어학습 등 이중 언어교육의 실질적인 방법론일 것이다. 외국인의 정주화와 세대교체의 이행 중에 그들이 겪는 언어 문제는 본고에서 논의한 재일코리언 커뮤니티가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언어문제와 같은 언어와 사회적 관계에서 보이는 여러 주변적인 문제와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조선학교의 민족어교육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찬유(2006)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일본정부의 억압정책」, 국제고려학회, 『화해와 협력 시대의 코리아학-제2회 세계코리아학대회 논문집』, 국제고려학회.
- 植田晃次(2001) 「『総連朝鮮語』の基礎的研究—そのイデオロギーと実際の重層性」, 野呂香代子他, 『「正しさ」への問い—批判的社會言語学の試み』, 三元社.
- イリーナ・キム (1994) 「朝鮮総連の朝鮮語教育—コミュニティー再生産のテクノロジー」, ジョン・C・マーハー他(編), 『新しい日本観・世界観に向かって』, 国際書院.
- 金徳龍(1991) 「在日朝鮮子女のバイリンガリズム」, ジョン・C・マーハー他(編), 『日本のバイリンガリズム』, 研究者出版.
- 金美善(2003) 「混じりあう言葉—在日コリアン—世の混用コードについて」, 『月刊言語』, Vol.32, No.6, 大修館書店.
- (2007) 「在日コリアンの母語(民族語)教育について—総連系朝鮮学校のバイリンガル教育を中心に」, 国際シンポジウム, 「移民とともに変わる地域と国家」(国立民族学博物館機関研究プロジェクト「トランスボーダーの人類学」)(於: 国立民族学博物館), 発表資料.
- 徐暎喜(2000) 「朝鮮学校の二カ国語教育」, 慶応義塾大学湘南藤沢学会.
- 申昌洙(2005) 「民族教育の歴史と朝鮮学校における朝鮮語脅威kジュ」, 真田信治他(編),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 宋実成(2007) 「朝鮮学校児童らの朝鮮語使用－談話も時下資料から見た文法諸形態の使用状況について」, 『移民コミュニティの言語の社会言語学的研究成果報告書(2)在日コリアンの言語』, 平成16(2004)-18(2006)年度科学研究補助金基盤研究B.
- 宮脇弘幸(1993) 「在日朝鮮学校子女の言語生態・民族意識に関する調査」, 『人文社会科学論叢』 2, 宮城学院女子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所.
- Ryang, Sonia (2002) 'Diaspora and Beyond: There is No Home for Koreans in Japan,' *Review of Korean Studies* 4(no.2), 55-56.
- Maher, John C. & Yumiko Kawanishi (1993) 'On being there: Korean in Japan,' *Multilingual Japan Multilingual Matters*.
- Weinreich, U (1953) *Languages in Contact*, The Hague: Mouton.

〈자료 1〉 초급부, 중급부 과목별 수업시간 수

初中級部の科目別授業時数

(2005年度現在)

	初級部						中級部			授業 時数 合計	%
	1	2	3	4	5	6	1	2	3		
国語	9	8	7	7	6	6	5	5	6	2056	24.1
	306	280	245	245	210	210	175	175	210		
日本語	4	4	4	4	4	4	4	4	4	1256	14.7
	136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英語	-	-	-	-	-	-	4	4	4	420	4.9
	-	-	-	-	-	-	140	140	140		
社会	-	-	1	2	2	2	2	2	2	455	9.4
	-	-	35	70	70	70	70	70	70		
歴史	-	-	-	-	2	2	2	2	2	350	
地理	-	-	-	-	70	70	70	70	70		
算数	4	5	5	5	5	5	4	4	4	1431	16.7
	136	175	175	175	175	175	140	140	140		
理科	-	-	3	3	3	3	4	4	3	805	9.4
	-	-	105	105	105	105	140	140	105		
音楽	4	4	4	4	4	4	2	2	2	1046	20.8
	136	140	140	140	140	140	70	70	70		
体育	2	2	2	2	2	2	3	3	3	733	
家庭・情報	68	70	70	70	70	70	105	105	105		
総授業時間	5402						3150			8552	100.0
科目数	6	6	8	8	9	9	11	11	12		
週当時数	2.3	2.3	2.6	2.7	2.8	2.8	3.0	3.0	3.0		
授業週数	3.4	3.5	3.5	3.5	3.5	3.5	3.5	3.5	3.5		

注① 上段-1週間の授業時数、下段-1年間の授業時数

注② %-科目授業総回数の中での科目の比率

(자료 2) 조선학교 학생들의 민족어 능력의식 (宮脇弘幸1993)

(A) 말하기

sample数469

	언어	초급(%)	중급(%)	고급(%)	대학(%)	전체(%)
이주 잘한다	조선어	43(71.7)	62(59.0)	51(53.1)	148(71.2)	304(64.8)
	일본어	50(83.3)	78(74.3)	60(62.5)	159(76.4)	347(74.0)
잘한다	조선어	16(26.7)	42(40.0)	39(40.6)	52(25.0)	149(31.8)
	일본어	10(16.7)	26(24.8)	35(36.5)	46(22.1)	117(24.9)
거의 못한다	조선어	1(1.7)	1(1.0)	6(6.3)	6(2.9)	14(3.0)
	일본어	0(0.0)	1(1.0)	1(1.0)	1(0.5)	3(0.6)
전혀 못한다	조선어	0(0.0)	0(0.0)	0(0.0)	0(0.0)	0(0.0)
	일본어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2(1.0)	2(0.4)

(B) 듣기

	언어	초급(%)	중급(%)	고급(%)	대학(%)	전체(%)
이주 잘한다	조선어	47(78.3)	61(58.1)	50(52.1)	149(71.6)	307(65.5)
	일본어	48(80.0)	80(76.2)	69(71.9)	171(82.2)	368(78.5)
잘한다	조선어	11(18.3)	38(36.2)	42(43.8)	49(23.6)	140(29.9)
	일본어	11(18.3)	24(22.9)	27(28.1)	35(16.8)	97(20.7)
거의 못한다	조선어	2(3.3)	6(5.7)	4(4.2)	8(3.8)	20(4.3)
	일본어	1(1.7)	1(1.0)	0(0.0)	0(0.0)	2(0.4)
전혀 못한다	조선어	0(0.0)	0(0.0)	0(0.0)	0(0.0)	0(0.0)
	일본어	0(0.0)	0(0.0)	0(0.0)	0(0.0)	0(0.0)
무응답		0(0.0)	0(0.0)	0(0.0)	2(1.0)	2(0.4)

(C) 읽기

	언어	초급(%)	중급(%)	고급(%)	대학(%)	전체(%)
이주 잘한다	조선어	42(70.0)	74(70.5)	65(65.7)	165(79.3)	346(73.8)
	일본어	38(63.3)	65(61.9)	61(63.5)	149(71.6)	313(66.7)
잘한다	조선어	13(21.7)	30(28.6)	28(29.2)	38(18.3)	109(23.2)
	일본어	19(31.7)	34(32.4)	31(32.3)	56(26.9)	140(29.9)
거의 못한다	조선어	4(6.7)	1(1.0)	3(3.1)	3(1.4)	11(2.3)
	일본어	3(5.0)	5(4.8)	4(4.2)	1(0.5)	13(2.8)
전혀 못한다	조선어	0(0.0)	0(0.0)	0(0.0)	0(0.0)	0(0.0)
	일본어	0(0.0)	1(1.0)	0(0.0)	0(0.0)	1(0.2)
무응답		0(0.0)	0(0.0)	0(0.0)	2(1.0)	2(0.4)

(D) 쓰기

	언어	초급(%)	중급(%)	고급(%)	대학(%)	전체(%)
이주 잘한다	조선어	43(71.7)	72(68.6)	59(61.5)	159(76.4)	333(71.0)
	일본어	30(50.0)	65(61.9)	55(57.3)	143(68.8)	293(62.5)
잘한다	조선어	12(20.0)	31(29.5)	33(34.4)	41(19.7)	117(24.9)

	일본어	24(40.0)	33(31.4)	38(39.6)	58(27.9)	153(32.6)
거의 못한다	조선어	3(5.0)	2(1.9)	4(4.2)	6(2.9)	15(3.2)
	일본어	6(10.0)	6(5.7)	3(3.1)	5(2.4)	20(4.3)
전혀 못한다	조선어	2(3.3)	0(0.0)	0(0.0)	0(0.0)	2(0.4)
	일본어	0(0.0)	1(1.0)	0(0.0)	0(0.0)	1(0.2)
무응답		0(0.0)	0(0.0)	0(0.0)	2(1.0)	2(0.4)

한국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의 특성

-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가치와 태도를 중심으로

최 옥 채

전북대학교

1. 서론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실천에서 얻은 경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모델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이들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강화하였을 때 실천 가능한 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이 전적으로 서구, 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을 만회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현장 경험을 강조할 때 이 경험은 이들이 적용해왔던 이론과 모델과 기술의 측면, 이들이 견지해왔던 가치와 태도 측면, 이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영향을 미쳤던 환경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이론과 모델 및 기술이 뒷

받침하고,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사회복지사의 가치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사회복지사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는 질적 연구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이고, 이의 세부 연구주제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에 임하는 중에 중시한 가치와 태도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는 가치, 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질적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1. 자료 수집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 방법과 자료 수집의 주요 대상이었던 연구 참여자와 자료 수집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방법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개별사회사업(Casework),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가족치료(Family Therapy),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지역사회사업(Community Organization) 따위를 망라한 제반 활동을 5년 이상 경험한 사회복지사 5-8명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심층좌담(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하였다. 이때 가능하면 사회복지사의 출신학교, 활동분야, 지역을 달리하여

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표적 집단 심층좌담을 활용한 것은 이 방법이 집중된 대화를 유도하고, 초점이 맞추어진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김성재 외 2000:14).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집단에서 정제되어 나옴을 의미하며,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익하다.

실제로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전북 지역에서 각 1개 집단 총 5개 집단을 만들어 표적 집단 심층좌담(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하였다. 좌담회의 주제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시한 태도나 가치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로는 5개 집단에 총 2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이들 집단의 구성은 연구 참여자의 근무 지역, 근무 기간, 활동 영역, 출신학교 따위를 고려하여 5-7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근무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전북, 부산에서 1개 집단씩 구성했으며, 근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활동 영역과 출신학교가 고루 분포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각 집단 구성은 연구자가 1명이나 2명을 선정하여 이들과 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합당한 연구 참여자를 물색한 후 이들과 합의하여 집단심층좌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출신 대학은 학부를 졸업하고 타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분포는 13:12로 남자 사회복지사가 1명 더 많았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8세이고, 평균 근무 기간은 약 11년으로 나타났다. 단 참여자 1명의 근무 기간이 1년이었는데 최근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시설 평가단의 요원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 참여자의 실천 분야는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장애인, 정신보건, 지역사회,

노인, 학교 따위로 다양하다. 한편 이들의 현 직장은 사회복지기관, 대학, 법
인, 연구원, 동사무소, 대학원 재학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기관장으로 근무하
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5명이었다. 마지막 집단에서는 5명을 1명이 갑작스런
이유로 불참하여 4명으로 진행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사항

집단/번호	성	나이	실천 경력	실천 분야	현 직장
1/1	남	39	14년	노인	노인복지센터
1/2	여	55	12년	지역사회, 자원봉사	대학교
1/3	여	37	8년 9월	정신보건, 노인의료	연구원
1/4	남	38	11년 2월	정신보건, 직업재활	정신병원
1/5	여	36	4년 9월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1/6	여	32	7년	노인의료	노인병원
2/1	여	30	6년 9월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2/2	여	33	9년 4월	재가노인	사회복지관
2/3	남	38	11년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2/4	여	41	11년 6월	정신보건	대학교
2/5	남	48	10년 6월	장애인	대학교
3/1	여	42	17년	정신보건	보건복지센터
3/2	남	35	7년	부랑인, 노인	노인복지관
3/3	여	31	7년	아동보육	어린이집
3/4	여	31	9년	학교,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3/5	남	33	9년	청소년, 가족치료	청소년지원센터
4/1	남	45	18년	지역사회, 개업	개인사무실
4/2	남	46	19년	노인	노인복지관
4/3	여	31	6년	장애인	대학원 재학
4/4	여	35	8년	청소년	사회복지법인
4/5	남	32	1년	노인, 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평가단
5/1	남	40	15년	정신보건	지역정신건강센터
5/2	남	42	21년	지역사회, 재활	자활후견기관
5/3	남	41	15년 9월	공공부조	동사무소
5/4	남	43	15년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3) 자료 수집 일정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한 표적 집단 심층좌담의 구체적인 전체 일정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6명으로 구성된 경기 지역의 집단을 2006년

9월 11일에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과 전북과 서울 지역을 거쳐 4명이 참여한 대전 지역에서 2007년 1월 6일에 마쳤다. 결국 집단심층좌담을 통한 자료 수집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매 좌담은 1시간 20분에서 2시간이 걸렸다. 물론 연구자는 이들 좌담 내용을 녹음하여 직접 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표 2〉 자료 수집 일정

집단	인원	지역	일시	장소
1	6	경기	2006년 9월 11일 18:00 - 20:00	○○노인복지센터 상담실
2	5	부산	2006년 9월 21일 17:00 - 18:40	○○대 실습실
3	5	전북	2006년 10월 31일 17:00 - 18:45	○○대 연구실
4	5	서울	2006년 11월 24일 16:00 - 17:20	○○대 세미나실
5	4	대전	2007년 1월 6일 10:20 - 11:40	○○자활후견기관 관장실

2.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사회복지사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참여한 표적 집단 심층좌담에서 얻은 자료를 플라이찌(Paul Francis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플라이찌의 현상학적 방법은 후설(Edmund Husserl)이 “우리는 사물 자체로 돌아가려한다”고 강조하는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며, 사물 자체란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인식한 대상을 일컬으며, 사물 자체로 돌아가려면 직관적으로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포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남상희 2002:3-4 재정리). 이런 맥락에서 플라이찌의 현상학적 방법은 개인의 경험적 인식을 설명하려고 할 때 유용하다.

예컨대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의 심층좌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

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 같은 자료 분석은 구체적인 진술과 주제의 분석 및 모든 가능한 의미들의 탐색을 통해 진행하였다(Creswell 2005:76). 요컨대 사회복지실천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의 표적 집단 심층좌담에서 얻은 자료는 폴라이찌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Crotty 2001)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실천을 통해 경험한 내용 중 가치와 태도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읽는다.

둘째, 읽은 내용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잡아낸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여 이들을 주제별로 묶는다.

넷째, 주제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현상을 철저히 기술한다.

다섯째, 선행 단계에서 확인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중 공통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인 구조를 진술한다.

3. 문헌 고찰

3.1. 사회복지사의 가치

가치(價値)는 일반적으로 값이나 값어치를 뜻한다. 철학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 주체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의(意義)나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목표로 간주하는 객관적 당위를 뜻하며, 경제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의 중요 정도를 일컫는다(동서문화 1999). 한편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인정해왔고, 임상적 실천에서 핵심 가치로 클라이언트의 권익보호와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왔다(황성철 1996:218). 이와 같은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가 윤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사가 고수하거나 실현하려는 가치

는 그의 직무만족과도 관련한다고 보아 마땅하다.

전문직의 가장 큰 특징이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고(이인재 1995:211), 전문성을 띠는 것은 고도의 이론과 높은 가치를 함유한 지식을 기초로 합법적 자율성과 권위를 지닌다(김미원 1997:186)는 맥락에서 사회복지노동의 윤리성은 전통적으로 자기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봉사 정신이 갖는 윤리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한 연구(김연옥·오정수·최해경 1997)에서도 교소집단이나 실무자집단이 공통으로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교과목에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요컨대 사회복지사의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상응하겠으나 때로는 양자 간 충돌도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나 기관은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를 앞세워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묵살할 수도 있다.

3.2. 사회복지사의 태도

태도(態度)는 개인이나 대상을 둘러싼 환경의 일부분에 관련하여 개인의 성격 안에 형성되어 있는 행동이나 반응의 준비 상태를 일컫는다. 특히 심리학적으로 태도는 경험을 통해 조직화된 정신적·신경적인 준비 상태로 여러 개인이 관계하는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반응하려는 경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된다(동서문화 1999). 이런 맥락에서 태도를 사회적 가치에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와 태도를 분리하기보다는 함께 겹쳐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타 전문직들 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구체적인 내용은 부탁 정도, 협력 정도, 계획 수립 여부 따위를 들었다(박경숙 1996:70).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관점(황성철 1998:241)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려는 가치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3.3. 사회복지사의 가치 및 태도 관련 선행연구

사회복지사의 가치나 태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일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사회복지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논문 중 사회복지사의 가치나 태도를 부분적으로 다루었거나 연구자들이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는 논문이 몇 편 있었다. 예컨대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조사(이혜원 1999),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기법으로서 복지 QC 활동에 관한 연구(박경일 2000), 사회복지실천의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엄명용 200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프로그램 질적 평가 연구(최종혁 2001),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조사연구(이태영 2002), 사회복지기관의 욕구조사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서인해·공계순 200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 연구(김인숙·유영준 2004),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강홍구 2006), 사회복지실천에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박봉길·전선영 2006) 따위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노인예의 사회복지사의 태도,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세, 사회복지기관이 지니는 가치 체계,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자기훈련과 전문직 아이덴티티 강화, 사회행동에의 적절한 수준의 사회복지사 태도, 욕구조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따위를 강조하였다. 결국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사의 가치나 태도를 전체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거나 강조할 수 있는 가치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언급하였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천과정에서 가족가치에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예측했거나(김인숙·유영준 2004),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 기법 외에 관점이나 정체성, 필요성 따위를 강조했다거나(강홍구 2006), 역량강화 하위요소 가운데 문적 활동과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간 관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박봉길·전선영 2006)고 함으로써 가치와 태도를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경험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결과

자료 분석은 5개 집단에서 진술된 전체 내용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 후, 이들 진술 자료를 1차로 정제한 후,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관한 경험을 범주화한 것에 근거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들 주제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의 대표적인 의미 있는 진술과 함께 명확한 의미를 찾아 기술하고, 전체 주제를 통합하여 진술하였다.

4.1. 재진술과 주제 모음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태도에 관한 경험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처우의 열악함에 의한 자질 저하’를 비롯하여 총 62개 재진술을 이끌어냈고, 이들 재진술은 ‘낮은 자존감’을 포함하여 총 12개 주제로 묶었다.

〈표 3〉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태도 관련 경험에 관한 재진술과 주제 모음

재진술	소주제
처우의 열악함에 의한 자질 저하 ③ 낮은 수준의 급여로 자존감이 낮아짐 ① 낮은 자존감 ② 업무 과중으로 가치 실현이 어려움 ①	낮은 자존감
대외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함 ①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중간관리자 ③	인간관계가 중요함

<p>사회복지사의 가치보다 기관의 가치가 우선함 ① 사회복지사 가치와 기관 가치가 같음 ①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기관장의 가치가 상충함 ①</p>	<p>기관의 가치가 우선함</p>
<p>배운 가치와 경험에서 얻은 신념이 다름 ① 직장가 가정 사이에서의 딜레마 ③ 대외 관계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 ③ 인맥 활용에 따른 딜레마 ④</p>	<p>딜레마</p>
<p>사회복지사의 단일한 태도 ① 배운 대로 가치 실현이 안 됨 ① 스스로 역할을 찾는 노력이 부족함 ① 서비스 정신이 빈약함 ① 슈퍼비전 타입은 나중에 드러남 ② 무능한 동료의 문제가 불거짐 ③ 무분별한 인맥 활용 ④ 시간이 지나 승진할수록 현장의 실상을 잊어감 ⑤</p>	<p>단일함</p>
<p>정부에 대항하는 사회복지사의 세대 간 차이 ①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성향의 다양함 ② 사회복지사들 간 세대차 ② 근무 경력에 따른 서로 다른 생각 ③ 가치관에 따라 방안을 달리 이해함 ④ 현장에 따라 경험이 다름 ⑤</p>	<p>다양한 성향</p>
<p>클라이언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균림함 ①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형편 ① 상담에서 지시적 대응이 필요함 ③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분별한 평가 ④ 클라이언트에게 지시적임 ⑤ 클라이언트와 맞서 싸움 ⑤ 클라이언트를 강하게 지도해야 함 ⑤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우선함 ⑤ 클라이언트의 태도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판단함 ① 클라이언트 변화를 조금하게 기대함 ③</p>	<p>클라이언트에게 균림함</p>
<p>일상적인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함 ① 타 전문직과 협력하는 것이 어려움 ④ 사회복지사들 간 역량의 차이로 협력이 안 됨 ① 타 전문직과의 이기적 관계 ④ 관련 기관을 인정하는 노력이 부족함 ⑤ 공유하는 데 인색함 ⑤ 협조가 어려움 ⑤</p>	<p>협력을 잘 못함</p>
<p>정체성에 관한 고민 ④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함 ④ 사회복지 성향이 내재화되어 있음 ⑤</p>	<p>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p>

사회복지사의 수용적인 태도 ④ 상대를 위한 배려 ④ 타 전문직에 비해 뚜렷이 다름 ④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데 중점을 둠 ④ 클라이언트 변화로 만족함 ④ 클라이언트에 비해 자신에 관한 이해가 부족함 ④ 박봉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생각함 ④	이타심
실천 정신이 중요함 ⑤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함 ③ 실무자의 활동 동기화에 중점을 둠 ④ 사회복지사의 진실함이 중요함 ③ 강한 도전 의식이 필요함 ④	원리를 강조함
경륜이 많아지면서 유연함이 향상됨 ③ 활동하면서 가치관을 정립함 ④ 경험에 의해 가치가 형성됨 ①	경륜에 의해 발전함

○ 안의 숫자는 집단을 의미함.

4.2. 주제 풀기

(1) 낮은 자존감

사회복지사는 무엇보다도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낮은 자존감은 열악한 처우에 기인하며, 이는 낮은 급여 수준, 과도한 업무 따위로 구체화되고 있다.

저는 어디 가서 연봉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처우와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 (집단 1)

(2) 인간관계가 중요함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견지해야 할 태도보다 인간관계가 앞서고 있다. 이 인간관계는 기관 외부에서만뿐만 아니라 기관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있는 기관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위치가 정말 가슴 아픈 자리, 위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중간에 딱 끼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거나 만나고 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조정해준다거나 기관의 비전하고,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가져온 것을 매칭시키는 작업들……. (집단 3)

(3) 기관의 가치가 우선함

사회복지사의 가치는 기관이나 기관장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고, 나아가 기관이나 기관장의 가치가 우선하고 있다.

교회나 성당 집단에서 보면 성당이 기관을 세워서 서비스를 하는 가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아,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 분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해서 향상이 목적인데 기관에서는 다른 게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치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집단 1)

(4)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가치와 관련하여 딜레마에 빠진다. 예컨대 학교에서 배운 가치와 경험에서 얻은 신념이 달라지고, 기관의 대외 관계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다.

전혀 공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정말 윤리의식을 가지고 할 때 굉장한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내일 안 보고, 평생 안 볼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큰 도움을 얻고, 계속 같이 가야 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아주 자그만 한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식과 윤리적인 부분에 굉장한 그런 가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 (집단 4)

(5) 안일함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배운 대로 가치 실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안일한 태도에도 달려있다. 사회복지사의 안일함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정신이 약하고, 무분별한 인맥을 활용함으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도 정말 사회복지사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 가서 그야말로 막노동꾼처럼 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사회복지사가 그런 막노동꾼 같은 서비스를 주는 것만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는가. 그 외에 사회복지사가 자기의 역할을 찾고,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집단 1)

(6) 다양한 성향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때로는 협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성향이 반드시 기관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져 활동하고 있음도 드러나고 있다.

1-2년차도 한번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5년차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우리는 조정의 역할, 코치하는, 원장님이시고, 그런 거 때문에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2년 된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한 얘기를 들으면, 아유, 또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집단 3)

(7) 클라이언트에게 군림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사는 기관에서 클라이언트를 무분별하게 평가하거나 지시적이거나 변화를 조급하게 기대함으로써 군림하였다.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더 비전 제시 쪽으로 가서 적절히 절충하고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가로서의 그런 비전 제시가 사실은 욕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집단 5)

(8) 협력을 잘 못함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의 동료나 선후배를 포함하여 타 전문직의 실무자와 협력을 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대가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사회복지사의 역량의 차이나 상대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서로 어떻게 하면 내 밥그릇을 뺏기지 않을까요 좀더 혈안이 되어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또 주변으로 확 몰려 있는 느낌……. (집단 4)

(9)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사는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민하거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독특한 성향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정체성을 찾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우는 공부가 다르고, 내가 이걸 접목시키려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그럼 과연 내 정체성은 뭐냐,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여기서도 사회복지사라기보다는 상담자인 거예요. (집단 4)

(10) 이타심

사회복지사는 수용적인 태도를 비롯하여 이타심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타 전문직의 실무자들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사회복지사의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 의해 인정되기도 한다.

여성시대를 들었나 봐요. 제가 어떤 아주머니가 글을 투고를 해서 읽는 거였어요. 얘기는 자기가 사회복지사가 도와준 것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그렇게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지도 몰랐다, 너무나 고마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박봉에 일을 하고 있더라, 사회복지사들에게 좀더 복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집단 4)

(11) 원리를 강조함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실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주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하는 목적이 정신이 어디에 근간을 두고서 진짜 일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끝까지 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기 소신이나 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죠. (집단 5)

(12) 경륜에 의해 발전함

사회복지사는 근무의 경력이 많아지면서 유연함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정립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무도 하지만 기관의 입장도 생각하지만 또 우리 환자, 회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삶에 맞는 인간적인 삶의 어떤 천거에 맞는 기준일까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이 많이 있겠구나……하다보니까 아, 우리 학교 때 배웠던 이론이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접목시켜나가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집단 1)

4.3. 통합진술

사회복지사가 실천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의 가치나 태도는 낮은 자존감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기관의 안팎에서 기술보

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자신보다는 기관의 가치가 앞선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지녀야 할 가치나 태도를 몸에 배고 있어 은연중에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서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성향을 지니면서 때로는 클라이언트에게 군림하기도 하고, 동료나 타 전문직과도 협력을 잘 못하는 한계도 드러낸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일상적인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하거나 동료간 역량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전문직의 종사자임을 고민하고, 나아가 꾸준한 노력과 이타심을 발휘하면서 근무하는 중에 점차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간다.

요컨대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는 부족한 상태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가치관을 서서히 발전시킨다.

5. 결론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하기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하는 데 반영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 전문성을 띤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하고, 이에 기관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낮은 자존감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기관이나 정부가 맡아야 할 부분도 있다. 예컨대 지나치게 기관의 가치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

지사의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 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상황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클라이언트의 자율권을 강조함으로써 방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이런 점을 고려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실천 원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고, 인내하며 경험을 쌓아가면서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발전해 갈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런 이유로 한 사회복지사가 특정 영역에서 충분한 기간을 근무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 강홍구(2006)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권 2호.
- 김미원(1997) 「사회사업실천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제언: 사회사업실천의 임상중심경향과 전문화지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31.
- 김성재 외(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연옥·오정수·최해경(1997) 「사회복지 학사과정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2.
- 김인숙·유영준(2004)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권 1호.
- 남상희(2002) 『空間과 時間을 통해 본 도시와 生涯史 研究』, 서울: 한울아카데미.
- 동서문화(1999) 『PASCAL 세계대백과사전』.

- 박경숙(1996)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소, 복지관의 서비스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사회복지학』 30.
- 박경일(2000)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기법으로서 복지 QC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0.
- 박봉길·전선영(2006) 「사회복지실천에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권 4호.
- 서인해·공계순(2002) 「사회복지기관의 욕구조사결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 엄명용(2001) 「사회복지실천의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숨은 규칙(implicit rules)’ 찾기」, 『한국사회복지학』 46.
- 이인재(1995)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6.
- 이태영(2002)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 이혜원(1999)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9.
- 최종혁(200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프로그램 질적 평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 황성철(1996) 「사회사업가의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9.
- _____(1998)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의 발전」, 『한국사회복지학』 34.
- Creswell, John W. (2005) 『質的 研究方法論』,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共譯), 서울: 學志社.
- Crotty, Michael (2001) 『현상학적 연구』, 신경림·공병혜(역), 서울: 현문사.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s in South Korea

Hong, Jun-Sung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 Introduction

Domestic violence is “one of the most pervasive and least recognized human rights abuse in the world” (Stewart & Robinson 1998). Several studies have confirmed the high rates of domestic violence in virtually every part of the world (Stewart & Robinson), including South Korea. Recognizing the high prevalence rate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many women’s organizations brought the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to the fore, which later set the precedence for the enactment of domestic violence laws, such as the Special Law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the Punitive Measures for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in 1998. In conjunction with these legislatures, counseling centers,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As of 2000, there are 282 marit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nationwide (Kim 2003).

The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call for evidence-based intervention for both the victims and the perpetrators, and many researchers have examined the problems of family violence in South Korea, as well as interventions for victims and perpetrators. Unfortunately, systematic studies on the efficacy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in South Korea are few and far between.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 current interventions for victims and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e.g., feminist-based) and the feasibility of these interventions in South Korea ; and sugges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 for battered women in South Korea.

2. Prevalence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A national survey, which consisted of 1,523 stratified random samples of married couples in South Korea, indicated that about three out of ten couples have experienced minor forms of physical violence (e.g., slapping, pushing) at least once (Doe 2000). In 1983, among 708 women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 “Have you experienced beating by your husband after marriage?” Shim (1983) stated that 14% responded “yes” (Shim 1983 ; cited in Kim 2003). Kim et al. (1992) found that among 1,171 random samples of households surveyed in 1992, the average number of violence experienced by 71.9% of married woman in her lifetime is 13 times, and 68.9% were abused on the average of 10.4 times (Kim et al. 1992 ; cited in Kim 2003).

According to Kim (1998), intimate-partner violence rate among South

Korean families was estimated to be 31.4% as of 1998. Among 1,279 married couples, wife battering was 27.9%, while violence against husbands was 15.2% and mutual violence was estimated at 12.3% (Kim 1998 ; cited in Kim 2003). A study by Yeon (2002) found that out of 256 random samples surveyed in 2000, 38.2% (n=98) responded affirmatively to verbal abuse ; 10.1% had experienced being slapped or pushed ; and 0.3% had been beaten with a fist or an object (Yeon 2002 ; cited in Kim 2003). A survey conducted by Kim et al. (2000) found that among married couples between the ages of fifteen to sixty-four, about 30.0% had experienced marital violence during the previous year (Kim et al. 1998 ; cited in Kim 2003).

These cases appear to be a small part of a whole because the majority of domestic violence cases in South Korea are kept hidden (Kim & Emery 2003 ; cited in Hong, n.d.). In addition, spousal abuse has been identified as a major health concern, and several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at many battered women reported psychosomatic ailments, such as: depression, fatigue, low self-esteem, confusion, and anxiety. Depression, in particular, has been identified as a major risk factor for marital violence victims (Kim & Kim 2001).

3. Feminist-Based Intervention for Victims of Violence

3.1. Background of Feminist-Based Intervention

Feminist and empowerment-based interventions are two types of

intervention which have been used in Korea in recent years (Hong). These interventions have been used widely for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for marital violence in Western societies. Several researchers in the U.S. asserted that the feminist-based intervention, in particular, is highly effective in working with victims of marital violence (Hattendorf & Tollerud 1997 ; McCloskey & Fraser 1997 ; Rinfret-Raynor & Cantin 1997 ; Schlee et al. 1998 ; Worell 2001), as it focuses on systemic sources of oppression and male dominance (Sharma 2001). For the past 30 years, the feminist-based approach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research and intervention, which raises the issues affecting the lives of contemporary women (Worell & Johnson 1997 ; cited in Worell 2001). This approach was developed from mounting dissatisfaction with the traditional approaches to women's mental health and the absence of women in psychological research and practice (Worell).

Feminist-based interventions focuses primarily on building women's empowerment and self-esteem while improving coping and problem solving skills which facilitate women's decision to leave their abusive partner. Feminist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reject the individual and intra-psychic pathology, which overlooks structural factors that contributes to women's distress (Worell). Instead, they emphasize the complexit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women's lives and promote women's health, safety, positive lifespan, strength, and resilience (Worell).

Hattendorf and Tollerud (1997) argued that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arital violence victims should focus on counseling with empowerment as the primary goal. They endorsed feminist counseling, which offer the best approach for avoiding secondary victimization, which often occurs

when service providers at battered women's shelter and counseling centers unintentionally "blame the victim" instead of offering support. Saunders (1994) also argued that the severity of violence and learned helplessness are likely to decline among women in support groups and interventions with feminist-based empowerment focus. Worell offered a sound model for implementing and assessing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focus on both the outcome of unsupportive or negative environments and the importance of strength and empowerment-based approach for women,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The efficacy of feminist-based intervention calls for greater joint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feminist-based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 a move beyond pathology-based focused research to those that include personal competence, empowerment, and resilience ; and continued exploration with creative research that is consistent with feminist goals (Worell).

3.2. Limitations to Feminist-Based Intervention

Despite the efficacy, several researchers have also criticized the impediments of feminist-based interventions, including the primary assumption that women are always the victims of abuse and men are always accountable for the violence (Gelles & Maynard 1987). Schlee et al. (1998) noted that while feminist-based psychotherapy has been found to have favorable outcomes, factors, such as severity of abuse or a woman's decision to stay in the relationship,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feminist model for treatment. They argue that feminist-based empowerment-focused intervention does not effectively train women to

deal with abusive interaction with their partner. Sharma (2001) also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feminist therapy, which fails to acknowledge the diversity among immigrant and racial minority women victimized by their intimate-partners.

There is also a tendency to over-generalize data gathered from the experiences of European American women, which fails to comprehend the reality of racial/ethnic minority women. Feminist therapist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emphasis on gender as a significant socio-cultural factor while neglecting to incorporate cultural variability among women they claim to represent (Espin 1994 ; cited in Sharma). Moreover, most therapists have received training, which is typically derived from traditional theorie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pathology based on specifically the life conditions of middle-class, European American, heterosexual male population (Espin).

4.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s in South Korea

Many therapists and domestic violence counselors in South Korea have emphasized the need for both empowerment and therapy in order for the victims to recover, in order to lead productive lives. The empowerment-oriented program in South Korea was developed by Shin (1999) in 1998, which consists of social support, strengths assessment, reducing self-blame, teaching of realistic skills, and resource-pursuing activities. Shin's empowerment-oriented program includes ten sessions and emphasis on feminist approach to education and training instead of healing of mental

distress and trauma (Kim & Kim 2001). The goal of the empowerment-based program is to assist battered women in reducing anxiety and depression and to raise their self-esteem. The empowerment-oriented program has reported to be effective with fourteen participants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Kim and Kim did not indicate whether the program has long-term successful outcome after the treatment, as there has not been any mentioning of a follow-up study (Hong n.d.).

The applicability of the empowerment-based intervention for battered women in South Korea is in question (Hong). Such programs overlook the problems many battered South Korean women face, such as difficulties in terminating the relationship due to financial barriers (Hong). About 90% of victims in South Korea who sought after assistance feel as if they have no other choice but to return to their home – much higher than for battered women in America, which is estimated at 46% (Hong, n.d. ; cited in Kong, 1997). This is a major challenge for many South Korean women with children, as well as those with low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ttle/no marketable skills (Hong). For women with little or no job skills, they have depended on their husband financially, and for women with children, little opportunities for earning through employment poses a major obstacle to self-sufficiency (Shim et al. 1999). Thus, they remain married to their abusive spouse and endure further abuse (Hong).

Additionally, many battered women in South Korea tend to under-use health services, clinical setting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in comparison to women in America (Kim & Kim). To make matters worse, most employees and staff members in South Korean shelters have limited

knowledge and expertise in treatment plans for victims (Kim & Kim) mainly due to lack of educational and clinical training.

5. Group-Based Intervention for Batterers

Interventions that have been found to reduce the imp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e those that specifically target batterers. A majority consist of intervention for men with difficulty managing anger. Although the length and duration of group sessions vary, most group psychotherapy for men integrate group interaction and sharing among participants, written assignments, and psycho-educational presentation. Men learn strategies for raising self-esteem and overcoming shame and anger ; how to express their feelings respectfully ; how to change their controlling attitudes ; how to garner support from others ; how to acquire skills in stress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The Duluth Model, for example, is the most widely used program, which includes role plays and instruction for addressing the issue of control (Hage 2000).

Smith et al. (2004) found that among forty-two couple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individual couple or multi-couple treatment, the rate of recidivism among abusers was significantly lower for the multi-couple group (25%) than for the comparison group (66%). Their findings starkly contrast with those by Hattendorf and Tollerud (1997), who strongly advocated individual counseling rather than marital and group counseling. Interestingly, DeHart (1999) noted that studies on the efficacy of batterer treatment programs, which primarily consist of group-based treatments, have overlooked the rate of attrition among those who enter

the treatment program.

In addition, batterers who enter the treatment are self-referred, court-referred or referred by their partner, family or acquaintance (e.g., friend). Attrition rates tend to be much lower for men who choose to enter a battering treatment program as opposed to those who are mandated by courts, although the majority of perpetrators entering a treatment program are mandated by the court. One study also showed that about 70-88% of men who completed the group sessions do not recidivate, which attests to the successful outcome of treatment for batterers. A study in U.K. compared a group of abusive men sentenced to probation with a condition to attend at a pro-feminist, cognitive-behavioral violence program with groups of men who received criminal justice sanctions (e.g., prison terms, probation, and fines). The study found that men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ere more successful in reducing their abusive behavior than their counterparts. Men who completed the program were less likely to be violent or had fewer incidents of violence than prior to the treatment (Scourfield & Dobash 1999).

However, over 90% of men who enter the treatment fail to complete the required sessions (DeHart et al. 1999). DeHart et al. found that about 93% of men who inquire about the treatment never actually attend the group counseling sessions. The study also found that men who had to travel greater distance to sessions and those whose attendance was monitored were most likely to continue in the program (DeHart et al.). Hage (2000) also argued that despite the potential efficacy of programs for men who batter, there is a lack of evidence-based research to support this claim. Burton et al. (1998) conducted a study which evaluated the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London, which primarily focused on services for victims and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hey evaluated a program, which consisted of 174 male perpetrators and found that 57 percent failed to complete the program and only 31 men participated in the final stage of the evaluation, which represented those who completed the second stage of the program. Twenty-seven percent of the partners of men who completed the first stage of the program reported that the man was non-violent, while the remaining reported that violence had reduced slightly (25%) or significantly (53%) (Burton et al., 1998 ; cited in Bowen et al. 2002).

Recognizing the need for batterers' intervention, several batterers' programs have been included in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in recent years (Hong). However, in contrast to the research on programs conducted in Western countries, little is known about the batterers' intervention programs in South Korea. To my knowledge, research on batterers' intervention program in South Korea is scant, and many program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evaluated.

6. Recommendations

A systematic evaluation of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perpetrators in South Korea is crucial. Researchers must als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fficacy of batterers' intervention in South Korea. Moreover, the feminist-based and empowerment approach in group psychotherapy has relied on data gathered on European American women while overlooking the reality of non-White women. In her examination of Latina victims of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Perilla (1999) argued that as while domestic violence is a human rights issue, the historical, philosophical, cultural, social, spiritual, and political realities of Latino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must also be considered. In South Korea, shame and stigma pose a major barrier for many battered women in South Korea. For many women, disclosing private (family) matters to the public and seeking intervention lead to feeling of guilt wrought by *chemyon* (loss of face) to her and her family. In addition, negative outcomes, such as loss of financial security and feeling of guilt, are problems that must be addressed.

In conjunction with cultural consideration, counseling staff and group leaders with education and experience in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 is needed. However, lack of qualification and experiences of the service providers in domestic violence centers continues to pose a major barrier to providing effective group counseling and treatment plan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ich has been attributed to limited government funding. In 2001, only 46 out of 141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received government subsidies (Kim 2002). Thus, greater investment and systematic research on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s are necessary for reducing the incidence of violence against women, as well as assisting victims in rebuilding their lives.

References

- Bowen, E., Brown, L., & Gilchrist, E. (2002) 'Evaluating probation based offender programme for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A pro-feminist approach,' *The Howard Journal* 41,3, 221-236.

- Burton, S., Regan, L., & Kelly, L. (1998) *Supporting Women and Challenging Men: Lessons from the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Project*, Bristol: Policy Press, University of Bristol.
- DeHart, D.D., Kennerly, R.J., Burke, L.K., & Follingstad, D.R. (1999) 'Predictors of attrition in a treatment program for battering 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1, 19-34.
- Dobash, R.E., & Dobash, R.P. (1992) *Women, violence and social chan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Doe, S.S.J. (2000) 'Cultural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violence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3/4, 231-236.
- Gelles, R.J., & Maynard, P.E. (1987) 'A structural family systems approach to intervention in cases of family violence,' *Family Relations* 36, 270-275.
- Hage, S.M. (2000) 'The role of counseling psychology in preventing male violence against female intimat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8,6, 797-828.
- Hahm, H.C., & Guterman, N.B. (2001) 'The emerging problem of physical child abuse in South Korea,' *Child Maltreatment* 6,2, 169-179.
- Hattendorf, J., & Tollerud, T.R. (1997)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strategies that minimize the impact of secondary victimization,'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3-1.
- Hong, J.S. (under review)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on Marital Violence in Korea,' *Violence Against Women*.
- Kim, B.J. (2003) *Family Violence in South Korea: Reality and Domestic Intervention*, Seoul: Paeksan.
- Kim, J.Y., & Emery, C. (2003) 'Marital power, conflict, norm consensus, and marital violence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2, 197-219.
- Kim, S., & Kim, J. (2001) 'The effects of group intervention for battered women in Korea,'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5,6, 257-264.
- Kong, M.H. (1997) 'Rethinking women's status and liberation in Korea,' Retrieved March 20, 2007, from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APCITY/UNPAN005847.pdf>
- Lee, Y.B. (2005) 'Background and solution to intimate-partner violence,' *Korean Families in the 21st Century: Problems and Alternatives*, Seoul: Kyungmoon.
- McCloskey, K.A., & Fraser, J.S. (1997) 'Using feminist MRI brief therapy during initial contact with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Psychotherapy* 34, 433-446.

- Moon, S. (2002) 'Carving out space: Civil society and the women's movement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1,2, 473-500.
- Perilla, J.L. (1999) 'Domestic violence as a human rights issue: The case of immigrant Latino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1,2, 107-133.
- Rinfret-Raynor, M., & Cantin, S. (1997) 'Feminist therapy for battered women: An assessment,' in G.K. Kantor & J.L. Jasinski (ed.) *Out of darknes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 Thousand Oaks, CA: Sage, 219-234.
- Ryan, R.M. (1996) 'The sex right: A legal history of the marital rape exemption,' *Law and Social Inquiry*, 941-969.
- Saunders, D.G. (1994)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profiles of battered women: A comparison of survivors in two settings,' *Violence and Victims* 9, 17-28.
- Schlee, K.A., Heyman, R.E., & O'Leary, K.D. (1998) 'Group treatment for spouse abuse: Are women with PTSD appropriate participa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1-20.
- Scourfield, J.B., & Dobash, R.P. (1999) 'Programmes for violent men: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 *The Howard Journal* 38,2, 128-143.
- Sharma, A. (2001) 'Healing the wounds of domestic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7,12, 1405-1428.
- Shim, W.S., & Hwang, M.J. (2005) 'Implications of an arrest in domestic violence cases: Learning from Korean social workers' experiences in the U.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5, 313-328.
- Shim, Y.H., Monash, M., Hoffman, V., & Lee, Y.H. (1999) 'Wife abuse in South Korea: Based on focus group and explorative interviews,' in R. Muraskin (ed.) *Women and Justic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cy*, Amsterdam: Gordon and Breach Publications.
- Shim, Y.H. (2004) 'Victimization of wife-battering in Korea: Based on a survey of Seoul men and women,' *Sexual Violence and Feminism in Korea*, Seoul: Hanyang University Press, 177-192.
- Simons, R.L., Wu, C.I., Lin, K.H., Gordon, L., & Conger, R.D. (2000)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link between corporal punishment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8,1, 79.
- Stewart, D.E., & Robinson, G.E. (1998) 'A review of domestic violence and women's mental health,'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 83-89.
- Stith, S.M., Rosen, K.H., & McCollum, E.E. (2004) 'Trea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within intact couple relationships: Outcomes of multi-couple versus individual

- couple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3, 305-318.
- Worell, J. (2001) 'Feminist interventions: Accountability beyond symptom reduc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 335-343.

“I am a Kirogi mother”

Globalization, Familism, and English education
in Korean Immigrant women

Lee, Hak-Yo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 Introduction

There are various studies on immigrant women in the area of second language studies. More specifically, topics on immigrant women and language are widely explored and these show how women can be empowered through language practice (Lan 2003 ; McMahill 2001 ; Norton 2000). In this study, Korean immigrant mothers called *Kirogi* are investigated. The word *Kirogi* refers to wild goose/geese in Korean. This group of mothers can be distinguished from Korean immigrant women in the past in several points. First they are from newly formed Korean transnational family. Also, unlike transnational political-economic immigration such as colonial crucible in early ages or Christianity (Abelmann & Lie 1995), the main reason why *Kirogis* move to English speaking countries with their children is for English education. Relocated in nations such as United States this new group of immigrant women,

Kirogis, experience different gendered positions: mother as a head of a family, woman in America, and an English language learner. Thus, in this study, I will observe *Kirogi* mother's life stories.

2. Who are *Kirogis*?

As an extension of private English education, a new family form for studying abroad came out in the mid-90's, which is called *Kirogi family*. *Kirogi* families are considered Korean transnational and multinational households. Since *Kirogis* have habits moving to different places for living, and father geese feeding their family members, the term, *Kirogi family*, stands for a new form of Korean family whose father lives alone in Korea to support his family abroad economically and flies over the ocean seasonally to see his family. Mother and children live abroad for children's English education. The underlying qualification is that the mother should speak basic English, and father should make enough money to support them (Cho 2004).

To middle class or upper middle class people in Korea, *Kirogi* family is not a strange story happening to 'others' rather this is their own story. Thus, *Kirogi* stories in Korea are not exceptional stories applied only for higher class in Korea any more and now it is placed as one of the unavoidable social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Around 30,000 mothers have left Korea for their children's English education during the last five years. Also, *Donga Daily* (March 30, 2006) reports that 41% of Korean parents who ha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willing to emigrate for children's education if possible, and 20% of them are willing to be *Kirogi* fathers.

In this paper, I will follow Cho's (2004) definition of *Kirogi family*. He explains that *Kirogi* families are the people from upper middle class and are "eager to give better chance to their children at the cost of their conjugal relationship in the flexible globalizing society" (p.343). They show strong flexibility and desire for upward social mobility which is the major mechanism in Korean family. Therefore, I want to borrow the terms of 'flexible citizenship' by Wong (1999), and 'strategic family' system by Cho (2004) and then, characterize *Kirogi* family as global spilt family that has very strong flexibility and has been formed under well-prepared plan. Thus, this form of family has a new born global strategy of social mobility through education.

3. Discription of the research

3.1.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I investigate how living and learning English abroad can result in Korean *Kirogi* mothers' symbolic capital in the globalizing world, to what extent does Korean mothers' desire for English under globalization affect their decision of children's education and to what extent this is influenced by familism.

Being *Kirogi* family or *Kirogi* mother is not only related to English education itself, but also it has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 From the interview with *Kirogi* mothers, two historical and cultural discourses which are globalization and familism in South Korea emerge and these will be discuss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lso, how these

two discourses are inherent to *Kirogi* mothers' life stories will be examined.

3.2. Methodology

I interviewed two *Kirogi* mothers, Robin and Kyung-ah who moved to Hawaii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names, Kyung-ah and Robin, are pseudonyms that they chose to use in this study. Narratives were collected from these two Korean mother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fter the interviews, I transcribed almost all the Korean narratives to English, and a Korean-English bilingual assisted me in making the transcript more natural.

Through the data, I focus more on macro level of mother's stories. Pavlenko (2007) explains that, global or macro-level of analysis should attend to historic,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narrative production, but there is no clear-cut rather narrative activity allows us to examine multiple linkages and interdependencies between them. As she addresses, different aspects and layers of macro-levels cannot be divided clearly, rather they can be overlapped and synthesized. In this study, economic aspects of English under globalization in Korea a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education under Korean familism will be investigated to examine *Kirogi* mothers' narratives.

3.3. Narrative Study

This study is based on the narrative data emerged from mothers' life history. Narrative studies show participant's life and provide the meaning to the researchers (Bell 2002 ; Chase 2005 ; Pavlenko 2002). In addition,

it helps people to organize life experiences with using reasoning and representation (Berger 1997). In this study, narratives work for *Kirogi* mothers to draw out their experience and represent their positions. Through “providing the insider’s view” (Pavlenko 2007), *Kirogi* mothers organize or reorganize their life and they can be empowered and disempowered through this practice.

Moreover, narratives are not just individual production but it is formed by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aspects (Pavlenko 2002). In other words, *Kirogi* mothers’ narratives are not only about immigrant women’s personal life, rather these stories present how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aspects are interrelated each other within women’s stories. Culture and history make the conventions for life and shape how people see their world and speak about their places in them (Berger 1997 ; Brown 1990 cited in Fraser 2004: 180). In other words, function of English as social capital in Korea and historical background such as Korean familism shape how Korean *Kirogi* mothers see their world.

3.4. Participants

3.4.1. *Kyung-ah*

Kyung-ah is in her mid forties and has two daughters who are in first and second grade. She is from Jeonju, a city located in the south of Korea. She taught English in public middle school in Korea, and this is the first time for her to live in another country. Her husband works as a public official, and the position he has now is very stable and so is considered as prestigious. The family came together two years ago for father’s

pursuing of his MBA in America, but he went back to work after he finished his degree and Kyung-ah decided to stay in America with her daughters for their English education. Now, she attends ESL courses to maintain her visa status to be allowed to stay in Hawaii and to send her two daughters to the public school with dependent visa status.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her apartment with her daughters for about 2 hours, but the two girls did not talk to me much. From the interview she told me that she really wants to live here, not to go back to Korea.

3.4.2. *Robin*

Robin is also her mid forties, and she has a son and a daughter who are 8th and 9th grade. She is from Seoul in Korea as many other *Kirogi* mothers. She came here one year ago, but this is her third time to stay in America. Her first time was in the early 1990s when her husband pursued his Ph.D degree in North Carolina, and her second time was five years ago when her children were in 3rd and 4th grade and they went to school in a small city in Illinois. One of their father's friends, who was in the same Ph.D program in North Carolina suggests that they can come to his town so that he can help them to settle down. Then they went back to Korea and returned to America once more. Her husband works as a professor in one of the universities in Seoul. She majored in English and taught English in Seoul before she came here. She attends a highly advanced ESL course, but the main reason why she is taking this course is for her own visa status, since her children have American citizenship. She wants to go back to Korea after her children go to college. The individual interview was conducted in her friend's house. The friend is the

person who introduced Robin to me. Robin told me a story on her immigration and being *Kirogi* mother.

4. Context of this study: Globalization and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English has been working as a class marker in South Korea, and the English education market has been dramatically expanding since mid-1990s under the *Segyehwa* (globalization) project by Kim Young-Sam regime (Cho 2002 ; Kim 1998). At the same time, English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as a tool for communication in global society. As a momentum, in 1997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new national curriculum which adopted a functional syllabus, as opposed to the previous grammatical syllabus. The new curriculum emphasizes communicative competence over grammatical knowledge, and fluency over accuracy (Kim 1998). The 7th National English Curricula (March2, 1997) is a progressive step with globalization but it also expressed the concern that elementary English programs can cause the increased financial burden of private tutoring.

As predicted, private English education such as group tutoring, English institutes and workshee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As a prolongation of private language education, there are many students of all ages wishing to study abroad in English dominant countries. Also, this has caused a lot of money to be spent in English dominant countries.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a national bank of Korea, Koreans spent seven billion dollars in studying English abroad for a year. This is a third of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 in Korea. In addition, people spend around 4 billion for private English education within the nation. Thus, this data shows that around 11 billion is spent by Koreans for children's English education a year (*Hankuk Ilbo* 2006, March, 7). English has become a hegemonic language in the global world and the value of English competence is getting more important according to South Koreans' close concern on global economy. Thus, under globalization, Korean people have clearly invested a lot of money in English education because English is now crucial asset in Korean society. Cho (2002) analyzes this phenomenon more deeply and explains that under globalization which is the structural condition, Korean people pursue the English fluency and the educational credit. Another reason for the increase of studying-abroad is due to the high competition for the colleges in Korea.

In order to extend the issue stated above, economical changes and English education needs to be discussed more. Park (2004) explains that 1990s in South Korea can be represented as "neo-liberal education reform." As this quote shows, there were many changes in education, especially English education in Korea, which is related to the globalization movement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early 1990s, there was admiration of globalization. However, Koreans experienced unstable economic situation in 1997. This economic crash made people doubt neo-liberalism which exists in the core of globalization, and bring anti-globalization as well as globalization (Gwon 2004). Despite economical difficulties and anti-globalization, English education has been spotlighted continuously and being a qualified person with English ability is considered significant for maintaining jobs since there were many people fired because of the reconstruction during

this severe economic downturn. In addition, the new government kept stressing English education and technology to accelerate globalization (Nam 2005).

5. The story

5.1. *Kirogi* Mothers' Life Planning and Mothering for Globalization

In globalizing world, Robin considers planning and managing her children's education as part of mothering to raise them as global citizens and she can be empowered through this practice. Since this is the third time for Robin to live in America, she has a clear and concrete idea of being *Kirogi*.

Excerpt 1. "If you give birth to a baby girl, you should plant an oak in your yard."

1 R: Americans might think that we are too sacrificing for our family and children……I
2 know……but every body knows that it is worthy, right? If your children become bilinguals
3 or go to prestigious colleges, then it's worthy. So I planned it for a long time.
4 You know the Korean proverb, "if you give birth to a baby girl, you should plant an
5 oak in your yard." It means that parents should make plans for their children's future. I
6 had thought that I would never make my children learn English in Korea……If I only
7 dedicate three years, my children would live happy lives for the rest of their following 60
8 or 80 years, right?

Robin expresses her idea of *Kirogi* mothering with expressing that she is an educational manager for her children and it is a crucial part of the mothering. From this, Korean-English bilingual is a social capital (line2

and 3) which is important enough for her to sacrifice herself and to be a *Kirogi*. More specifically, Moon (2003) addresses in her study of gender, immigrant, and mothering, that mothering is integral to the middle-class concern with the reproduction of socioeconomic status (or upward mobility) through investing in their children's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Mothering for education is strongly related to social status and *Kirogi* mothers who have a very clear goal ar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their mothering for English education tightly links to social capital. In this narrative, Robin values her sacrificing as part of mothering within the wide picture which is globalization and social capital.

Bourdieu (1991) explains the fact that someone who has cultural/linguistic capital means this person owns somewhat equivalent or even more valuable capital than economical capital in the linguistic market. This idea displays the status of English in Korea very well. Shim (1994) states that the ability of speaking English well is related to higher status in Korea and English is not only a symbol of education but also of success and fortune (p.235). As this quote says,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that English education guarantees not only a success in the academic world but also a successful life. Within this ideology, whether or not fluency in English automatically leads to economic success, the association of English with intellectual standards or promotions is very strong in Korea.

In more detailed ways, Nam (2005) states, "Intellectual standard, promotions, and pay-raises are determined by his/her English ability, emphasizing that English ability equals to a person's body value, and English is like a weapon in a war." Thus, in the war named globalization, English is an indispensable weapon that Korean mothers have to prepare

and equip their children with. Mothers value this practice, and they are empowered through accomplishing their duty as a mother.

Besides mothering for social capital, historical aspect of Korean mothering has to be considered. In this story, Robin frames her story using Korean proverb (line 4 and 5), which shows explicitly a Korean perspective. The Korean proverb she borrows is, “if you give birth to a baby girl, you should plant an oak in your yard.” It means that parents need to prepare and plan their children’s future in the early stage. Especially for the context of this proverb, parents prepare articles essential for marriage ceremony for daughters when she is ready to get married and oaks were considered as valuable asset in the past. As the parents in the past prepared children’s future financially, Robin has planned her children’s future educationally and focused on making them confident English speakers. In other words, English education replaces the oak as a crucial asset in global society. Here, she draws on discourse of tradition to make sense of her very modern life.

Moreover, children-centered family system and the parents’ sacrificing for their children can be understood by the influence on Korean families. Korean family system is characterized as children centered, not husband-and-wife-centered (Kim 2002). This means many parents plan their family’s future considering their children’s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they are ready for devoting themselves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see line 7 and 8) which is not only for children, but for the family’s prosperity. In other words, if a child becomes a successful global citizen, it will be great pride of the parents and the glory of the family. Thus, family is the link between individuals and a society (Cho 1997).

However, this shows an ironical aspect that *Kirogi* families pursue stable future for the families through children's education by risking the husband and wife relationship (Choi 2006). Recently, media reports about the unhappy consequences of *Kirogi* family such as increasing divorce rate, *Kirogi* father's suicide, and adulterous relationship. However, still the desire for being *Kirogi* remains very strong and parents seem to willing to sacrifice their husband-wife relationships for the benefit of their children.

Additionally, familism accentuates distinct gender roles. For example, mothers are the caregivers who care for children and housing, and fathers who are the ahead of families support their family financially (Kim 2002). This distinction is diluted in this modern society as many women are making money for the family and increasing number of single mother/father attributes to loosen this boundary. However, in the new form of family, *Kirogi* family, distinctive gender roles can be revived ; mothers live and take care of the children, and fathers work and earn the money to support only for his wife and children. However, the difference here is the fact that mothers have to work as a head of families when living abroad.

Excerpt 2. “*it is my responsibility to bring up them on English and sports.*”

1 R: To speak English perfectly has “uncountable value.” So, to give a chance
2 to them (the children) to learn English is very important. It is much more
3 valuable than leaving billions of inheritance. As a mother, I need to
4 prepare for their future. If I die suddenly someday in the future,
5 they have to live without me! They have to live by themselves wherever in
6 the world. So it is my responsibility to bring up them on English and
7 sports so that they can live without me.
8 And this is mother’s job, not fathers.
9 Kirogi mothers in Hawaii, they have to do everything and mothers are very busy.
10 They have to study, give a ride and participate in activities at schools. So, I gave
11 up cooking. I can’t!! If I have to cook, I might go crazy.
12 so, fathers even don’t have a right to argue with me about children’s education.

In this excerpt, Robin describes clear idea about distinctive gender role in a family and mother’s role as an educator. She constructs her role as a *Kirogi* mother differently from the role as a mother (in Korea) and separates her job from what father can do for children. Furthermore, she justifies her job of educator with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nglish and sports. Also she expresses that her devotion is the thing only she can perform for the children. Therefore, the *Kirogi* mother, the responsible person of a family, helps children adapt to social changes and “act as a catalyst for social change” (Koo, forthcoming).

To sum up, Robin’s mothering is influenced by current tide of globalization and English as social capital. Also, Korean family structure and gender role are the indispensable factors to be discussed to understand her stories. Dominant historical and cultural ideologies in Korea are interwoven in this story and have constructed Robin’s identity as a devoted mother. This position empowers her because this practice is a process of

obtaining social and cultural capital in a society. Additionally, in the following section, I will discuss about *Kirogi* mothers' life transformation as a women and daughter-in-law.

5.2. Escapism from Korean Society as Women

Living abroad as *Kirogi* mother has dual meaning in Korean family system. It means not only doing the duty as a mother in global society but also avoiding the duty as a daughter-in-law in the family. Two mothers in this study commonly show that being *Kirogi* is the way of abjuring their roles of women in Korean society. This abandoning makes *Kirogi* mother escapes from the burden that she has to bear because she is a family member of her husband. Nowadays, it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nuclear families because of the economic change and different life style (Cho 1997). People try to focus on 'their' family not the extended family system and lay great stress on family centered strategies and success to survive in the competitive society. This brings the result that parents consider children's education as a vital question in their life (Kim 2002). However, this idea from Kyung-ah and Robin's generation is conflict with their parents' generation who places huge emphasis on extended family form and the role as a family member in the large family.

Kyung-ah uncovers strong satisfaction from her present position as a *Kirogi* because it liberates her from living as a family member, daughter-in-law in the Korean society.

Excerpt 3. “*but actually I am all worn out inside!*”

1 I don't like wearing make up because others do as in Korea.
2 I have to visit my husband's parents and when I visit them
3 sometimes I do not feel like putting on make up, but when my
4 mother in law asks me to be always nicely dressed with make up on, it really
5 bothers me! They want me to always look good and wear good clothes when
6 visiting, and they expect their son to be driving a nice car, but I feel so relieved
7 that I do not need to do that any more because I am here with my children,
8 I feel so free, I might seem as a loyal and submissive daughter-in-law,
9 but actually I am all worn out inside!

Kyung-ah constructs herself as oppressed in her narrative about her duties as a daughter-in-law in Korea and now she is satisfied with the fact that she can avoid that. The duty was visiting the parents regularly. For Kyung-ah's parents in law, the regular visit of son's family means more than just visit. Kyung-ah and her husband's nice exterior represent their parents' success under the idea of familism that one's socioeconomic success is not only for individual success, but is for the family's prosperity and possibility of class mobility. However, this idea was burden to Kyung-ah (see line 9). She said that she is all worn out inside, and this shows that strong familism was unbearable to her in Korean society. Thus, being *Kirogi* provides a chance to Kyung-ah to escape from the burden. However, interestingly, her notice of this burden emerged from comparison to her present life in Hawaii. She identifies herself as loyal and submissive daughter-in-law in the past (line 8), but now her experience as a head of her own family and remote family from her parents-in-law makes Kyung-ah feel relief. Therefore, experiencing difference roles can be the integral resource of her identity claim.

To observe more closely in-law family issues, Meyerstein (1996) and Choi (2006)'s arguments are need to be discussed. According to Meyerstein, every family in all different societies has small and big difficulties regarding in-law family matters. Likewise, here Kyung-ah had difficulties that she experienced in Korea. Choi (2006) agrees with Meyerstein and adds, "difficulties related to in-law-family are more complicated in Korean society because Korea is a patriarchy society and families are enmeshed with each other." As Choi explains, married women in Korea are required strong obligation by their husbands' families even though they do not live with them. Also, daughter-in-law's duty for husband's family is stronger than son-in-law's for wife's family in Korean society. Therefore, *Kirogi* mothers feel free from in-law dilemmas while they stay abroad with their children.

Familism came from the idea that family is the center of all practices and decisions (Cho 2004 ; Kim 2002 ; Lee 1996). As previously stated, a *Kirogi* mother's dedication for her children is the outcome of familism which emphasizes family centered norm and parents' sacrificing for children but at the same time, she is free from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with her in-law-family, which goes against familism which allows her to be free from the bounds of familism. Thus, it is irony that Korean *Kirogi* mothers represent dual attitudes toward familism and both aspects are simultaneously connected to accepting and rejecting the gender roles in the Korean society. Within the family, *Kirogi* mothers confirm their role as mothers who manage children's future, sacrifice for it, and expect that their endeavor deserve to be valued, but at the same time they deny their role as daughter-in-law who needs to meet their parents' expectation. In

addi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meaning of familism and gender roles are ambiguously and differently accepted by two different generations.

Cho (1997) mentions that in Korean family, traditional, modern, and postmodern aspects of the family coexist. Thus, this combination redefines all the relations in family such as wife-husband, parents-childr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mother-daughter. Within these changes, family members who are in their 40's are said that they are the last generation of pre-modern family and the first generation of modern family, experiencing conflicts of changed family value. Thus *Kirogi* mothers are the generation on struggling within different family values. In addition, since their parents' sacrificing and expectation to them is different from what they have to their children it stirs discords in a family.

Besides the escape from the family and gender role, Robin also reveals her escapism from Korean society. She was telling her story about her appearance and how her small eyes are considered differently in Korea and America,

Excerpt 4. "*I hate my small eyes.*"

1 R: I hated my appearance when I was young,
2 especially my small eyes without double eyelids.
3 'why are my eye are so small?' that's the question I have always had.
4 In Korea, people on TV, they criticize other female's appearance without
5 any guiltiness. I do not want my children to learn that.
6 It is a 'bad' influence.
7 But here, my small eyes are considered attractive.....sometimes(small laughter)
8 Now I know, good appearance is just luck, and that's it.
9 To be good looking does not need any effort.
10 But think about learning language and sports.
11 <u>You need to practice very hard to achieve these.</u>
12 Children should learn these from Americans.
13 They <u>have to learn the good American values, and also the good Korean values,</u>
14 <u>then they can be global people.</u>

Robin tells how women's appearance is considered in Korean society comparing to how Americans think about women's looks. Then she makes it generalized and gives value on how American way of thinking. This idea can be extend to her idea about education in America. In other words, through explaining how her small eyes can be considered attractive, she emphasizes American educational value which, she thinks, focuses on efforts. Moreover, this idea can reach to her perception of "global people" (line 14).

Robin can be liberated from Korean perception of women's body through remarking lack of 'globalness' in Korean value. Even though female beauty also can be subject to public judgment in USA, Robin discursively constructs Korean female's identity as bound by judgments on appearance through the process of contrasting two cultures. She did not mention about any good Korean value we have to learn to be a qualified global person, but in this data, the value we do 'not' need to learn from Korean society is the something that made her oppressed and disempowered as a women in Korean society.

To conclude this section, many studies on women's escapism and language (Lan 2003, McMahill 2001 ; Norton & Pavlenko 2004b ; Pavlenko 2001 ; Park 2004) are overviewed and compared to *Kirogi* mother's escapism. These studies discuss how women can be liberated from the social value or gender role through leaning/using language. For example, McMahill (2001) explores how a group of Japanese women was empowered through re-making themselves in English class, and the author explains that English works as an 'escape' from women's gender role given by the society. Kyung-ah feels free through the fact that she lives away

from her in-law family on condition that she is sacrificing herself for her children's English education. Also, Robin can be empowered through being away from the Korean society that oppressed her with disadvantageous standard of woman's appearance.

6. Conclusion

I investigated on who the *Kirogi* mothers are and what cultural and historical aspects are inherent in the mothers' stories. Also, how these two mothers are empowered or disempowered as mothers and women in a society are dealt. In Rhee (2006)'s study of Korean immigrant women, she discussed three different positions-Korean, women, and US higher education. She argues how different privileges account for the distinctly shaped choices and is reflected by women's identity. As a woman and a mother, *Kirogi* mother's life has been changed. Robin and Kyung-ah have experienced life transformation. This change makes both participants represent themselves differently regarding different privileges.

Being *Kirogi* mother is a matter of choice in life but it can end up being a life transformation, not just migration. *Kirogi* mothers can be empowered through the management as a practice of mothering since children's learning English abroad works social capital. Also, to Kyung-ah, being *Kirogi* is a way of escaping from the Korean society that places great emphasis on strong family system and to Robin, she can be liberated from the Korean values that oppressed her as a woman.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cannot or do not want to escape from the Korean mothers' duty and they are taking caretaker's roles within the family. Therefore, in the

global society, living as *Kirogi* mother crosses over the three terrains of gender, generation and social status in Korean familism.

References

- Abelmann, N., & Lie, J. (1995) *Blue dreams: Korean Americans and the Los Angeles riot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ll, J. S. (2002) 'Narrative inquiry: More than just telling stories,' *TESOL Quarterly* 36.2, 207-212.
- Berger, A. (1997) *Narratives in Popular Culture, Media, and Everyday Life*, Thousand Oaks CA: Sage.
-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Press.
- Charmaz, K. (1995) 'Between positivism and postmodernism: Implications for methods,' *Studies in Symbolic Interaction* 17, 43-72.
- Chase SE. (2005) 'Narrative inquiry: Multiple lenses, approaches, voices,' in Denzin N.K. & Lincoln Y.S. (ed.)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651-679.
- Cho, M. (2002) 'The Causes of Increasing Young Korean Students Who Go Abroad to Study,' *Hyunsang-kwa Insik* 88,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135-152.
- Cho, U. (2004) 'Korean Families on the Forefront of Globalization,' *Economic and Society* 64, 148-171.
- Cho, U. (1997) 'Compressed development and family culture,' *Korea Focus on Current Topics* 5-3.
- Choi, Y. (2006) 'The Phenomenon of "Geese-Families": Material Separation between Geese-fathers and Geese-mothers,' *Family and Culture* 18.2, 37-65.
- Fraser, H. (2004) 'Doing Narrative Research,' *Qualitative Social Work* 3.2, 179-201.
- Gwon, H. (2004) *Sekeyhwawa mikuk insik* (Globalization and Understanding of America), *Dangdae Bipyung* 14.
- Khuwaileh, A., & Al-Shoumali, Ali. (2001) 'Private tuition in English: The case of two universities in Jordan,' *English Today* 65.17, 31-35.
- Kim, D. (2002) 'Confucianism and Korean familism,' *Economic and Society* 55 (Fall), 93-118.

- Kim, J. (1998) 'Elementary education reforms in Korea,' *JALT* 10.3, 33-35.
- Koo, H. (in press) 'The Changing Faces of Inequality in South Korea in the Age of Globalization,' *Korean Studies* 31.
- Lan, P. (2003) 'They have more money but I speak better English!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Filipina domestics and Taiwanese employer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10, 133-161.
- Lee, S. (1996) 'Miraeu uksaeso mikukun heimanginka' (America is our hope in our future?), *Dangdae* 158.
- McMahill, C. (2001) *Self-expression, gender and community: A Japanese feminist English class*, Berlin: Mouton de Gruyter.
- Meyerstein, H., & Sheppard P. (1996) 'A Systemic Approach to In-Law Dilemma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2.4, 469-480.
- Moon, S. (2003) 'Immigration and Mothering case studies from two generations of Korean Immigrant women,' *Gender & Society* 17.6, 840-860.
- Nam, J. M. (2005) 'The Changing Role of English In Korea: From English as a Tool for Advancement to English for Survival,'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9.2, 227-240.
- Norton, B. (2000) *Identity and Language Learning Gender, Ethnicity and Educational Change*, Essex: Longman.
- Park, S., & Abelman, N.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645-672.
- Pavlenko, A. (2001) "How am I become a woman in an American vein?": *Transformations of gender performanc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Berlin: Monton de Gruyter.
- Pavlenko, A. (2002) 'Narrative study: whose story is it, anyway?' *TESOL Quarterly* 36.2, 213-218.
- Pavlenko, A. (2007) 'Autobiographic narratives as data in applied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 28-2.
- Plummer, K. (1995) *Telling Sexual Stories: Power, Change and Social Worlds*, London: Routledge.
- Rhee, J. (2006) 'Re/membering (to) shifting alignments: Korean women's transnational narratives in US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9.5, 595-615.
- Shim, R. (1994) 'Englishized Korean: Structure, status, and attitudes,' *World Englishes*, 13.2, 225-244.

- Son, J. (2005) 'Sociological Analysis on the Phenomenon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5,2, 95-120.
- Valentine, T. (2001) 'Reconstructing Identities and Gender in Discourse ; English Transplanted,'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31.1, 193-212.

북일 무역의 현황과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배 광 응
오사카교육대학

1. 상품별 무역 동향

1.1. 수출 동향

2000년 이후 대일무역의 최대 특징은 <표 1>에서 보듯이, 대중 수출과 반 비례로 금액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표 1>의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엔 기준)에 의하면, 북일 무역은 1980년을 피크로 2000년 시점에는 절반 이하로 축소되어 있었다. 그것이 2005년에는 또다시 그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다.

<표 1> 북일 무역 추이단위: 100만 엔

년	수출	수입	합계	무역수지
1961	1778	1431	3209	347
1965	5942	5300	11242	642
1970	8404	12389	20793	-3985
1975	53332	19283	72615	34049
1980	84946	40977	125924	43969
1985	59050	43201	102250	15849
1990	25382	43296	68678	-17914
1995	23732	32108	55839	-8376

2000	22279	27695	49974	-5416
2001*	17169	26612	43781	-9443
2002	16554	29402	45956	-12848
2003	10609	20195	30805	-9586
2004	9635	17637	27272	-8002
2005	6883	14536	21419	-7653

주) 2001년에는 50만톤분의 쌀 지원 1,122억 4,727만 엔의 수출이 있었는데 이 표에서는 무역경향을 보기 위해 제외하였다.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출처) 三村光弘(2006).

〈표 2〉는 2000년 시점에서의 ‘북한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2001-2005년 추이 변화’이다. 원래부터 북한의 대일 수출 품목은 수산물, 임산물, 원연료, 광석 등의 1차 산품과 일부 섬유제품 및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차산품의 공급 및 수출은 자연 조건이나 국제 가격의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북한의 대일 1차 산품 수출에도 나타나 있고, 매년 수출액의 변동도 크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의 동향으로서 석탄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동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다.

〈표 2〉 북한 대일수출 10대 품목의 2001-2005년 추이 변화(2000년 기점)

상위 품목	품목명(HS4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위	식용조개류 등 (0307)	69825	80771	71059	55995	53052	24947
2위	남성의류(신사복 등) (6203)	47273	41302	41725	24844	14359	6400
3위	기타 야채(송이버섯) (0709)	20378	9916	15664	8591	9272	14980
4위	변압기류 (8504)	16857	11300	9540	12024	16810	14020
5위	갑갑류(게, 새우 등) (0306)	12696	15626	37403	19109	16483	9964
6위	석탄류	11750	13799	11721	10830	10609	17394

	<2701>						
7위	선철 등(합금/비합금)	11227	2804	4109	4260	8596	8356
	<7201>						
8위	남성용 코트류	6620	4266	1900	1207	228	100
	<6201>						
9위	천연탄산 마그네슘	5982	5647	6329	1800	756	1505
	<2519>						
10위	절연전선, 케이블	4641	3965	3667	3330	1778	1178
	<8544>						

출처) KOTRA(2006년 2월)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쪽.

KOTRA 「동향 2005」에 의하면, 2005년의 석탄류(무연탄)의 급증은 ‘일본의 왕성한 철강 수요가 무연탄 수입을 촉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북한의 무연탄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일 수출 급증의 주 원인은 오히려 수요 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 발동 및 강화 정책에 철강 대기업들이 동조하면서 북한산 무연탄 구입을 중지한다고 표명하였다.¹ 이것이 실시된다면 석탄류(무연탄)의 대일 수출은 급감 또는 완전히 중단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남성용 의류(신사복 등), 남성용 코트류 등 섬유제품 및 의류 수출의 급감이다. 이런 제품들은 일본의 대량 판매점에 의한 위탁가공 생산품이다. 이것도 후술하겠지만, 일본의 대량 판매점에 의한 북한 현지에서의 위탁 가공생산의 중지, 철수가 이런 제품의 대일 수출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² KOTRA 「동향 2005」에는 ‘일본의 대량 판매점의 북한

1 본고를 집필함에 있어서 사사가와평화재단 수석연구원 이찬우씨와 ERINA연구원 미무라 미츠히로(三村光弘) 씨로부터 자료제공 및 유익한 조언을 얻었다. 또 교토대학 경제학 연구과 오니시 히로시(大西広) 교수로부터는 작년 말 「동아시아 지역연구회」에서 북한경제에 관한 귀중한 미발표논문을 받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신일본제철은 북한에서 수입하던 무연탄을 자주적으로 수입 금지하였다. 북한은 2005년 석탄의 경우 20억 엔 정도(전체 수출 중 13%)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을 신일본제철에 납품하였다고 한다(KOTRA,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의 북한 동향」, 『북한 경제속보』 2006년 11월 2일, <http://globalwindow.org>).

2 신사복 전문점에서는 AOKI홀딩이 2002년까지 슈트 구입 등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정지하였

제품 매입 중지 및 원산지 'Made in DPRK'로 표시된 북한산 제품을 소비자가 기피'로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식용 조개류가 2005년에 급감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품목은 오늘날 북한의 대일 수출 총액의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내고 있는 상품이며, 구체적으로는 모시조개이다. 이 수출 상품이 급감한 것도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그 원인이다. KOTRA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2006년 2월(이하, KOTRA 「북·일2006」)에 의하면, '모시조개 등의 조개류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의 샘플검사에서 전량 검사로 의무화되었다. 이것에 의해 마이즈루항에 5명, 사카이미나토항에 7명의 세관 직원이 증원되었으며 엄격한 검사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어 여름철에는 조개 독의 발생 등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명철(2005)이 지적하고 있는 일본이 대북 무역제재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중무역이 확대화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그의 견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KOTRA 「북·일 2006」과 동 「동향 2005」에도 마찬가지로 수산물과 섬유제품의 대일 수출 감소를 지적하고 있다. 고마키 테루오(小牧輝夫) 국사관(國士館) 대학교수는 『조일신문(아사히신문)』(2005년 11월 9일)에서 '각종 규제에 의한 북일 무역은 축소하고 있다.……이미 일본 측의 경제제재는 시작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근년 북한의 대일 수출 감소는 일본 측의 각종 규제에 의한 사실상의 경제제재가 주요인이다.

네 번째로 보다 현재에 가까운 2005년 시점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HS 2자리 수)을 금액이 많은 순위로 열거하면, 어패류, 광물성 연료 및 광물류, 전기기기, 야채(송이버섯), 의류(니트를 제외), 알루미늄과 그 제품, 철강 등(기타는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위의 전기기기와 제6위의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전기기기는 KOTRA 「동향 2003」에서는

다. 아오야마상사도 2000년경까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한다(『일본경제신문』 2006년 10월 12일).

섬유제품·의류와 마찬가지로 역시 위탁가공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되고, 알루미늄은 KOTRA 「동향 2005」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북한의 전력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수출 여력이 증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북·중·일간의 보세 수출입에 의한 중계무역의 가능성이다. 즉, 중국을 중계지(보세제도를 이용)로 한 실질적인 북한의 대일 수출을 말한다. 북한(보세 수출)→중국(보세 수출)→제3국(일본 또는 한국 등)이라고 하는 무역 형태이다. KOTRA 「북·일 2006」에는 '2002년도 보세 수출부문의 대폭적인 상승은 중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중계지적 역할 강화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지속적인 보세 수출 강화는 북한 제품이 중국을 기점으로 일본에 재수출되는 중계 효과가 있는 것도 또한 확실하다'고 추측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북한의 대일 수출에는 '전통적 장해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관세정책이 그것에 해당한다. KOTRA 「북·일 2006」에는 '북한산 제품은 일본에서 통관할 때 국정(Statutory) 세율(기본 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즉, 북한산 제품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도상국이 적용을 받는 특혜(Preferential) 세율, 또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 받는 협정(WTO) 세율보다도 불리한 세율을 적용 받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외에 국정세율을 적용받는 나라는 동티모르와 앙고라 2개국뿐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찬우의 연구논문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관계의 역사와 현상」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을 '미수교국'이라는 이유로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는 1968년 미수교국 상황 하에서도 관세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한 일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3>은 북한의 대일 주요 수출 품목에 관한 '일본시장에 있어서의 관세율 비교 표'이다. 동표는 북한의 대일 수출이 관세 면에서 얼마나 불리한 조건에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3〉 일본시장의 관세율 비교표

단위: 100만 달러

HS Code	품목	기본세율	협정세율	특정세율
306	갑각류	4-15%	1-10%	무세금-4%
307	식용조개류	5-15%	3,5-10,5%	무세금-9%
709	기타 야채(송이버섯)	5-10%	3-6%	무세금-1,5%
2701	석탄	0-4,6%	0-3,9%	무세금
6201	남성용 코트류	11,2-16%	9,1-12,8%	무세금
6203	남성용의류(신사복 등)	11,2-16%	9,1-12,8%	무세금
8544	절연전선, 케이블	0-5,8%	0-4,8%	무세금

출처) KOTRA(2006년 2월)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33쪽.

1.2. 수입 동향

KOTRA 「북·일 2006」은 먼저 북한의 대일 수입에 대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 기계류, 철강,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 북한의 대일 수입은 수출규모를 크게 초과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발생해온 채무변제 미 이행이 1984년 미지불 채권으로 확정되는 등, 일본 무역상사 등의 대북 수출 기피와 엔화가치 절상에 따른 북측의 수입 부담 가중으로 대일 수입은 1990년대에 이미 위축되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KOTRA는 1990년대에 이르는 북한의 대일 수입 감소의 주요인을 미불채무 문제에 있다고 귀결하고 있다. 또 ‘위탁가공 형식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교역 형태를 감안해 보면, 북한제 의류(HS 62군) 등에 대한 일본의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역시 관련된 원자재의 수입도 급속히 감소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2000년 시점의 ‘북한의 대일 수입 10대 품목 2001-2005년의 변화추이’가 〈표 4〉이다. 동표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특징으로 자동차(트럭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 버스는 2005년 증가하였으나 그때까지는 감소·정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KOTRA 「북·일 2006」은 ‘대일 수출과 함께 특히 납치사건 등이 밝혀지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주요 생산품의 수입이 급감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또한 기

계 부품류 감소는 Catch All 규제 강화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³ KOTRA의 상기 분석대로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전기의 1990년대까지의 미불 채권에 의해 발생한 무역 보험의 비적용이라고 하는, 이른바 컨트리 리스크 문제에 더하여 2000년 이후는 납치 및 후술하겠지만 미사일·핵 실험에 의한 경제제재 조치 강화가 대일 무역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금후 더욱더 최소화를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로 상술한 위탁·임가공을 위한 재료의 수입 감소는 여기에서는 모직물, 합성필라멘트, 혼방 모직물 수입의 격감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전자석 등 부품, 발전기기, 전선케이블 등의 전기·전자기기류도 위탁·임가공을 위한 재료 수입으로 간주되어 이런 제품들도 동일하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 자동차(트럭류), 대중교통 버스에 관해서 KOTRA 「동향 2005」는 ‘세밀 품목별로 조사해 보면, 2005년 북한의 대일 최대 수입품목은 중고 화물자동차로 차량 총 중량이 5-20톤, 배기량 4,500cc 이상의 차량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동차(트럭류)의 일부이며, 별도로 5톤 이하 배기량 2,000cc 이상의 중고 화물자동차의 수입이 있다. 중고 버스, 중소형의 중고 승용차에 관해서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일 자동차 수입품은 중고제품이다.

네 번째로 이런 수입 중고자동차는 일본의 무역회사가 모시조개를 수입하고, 그것을 하역한 후 동 선박이 귀국할 때 중고가전 제품과 함께 선적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중고 자동차 수입은 일본 무역회사에 의한 모시조개거래의 사이트 비즈니스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대일

3 Catch All이란 과거 구 공산권국가의 첨단 무기 등에 적용한 것으로 물품 및 상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대공산권 수출규제(COCOM)가 발전한 것이다.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포괄적 수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수출업자에게는 외환법 위반이라고 하는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일본은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수입이 그렇게 주체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일본 무역회사의 모시조개 수입이 감소·정체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동일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2005년에는 일본 상사에 의한 대북 무역거래는 거의 없고 조총련계의 영세한 제일 조선인 무역관계자에 의한 무역거래만이 존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OTRA 「북·일 2006」은 중고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본 무역회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인터뷰에 회답한 사람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

2. 경제제재 조치에 관한 경과와 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14일(일본 시간 15일 미명), 북한의 지하 핵실험 실시에 대하여 ‘비군사적 조치’를 명기한 제재 결의를 전체 이사국(15개국)에 의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 1718은 유엔 헌장 제7장(강제조치를 인정함)을 토대로 행동하는 것을 명기하고, 제41조(경제조치 등 비 군사적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의 적용을 병기하였다. 제재의 주요 내용은 ‘대량 파괴 병기용 물자 등의 금수’와 ‘대량 파괴 병기와 관련된 금융자산 이전 방지’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제재결의에 앞서 2006년 10월 11일 수상 관저에서 안전보장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의 독자제재 조치를 결정하였다. ‘일본 독자제재 조치 제3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제1탄은 동 년 7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의해, 만경봉호 반년 간 입항 금지, 북한 차터기 일본 입국 금지, 북한 당국직원의 원칙 입국금지, 제2탄은 동 년 9월 19일 유엔의 비난결의 채택과 함께 대량 파괴 병기 개발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15개 단체 1개인의 자금 이전 방지가 주 내용이다. 제3탄은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산 전 물품의 수입금지, 북한국적을 보유한 자의 원칙입국 금지이다.⁴

자민당은 2005년 2월 납치문제 대책회의를 설치·개최하고 북한에 대한 무역규제 경제제재를 일본 독자로 실시해도,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1.3-7.0%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시산 결과를 보고하였다. 시산은 제재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시물레이션팀이 정리하였다. 북한의 GNP는 추계 109-169억 달러로 일본의 대북 순 수입액은 7,900만 달러, GDP대비 0.5-0.7%에 해당한다. 여기에 수입 중단에 의한 북한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10억 달러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을 지적하면서도 상기의 GDP 감소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일본 정부에 의한 일련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실시가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지만이 아니고, 이 같은 시산에 의거하여 효과의 '발휘'를 기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대한 기대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미무라 미즈히로 ERINA연구원은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시물레이션을 구사

4 『일본경제신문』 2006년 10월 12일. 이러한 일련의 제재를 적용·실시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외환법 개정, 동년 6월 특정선박입항금지 조치법 성립, 2005년 3월 유독손해배상법의 제정 등을 통해 이전부터 착실히 준비를 진행해 왔다. 『조일신문』 2006년 12월 9일에는, 일본 정부는 새로운 추가제재 조치로서 수출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수출 제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24품목의 사치품 및 대량과괴병기관관련물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수출 금지를 통하여 북한에 더욱 큰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인도적 물자 수송조차도 철저하게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이동제한에 대해서도 현재의 '조선(북한) 국적자 원칙 입국금지', '재일 북한 당국직원의 북한을 도항처로 한 재입국 원칙금지'에서 '재일조선인의 북한을 도항처로 한 재입국 원칙 금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일 조총련 간부·직원은 물론이고 모든 일반 재일조선인까지 재입국 금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빈약한 인권의식을 의심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많은 것을 논의 할 여유는 없지만, 예를 들면 영화 「디어 평양」 등을 감상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한 기업의 동조에 대해서 KOTRA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의 북한 동향」, 『북한 경제 속보』 2006년 11월 2일(<http://globalwindow.org>)에, 도시바는 반도체 전자부품의 수출에 대해 상사 등에 최종 수요자를 기입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히타치의 경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관리 본부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대리점 경유를 포함한 전 제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을 쏟고 있다는 점. 이시카와시마하라마 공업은 대북 수출에 대해서는 전부 전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인공위성용 엔진과 X선 검사 장치 등의 특정 수출은 상대국에 관계없이 검사하는 태세를 새롭게 설치한 것을 사례로서 지적한다.

하여, 2006년 7월 시점 집필한 논고에서, ①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 제한에 대해서 북한의 송이버섯이나 어패류의 수출과 자동차의 수입에 있어서 제재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북한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선박은 이미 일본 입항이 격감해 있고, 수입처 대체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다. ② 입항금지에 의해 북일 간의 무역 루트가 없어지면 제재의 초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루트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미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은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입항금지의 경제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③ 199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경제적 고난을 견디어 온 북한 정부 및 그 주민은 일본 단독에 의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받아도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한국이 대체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논하고 있다.⁵

또 작년 여름 북한을 방문해서 개성 경제특구나 평양의 자유시장(현지에서는 ‘지역시장’이라고 함)을 견학하고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행호소장과 면담하고, 그 위에 귀중한 북한에서 착실하게 진행되는 ‘시장경제화’의 실태를 최근의 경제지에 보고·고찰하고 있는 오오니시 히로시 교수는 이전의 별고에서 ‘북한에 대해서 거의 결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일본이나 미국의 ‘경제조치’는 현재의 지원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점. 경제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는 현재 결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라고 논하고 있다.⁶

이 두 사람의 견해는 자민당의 시산 효과와는 대조적이며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다. 오늘날(2005년 현재), 한국과의 반출입을 포함한 통계를 보면

5 三村光弘(2006). 본문 중의 동그라미 숫자는 필자가 첨가하였다. 미무라 씨는 그 외에 송금 제한과 제재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논점을 정리하고 있다.

6 大西広(2003: 157). 동 논문·동 서적에 관해서는 『경제 과학 통신』 제103호 2003년 12월에 필자의 서평이 게재되어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 전체에 접하는 대일 무역의 점유량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대일 순수출(무역흑자)은 6,861만 달러고 시산효과에서 적용한 7,900만 달러에서 더욱이 1,000만 달러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가령 이 시산 효과 측정방법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또 같은 측정방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GDP 감소효과는 아주 작은 것이다.

3. 맺음말

이제까지 근년의 북한 대외경제관계와 북일 무역에 대해서 KOTRA의 제 문헌·자료 등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면서 분석해 왔다. 여기서 그 특징을 재정리해 보면, 먼저 2000년 이후 북한의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 사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 무역 증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 국민경제에 있어서 대외무역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져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대외무역의 확대는 대중 무역의 확대에 거의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인 정현준에 의하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보도되고 있는 대로 20억 달러 이상이라면 남북경제 교류협력은 악화할지도 모른다. 이미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경제성이 높은 광물 채굴권은 이미 중국이 거의 취득하였다고 하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이것에 의해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조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후진타오 주석 방문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는 더욱 더 강화되고 이것은 결국 남한의 대북 지원기회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초래한다. 우리로서는 하루 빨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협의하고 '경제통일'을 달성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통일연구원 웹 기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선택'). 북한

경제 대중 의존의 급속한 심화에 대해서 남북의 국민경제 형성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셋째, 북한의 수출확대를 상품별 동향에서 보면, 점점 1차 상품 특히 수산물·어패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다. 어획량은 기후 등의 자연 조건에 크게 제약되므로 양식 산업의 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듯하지만 원래 부가가치가 낮고 또 산업관련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국민 경제로의 파급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다. 이 점에서 공업제품의 수출 확대가 바람직하지만 섬유제품이나 전기·전자 제품은 오히려 정체 내지 약간 감소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는 국내 경제·생산력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넷째, 북일 무역의 전반적 감소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자민당의 일부 북한 강경파는 이른바 납치문제와 연결해서 제1탄 이전에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발동을 주장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전에 관세수속, 선박 입항에 있어서 사실상의 제재조치가 실시되었으며, 그 영향이 양국 간의 무역 동향에 단적으로 나타나있다. 상술의 고마키 교수가 주장하고 있듯이 북한의 대일 무역(2004년 시점)은 대중 무역의 1년간 증가액보다도 적기 때문에 '가령 북일 거래가 제로가 되어도 북한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미 무라·오오니시 씨의 견해도 지적되어 있듯이 의미 없는 독자 경제제재 조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북한 대일수입 10대 품목의 2001-2005년 추이 변화 (2000년 기점)

상위품목	품목명(HS4단위)	2000년	2001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1위	자동차(승용차)	19913	11036	14731	5433	9673	6157
	〈8703〉						
2위	모직물	18544	16284	14336	7310	4511	1643
	〈5112〉						
3위	자동차(트럭류)	13570	13064	17186	17542	20317	1618
	〈8704〉						
4위	석유	9577	490	525	287	364	240
	〈2710〉						

5위	전자석 등 부품 <8505>	8376	4422	3718	2366	1715	873
6위	합성필라멘트 <5407>	6230	7063	6696	5568	4557	2345
7위	발전기류 <8502>	5077	2194	2374	1333	691	552
8위	전선케이블 <8544>	4273	3302	3319	1838	1981	1332
9위	대중교통버스 <8702>	3782	2929	2796	2831	2426	3848
10위	혼방모직물 <5111>	3403	2612	1389	980	336	272

출처) KOTRA(2006년 2월)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14쪽.

참고문헌

한국어

- 이영훈(2004) 「북한 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금융경제연구』 제 201호, 금융경제연구원.
- _____ (2006) 「북·중 무역의 현황 및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금융경제연구』 제 246호, 금융경제연구원.
- _____ (2006) 「최근의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KDI북한경제리뷰』 제8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 전현준(2005.11) 「북중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의 선택」, 통일연구원 웹기사.
- 조명철(2005)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KIEP세계경제』 7월호.
- 조명철·홍익표·정승호(2006)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 분석』.
- 통일부 「04년 북한의 대중·일 교역 동향」.
- 한국개발연구원(2005) 「2005년 북한경제 동향 종합평가」, 『KDI북한 경제 리뷰』 제7권 제 11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4년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결과」, 2005년 5월.
(<http://www.bok.or.kr>)
- 한국개발연구원(2006.3) 『KDI북한경제리뷰』 제8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2006.10) 『KDI북한경제리뷰』 제8권 제4호.
 KOTRA북한팀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 년도 (웹 판).
 KOTRA(2005.2.16) 「일본의 경제제재, 북한의 GDP최대 7% 감소를 유발」, 『북한경제속보』.
 _____(2006.2)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_____(2006.11.2) 「북한핵 실험 이후 일본에서의 북한 동향」, 『북한경제속보』.
 (<http://globalwindow.org>)

일본어

大西広(2003) 「北朝鮮経済と中韓の役割」, 『グローバルイノベーションから軍事的帝国主義へ』,
 大月書店.
 _____(2006.10.31) 「北朝鮮で着実に進む『市場経済化』を見た」, 『エコノミスト』.
 金森久雄(2008.8.9) 「日朝国交促進ならびに経済交流の活性化についてこの申し入れ」.
 (<http://www.4.ocn.ne.jp/~nbc/informationandtopic.html>)
 三菱総合研究所(2005.3.14) 「日朝関係の経済分析(1)」, 『MRI Daily Economic Comment』.
 _____(2005.3.14) 「日朝関係の経済分析(2)」, 『MRI Daily Economic Comment』.
 朴一(2005) 『朝鮮半島を視る眼』, 藤原書房.
 裴光雄(2000) 「北朝鮮経済の現状と対外経済関係」, 西口清勝・西澤信善(編) 『東アジア経
 済と日本』, ミネルヴァ書房.
 _____(2003) 「北東アジア地域経済の結節点・中国遼寧省丹東市の経済動向分析—現地調
 査に基づいて—」, 『公民論集』 第11号, 大阪教育大学公民学会.
 三村光弘(2006.7) 「日本単独による対北朝鮮経済制裁の効果と課題」, 『ERINA情報』, (財)
 環日本海経済研究所.
 文浩一(2002.12) 「北朝鮮経済 実利主義への転換」, 『世界』, 岩波書店.
 _____(2003.9) 「北朝鮮経済 改革から一年の評価」, 『世界』, 岩波書店.
 _____(2005.10) 「北朝鮮の経済をどうみるか」, 『世界』, 岩波書店.
 李燦雨(2002.8) 「日朝経済協力の方案」, ERINA 平成13年度自主研究報告書.
 (<http://www.erina.or.jp/Jp/Research/Jisyukenkyu/H13/k-13-1.pdf>)
 _____(2002.8)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経済関係の歴史と現状」, 『ERINA REPORT』
 Vol.47.
 _____(2004) 「北東アジアにおける北朝鮮の位相と日朝経済関係の展望」, 京都・まいづる
 立命館地域創造機構開設記念フォーラム, 「まいづるの未来を拓く」資料集, 2004年7
 月17日.
 ERINA(2005.3) 「第5部 北朝鮮」, 『北東アジア経済データ2005』.
 _____(2006.11) 『北東アジア動向分析』.

Sunshine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and Issue of Korean Identity

Sandip Kumar Mishra
University of Delhi

1. Introduction

According to an opinion poll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Defense Analysis in March 2006, North Korea was considered to be the third in rank, in reference to biggest security threat to South Korea in next ten years. Only 21 percent of respondents picked up North Korea, which had recently tested medium range missile, as the most important threat for the South Korean security in future.¹ The figures might look a bit strange in the context of protracted hostility between the two regime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half decades. Looking at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ests from the Cold War framework, which is not unusual, they undoubtedly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South Korean security. A nuclear North Korea, from the Cold War framework definitely

¹ For details see Koreans See China as Biggest Security Threat, Chosun Ilbo, March 20, 2006, available at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603/200603200019.html>.

poses a serious threat for South Korea as both the countries have been still, technically at war with other,² they have heavy mobilization of their forces along the 38th parallel Demilitarized Zone (DMZ) and South Korean capital city Seoul is less than fifty kilometers away from the DMZ. Notwithstanding all the above mentioned threatening factors South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do not seem to be overtly alarmed.

If any thing which has changed, in the recent decade, in the inter-Korea relations it is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 toward North Korea. There has been a marked shift in South Korean perception of North Korea which was, in past, based on the sustained contest for legitimacy, occasional threatening calls and continuous rhetoric. The contest of legiti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began just after the initiation of two contending regimes on the peninsula after the Japanese surrender in the Second World War. Both the regimes claimed that they are the tru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eople and came up with various not only rhetoric but adventurous attempt to unite the peninsula under their systems.

The issue of Korean identity which experience a turbulent perio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ism got again unfortunately rapture between North Korean communist and South Korean liberal capitalist ideologies. The issue of anti-colonialism which constituted the main theme of Korean nationalism during the colonial period suddenly took a shift to anti-communist in case of South Korea and anti-imperial in case of North Korea. The fractured Korean identity was a long saga of war, unlasting hatred to each other

2 The Armistice Treaty which was signed to halt the Korean War, more than a half decade ago, is only a truce treaty and the parties involved in the Korean War have still to work out a peace treaty which would formally end the Korean War.

reflected even in the text books of both the regimes and in spite of all these strong desire to reunification. With the course of time apparently the goal of reunification got so many times deceived that for all pragmatic individuals on the both sides of the border at most a far distance dream.

A vicious cycle of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regimes got concretized along the Cold War division of the world into two poles. Without going into details of reason for the fractured Korean identity, whether it was product of domestic contest which was internationalized or an international division which was being domesticated, it would be enough to assume that external as well as internal factors both were responsible for the product and there could be debate only of their proportionality.

2. Sunshine Policy and Korean Identity:

In the last phase of the Cold War and beginning of the melting down of the divide, South Korea embarked upon 'Nord Politik' to reach out to the communist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 kind of accommodation of the part of South Korea which was reflected in the new policy was definitely a shift in identity of being anti-communist. South Korea might be successful to establish relation with China and other communist countries but still th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remained abysmal. In fact, the policy was more than an identity shift for South Korea and was posited in an attempt to reach out to the next markets for the 'export-led' Korean economic growth. Moreover, rather than oriented towards identity contest with North Korean communist state, the South Korean policy was more oriented towards general trend i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time.

With change in the domestic debate about the nature of South Korean polity toward democratization, the demand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d been dormant, resurfaced and became an important issue of popular imagination. With German experience in hand, there were expectations and attempts in domestic political discourse to rethink about the inter-Korea relations afresh. However, it was neither easy to changed the discourse of the polity not there was enough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ruling political elite to think about a new Korean identity and work for that. Even if strong popular demand for rapprochement between Pyongyang and Seoul got more space in the political sphere, the attempt made by South Korean governments could not go beyond asking for reciprocity on the part of North Korea. Thus, though there was desire to come out the 'security dilemma'³ hardly there was enlightened approach or vision to transcend it from being a vicious cycle to take it to virtuous cycle. The demand of reciprocity although was positive step to move from politics of containment to politics of engagement. However, it missed the significant point of the Korean affairs and that is it has not been an inter-Korean affairs only from at least division of the Korea. Involvement of other players in the Korean affairs limits the possibility of strict reciprocity less plausible model for inter-Korean rapprochement. Basically even if there were sign of a potential shift of the identity of South Korea

3 A classic case of spiral security dilemma could be found on the peninsula when defensive security preparedness of one state could be considered by the other state as offensive posture which threatens its security and consequently the other state also gets prepared to counter it. See, Han (2005: 157-198).

For details about the arms capabil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post-Cold War era, see Suh (2004).

as anti-communist or North Korean regime, it was not being realized due to this misunderstanding about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sunshine policy was a brave attempt to cross the Rubicon of the 'security dilemma' continuing on the peninsula for almost half century. It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ttempt to approach North Korea in the sense the term reciprocity was defined in a more constructive way. In case of previous attempt to engagement North Korea on the basis of strict and mechanical reciprocity, the polity emphasized the need for a long-term and comprehensive reciprocity. It means the concessions w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 without asking for an immediate positive step vis-à-vis South Korea. The policy was posited in pragmatic realization, which was missing in the past attempts of the South Korea, that Korean problem is not only a bilateral problem. Involvement of other actors in the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ask for strict reciprocity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maintained through out his attempt to move forward to engage North Korea, that the fate of two Korean regimes on the peninsula has been intrins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It might look at present, that South Korean economic success and attempt to arrive at liberal capitalize state has become victoriou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collapse of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cross the globe, but ultimately success story of South Korea state building would not be complete without arriving at reasonable model to accommodate North Korea. Success stories about South Korean economy and collapse of network of North Korean alliance- formal and informal in the forms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would not have been able to establish peace and sense of security in the South Korea leave aside establishment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⁴ The most significant ingredient for a sense of security change in perception and level of trust between the two regimes of the Korean peninsula is *sin-quo-non* for th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ssumption of Sunshine policy of South Korea was based on the cognizance of Korean national identity, though as a fractured one, but have ultimate quest to realize congruence between state and nation. Even before coming to power, the main architect of the Sunshine Policy, Kim Dae-jung argued for an engagement approach toward North Korean counterpart. Apart from his tireless efforts for establishment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inter-Korean engagement was one of the main planks of his political career and people's mobilization. His political preferences represent the dormant but ever-present undivided Korean identity of a nation which has very few parallel. Korean community in the history has been probably one of the few communities, which has been highly homogeneous, being mono-lingual, mono-ethnic and having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Thus, the Sunshine Policy was definitely an attempt to rebuild a composite, comprehensive and national identity by transcending the narrow state identity. The Sunshine policy was a brave attempt to cross the Rubicon of the 'security dilemma' continuing on the peninsula for almost half century. It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ttempt to approach North

4 There were opinions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which was caused by withdrawal of support by China and Russia in the post-Cold War period and which resulted into deaths and miseries of large number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North Korean regime was going to collapse. For an example of popular prediction about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regime, see Eberstadt (1999).

Korea in the sense the term reciprocity was defined in a more constructive way. In case of previous attempt to engagement North Korea on the basis of strict and mechanical reciprocity, the polity emphasized the need for a long-term and comprehensive reciprocity. It means the concessions w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 without asking for an immediate positive step vis-à-vis South Korea. The policy was posited in pragmatic realization, which was missing in the past attempts of the South Korea, that Korean problem is not only a bilateral problem. Involvement of other actors in the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ask for strict reciprocity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maintained through out his attempt to move forward to engage North Korea, that the fate of two Korean regimes on the peninsula has been intrins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It might look at present, that South Korean economic success and attempt to arrive at liberal capitalize state has become victoriou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collapse of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cross the globe, but ultimately success story of South Korea state building would not be complete without arriving at reasonable model to accommodate North Korea. Success stories about South Korean economy and collapse of network of North Korean alliance- formal and informal in the forms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would not have been able to establish peace and sense of security in the South Korea leave aside establishment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ost significant ingredient for a sense of security change in perception and level of trust between the two regimes of the Korean peninsula is *sin-quo-non* for th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ssue of identity which was covertly and overtly dealt by the Sunshine Policy was supposed to bring a different set of ideas which would change the cognizance of 'ego' and 'alter' and which would be an important determinant in the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literature, role of identity and ideas have been well-probed out by the constructivists. The context of Sunshine policy although coincides with the change of the Cold War relations across the globe but domestic factors such as deepening of democracy and with that upsurge of national identity in place of divided state identity and idiosyncratic factor as coming in power of Kim Dae-jung were more instrumental for the opting this policy option. External post-Cold War security structure and fluidity only indirectly helped by not imposing restraint on South Korean decision makers to opt for this policy. In the Cold War days, it would have been next to impossible for South Korea to go for a unilateral concession vis-à-vis Pyongyang, without the US support. The origin of policy looks to be more posited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Korea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With growing popular participation, it became mandatory for successive South Korean governments to work for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entiment of reunification has been strong among the general masses of both sides despite deep hostility between the two regimes. Even during the heydays of enmity between the two regim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971 Kim Dae-jung got more than 43 percent of popular votes against Park Chung-hee. The most important two agenda items of Kim Dae-jung were democracy a better inter-Korea relations. After this narrow victory, Park Chung-hee realized that if he has to sustain his position for another

five to ten years, the popular demand of rapprochement must be exploited.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f 1972 was a product of this realization on the part of South Korea. Basically, it was a setback for the South Korean state identity construction attempted by regimes and victory of national undivided identity. The ideology and state building based on emphasis of separate South Korean state was deliberately inculcated by the ruling elites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state imposition and education which led the other model of identity dormant and less recognisable.

3. Evolution of the Sunshine Policy and Democratization:

With advent of democracy this ever present but dormant identity of being part of one Korean nationality had a chance to approach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without looking at the nature of regime and its adventurous policy. Successive regimes tried to engage North Korea by offering measures related to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un Doo Hwan (1981-1988), Roh Tae Woo (1988-1993) and Kim Young Sam (1993-1997) proposed for summit meet between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ir tenures.

The attempts did not succeed as North Korea wanted to establish a 'Democratic Confederate Republic of Korea (DCRK) which included withdrawal of American troops from the peninsula and also dissolution of South Korean alliance with the US. North Korea also asked for legalisation of communist activities in South Korea as prerequisite for any summit meet

between the two states, South Korea perceived that North Korean demands were basically 'Trojan Horse designed to communise the South' (Kim 2001: 242). President Roh Tae Woo's Nord Politik was also an attempt to reach at the communist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based on the changed international context of the Post-Cold War. He made a series of policy declarations to ease the tension on the peninsula and to resolve the long and thorny issue of reunification of two states in one nation he outlined the need to build a national community through national self determination and reconciliation. Noteworthy in this regard is his inaugural message, the 'Special Presidential Declaration f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Unification and Prosperity' of 7 July 1988 and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of 1989 (Kim 2002: 61). In all these initiatives, South Korea postulated a policy of 'integration of a national society first, unification later.' North Korea perceived these initiatives as an attempt to dilute the North Korean communist state structure and proposed to establish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Pyongyang's proposal, in essence, called for 'national unification first, integration of national society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later.' For this North Korea proposed its 'Comprehensive Peace Plan' in November 1988 and 'Five-point Tasks to Realiz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in May 1990. The differences in the priorities of Seoul and Pyongyang did not lead to any significant achievement at the reunification front except the reiter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led down by the Joint Communiqué of 1972. However,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rivalry between the superpowers,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hip was also visible in the beginning in the form of the Basic Agreement, Agreement regarding making the

peninsula free from the nuclear weapons and simultaneous entry of both the states of the peninsula in the United Nations. The issue of reunification was sidelined with the deepening of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me in subsequent years.

During Kim Young Sam era, another summit meet was agreed upon between Kim Il Sung and the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June 18, 1994 (Oberdorfer 1997). The unexpected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on July 8 aborted the summit meet which was scheduled to be held on July 25-27. However, all these attempt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were based on the presupposition that North Korea had been going through a serious crisis of legitimacy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worldwide, and moreover, North Korean economic and food crisis would lead to certain collapse of the regime in near future. For example, President Kim Young Sam referred openly to the 'probable collapse of North Korea' and need of South Korea's preparedness for an 'abrupt unification.'⁵ Thus various attempts of South Korea to engage North Korea was seen by Pyongyang with suspicion and any fruitful development on the unification issue could not have been possible in this context as most of the attempts, apparently though driven by the popular demand for rapprochement, as the commonsense demand for reciprocity or quid-pro-quo could not transcend or pierce a whole in the 'security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Kim Dae Jung, after being elected 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postulated his policy of Sunshine vis-à-vis Pyongyang to reduce the tension

⁵ See, President Kim Young Sam's speech on August 15, 1994, The Korea Times, August 16, 1994.

on the peninsula on April 4, 1998 during a speech delivered at the University of London and the policy was made official on April 12, 1999.⁶ The origin of the policy could be traced back at least to Kim Dae Jung's remarks at the inauguration of his office on February 25, 1998. He emphasised that the mutual hostility and threat of war had led to massive armament by both the regimes and had caused heavy burden on the state budgets of North and South Korea. It had led to less welfare but more warfare two states on the peninsula. Taking clue from the neo-functional school⁷ of international relations, Kim Dae Jung focused on coexistence, mutu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tates rather than directly approaching towards the goal of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Citing the example of one of the Aesop fables in which the victory of sun over wind in taking off one's cloths, he made it clear that South Korea would not attempt to induce the 'collapse of North' and showed its willingness to help Pyongyang by providing economic assistance for a fast recovery. The policy was based on two fundamental assumptions. First, North Korean regime was not going to collapse in any foreseeable future and second, rather than an insecure North Korea a relatively strong and secure North Korea would be easier to open itself for the outer world. Without addressing Pyongyang's threat perception and mentality of siege,

6 For the origin of the Sunshine Policy, see Ministry of Unification, 'Unification policy,' available at <http://www.unikorea.go.kr>.

7 Functionalist school says that cooperation in non-political areas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two different systems. Famous proponent of this school David Mitrany claims that when there is a functional cooperation between two political systems based on their mutual needs, it expands to other areas or spheres also.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unctionalist approach of integration, see David Mitrany (1948: 359).

there was no possibility of commencement of any fruitful dialogue with North Korea.

The Sunshine Policy was neither a simple concession nor appeasement to North Korea.⁸ It was based on a comprehensiv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aimed at peaceful coexistence of both the states of the peninsula in the short-term and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in the long-term. The concession and assistance provided under the Sunshine Policy were meant to bring North Korea down to a path toward peace, reform and openness through reconciliation, interaction and cooperation with South (Moon 1999: 38). The three fundamental premises of the policy which were outlined in the Kim's inaugural speech- non-tolerance of military threat or armed provocation by North Korea, abandonment of the idea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promotion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⁹ clearly indicated that the policy could not be called as an attempt of appeasement to North and it contained clear warning to North Korea against any adventurism. South Korea did not distance itself from the principle of military deterrence through defence build-up and its alliance with the US. However, it abandoned the rhetoric associated with them and made it secondary to diplomacy and other peaceful means to engage with North Korea.

President Kim Dae Jung, more than having the issue of unification in his mind had two immediate concerns, namely: to establish a peaceful

8 Ministry of Unificatio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Plans for Implementation,' April 12, 1999, available at <http://www.unikorea.go.kr>.

9 Office of the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1999), *Government of the People: Collected Speeches of President Kim Dae Jung*, Seoul, ROK Government, pp. 63-64.

coexistence and to ease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hae 2002: 3). Apart from deepening of democracy, South Korea also had clear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in economic conditions, with the South Korean trade volume totalling 169 times that of North Korea, the nominal gross national income (GNI) 16 times greater than its Northern counterpart, and 13 times higher in GNI per capita (Chae 2002: 4-5).

The rationale for the Sunshine Policy comes out of the failure of other options of overtly or covertly containing North Korea or working fo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South Korean economic and military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also made it possible for Kim Dae Jung government to go beyond mechanical or narrow concept of reciprocity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policy was an outcome from the point of strength of Seoul, in which the stronger partner provided generous concessions to weaker as a means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 (CBM). The Sunshine Policy might not have been able to achieve its goal of cooperative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has been able to forge a chord with Pyongyang and reduce tension on the peninsula.

The goal of reunification was implicitly divided in two stages- de facto and de jure by the Sunshine Policy. In the first stage the emphasis was put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tates of the peninsula which would lead to free flow of personnel, goods and services across the border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quasi-unification and which would culminate into function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policy assumes that de jur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is a long and complex process. Rather than coming out with the various proposals of reunification

a gradual approach would be more effective, which would induce North Korea to open and reform itself. By constructively engaging North Korea through assistance to the food, energy and economic crisis, the policy was aimed at changing the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North Korea in an incremental manner rather than directly approaching toward the change of government and regime. An attempt to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s on the peninsula was also made by the policy which was considered to be very significant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in future (Segal 1996). To execute the Sunshine Policy and its objectives, South Korea adopted a neo-functionalist approach which could be summarised as follows- i) easy tasks first, and difficult tasks later; ii) economy first, politics later; iii) non-governmental first, government later; iv) give first and take later.¹⁰

The Sunshine Policy has been a paradigmatic shift in the process of approaching the final goal of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he policy does not seek to achieve the goal of reunification by weakening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Rather it works for strengthening North Korean regime and gives ample time to prepare for a long-term goal of reunification. Though, it appears to be a passive policy which takes more than sufficient time to approach the goal, it is based on pragmatic understanding of the cost of reunification and emphasises the need of strengthening North Korean economy before reunification. The policy might not have shown expected results in changing North Korean approach toward the issue of unification but there could not be denial of

¹⁰ See Lim, 'North Korean Policy und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a speech delivered at a breakfast meeting of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March 11, 1999, p. 3.

the fact that it had led to gradual but sustained improvement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t had also made inter-Korean relations relatively autonomous from the US relations with North Korea or South Korea.

The Sunshine Policy has been able to break the vicious cycle of 'security dilemma' between Pyongyang and Seoul to a considerable extent. It might result into transformation in the nature of states which would become 'more welfare and less warfare' in futur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was not only an inter-Korean affair but it also got affected by the Cold War security alignment structures. The Sunshine Policy has been working to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 on the peninsula and thereby furthering the cause of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Moon 2001). Another pre-requisite before approaching the goal of reunification would b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and in this process the role of regional actors are also determining. By opting for the Sunshine Policy, South Korea has shown its eagerness for the total transformation in the peninsular politics however the issue of reunification is also linked with other variables and actors. A constructive response from these actors is also important in arriving at the goal of reunification. South Korea has taken a plunge in the form of Sunshine Policy to improve the situation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it has affected the behaviour of other actors too, but the final goal of reunification would have to wait till the time when other actors, especially North Korea, also become more accommodative to the South Korean initiative.

4. Implications for the Inter-Korea Relations:

The policy which was a product of a particular concep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has been successful to bring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inter-Korea relations after its initiation. It might not have been successful in transforming North Korean state behaviour as expected by few optimistic supporter of the policy, but it had definitely brought a subtle of significant change in the inter-Korea relations. Even in the wake of HEU crisis of 2002,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2006, Seoul has maintained its engagement policy. Finally in the format of the Six-Party talks, an agreement has been arrived upon to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the credit goes definitely to South Korean engagement policy which as been quite consistent during all the difficult phases. The consistency in South Korean policy could also be seen when there was dela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ebruary 13 Accord due to North Korean money transfer issue from the Banco Delta Asia (BDA). Even though South Korea suspended supply of Rice to North Korea because of the delay, it kept on engaging Pyongyang on various other platforms and maintained its constructive posture. It asked more time from Washington in which North Korea would fulfil its pledge of dismantlement and also able to have an inter-Korean historic train test-run.

Even if there is strong possibility of change of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coming of the next President from the main opposition party-the Grand National Party (GNP), still the change of South Korean perception of broadened self and North Korea would remain less affected. The main probable candidates of the GNP, Lee Myung-pak and Park

Kun-hye both have pledged to continue the engagement efforts vis-à-vis North Korea, though would ask for more responsible reciprocity from Pyongyang. Thus apparently they have been in agreement with the engagement policy but their engagement would demand for reciprocity on the part of North Korea. It's premature to speculate and claim that whether the change in the identity perception of South Korea would be reversible but definitely the change which has already taken place in the inter-Korea relations would put a strong pressure on new administration to sustain the policy. As even today, there are substantial numbers of people in South Korea who still think that engagement policy should not be discontinued despite North Korean dissatisfactory behaviour.

The problem of the Sunshine Policy in its contribution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s that though it has been able to change the South Korean perception of its own identity and North Korea, similar change in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has still been missing. Incessant inflexible attitude on the part of North Korean regime makes the South Korean efforts less successful. Even if there could be a change in general perception of North Korean people, it is hard to get any clear picture because of imposing political authority over the civil society of North Korea.

The Sunshine Policy has been tried to reach at the civil society level of North Korea through various steps such as by attempt of family reunion, working for inter-Korean transport link, Mt. Gungang Tourist Project an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Various rounds of family reunion and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workers sharing together pleasure and stress of work together a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ve been a new

beginning, which could change the North Korean perception about South Korean state and people. However, the affects of these efforts are not known and especially given the nature of political elites of the communist countries, it would not be easy to expect a fast apparent chang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Sunshine policy in transforming inter-Korean rel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identity has been an attempt to begin a new era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regimes in a nation which has been at loggerhead for more than half century. Any policy attempt to constructively build peace regime through change of perception necessarily needs longer time and this long-gestation period becomes a limitation especially when we deal with a communist state such as North Korea which does not allow civil society to access outside information without state approval and express its opinion. So, the Sunshine Policy has been more successful in changing South Korean perception and priorities but there are reasonable doubts that it has been able to change North Korean perception about Seoul as well.

5. Concluding Remarks:

In conclusion, the Sunshine Policy has been a turning point in the Inter-Korea relations, which has changed the basic dynamics of relations in a considerable manner. It was unique at least at for the two reasons. First, it was an attempt to break the 'vicious cycle' of security dilemma between the two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posited on the assumption that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should be approached in a patient, constructive and peaceful manner. Secondly, it was an attempt to bring a

change in the concept of 'self' and 'other' in the cogniz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Although, it has been successful to achieve its goal in changing South Korean perception of 'identity,' it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much success in change of North Korean perception in a significant manner. The limitation of Sunshine Policy could be understood by underlining the fact that inter-Korea relations has been and is not necessarily a bilateral relations. Other regional players and the US are intrinsic part of it from the very division of the Peninsula. South Korean comprehensive engagement in the form of the Sunshine Policy and so forth has not been complimented by similar attitude and policies by the US and limitation of engagement is considerably attributed to deadloc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small and subtle change in the South Korean perception of North Korea by differentiating regime from people is also not irreversible. Though there are strong likelihood that a renewed posture of America to engage Pyongyang and probability of coming of next President of the US from the Democrat, who have been relatively favorable to the engagement policy vis-à-vis North Korea, provide a optimistic picture for the engagement policy of South Korea, sustenance of changed perception of South Korean identity and inter-Korea relations.

References

Chae, Kyung-suk (2002) 'The Future of the Sunshine Policy: Strategies for Survival,' *East Asian Review* 14-4,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3-17.

- Eberstadt, Nicholas (1999) *The End of North Korea*,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 Han, Yong Sup (2005)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 Kim, Dong Won (2002) 'Inter-Korean Summit Meeting and Future Tasks,' *Korea Focus* 10-5 September/ October.
- Kim, Hakjoon (2001) 'Recent Transform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The North-South Summit Conference,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Subsequent Events, and Their Meaning,' in Chung-in Moon, et al. (ed.)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Mitrany, David (1948)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Affairs* 29, 359.
- Moon, Chung-in (1999) 'Understanding the DJ Doctrine: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in Chung-in Moon and David Steinberg (ed.) *Kim Dae Jung Government and the Sunshine Policy*,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Moon, Chung-in (2001) 'The Sunshine Policy and Ending the Cold War Structure: Assessing Impacts of the Korean Summit,' in Chung-in Moon, et al. (ed.)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79-317.
- Oberdorfer, Don (1997)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 Addison-Wesley.
- Segal, Leon (1996) *Disarming Strange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h, Jae Jung (2004) 'Assessing the Military Balance in Korea,' *Asian Perspective* 28-4, 63-88.
- Chosun Ilbo (March 20, 2006) 'Koreans See China as Biggest Security Threat,' available at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603/200603200019.html>
- Lim, Dong Won, 'North Korean Policy und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a speech delivered at a breakfast meeting of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March 11, 1999.
- Ministry of Unification, 'Unification Policy,' available at <http://www.unikorea.go.kr>.
- Ministry of Unificatio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Plans for Implementation,' April 12, 1999, available at <http://www.unikorea.go.kr>.
- Office of the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1999) *Government of the People:*

Collected Speeches of President Kim Dae Jung, Seoul: ROK Government, 63-64.
The Korea Times (August 16, 1994) 'President Kim Young Sam's speech on August 15, 1994'.

『국제고려학』 투고교정

1. 원고작성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언어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원고를 받는다.

3. 본문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4. 주석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과 출판년도, 쪽수를 밝혀, 홍길동(2007: 123-125)와 같이 표시한다. 내각주일 경우에는 (홍길동 2007: 123-125)로 한다.

5. 예문 및 인용문

예문이나 인용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띄운다. 예문이 하나 이상일 때에는 붙인다.

6. 참고문헌

논문 서지 표기는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1) 한국어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판자명,✓『서적명』, 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홍길동(2006) 「지식인의 역할」, 『국제고려학』 1, 국제고려학회, 100-111.

예) 홍길동(1997) 「육망과 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 2) 일본어, 중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서지 작성 원칙에 준한다.

- 3) 서양논문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in✓판자명 (ed.)✓서적명(이탈릭),✓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예)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 4)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논문 제목과 인터넷 주소, 검색일자를 병기한다. 인용부분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 주소는 html까지 그 페이지 주소창에 뜨는 부분을 모두 적어 준다.

예)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 2006.5.25)

7.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1) “ ” : 인용
- 2)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3) 『 』 : 서적명, 총서명, 원전, 단행본, 신문명, 음반 등
- 4) 「 」 : 논문명, 기사명, 글명, 작품명, 편명, 조명
- 5) · : 동일사항의 나열 예) 백두산·한라산·지리산

8. 기타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國際高麗學會「國際高麗學」編輯委員會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IC Center, 2-2 Funahashi-cho, Tennoji-Ku, Osaka.

543-0024, Japan

Email: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고려학회 임원

본부임원

회장	정 광(한국 고려대학교)
부회장	李先漢(중국 北京大學) 김정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이병혁(한국 서울시립대학교) 연재훈(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朴 一(일본 大阪市立大學) 김진우(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宋南先(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편집위원장	宋在穆(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사무총장	尹靖水(일본 梅花女子大學)
특별고문	태형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원장) 김정배(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상임고문	崔應九(중국 北京大學) 吳清達(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고문	강희웅(미국 University of Hawaii) Mikhail N. Park(러시아 Moscow대학) Hao Bin(중국 北京大學) 安炳浩(중국 北京大學) Helga Picht(독일 Humbolt대학) 김민수(한국 고려대학교) 瀧澤秀樹(일본 大阪商業大學) Edward J. Shultz(미국 University of Hawaii)

각지부임원

아시아분회	회장 李先漢(北京大學) 사무국장 崔順姬(北京言語大學)
일본지부	회장 朴 一(大阪市立大學) 사무국장 裴光雄(大阪教育大學)
서울지부	회장 이병혁(서울시립대학교) 사무국장 김귀옥(한성대학교)
평양지부	회장 김정영(사회과학원) 사무국장 이민우(사회과학원)
유럽지부	회장 연재훈(SOAS, University of London) 사무국장 Lucian Brown(SOAS, University of London)
북미지부	회장 김진우(University of Illinois) 사무국장 박찬웅(The Ohio State University)

국제고려학 제12호

발행일 2008년 12월 31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회장 정 광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발행처 國際高麗學會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TEL: +81-6-6768-8425 FAX: +81-6-6763-5080
Email: info@isks.org HP: http: www.isks.org
만든곳 도서출판 선인
TEL:+82-2-718-6252

ISSN 1347-7307

2008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